

[표지]

[제출문]

CONTENTS

제1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범위 및 프로세스	5
1) 연구 기간	5
2) 연구 범위	5

제2장 인구 및 정책 동향

제1절 인구구조 변화 동향	11
1) 인구감소의 배경 : 자연적·사회적 요인	11
2) 사회적 증감요인(수도권 집중, 지방소멸)	15
제2절 중앙정부 인구정책	24
1) 인구정책 추진 근거 법령	24
2) 중앙정부 인구정책 추진현황	26
제3절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정책	31
1) 인구정책 추진 근거 법령	31
2) 제2차 전라북도 인구정책 종합계획(2023-2027)	35
제4절 타 지자체 인구정책	42
1) 전라남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2022-2026)	42
2) 남원시 인구활력계획수립 연구	51
3) 남원시 2024년 공모사업 대응을 위한 생활인구 유입 방안 연구용역	53
4) 임실군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2022-2026)	56
제5절 국내외 인구정책 사례 분석	60
1) 국내 인구정책 우수사례	60
2) 해외 인구정책 우수사례	70
3) 국내외 사례의 군산시 적용 가능성	78

제3장 군산시 지역환경 분석

제1절 군산시 지역 여건 및 인구현황	85
1) 일반현황 및 도시 특성	85
2) 경제·산업	86
3) 교통	92
4) 생활 인프라	95
5) 읍면동별 지역 특성	103

제2절 군산시 관련 계획 및 정책	106
1) 군산시 인구정책	110
2) '25년 군산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사업 이행계획	127
3) 군산시 청년정책 기본계획(2024년~2028년)	131
4) 2025년 「군산시 외국인정책」 종합계획	137
제3절 군산시 인구현황 및 전망	142
1) 인구 및 세대 변화 추이	142
2) 인구구조	147
3) 인구감소 요인 분석	150
4) 읍·면·동별 인구 특성	159
5) 장래인구추계	177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187

제4장 인구 실태 및 정책수요

제1절 군산시민 인구정책 인식조사	193
1) 조사 배경 및 목적	193
2) 조사 설계 및 구성 문항	193
3) 인식조사 결과	197
제2절 군산시 공무원 인구정책 인식조사	234
1) 조사 배경 및 목적	234
2) 조사 설계 및 구성 문항	234
3) 인식조사 결과	236
제3절 군산시 인구정책 원탁토론회	259

제5장 군산시 인구정책 추진방향

제1절 군산시민 인구정책 비전체계	275
제2절 군산시 인구정책 사업	284
1) 분야별 사업 목록	284
2) 중점전략과제(Hub)	288
3) 연계집중과제(Spoke)	304
제3절 재원 투입계획 및 조달 방안	322

부 록

제1절 사업 관련 기타 의견	331
-----------------------	-----

제2절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설문지(군산시민)	380
1) 청년층(만18~39세)	380
2) 학부모(고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386
3) 중·장년(만 48세~63세)	391
제3절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설문지(공무원)	396
제4절 군산시 인구정책 원탁토론회 조별 의견	402



[표 목 차]

[표 2-1] 연령별 인구 구성비	12
[표 2-2] 수도권·비수도권 이동자 수 추이(2015-2024)	16
[표 2-3] 전국 1,000대 기업 지역별 매출액 및 전국 비중(2024년 기준)	18
[표 2-4] 인구감소지역	23
[표 2-5]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주요 내용	24
[표 2-6] 분야별 인구정책 주요공약	30
[표 2-7] 「전북특별자치도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31
[표 2-8]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조례」 주요 내용	32
[표 2-9] 「전북특별자치도 인구활력추진단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33
[표 2-1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 주요 내용	34
[표 2-11] 전략별 과제 및 사업	35
[표 2-12] 전략 1. ‘함께 양육하는 사회’ 추진과제 및 추진 목적	36
[표 2-13] 전략 2. ‘청년이 도약하는 사회’ 추진과제 및 추진 목적	37
[표 2-14] 전략 3. ‘중년과 노후가 활기찬 사회’ 추진과제 및 추진 목적	38
[표 2-15] 전략 4. ‘미래세대가 행복한 사회’ 추진과제 및 추진 목적	39
[표 2-16] 전략 5. ‘외국인 포용 사회’ 추진과제 및 추진 목적	39
[표 2-17] 전략 6. ‘생활인구와 상생하는 사회’ 추진과제 및 추진 목적	40
[표 2-18] 전라남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추진전략별 세부사업	44
[표 2-19] 남원시 정책분야별 세부 추진과제 전체 목록	54
[표 2-20] 임실군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2022-2026) 전략체계 및 실천과제	58
[표 2-21] 경북 의성군 ‘이웃사촌 시범마을사업’ 세부사업	62
[표 3-1] 군산시 산업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87
[표 3-2] 군산시 산업단지 위치 및 특성	88
[표 3-3] 군산 주요 산업단지 현황	89
[표 3-4] 군산시 지역내 총생산(GRDP)	89
[표 3-5] 군산시 고용지표	90
[표 3-6] 군산시 연령별 취업자수 및 고용률	91
[표 3-7] 군산시 도로 현황	93
[표 3-8] 군산시 교육기관 현황	95
[표 3-9] 군산시 공공도서관 현황	96
[표 3-10] 군산시 주택 현황 및 보급률	97
[표 3-11] 군산시 의료기관 및 의료인력(2022년 기준)	97
[표 3-12] 군산시 보건소 및 보건소 의료인력(2022년 기준)	98
[표 3-13] 시간여행마을	98

[표 3-14] 경암동 철길마을	99
[표 3-15] 고군산군도	99
[표 3-16] 말랭이마을	100
[표 3-17] 군산시간여행축제	100
[표 3-18] 군산새만금마라톤대회	101
[표 3-19] 군산공당보리축제	101
[표 3-20] 공원 현황 총괄	102
[표 3-21] 공원별 현황	102
[표 3-22] 군산시 읍·면별 지역 특성	103
[표 3-23] 군산시 동별 지역 특성	104
[표 2-24]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주요 내용	106
[표 3-25] 군산시 2020-2024 인구변화 추이	112
[표 3-26] 2021-2023 군산시 인구정책 시행계획	116
[표 3-27] 2024 군산시 인구정책 시행계획	119
[표 3-28] 2025 군산시 인구정책 시행계획	123
[표 3-29] 2025 군산시 아동친화도시 분야별 추진사업	129
[표 3-30] 군산시 청년정책 기본계획(2024년~2028년)	133
[표 3-31] 2025년 군산시 외국인정책 목표별 세부 추진과제	139
[표 3-32] 전북특별자치도 시·군별 인구증감률	146
[표 3-33] 연령계층별 인구비중(2025.06 기준)	147
[표 3-34] 2020년-2024년 군산시 연령별 인구 현황	148
[표 3-35] 군산시 연도별 고령인구 비율	149
[표 3-36] 군산시 연도별 자연증가율	150
[표 3-37] 군산시 연도별 합계출산율	151
[표 3-38] 군산시 연도별 조혼인율	152
[표 3-39] 군산시 연도별 인구가동 추이(2014-2024)	153
[표 3-40] 군산시 연령별 이동현황	155
[표 3-41] 군산시 사유별 이동현황	156
[표 3-42] 군산시 연도별 청년층 비중	157
[표 3-43] 군산시 연도별 청년층 이동 추이(2014-2024)	158
[표 3-44] 군산시 읍·면·동별 인구수 추이	160
[표 3-45] 군산시 읍·면·동 연령계층별 인구구조(2025.06)	162
[표 3-46] 군산시 읍·면·동별 유소년인구 변화	165
[표 3-47] 군산시 읍·면·동별 청년인구 변화	167
[표 3-48] 군산시 읍·면·동 생산연령인구 변화	169
[표 3-49] 군산시 읍·면·동 고령인구 변화	171
[표 3-50] 군산시 읍·면·동별 외국인 주민수 변화	173
[표 3-51] 지방소멸위험지수와 소멸위험 단계	174
[표 3-52] 군산시 읍·면·동별 지방소멸지수	176

[표 3-53] 전북특별자치도 시군별 총인구 추계(2015~2035)	177
[표 3-54] 모형식에 의한 인구추정 결과	178
[표 3-55] 인구지표	179
[표 3-56] 군산시 장래 총인구 전망	180
[표 3-57] 군산시 연령계층별 인구구조 전망	182
[표 3-58] 군산시 중위연령 및 노령화지수 전망	183
[표 3-59] 군산시 순이동자수 전망	184
[표 4-1] 군산시 인구정책 인식조사 대상자	193
[표 4-2] 군산시 인구정책 설문 내용	194
[표 4-3] 군산시민(청년) 응답자 일반사항	197
[표 4-4] 군산시 전입 및 전출 응답 사항(청년)	199
[표 4-5] 군산시민(학부모) 응답자 일반사항	210
[표 4-6] 군산시 전입 및 전출 응답 사항(학부모)	212
[표 4-7] 군산시민(중·장년) 응답자 일반사항	221
[표 4-8] 군산시 전입 및 전출 응답 사항(중·장년)	223
[표 4-9] 군산시 공무원 인식조사 설계	234
[표 4-10] 군산시 인구정책 인식조사 세부 내용	235
[표 4-11] 인구정책 시민토론회 제안내용	264
[표 4-12] 군산시 S.W.O.T 분석	272
[표 5-1] 군산시 인구정책 분야별 사업 목록	284
[표 5-2] 중점전략과제 중장기로드맵	285
[표 5-3] 군산시 인구정책 분야별 핵심사업 목록	286
[표 5-4] 연계집중과제 중장기로드맵	287
[표 5-5] 전략별 재정투입계획	322
[표 5-6] 군산시 중기재정계획	324
[표 5-7] 군산시 2025년 회계별 예산 규모	324
[표 5-8] 군산시 분야별 세출현황(일반회계)	325
[표 5-9] 군산시 인구정책 예산 투입계획과 중기재정계획 예산 비교	326
[표 5-10] 국고보조 사업	327
[표 5-11] 전북특별자치도 사업	328
[부록 표-1] 군산시 인구정책 분야별 사업 목록	332
[부록 표-2] 인구정책 성과평가 지표 체계(안)	371

CONTENTS

[그림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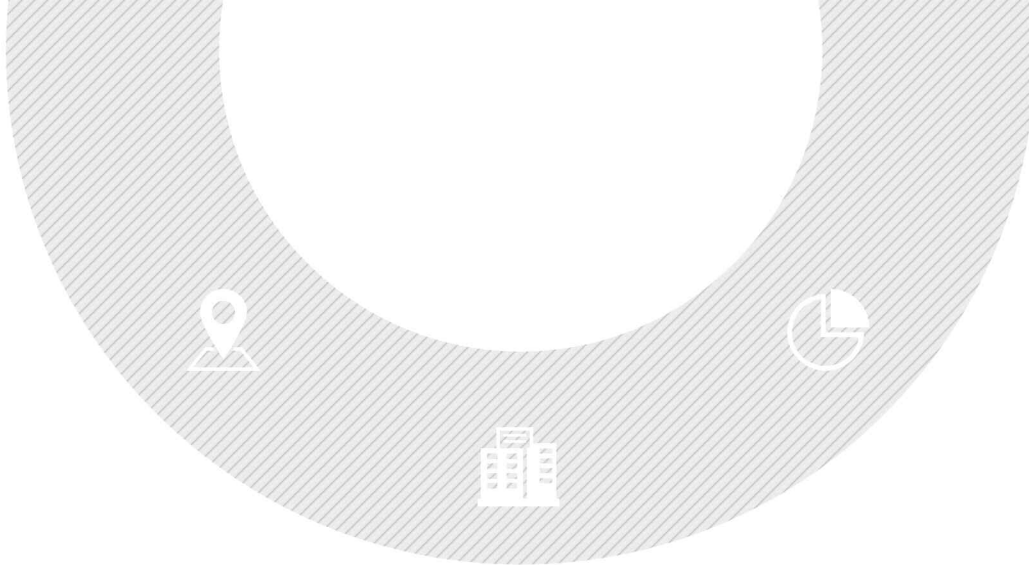
[그림 1-1] 연구의 목적	4
[그림 1-2] 연구의 수행 절차 및 방법	7
[그림 1-3] 연구의 흐름도	8
[그림 2-1]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11
[그림 2-2] KOSIS 주요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1960-2072)	13
[그림 2-3] KOSIS 중위연령 및 평균연령	13
[그림 2-4] 총 부양비·유소년 부양비·노년 부양비	14
[그림 2-5]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추이 및 전망(1970-2070)	15
[그림 2-6] 수도권 전입·전출자 수 추이(2014-2024)	16
[그림 2-7] 지역별 사업체 종사자 수	17
[그림 2-8] 지역별 연구개발비	19
[그림 2-9] 2024년 광역별 청년 순이동률	20
[그림 2-10] 수도권·비수도권 청년고용률(평균)	21
[그림 2-11] 인구감소지역(지도)	22
[그림 2-12] 제4차 기본계획 정책체계도	27
[그림 2-13] 전라남도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2022-2026) 비전 및 추진전략	43
[그림 2-14] 남원시 인구활력계획 수립 목표	51
[그림 2-15] 2022-2026 남원시 인구활력계획 비전 체계도	52
[그림 2-16] 남원시 생활인구 유입방안 체계도	53
[그림 2-17] 임실군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2022-2026 비전 및 전략	57
[그림 2-18] 경북 의성군 이웃사촌 시범마을사업 개념도	60
[그림 2-19] 예산시장 내 청년창업공간 ‘오픈스페이스’	68
[그림 3-1] 전라북도 청년고용률	92
[그림 3-2] 군산시 민선 8기 후반기 비전체계	107
[그림 3-3] 군산시 민선 8기 후반기 시정전략	108
[그림 3-4] 군산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사업 이행계획 목표 및 전략	128
[그림 3-5]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정책	132
[그림 3-6] 2025년 군산시 외국인정책 종합계획 비전 및 목표	138
[그림 3-7] 군산시 연도별 인구수	142
[그림 3-8] 군산시 연도별 세대수	143
[그림 3-9] 군산시 연도별 평균 세대원수	144
[그림 3-10] 2020년-2024년 군산시 연령별 인구 현황	148
[그림 3-11] 군산시 읍면동 연령계층별 인구구조(2025.06)	163
[그림 3-12] 군산시 총인구수 전망	181
[그림 3-13] 군산시 연령계층별 비중 전망	182

[그림 3-14] 읍면동별 인구 규모	187
[그림 3-15] 청년비중(%) / 노인비중(%) 인구 규모	189
[그림 4-1] 군산시민 인구정책 인식조사	195
[그림 4-2] 향후 5년 동안 군산시 인구 증가 가능성(청년)	198
[그림 4-3] 군산시 인구 증가 희망 점수(청년)	198
[그림 4-4] 향후 5년 동안 군산시의 삶의 질 예상 점수(청년)	198
[그림 4-5] 이전 거주지에 대한 만족도 점수(청년)	199
[그림 4-6] 군산시 거주 만족도 점수(청년)	199
[그림 4-7] 군산시 공공기관 만족도 점수(청년)	200
[그림 4-8] 군산시 의료기관 만족도 점수(청년)	200
[그림 4-9] 군산시 소비시설 만족도 점수(청년)	200
[그림 4-10] 군산시 문화시설 만족도 점수(청년)	201
[그림 4-11] 군산시 근린편의시설 만족도 점수(청년)	201
[그림 4-12] 군산시 기타시설 만족도 점수(청년)	201
[그림 4-13] 군산시 안전환경 만족도 점수(청년)	202
[그림 4-14] 군산시 자연환경 만족도 점수(청년)	202
[그림 4-15] 군산시 교통환경 만족도 점수(청년)	202
[그림 4-16] 군산시 보육환경 만족도 점수(청년)	203
[그림 4-17] 군산시 교육환경 만족도 점수(청년)	203
[그림 4-18] 군산시 주거환경 만족도 점수(청년)	203
[그림 4-19] 군산시 근로환경 만족도 점수(청년)	204
[그림 4-20] 군산시 인구 유입을 위해 개선되어야 하는 정주여건(청년)	204
[그림 4-21] 군산시 종합적 여건 만족도 점수(청년)	205
[그림 4-22] 현재 가장 큰 걱정거리(청년)	205
[그림 4-23] 취업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분(청년)	206
[그림 4-24] 군산시에서 취업이 힘들거나 타지역으로 일자리를 알아보는 이유(청년)	206
[그림 4-25] 희망하는 창업 업종(청년)	207
[그림 4-26] 청년층에게 가장 필요한 주거정책(청년)	207
[그림 4-27] 결혼에 대한 생각(청년)	208
[그림 4-28] 결혼을 하는데 있어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청년)	208
[그림 4-29]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청년)	208
[그림 4-30]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이유(청년)	209
[그림 4-31] 임신과 출산을 위해 중요한 부분(청년)	209
[그림 4-32] 향후 5년 동안 군산시 인구 증가 가능성(학부모)	211
[그림 4-33] 군산시 인구 증가 희망 점수(학부모)	211
[그림 4-34] 향후 5년 동안 군산시의 삶의 질 예상 점수(학부모)	211
[그림 4-35] 이전 거주지에 대한 만족도 점수(학부모)	212
[그림 4-36] 군산시 거주 만족도 점수(학부모)	212
[그림 4-37] 군산시 공공기관 만족도 점수(학부모)	213

[그림 4-38] 군산시 의료기관 만족도 점수(학부모)	213
[그림 4-39] 군산시 소비시설 만족도 점수(학부모)	213
[그림 4-40] 군산시 문화시설 만족도 점수(학부모)	214
[그림 4-41] 군산시 근린편의시설 만족도 점수(학부모)	214
[그림 4-42] 군산시 기타시설 만족도 점수(학부모)	214
[그림 4-43] 군산시 안전환경 만족도 점수(학부모)	215
[그림 4-44] 군산시 자연환경 만족도 점수(학부모)	215
[그림 4-45] 군산시 교통환경 만족도 점수(학부모)	215
[그림 4-46] 군산시 보육환경 만족도 점수(학부모)	216
[그림 4-47] 군산시 교육환경 만족도 점수(학부모)	216
[그림 4-48] 군산시 주거환경 만족도 점수(학부모)	216
[그림 4-49] 군산시 근로환경 만족도 점수(학부모)	217
[그림 4-50] 군산시 인구 유입을 위해 개선되어야 하는 정주여건(학부모)	217
[그림 4-51] 자녀 양육에 대한 군산시 만족도 점수(학부모)	218
[그림 4-52] 자녀 양육시 힘든 점(학부모)	218
[그림 4-53] 미취학 자녀 양육을 위한 필요 서비스(학부모)	219
[그림 4-54] 타지역으로 이주 의향 시기(학부모)	219
[그림 4-55] 자녀 문제로 인한 이주의 주요 이유(학부모)	220
[그림 4-56]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부분(학부모)	220
[그림 4-57] 향후 5년 동안 군산시 인구 증가 가능성(중·장년)	222
[그림 4-58] 군산시 인구 증가 희망 점수(중·장년)	222
[그림 4-59] 향후 5년 동안 군산시의 삶의 질 예상 점수(중·장년)	222
[그림 4-60] 이전 거주지에 대한 만족도 점수(중·장년)	223
[그림 4-61] 군산시 거주 만족도 점수(중·장년)	223
[그림 4-62] 군산시 공공기관 만족도 점수(중·장년)	224
[그림 4-63] 군산시 의료기관 만족도 점수(중·장년)	224
[그림 4-64] 군산시 소비시설 만족도 점수(중·장년)	224
[그림 4-65] 군산시 문화시설 만족도 점수(중·장년)	225
[그림 4-66] 군산시 근린편의시설 만족도 점수(중·장년)	225
[그림 4-67] 군산시 기타시설 만족도 점수(중·장년)	225
[그림 4-68] 군산시 안전환경 만족도 점수(중·장년)	226
[그림 4-69] 군산시 자연환경 만족도 점수(중·장년)	226
[그림 4-70] 군산시 교통환경 만족도 점수(중·장년)	226
[그림 4-71] 군산시 보육환경 만족도 점수(중·장년)	227
[그림 4-72] 군산시 교육환경 만족도 점수(중·장년)	227
[그림 4-73] 군산시 주거환경 만족도 점수(중·장년)	227
[그림 4-74] 군산시 근로환경 만족도 점수(중·장년)	228
[그림 4-75] 군산시 인구 유입을 위해 개선되어야 하는 정주여건(중·장년)	228
[그림 4-76] 현재 생활에 있어 가장 큰 걱정거리(중·장년)	229

[그림 4-77] 은퇴 이후 삶에 대한 준비(중·장년)	229
[그림 4-78] 은퇴 이후를 위해 하고 있는 준비(중·장년)	230
[그림 4-79] 은퇴 이후 정착지로 군산시에 대한 생각(중·장년)	230
[그림 4-80] 중·장년층 및 은퇴자를 위한 군산시 정책(중·장년)	231
[그림 4-81] 은퇴 이후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선호하는 산업 분야(중·장년)	231
[그림 4-82] 군산시에서 중·장년층 대상 평생교육을 진행할 경우 희망하는 교육(중·장년)	232
[그림 4-83] 결혼·임신·출산 관련 정책 중요도(공무원)	236
[그림 4-84] 보육·돌봄·교육 관련 정책 중요도(공무원)	236
[그림 4-85] 청년 관련 정책 중요도(공무원)	237
[그림 4-86] 중·장년 관련 정책 중요도(공무원)	237
[그림 4-87] 노년 관련 정책 중요도(공무원)	237
[그림 4-88] 결혼 지원(작은 결혼식 등) 관련 정책 중요도(공무원)	238
[그림 4-89] 임대주택 지원 관련 정책 중요도(공무원)	238
[그림 4-90] 주택 마련 지원 관련 정책 중요도(공무원)	238
[그림 4-91] 출산 지원금(기금조성 및 지원) 관련 정책 중요도(공무원)	239
[그림 4-92] 신혼부부 전입장려(지원금 지원 등) 관련 정책 중요도(공무원)	239
[그림 4-93] 육아용품 지원 관련 정책 중요도(공무원)	239
[그림 4-94] 건강검진·난임 지원[신혼(예비)부부] 관련 정책 중요도(공무원)	240
[그림 4-95]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관련 정책 중요도(공무원)	240
[그림 4-96] 산후조리 지원 관련 정책 중요도(공무원)	240
[그림 4-97] 경력단절 예방 관련 정책 중요도(공무원)	241
[그림 4-98] 긴급돌봄 강화 관련 정책 중요도(공무원)	241
[그림 4-99] 공공 돌봄시설 확대(지역아동센터 등) 관련 정책 중요도 (공무원)	242
[그림 4-100] 육아 공동체(마을 공동육아 등) 관련 정책 중요도 (공무원)	242
[그림 4-101] 저소득층 지원 관련 정책 중요도 (공무원)	242
[그림 4-102] 다자녀 가구 지원 관련 정책 중요도 (공무원)	243
[그림 4-103] 아동 수당 지원 관련 정책 중요도 (공무원)	243
[그림 4-104] 맞벌이 부부 지원 관련 정책 중요도 (공무원)	243
[그림 4-105] 어린이 놀이시설 확충(실내, 실외) 관련 정책 중요도 (공무원)	244
[그림 4-106] 아동·청소년 건강지원 관련 정책 중요도 (공무원)	244
[그림 4-107] 공교육 지원강화 관련 정책 중요도 (공무원)	244
[그림 4-108] 지역인재 육성 관련 정책 중요도 (공무원)	245
[그림 4-109]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정책 중요도 (공무원)	245
[그림 4-110]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관련 정책 중요도 (공무원)	246
[그림 4-111] 청년 일자리 확대 관련 정책 중요도 (공무원)	246
[그림 4-112] 청년 취업 교육 강화 관련 정책 중요도 (공무원)	246
[그림 4-113] 주거 지원(주택자금, 임대주택 등) 관련 정책 중요도 (공무원)	247
[그림 4-114] 청년 수당 관련 정책 중요도 (공무원)	247
[그림 4-115] 청년 활동가 육성 관련 정책 중요도 (공무원)	247

[그림 4-116] 문화·예술 분야 지원 관련 정책 중요도 (공무원)	248
[그림 4-117] 청년 창업 지원 관련 정책 중요도 (공무원)	248
[그림 4-118] 맞춤형 교육 서비스 관련 정책 중요도 (공무원)	248
[그림 4-119] 취미·여가 인프라 구축(자기개발 지원) 관련 정책 중요도 (공무원)	249
[그림 4-120] 근무 여건 개선(직장 문화 등) 관련 정책 중요도 (공무원)	249
[그림 4-121] 귀농·귀촌 지원 관련 정책 중요도 (공무원)	249
[그림 4-122] 신중년 지원센터(교육, 일자리 지원) 관련 정책 중요도 (공무원)	250
[그림 4-123] 사회적 경제 연계 관련 정책 중요도 (공무원)	250
[그림 4-124] 창업 지원 관련 정책 중요도 (공무원)	251
[그림 4-125] 중·장년 여가활동 인프라 관련 정책 중요도 (공무원)	251
[그림 4-126] 사회 공헌 활동 지원(재능기부, 봉사활동 등) 관련 정책 중요도 (공무원)	251
[그림 4-127] 평생교육 운영 관련 정책 중요도 (공무원)	252
[그림 4-128] 귀농·귀촌 지원 관련 정책 중요도 (공무원)	252
[그림 4-129] 은퇴자 네트워크 지원(커뮤니티) 관련 정책 중요도 (공무원)	252
[그림 4-130] 건강 관리 지원 관련 정책 중요도 (공무원)	253
[그림 4-131] 공공일자리 확대 관련 정책 중요도 (공무원)	253
[그림 4-132] 평생교육 운영 관련 정책 중요도 (공무원)	254
[그림 4-133] 여가·취미활동 지원 관련 정책 중요도 (공무원)	254
[그림 4-134] 저소득층 지원 관련 정책 중요도 (공무원)	254
[그림 4-135] 노인시설 확대(경로당, 센터 등) 정책 중요도 (공무원)	255
[그림 4-136] 인구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관련 정책 중요도 (공무원)	255
[그림 4-137] 정주 여건 개선(의료, 문화, 편의, 교통 등) 관련 정책 중요도 (공무원)	256
[그림 4-138] 생활인구 확대 관련 정책 중요도 (공무원)	256
[그림 4-139] 이민자 지원 관련 정책 중요도 (공무원)	256
[그림 4-140] 다문화 가정 지원 관련 정책 중요도 (공무원)	257
[그림 4-141] 다양한 가족제도 인정 관련 정책 중요도 (공무원)	257
[그림 4-142] 군산시민 인구정책 원탁토론회	260
[그림 4-143] 인구 인식개선 공동체 운동 시민 캠페인	265
[그림 4-144] 군산시 인구정책 추진방향 및 개선방향	266
[그림 4-145] 군산시 인구정책 과제 방향	268
[그림 5-1]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283



CHAPTER

01

연구 개요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프로세스

제1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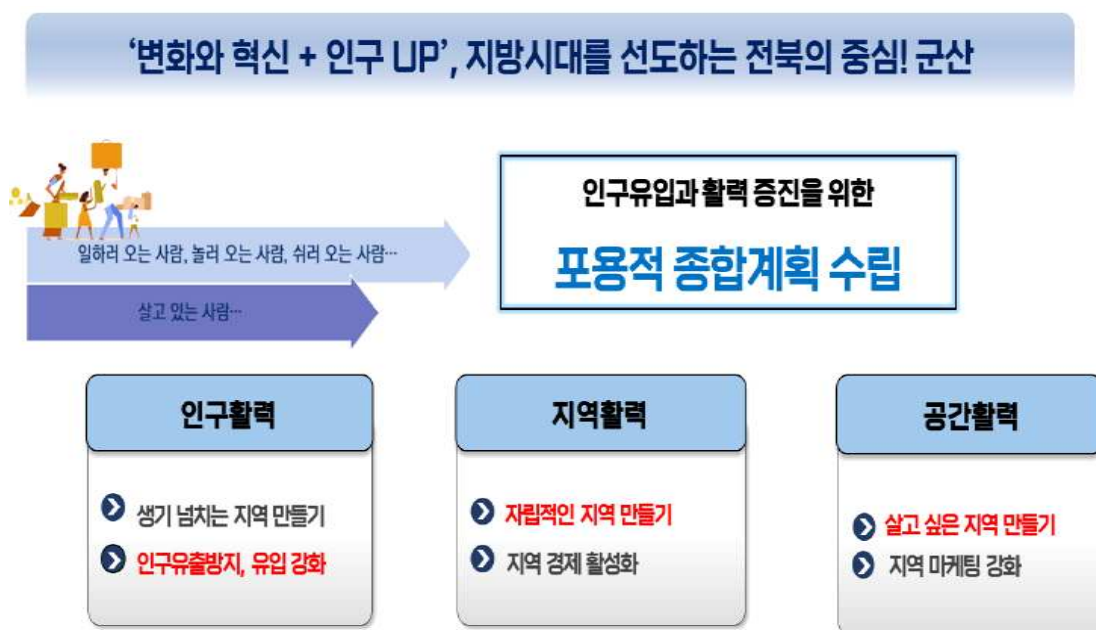
■ 연구 배경

-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해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매년 인구가 증가하였으나, 2015년 이후 저출산 기조가 악화되며 초저출산으로 인해 2020년부터 자연감소 단계에 진입함
- 특히 2020년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추월하는 인구 데드크로스 발생 및 전체 인구의 과반수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인구 유출이 심각함
- 지속적인 출생아수 감소 및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에 따른 급격한 인구고령화는 사회 전체에 매우 큰 파장 전망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정부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기재부 제2기 인구정책 TF 운영 등 인구변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음
- 군산시 인구는 2015년 278,398명에서 2024년 258,047명으로 약 2만 명이 감소하였으며 인구감소에 따른 인구구조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음
- 군산시 인구구조변화의 양극화 추세에 직면하면서 이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에 종합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인구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매우 중요한 시점에 있음
- 인구의 감소는 향후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로 이어져 경제성장 둔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비경제활동인구 증가로 인해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되어 사회활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음
- 특히, 직업 및 주택·교육 등으로 인한 청년층 유출은 출산잠재력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출생아 수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결국 인구의 자연감소를 심화시킬 수 있음

- 따라서, 중앙정부 및 전북특별자치도 인구 관련 계획 연계 및 군산시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능동적 인구 감소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함
- 인구문제의 종합적인 대응을 위한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군산시 인구 관련 각종 정책 및 사업의 추동력 확보 필요

■ 연구 목적

-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인구정책 동향 및 전망, 군산시 인구현황 및 인구정책 분석, 인구정책 우수사례 분석 등을 통해 군산시 인구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군산형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 및 인구변동 대응전략,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중장기 인구정책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부계획 연계 및 시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어떻게 지역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사업을 발굴하고 실행방안을 제시함
- 본 연구는 군산시 인구정책의 비전, 목표, 전략수립을 통해 각 영역에 대한 연차별 사업을 발굴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지역 특성에 부합한 맞춤형 인구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군산시 주도의 대응방안을 제시함
- 군산시만의 차별화 전략, 인구정책 환경 및 인식개선 전략, 유형별 맞춤형 전략, 제도 정비 전략 및 미래인구변화 대응전략 등 세부 추진전략을 연도별, 단계별로 구체화하여 제시함



[그림 1-1]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프로세스

1) 연구 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2) 연구 범위

■ 시간적 범위

- 2026년 ~ 2030년(기준연도, 2025년)

■ 공간적 범위

- 군산시 전역 및 인근 지자체(인접 시군, 생활권역 단위)

■ 내용적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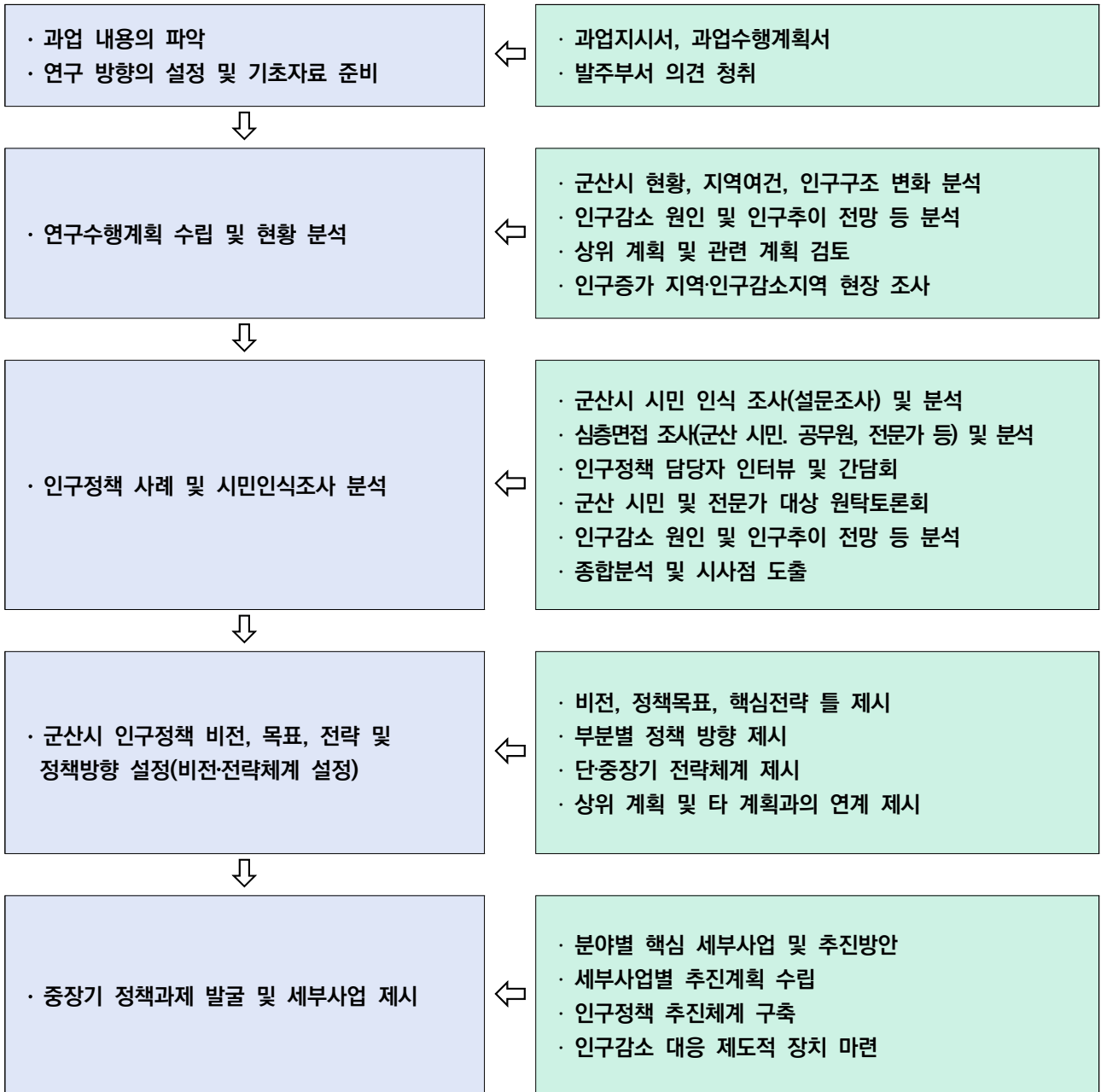
- 군산시 인구 현황 분석
 - 인구변동 추이, 지역·세대별 분포 등 군산시 인구 현황 및 구조 분석
 - 전국 및 유사 지자체 대비 군산시 인구구조 및 인구변화 특징 분석
 - 군산시의 지역 강·약점 등 여건 및 특성 분석
- 군산시 인구 감소 원인 및 실태 분석
 - 군산시 인구이동 특성, 인구구조 변화, 인구감소의 사회경제적 원인 분석
 - 군산시 출생, 사망, 인구이동경로, 지역별 인구감소 및 상승요인 등 패턴 분석
 - 인구이동(유출·유입 등) 결정요인 및 인구감소에 대한 원인을 자연적, 사회적, 구조적 요인 등 다각적 방면으로 분석
 - 군산시 청년 및 여성 인구의 유출 원인 및 심층분석 및 정책 제시

- 인구 관련 시민 대상 인식조사 분석(결혼관, 자녀관 등)
- 기존 정책 분석
 - 정부 부처별 인구정책의 방향성 및 한계요인 분석
 - 중앙정부, 전북특별자치도 및 14개 시군 인구정책 비교 분석(성과, 한계요인 등)
 - 추진 중인 인구정책의 성과 및 효과성 검토와 국내외 인구정책 동향 및 인구문제 해결방안, 우수사례 분석으로 시사점 도출
- 군산시 인구정책 중장기 비전 마련을 위한 지속 발전 가능한 정책 수립
 - 인구변화 추이 및 향후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新 정책 발굴
 - 인구구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 비전 및 추진방향 설정
 -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차년도별 세부 계획 수립
- 군산시 경제·산업·지역 여건에 맞는 자체 인구정책 수립
 - 군산시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추진계획 수립
 -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원 규모 및 조달방안 제시
 - 추진계획에 대한 평가 및 환류방안 마련
 -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조례 등 제도 개선 방안 및 협력적 거버넌스 제시와 민관의 참여 및 역할 분담 방안
-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제시
 - 지역별 인구 불균형 등 인구특성을 반영한 정책 및 발전방안 제시
 - 일자리, 주택, 저출생, 보육,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필요한 정책과 성별, 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생애주기별 정책 발굴
 - 정부, 전북특별자치도 공모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지역특화 정책과제 발굴
 - 새로운 인구유입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생활인구 확대 방안 제시
 - 증가하는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유도를 위한 정책 발굴
- 그밖에 필요 사항
 - 타 시 등의 비슷한 정책이 아닌, 군산시의 지역 강점을 반영한 정책 필수 제안(발굴)
 - 아이키우기 좋은 군산을 강화하는 정책 적극 제시(출산율 증대 방안, 육아보육 지원 방안(다자녀지원 포함), 아동돌봄과 성장 지원 방안(부모함께 프로그램, 놀이시설 확충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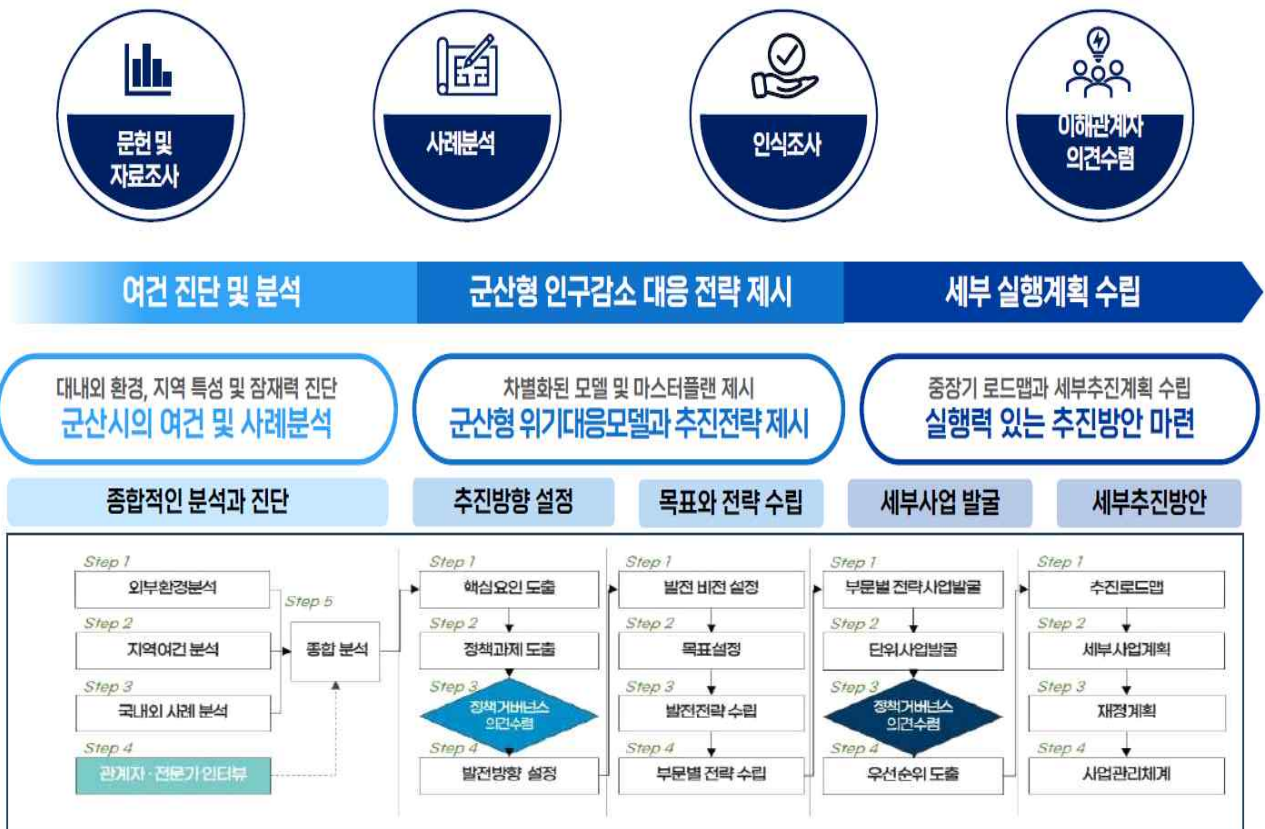
○ 배려·포용 시민문화 공동체운동 관련 맞춤형 시책사업 제안

- 타 사례분석을 통한 공동체 운동 활성화 방안 제시(저출산 등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인식 개선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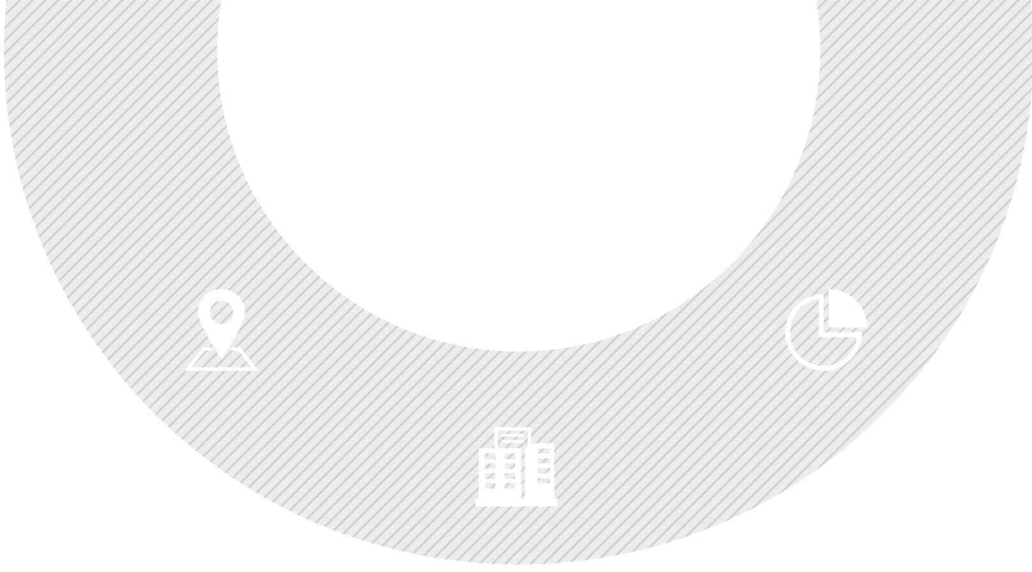
■ 연구의 수행 절차 및 방법



[그림 1-2] 연구의 수행 절차 및 방법



[그림 1-3] 연구의 흐름도



CHAPTER

02

인구 및 정책 동향

- 제1절 인구구조 변화 동향
- 제2절 중앙정부 인구정책
- 제3절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정책
- 제4절 타 지자체 인구정책
- 제5절 국내외 인구정책 사례 분석

제2장

인구 및 정책 동향

제1절 인구구조 변화 동향

1) 인구감소의 배경 : 자연적·사회적 요인

■ 자연적 증감요인(저출산, 고령화)

○ 초저출산 현상 심화

- 1970년대 이후 출생아 수와 출산율의 감소세 지속, 초저출산은 2018년 이후 본격화
 - 1970년 101만 명이던 출생아 수는 2024년 28만 명으로 감소하였으며, 합계출산율도 같은 기간 동안 4.53명에서 0.75명으로 하락
 - 2000년대 이후 합계출산율은 1.0명대 초반 수준에 머물렀으며, 2018년부터 1.0명 이하의 초저출산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 * 출산율 하락은 경제·사회적 요인 등 복합적으로 작용
 - * 결혼 및 출산 기피, 양육·비용 부담, 경력단절 우려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그림 2-1]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자료 :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2025

○ 고령화 심화

- 연령별 인구 구성비 변화를 보면, 유소년인구인 0세부터 14세까지의 비중은 2016년 13.4%에서 2025년 10.2%까지 지속적으로 감소
 - 생산연령인구인 15세부터 64세까지의 비중 또한 2016년 73.4%에서 2025년 69.5%로 점진적인 감소 추세를 보임
 - 반면, 고령인구인 65세 이상은 2016년 13.2%에서 2025년 20.3%로 큰 폭으로 증가하여 고령화가 빠르게 심화되고 있음
 - 이러한 변화는 전체 인구 중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가능성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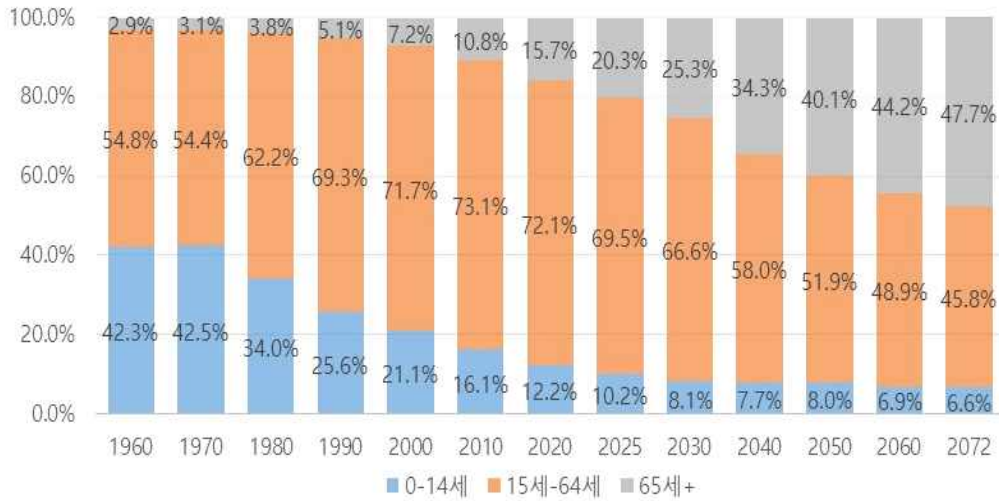
[표 2-1] 연령별 인구 구성비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유소년인구 (0~14세)	13.4%	13.1%	12.8%	12.5%	12.2%	11.9%	11.5%	11.0%	10.6%	10.2%
생산연령인구 (15~64세)	73.4%	73.2%	72.9%	72.7%	72.1%	71.6%	71.1%	70.7%	70.2%	69.5%
고령인구 (65세 이상)	13.2%	13.8%	14.3%	14.9%	15.7%	16.6%	17.4%	18.2%	19.2%	20.3%

자료 :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 2025

○ 장래인구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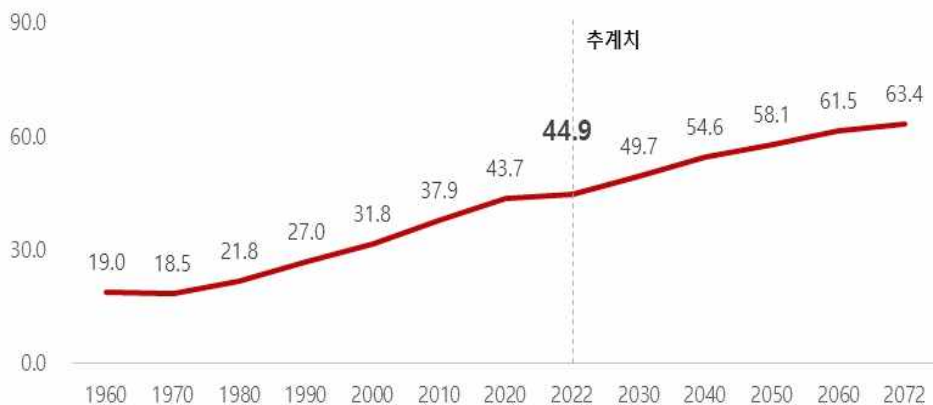
- 장래 인구구조는 고령인구의 급증과 유소년 및 생산연령인구의 지속적 감소가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
 - 유소년인구(0세부터 14세까지)는 2020년 12.2%에서 2072년 6.6%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생산연령인구(15세부터 64세까지)는 2020년 72.1%에서 2072년 45.8%로 축소될 것으로 보임
 - 고령인구(65세 이상)는 2020년 15.7%에서 2072년 47.7%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계됨
- * 전체 인구 중 고령층 비중이 가장 높아지는 구조로 변화하면서,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의 전환을 넘어 고령 인구가 절대다수가 되는 인구구조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 이에 따라 향후 생산가능인구의 급감, 부양 부담 증가, 사회복지 재정 압박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함



[그림 2-2] KOSIS 주요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1960-2072)

자료 :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 2025

- 우리나라 중위연령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고령화의 구조적 심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임
 - 중위연령은 1960년 19.0세에서 2022년 44.9세로 두 배 이상 증가함
 - 2022년 이후에도 상승세는 계속되어 2030년 49.7세, 2040년 54.6세, 2072년에는 63.4세에 이를 것으로 추계됨
- * 중위연령 60세 돌파는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고령층 또는 고령 진입 직전 세대임을 의미하며, 사회 전반의 구조적 고령화가 본격화됨을 시사함
- * 중위연령의 상승은 노동시장, 교육·복지 정책, 산업 구조 전반에 장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 대비가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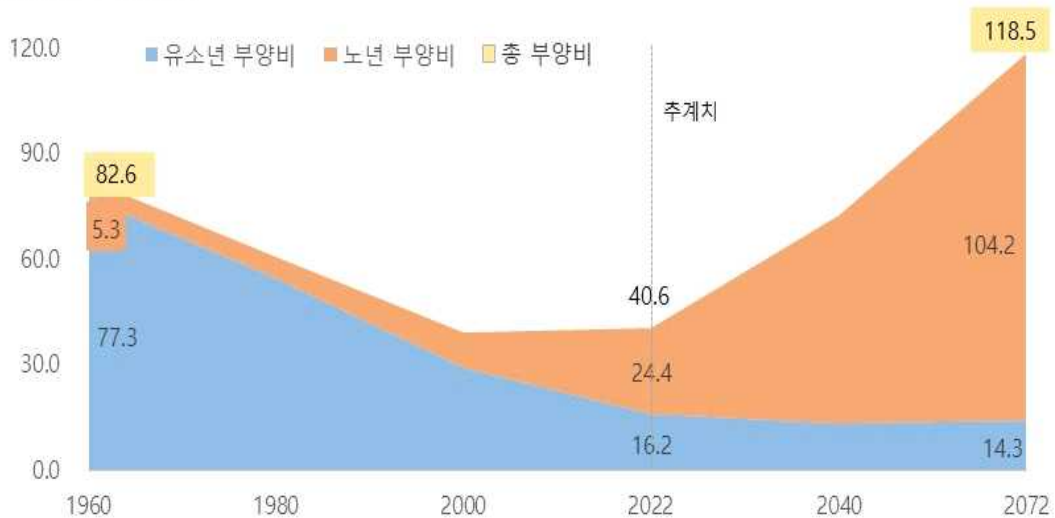


[그림 2-3] KOSIS 중위연령 및 평균연령

자료 :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 2025

-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인구 수를 나타내는 총부양비는 장기적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1960년 총부양비는 82.6명으로, 유소년 부양비가 77.3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함
- 이후 유소년 인구 비중이 감소함에 따라 총부양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2년에는 40.6명까지 감소함
- 그러나 고령 인구의 급증으로 노년 부양비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총부양비는 2040년 72.4명, 2072년에는 118.5명에 이를 것으로 추계됨
- 특히 2072년에는 노년 부양비가 104.2명으로 유소년 부양비(14.3명)를 크게 상회하며, 부양 부담의 중심축이 고령층으로 완전히 이동할 것으로 예상됨
- 부양비의 급격한 증가는 향후 복지재정 확대, 생산가능인구의 세 부담 증가, 세대 간 갈등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함

(생산연령인구 1백명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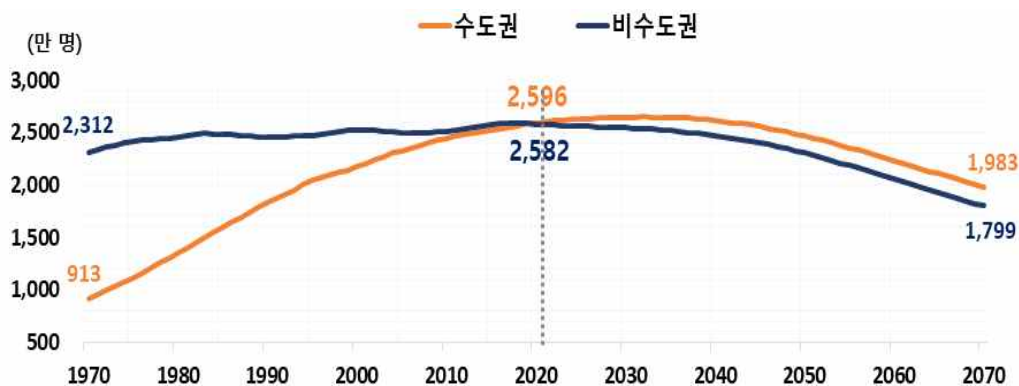
[그림 2-4] 총 부양비·유소년 부양비·노년 부양비

자료 :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 2025

2) 사회적 증감요인(수도권 집중, 지방소멸)

○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

- 수도권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2020년을 기점으로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
 - 1970년 수도권 인구는 약 913만 명으로 비수도권(2,312만 명) 대비 현저히 적었으나, 이후 수도권으로의 집중 현상이 꾸준히 나타남
 - 수도권 인구는 2020년에 2,596만 명으로 정점에 도달하며 같은 해 비수도권 인구(2,582만 명)를 넘어섬
 - 이후 인구 감소 추세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에서 나타나지만, 감소 속도는 비수도권이 더 가파르게 나타남
 - 2070년 기준 수도권 인구는 1,983만 명, 비수도권 인구는 1,799만 명으로, 수도권 우위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변화는 수도권 인구 집중의 구조적 고착화를 보여주며, 비수도권의 인구 유출과 지방소멸 위험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그림 2-5]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추이 및 전망(1970~2070)

자료 :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 2025

○ 수도권·비수도권 인구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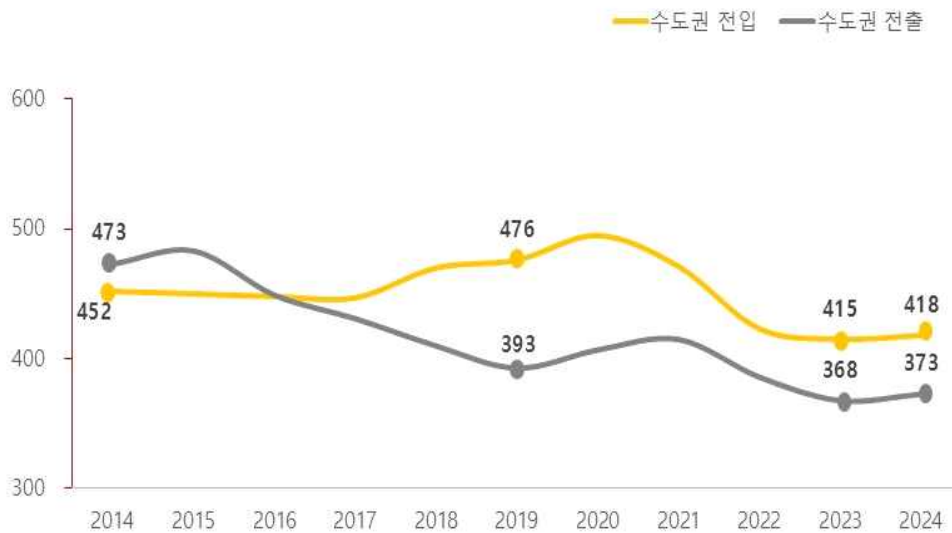
-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10년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이동은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임
 - 전체 인구이동자는 2014년 762만 9천 명에서 2024년 628만 3천 명으로 약 134만 6천 명 감소
 - * 이 기간 동안 수도권 내 이동 비중은 평균 46.7%로 가장 높았으며, 수도권 → 비수도권 이동은 평균 5.9%, 비수도권 → 수도권 이동은 평균 6.4% 수준으로 나타남
 - 전체 구성비 중 비수도권 내 이동은 10년간 평균 41.5%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임
 - 2024년 기준 수도권 → 비수도권 이동자 수는 37만 3천 명, 비수도권 → 수도권 이동자 수는 41만 8천 명으로, 수도권은 순유입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 이러한 인구이동 양상은 비수도권의 청년층 유출과 수도권 집중 심화 문제의 구조적 지속성을 시사함

[표 2-2] 수도권·비수도권 이동자 수 추이(2015-2024)

단위: 천 명, %, %p

연도	이동자 수(천 명)					구성비(%)					
	계	수도권 ↔ 수도권	비수도권 → 수도권	수도권 → 비수도권	비수도권 ↔ 비수도권	계	수도권 ↔ 수도권	비수도권 → 수도권	수도권 → 비수도권	비수도권 ↔ 비수도권	
2014	7,629	3,466	452	473	3,239	100.0	45.4	5.9	6.2	42.5	
2015	7,755	3,606	450	483	3,217	100.0	46.5	5.8	6.2	41.5	
2016	7,378	3,468	448	449	3,104	100.0	47.0	6.1	6.1	40.8	
2017	7,154	3,324	447	431	2,953	100.0	46.5	6.2	6.0	41.3	
2018	7,297	3,445	470	410	2,972	100.0	47.2	6.4	5.6	40.7	
2019	7,104	3,312	476	393	2,924	100.0	46.6	6.7	5.5	41.2	
2020	7,735	3,681	495	407	3,153	100.0	47.6	6.4	5.3	40.8	
2021	7,213	3,417	471	415	2,911	100.0	47.4	6.5	5.8	40.4	
2022	6,152	2,820	423	386	2,523	100.0	45.8	6.9	6.3	41.0	
2023	6,129	2,897	415	368	2,448	100.0	47.3	6.8	6.0	39.9	
2024	6,283	2,927	418	373	2,565	100.0	46.6	6.7	5.9	40.8	
전년 대비	증감	155	30	3	5	117	-	-0.7	-0.1	-0.1	0.9
	증감율	2.5	1.0	0.7	1.3	4.8	-	-	-	-	-

자료 : 국가데이터처, 2024년 국내인구이동통계 결과,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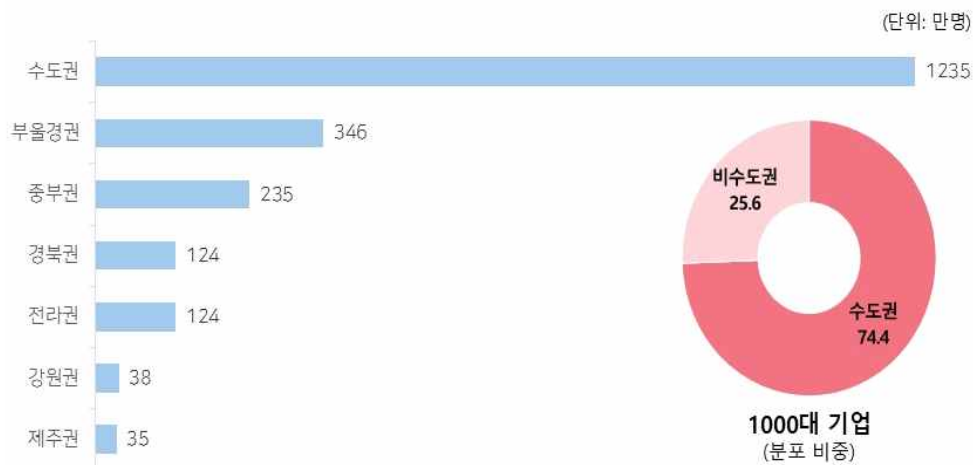
[그림 2-6] 수도권 전입·전출자 수 추이(2014-2024)

자료 :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2025

○ 경제·교육·고용 기능의 수도권 집중

• 경제

- 수도권의 사업체 종사자 수는 약 1,235만 명으로, 타 권역 대비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임
 - * 부울경권 346만 명, 중부권 235만 명 등 주요 비수도권 지역과 큰 격차를 나타냄
 - * 경북권과 전라권은 각각 124만 명, 강원권과 제주권은 각각 38만 명, 35만 명에 불과함
 - * 이는 수도권이 기업 입지와 고용 창출의 중심지임을 보여줌
- 오른쪽 원형 그래프는 1,000대 기업 본사 분포 비중을 나타내며, 수도권에 전체의 74.4%가 집중되어 있음
 - * 반면 비수도권은 25.6%만을 차지하며, 기업 본사의 지역 분산이 매우 미흡한 상황임
 - * 대기업 본사가 수도권에 밀집되면서 고용, 투자, 기술개발 등의 핵심 경제 활동 역시 수도권에 집중되는 경향이 지속됨
 - * 이러한 수도권 중심 구조는 지역 간 고용 기회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지방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로 이어짐
 - * 결과적으로 지역 고용 불균형과 인구유출, 지방소멸 위기 등 구조적 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그림 2-7] 지역별 사업체 종사자 수

- 전국 1,000대 기업 중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기업의 매출액 합계는 전체의 약 85.3%를 차지함
 - * 수도권 외 지역 중에서는 충남(85조원), 경북(72조 원), 경남(72조 원), 울산(53조 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매출 규모를 보이나, 기업 수와 전국 매출 비중은 낮은 편임
 -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매출 규모와 본사 수의 격차가 매우 크며, 특히 서울은 본사 수는 전체의 절반 수준이지만 매출액은 압도적으로 집중됨
 - * 지방 대다수 지역은 1,000대 기업 수가 한 자릿수에 불과하고, 매출 비중도 1% 이하로 미미함
 - * 예 : 전북(8개, 0.3%), 강원(7개, 0.2%), 세종(4개, 0.1%), 제주(3개, 0.5%)

- * 전체 매출액 3,120조 원 중 수도권이 약 2,676조 원을 차지, 이는 수도권이 고부가가치 산업과 대기업 본사 유치를 통한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함
- * 결과적으로 수도권의 기업 집적도¹⁾와 매출 집중 현상은 고용, 투자, 산업기반의 수도권 편중을 유발하고, 지역 간 경제성장을 격차 및 지방소멸 위기 심화에도 연결됨

[표 2-3] 전국 1,000대 기업 지역별 매출액 및 전국 비중(2024년 기준)

단위: 백만 원, 개체, %

순위	지역	매출액	기업수	기업당 매출액	비중	순위	지역	매출액	기업수	기업당 매출액	비중
1	서울	2,012,327,041	536	3,754,341	64.4	10	대구	31,713,218	20	1,085,661	0.7
2	경기	577,370,820	178	3,243,656	18.5	11	대전	17,657,334	11	1,605,212	0.6
3	인천	86,775,567	36	2,410,432	2.8	12	광주	15,899,463	9	1,766,607	0.5
4	충남	85,361,665	34	2,510,637	2.7	13	충북	14,356,466	18	797,581	0.5
5	경북	72,219,431	30	2,709,259	2.6	14	전북	8,622,312	8	1,077,789	0.3
6	경남	72,219,431	37	1,951,877	2.3	15	제주	5,829,754	3	1,943,251	0.2
7	울산	53,304,134	26	2,050,159	1.7	16	강원	459,440	7	649,920	0.1
8	부산	36,217,090	28	1,293,467	1.2	17	세종	3,403,191	4	850,798	0.1
9	전남	26,769,814	15	1,784,654	0.9		합계		1,000	31,485,303	

자료 : 부산상공회의소, 전국 1,000대 기업 중 부산기업 현황, 2024

• 교육(연구개발)

- 전체 기간 동안 연구개발 예산은 수도권에 높은 비율로 편중됨

* 2000년 기준 수도권은 약 8조 4,416억 원, 비수도권은 5조 4,068억 원으로 시작하여 1.5배 이상 격차 존재

* 2023년 기준 수도권은 약 83조 572,4억 원, 비수도권은 35조 5,015억 원으로 2.3배 이상 격차

- 수도권 연구개발 예산은 연도별로 지속 증가하며 2020년 이후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임

* 비수도권 역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 연구개발 예산으로 비교해보면 수도권에 비해 예산 차이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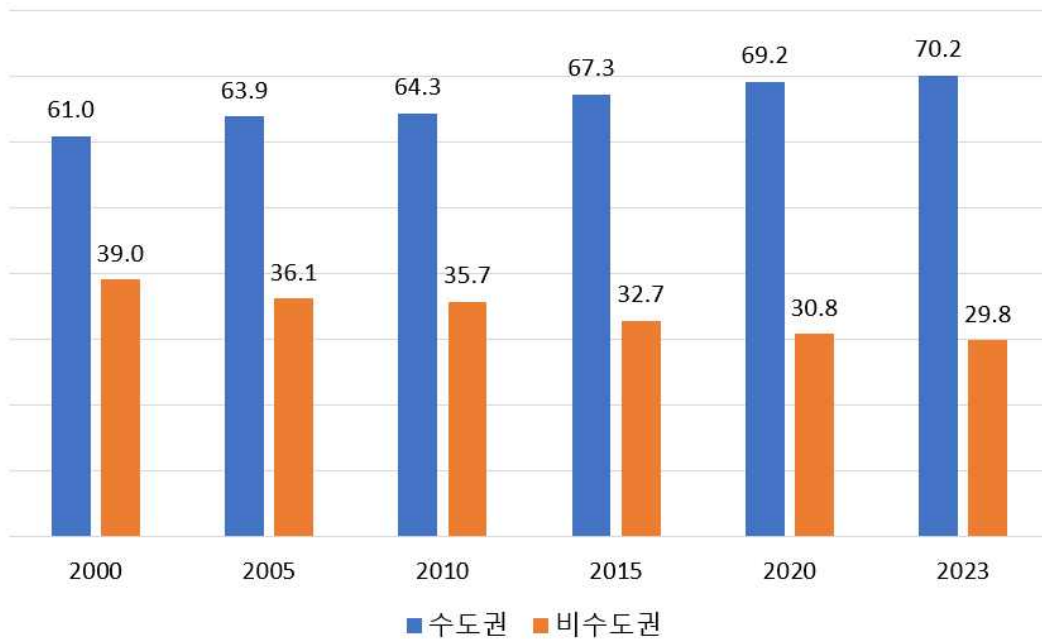
* 2020~2023년 동안의 4년간 수도권 증가액은 약 19조 1,587원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약 6조 8,436억 원 증가에 그침

* 이 같은 격차는 연구 인프라, 고등교육기관, 대형 국책연구기관 등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을 반영함

* 결과적으로 연구개발 기획의 수도권 편중은 고급 인력 유출, 지역대학 경쟁력 저하, 지역 혁신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음

* 이는 교육·연구 분야에서도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구조적으로 존재함을 의미함

1) 특정 지역에 기업, 인구, 산업 활동 등이 얼마나 많이 밀집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정도



[그림 2-8] 지역별 연구개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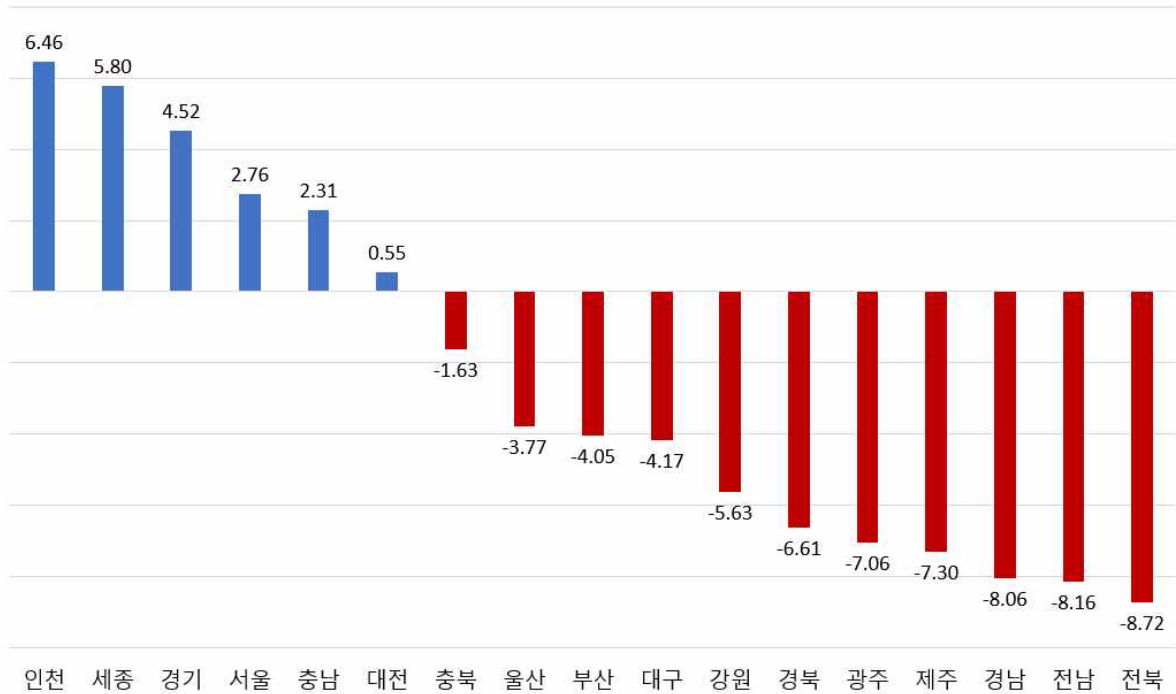
자료 : 국가데이터처, 연구개발활동조사, 2025

- 고용²⁾

- 청년 순이동률은 일정 지역으로의 청년 인구 유입과 유출의 차이를 비율로 나타낸 지표임

- * 청년층은 고용기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구 집단으로, 고용환경이 좋은 지역으로 이동하는 성향이 강함
- * 즉, 청년층의 유입은 일자리가 있는 지역을 의미함
- * 인천(+6.46%), 세종(+5.80%), 경기(+4.52%), 서울(+2.76%) 등 수도권 및 세종시는 순유입 상태, 청년층이 몰리는 지역임을 보여줌
- * 반면, 충남(+2.31%) 및 대전(+0.55%)을 제외한 대부분의 비수도권 지역은 음(-)의 순이동률을 기록함
- * 특히 전북(-8.72%), 전남(-8.16%), 경남(-8.06%), 제주(-7.30%) 등은 순유출이 심각하여 청년층의 이탈이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음
- * 광주, 경북, 강원, 대구, 부산, 울산 등 주요 지역 역시 -3% 이상 감소를 기록하며 유출이 지속되고 있음
- * 이러한 현상은 청년층이 교육, 일자리, 주거 등의 기회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함
- * 지역 내 고용 창출력, 산업 다양성,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청년층의 지역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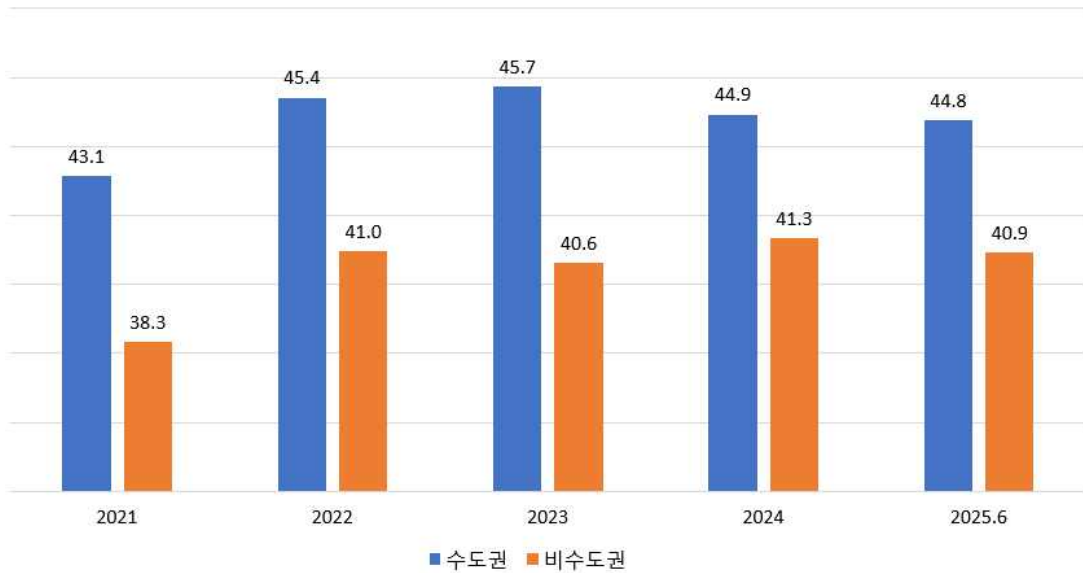
2) 청년 순이동률은 전체 청년(15-39세)을 대상으로 집계했으며, 청년고용률은 공개 데이터의 연령범위에 따라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기준(15-29세)으로 집계함



[그림 2-9] 2024년 광역별 청년 순이동률

자료 :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2025

- 2021~2025년 동안 수도권 청년고용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1년 43.1% → 2025년 44.8%로 증가함
- * 비수도권도 일정 부분 상승하였으나 2021년 38.3% → 2025년 40.9%로, 수도권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고용률 격차는 전 기간 동안 4~5%p 내외로 지속됨
- * 특히 수도권은 2023년에 고용률 45.7%로 최고치를 기록,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함
- * 비수도권은 같은 해 40.6%에 머물며, 상대적 고용 여건의 열세를 나타냄
- * 이는 양질의 일자리, 기업 밀집도, 산업 기반 등이 수도권에 집중된 구조를 반영함
- * 고용률의 지역 격차는 청년 유출, 지역소멸, 경제력 집중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비수도권의 고용 기반 강화가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 과제로 부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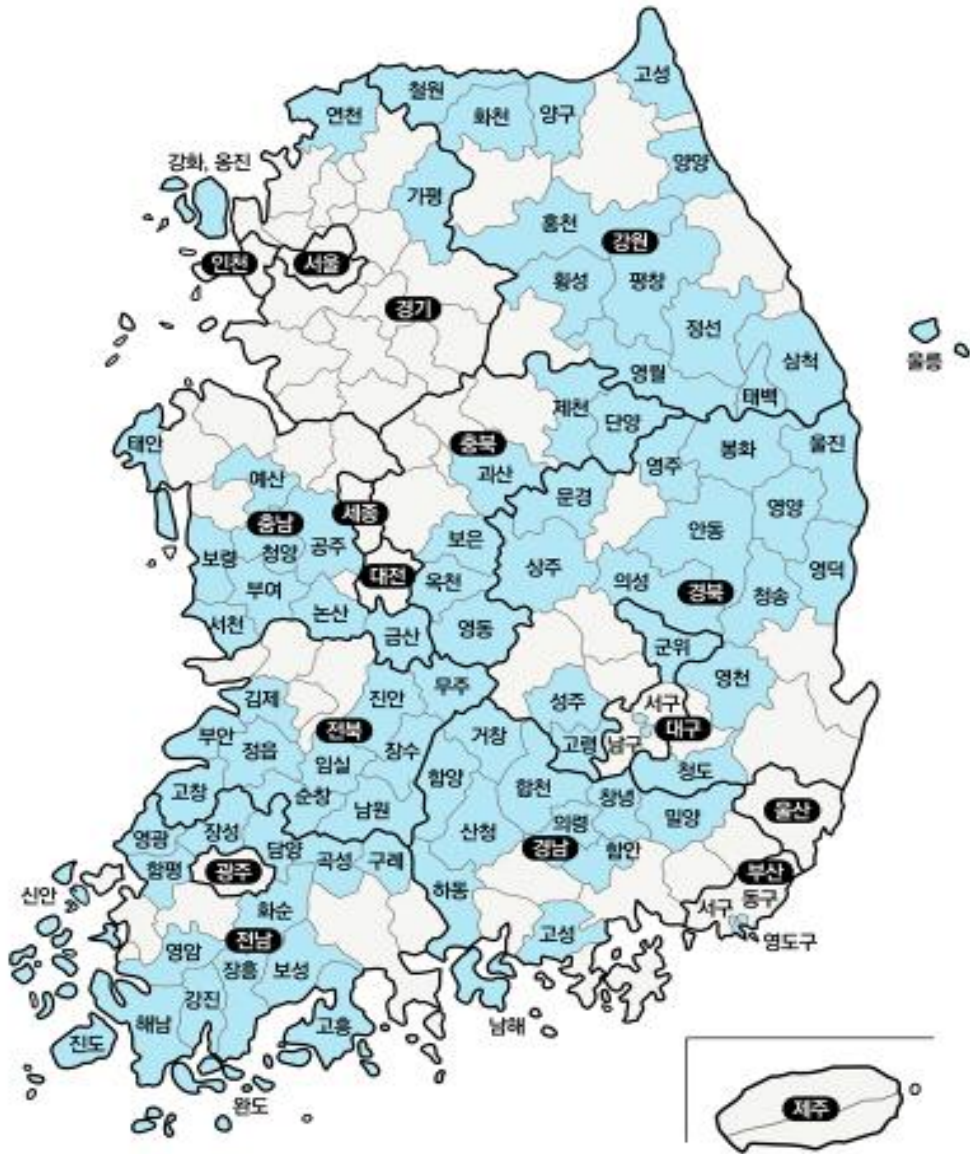


[그림 2-10] 수도권·비수도권 청년고용률(평균)

자료 : 국가데이터처, 지역별고용조사, 2025

○ 지방소멸지역

-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2024년 기준)
 - (법적 근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관련 입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2022.6.10), 시행(2023.1.1~)
 - (지정 기준) 연평균인구증감률 등 8개 지표를 활용하여 인구감소지역 지정
 - (지정 현황) 총 89개 시·군·구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됨
 - (지정 주기) 5년마다 지정 (최초 지정: 2021년 10월)
 - (관할 시·도) 인구감소지역을 포함한 시·도는 총 11개



[그림 2-11] 인구감소지역(지도)

[표 2-4] 인구감소지역

구분	인구감소지역(89개)
부산 (총 3개)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총 3개)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 (총 2개)	강화군, 옹진군
경기 (총 2개)	가평군, 연천군
강원 (총 12개)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총 6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총 9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총 10개)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총 16개)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아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총 14개)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송군
경남 (총 11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자료 :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4-15호), 2024

제2절 중앙정부 인구정책

1) 인구정책 추진 근거 법령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시·군·구는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
 -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범위가 적은 시·군·구, 시·도, 국가 순으로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수립하여야 함
 - 군산시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이지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표 2-5]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주요 내용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3조, 제5조, 제8조, 제34조
<p>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p> <p>①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도와 시·군·구를 합쳐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 지역주도의 제6조에 따른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제7조에 따른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특화된 발전을 추진한다.</p> <p>② 국가는 인구감소지역의 인구활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부처 간 연계를 기반으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종합적인 지원계획 및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p> <p>③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에 따른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제7조에 따른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상호 간 행정구역을 넘어서 주민 서비스 제공, 지역경제 발전 등을 위하여 연계·협력하여야 한다.</p> <p>④ 국가는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에 따른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p> <p>제5조(계획수립의 원칙)</p> <p>① 제7조에 따른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제6조에 따른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수립하여야 하고, 제8조에 따른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제7조에 따른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에 따른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제7조에 따른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와 그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 민간부문의 참여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p>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3조, 제5조, 제8조, 제34조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에 따른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제7조에 따른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계획적·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과 시·도기본계획 및 시·군·구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이하 “국가기본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구상과 전략
2. 시·도기본계획 및 시·군·구기본계획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시책 및 특례에 관한 사항
4. 국가기본계획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산출 및 조달과 연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5. 인구감소지역 지원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6. 9.>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립되거나 변경된 국가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이 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절차에 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인구감소 예방관리 지원 등)

① 인구감소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인구감소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및 계획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2) 중앙정부 인구정책 추진현황

■ 관계부처합동: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 계획 수립 배경 및 목적

- 지속되는 초저출산(2019년 합계출산율 0.92명)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수도권 집중, 지역소멸 등의 위기에 대응하여 수립
- 기존 출산장려 중심 정책에서 삶의 질 제고, 생애주기별 지원, 사회구조 개선 중심으로 전환

○ 비전 및 정책 목표

- 비전 :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 사회
- 3대 정책 목표: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변화 대응을 위한 사회혁신

○ 4대 전략 및 핵심과제

-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 육아휴직 3+3제 도입, 남성 육아휴직 장려, 유연근무제 활성화
 - 아동수당 보편 지급, 첫만남꾸러미, 영아수당 등 현금지원 확대
 - 공보육 및 온종일 돌봄체계 확충
-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노인 일자리 60만 개 이상 제공
 - 장기요양 및 치매국가책임제 강화
 - 지역사회 돌봄 및 건강관리 기반 확대
-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구현
 - 청년 일자리·주거 지원, 여성 경력유지 지원, 신중년 재도약 지원
 - 평생교육·직업훈련 강화로 전 생애역량 향상

-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사회혁신
 - 다양한 가족 인정 및 포용 정책 강화
 - 연령 통합사회 설계, 수도권 집중 완화, 고령친화 커뮤니티 확대

○ 정책 추진체계

- 위원회(분위원회-정책운영위-7개 분과위) 중심 협치 기반
- 국민 참여 확대(지역토론회, 간담회, 공모전 등)



[그림 2-12] 제4차 기본계획 정책체계도

○ 주요 한계 및 평가

- 육아휴직·돌봄 제도의 실질 이용률 낮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존재
- 서비스 위주 투자로 현금 지원 비중 낮고 체감도 부족
- 초등 돌봄 공백, 주거·고용 불안, 성차별적 노동시장 구조는 여전
- 고령자 소득보장 체계 미흡, 중산층 고령층 대상 정책 부족

○ 정책적 시사점

- 인구 문제는 사회·경제·문화 총체적 구조의 결과이므로 구조적 대응 필요
- 청년·노인의 생애전환기별 정책 통합 요구
- 가족지원 투자 확대와 사회시스템 혁신을 병행해야 실효성 확보 가능
- 개인 중심 정책기조와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기반 조성 필요

■ **새정부의 인구정책방향³⁾**

○ 저출생 대응

-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기존 만 7세 이하에서 만 18세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을 장려
- 산후조리 공공지원을 강화하여 산모의 회복을 지원하고, 초기 육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
- 자녀 출생 시 국가가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도입하여 장기적으로 청년기의 자립 기반을 마련
- 신혼부부의 결혼·출산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 감면 등 실질적 혜택을 제공

○ 고령사회 대응

- 어르신 공공일자리 사업을 확대하여 노년층의 소득 보전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
-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퇴직연금 제도를 강화하여 고령 인구의 경제활동 기반을 확보하고 노후 빈곤을 예방

3) 제21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서 인구정책 관련 공약을 중심으로 정리함

- 고령자 친화형 공공임대주택 및 실버 커뮤니티 조성을 통해 독거노인의 주거 안정과 사회적 교류를 촉진
- 양육·돌봄 강화
- 공공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개편하여 양육 공백을 해소하고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
 - 아동·청소년의 심리 및 정서·행동 문제에 대한 조기 발견과 개입체계를 구축하여 정신건강 사각지대를 줄임
- 일·가정 양립
- 육아휴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 육아휴직제'를 도입, 사용자가 별도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육아휴직을 자동으로 신청되도록 함
 - '주 4.5일제'의 시범 도입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과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고,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
- 주거 안정
-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 불안정을 해소
 - 주거·교육·일자리를 연계한 '주거복합지원센터'를 도입하여 지역 내 통합적 생활 기반을 지원
- 청년 자립 지원
- '청년미래적금(내일채움공제 시즌2)'을 통해 자산 형성 기반을 마련하고, 일정 기간 납입 시 정부 및 기업이 매칭하여 목돈 마련을 지원
- 정책적 시사점
- 아동수당 확대, 산후조리 공공지원, 자녀 수에 따른 세제혜택 등의 공약은 단기적인 출산율 제고보다는 가정 형성과 자녀 양육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둔 것으로, 생애주기 전반을 포괄하는 인구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시사함
 - 어르신 이동권 보장과 고령자 친화주택 조성 등은 고령층의 단순 보호를 넘어서 독립성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려는 방향으로 고령사회 정책이 질적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향후 지역과 개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고령정책 설계가 필요

-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과 주 4.5일제 추진은 돌봄의 책임을 가족 내 개인이 아닌 사회가 함께 분담하는 구조로 변화시켜야 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동문화 개선과 기업 환경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
- 청년미래적금, 맞춤형 공공임대 공급 등은 청년의 자산 형성과 주거 안정이 결혼과 출산에 선행된다는 현실을 반영하며, 인구정책이 출산장려 중심에서 청년 삶의 기반 전반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재편되어야 함을 보여줌

[표 2-6] 분야별 인구정책 주요공약

정책목적	핵심 공약	주요 내용
저출생 대응	아동수당 18세까지 확대	양육 비용 완화로 출산 유인 강화
	산후조리 공공지원	산모 회복 및 육아 초기 부담 경감
	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	출생시 국가가 자립기반 마련 위한 자산 적립
	결혼·출산 지원 대출	신혼·다자녀 가구 중심 금융 지원
고령사회 대응	어르신 공공일자리 확대	노후 소득 보장 및 사회참여 유도
	정년 연장 및 퇴직연금 확대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유지 기반 조성
	고령자 주택·실버 커뮤니티 조성	고령친화적 거주 환경 마련
양육·돌봄 강화	공공 아이돌봄서비스 개편	돌봄공백 해소, 돌봄 인프라 강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발달단계별 맞춤 지원체계 구축
일·가정 양립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	실질적 육아휴직 이용 보장
	주 4.5일제 도입	노동시간 단축 및 삶의 질 개선
주거 안정	생애주기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청년·신혼·노년층 대상 주거 지원 확대
	주거복합지원센터 도입	복합적 생활기반 연계한 주거모델 구축
청년 자립 지원	청년미래적금(내일채움공제 시즌2)	자산형성 기반 마련

자료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2025

제3절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정책

1) 인구정책 추진 근거 법령

■ 「전북특별자치도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인구감소 위기에 대한 효율적 대응과 효과적 성과 창출·확산을 위해 시·군과 연계·협력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또한,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인구감소지역내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지원시책 등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군산시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이지만, 「전북특별자치도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표 2-7] 「전북특별자치도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전북특별자치도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p>제3조(도지사의 책무)</p> <p>① 도지사는 인구감소 위기에 대한 효율적 대응과 효과적 성과 창출·확산을 위해 주관부서 간 또는 인구감소지역 시·군과의 주기적인 의사소통과 더불어 연계·협력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도지사는 인구감소지역의 인구활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도내 인구감소지역 시·군과의 연계를 기반으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종합적인 지원계획 및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③ 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북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인구 및 지방소멸대응 관련 정책·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2. 인구현황에 대한 다양한 자료 조사·수집·분석 등 3. 그 밖에 관련 정책·사업 및 행정·제도에 대한 사항 <p>제11조(생활인구의 확대 지원)</p> <p>① 도지사는 인구감소지역내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 등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육·교육·보건·의료·안전·교통·주거·복지·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통근·통학, 관광·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 지역체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 도지사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6조에 따른 주민 및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중장년 등의 정착지원 사업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복지 및 편의시설 등의 설치 사업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

「전북특별자치도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5.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경관 및 환경개선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우수사례 발굴·확산) ① 도지사는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내 시·군 및 관계기관 등의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구감소지역 대응 우수사례 발굴·포상·홍보 2. 인구감소지역 대응 우수사례 확산 포럼 및 세미나 개최 3.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지원 등 ③ 도지사는 우수사례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인구감소 예방관리 지원 등) ① 인구감소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인구감소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및 계획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적극 요청하여야 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역별 인구특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과 여건 조성을 하여야 하며,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표 2-8]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조례」 주요 내용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조례」 제3조, 제5조, 제6조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지역별 인구특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과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파급영향에 대하여 도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인구교육의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인구정책 종합계획) ①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북자치도 여건에 맞는 인구정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인구정책의 비전과 전략 2.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방향 및 과제별 이행전략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조례」 제3조, 제5조, 제6조
3.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대책 4. 인구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5. 사업별 자원조달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장·군수,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단체에 관련 계획·정책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에 인구감소 시·군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북특별자치도 인구활력추진단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인구활력추진단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추진단의 구성·운영을 위해 제도적·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 추진단은 「전북특별자치도 인구활력추진단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하여 50인 이내 당연직 단원과 위촉직 단원으로 구성하고, 전북자치도 및 도내 시·군의 인구활력 제고를 위하여 함

[표 2-9] 「전북특별자치도 인구활력추진단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전북특별자치도 인구활력추진단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조, 제6조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추진단의 설치 및 구성·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전북자치도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기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인구감소 위기의 효율적 대응, 효과적 시책 마련, 성과공유 및 확산을 위해 추진단을 통한 관련 정책·사업 및 행정·제도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외에는 추진단의 제5조 각 호에 따른 협의·논의 결과를 인구감소지역 대응과 관련된 종합적인 지원 계획 및 주요시책의 수립·추진과정 등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단의 설치·기능)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및 도내 시·군의 인구활력 제고를 위하여 추진단을 설치해야 한다. 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논의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견수렴 및 소통이 필요한 사항 2. 전북자치도와 도내 시·군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사업에 관한 사항 3. 생활인구 확대 등 인구감소 위기 공동 대응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 도지사와 제6조에 따른 단장, 부단장이 추진단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북특별자치도 인구활력추진단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조, 제6조
<p>제6조(추진단의 구성)</p> <p>① 추진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인 이내의 당연직 단원과 위촉직 단원으로 구성한다.</p> <p>② 단장은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로 하며, 부단장은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p> <p>③ 당연직 단원은 전북자치도 소속의 행정부지사와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 및 인구정책, 국가예산, 산업경제, 기업유치, 보건복지 등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과·팀장급 공무원으로 한다.</p> <p>④ 위촉직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내 시·군의 정책·기획 및 인구정책, 국가예산, 산업경제, 기업유치, 보건복지 등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과·팀장급 공무원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야 하며, 제5조에 따라 매년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표 2-1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 주요 내용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 제3조, 제5조
<p>제3조(교육감의 책무)</p> <p>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구감소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p>
<p>제5조(교육지원계획의 수립 등)</p> <p>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여 매년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계획(이하 "교육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사업 2. 학생 진로·체험활동 지원사업 3. 저소득·다문화·탈북가정의 학생 지원사업 4.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계획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p> <p>③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의 교육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지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 부지, 교실, 보건실,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2. 교재·교구(教具)의 정비 3. 교과서의 무상 공급 4. 통학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교원(教員)에 대한 주택 제공 6. 교원의 적절한 배치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2) 제2차 전라북도 인구정책 종합계획(2023-2027)

- 비전: 모든 세대가 행복한 지속가능 전북
- 목표: 인구 자연감소와 사회감소에 대한 균형적 대응, 전 세대가 생애주기별로 정착할 수 있는 지역환경 조성
- 6대 전략
 - 함께 양육하는 사회
 - 청년이 도약하는 사회
 - 중년과 노후가 활기찬 사회
 - 미래세대가 행복한 사회
 - 외국인 포용 사회
 - 생활인구와 상생하는 사회

[표 2-11] 전략별 과제 및 사업

구분	내용	과제 및 사업
전략 1	함께 양육하는 사회	5개 추진과제 66개 사업
전략 2	청년이 도약하는 사회	5개 추진과제 50개 사업
전략 3	중년과 노후가 활기찬 사회	4개 추진과제 14개 사업
전략 4	미래세대가 행복한 사회	4개 추진과제 20개 사업
전략 5	외국인 포용 사회	4개 추진과제 25개 사업
전략 6	생활인구와 상생하는 사회	4개 추진과제 24개 사업

- 전략 1. 함께 양육하는 사회: 5개 추진과제 66개 사업
 - 결혼, 임신, 출산, 양육의 위험과 부담은 전 사회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의 힘으로만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어 결혼·출산 포기 경향 증가
 - 전국인구 감소 시대에 인구 유출입만으로는 인구 감소세 억제에 한계가 있으며, 사회감소와 자연감소의 두 부문에 균형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출생에 대한 접근 강화
 - 결혼 부담 완화, 건강한 출산·양육 환경 조성,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 양육비 부담 경감, 일·생활 균형 제고 환경 조성 등을 통해 '함께 양육하는 사회' 구축

[표 2-12] 전략 1. ‘함께 양육하는 사회’ 추진과제 및 추진 목적

추진과제명	추진 목적
1. 결혼 부담 완화 (1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혼부부 주거비용 경감 등으로 결혼 기피요인 해소
2. 건강한 출산·양육 환경조성 (14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 희망 난임부부에 대한 치료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 모성보호와 신생아 건강관리 강화 • 임신·출산 관련 의료취약지에 대한 인프라 구축 및 연계시스템 강화 • 생애초기 건강관리 강화
3.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 (34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 • 영유아부터 방과 후까지 돌봄 책임 강화 •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 보육의 공공성 확대 및 보육환경 개선을 통한 학부모의 신뢰성 제고
4. 양육비 부담 경감 (12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생애주기에 따라 촘촘하게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 • 자녀수에 따라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부담을 보충해줄 수 있는 혜택 확대 • 미혼 부모 등 다양한 가족들이 자녀 양육에 지장 없도록 지원 강화 • 자녀들이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겪지 않도록 지원 강화
5. 일·생활 균형 제고 등 환경 조성 (5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녀 모두 직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준수 강화 •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식 개선 사업 강화 • 가족의 소중함 등에 대한 사회운동 및 가족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

○ 전략 2. 청년이 도약하는 사회: 5개 추진과제 50개 사업

- 청년인구의 유출은 사회구조적 요인들이 원인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사회구조적 요인들은 일자리, 주거, 문화, 지역사회 참여 등 포함되어 이들 사회구조에 대한 종합적 접근 중요
- 청년일자리 양적 확충 및 질적 제고를 동시에 추구
- 사회초년생으로 청년인구는 독립적 주거 공간 마련이 곤란하며, 그로 인해 더 나은 수익과 주거 안정을 추구하여 전출
- 청년인구의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회적 기제들을 강화
- 사회구조적 요인들의 개선은 균형적이고 상호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
- 교육-취·창업간 연계 강화, 사회초년생의 주거 안정 및 자립 기반 강화, 맞춤형 직업 교육을 통한 고용 활성화, 다양한 방식의 청년 일자리 활성화, 청년지지 기반 강화 등을 통해 ‘청년이 도약하는 사회’ 구축

[표 2-13] 전략 2. '청년이 도약하는 사회' 추진과제 및 추진 목적

추진과제명	추진 목적
1. 교육-취·창업간 연계 강화 (11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학 또는 산학연 연계를 통한 경쟁력 있는 인력육성 및 취업·창업의 용이성 제고 • 청년인구의 취업 활성화를 위한 대학교 자체 역량 강화 • 청년인구의 취·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 • 고교·대학생의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지원
2. 사회초년생의 주거안정 및 자립기반 강화 (4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을 충분히 형성하지 못한 청년들의 주거 마련을 위한 지원으로 주거사다리의 가장 아래층 강화 • 청년 자립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내에서의 청년 활력도 제고
3. 맞춤형 직업교육을 통한 고용 활성화 (2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대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취·창업에 필요한 전문훈련 제공
4. 다양한 방식의 청년 일자리 활성화 (23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기업들의 수요와 청년 취업 간 매칭 지원을 강화 • 농업 및 비농업 부문에서의 청년 창업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지원 강화
5. 청년지지 기반 강화 (10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지 청년인구 적응지원 및 청년 간 소통 강화

○ 전략 3. 중년과 노후가 활기찬 사회: 4개 추진과제 14개 사업

- 전북은 베이비붐세대의 노년층 진입, 중장년층의 귀농귀촌 등으로 인해 고령인구의 절대적 규모 증가
- 전북의 인구 고령화를 집단별로 대처하여 효율성 제고
- 전북 고령인구가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집단별로 노화 과정에 따라 소득보장, 건강보장, 사회참여 등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으로 지원
- 신중년 일자리 확대,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확대, 활기찬 노후 활성화, 전북 AIP 제고 등으로 '중년과 노후가 활기찬 사회' 구축

[표 2-14] 전략 3. ‘중년과 노후가 활기찬 사회’ 추진과제 및 추진 목적

추진과제명	추진 목적
1. 신중년 일자리 확대 (5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중년(50~64세) 대상으로 일자리와의 체계적인 연계 도모, 신중년 취업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
2.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확대 (4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고령인구(65~74세)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참여 확대 •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지원
3. 활기찬 노후 활성화 (3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고령인구(65~74세) 대상으로 운동과 검진을 통한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 문화·여가 기회 확충
4. 전북 AIP 제고 (2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기고령인구(75세 이상) 대상으로 고위험 고령층에 대한 건강관리·돌봄·요양 체계 강화 • 현대적 요양 인프라 구축

○ 전략 4. 미래세대가 행복한 사회: 4개 추진과제 20개 사업

- 전북의 인구문제를 해소하여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는 등 전북 사회 발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
- 인구에 기반한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핵심 주제는 일자리, 교육, 문화 및 농촌
- 미래에 청년인구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는 고용이며, 미래에 끊임없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원천으로서 기업을 유치, 새로운 산업 육성 등 추진
- 전북의 근간은 농촌으로 미래세대에게도 농촌은 경제적 및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중요한 삶의 기반이며, 고령화에 따른 농업노동력 고갈에 대비하는 등 농촌 발전의 지속가능성 확보
- 일자리 등 기회의 원천 확보, 지속가능 교육 체계 구축, 문화 기반 확충, 지속가능 농촌 여건 강화 등을 통해 ‘미래세대가 행복한 사회’ 구축

[표 2-15] 전략 4. '미래세대가 행복한 사회' 추진과제 및 추진 목적

추진과제명	추진 목적
1. 일자리 등 기회의 원천 확보 (5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 지향적 산업 육성, 대기업 등 유망 기업 유치 활성화
2. 지속가능 교육 체계 구축 (6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 전라북도를 이끌 지역인재 육성 기반 강화 대도시 등과의 교육기회 균등화 외국인 자녀에 대한 교육 기회 제공
3. 문화 기반 확충 (2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및 청년 문화 인프라 확충 문화 향유기회 확대
4. 지속가능 농촌 여건 강화 (7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지속체계 구축 및 강화 농업 노동력 지속가능성 제고

○ 전략 5. 외국인 포용 사회: 4개 추진과제 25개 사업

- 인구감소시대에 외국인주민의 경제사회적 역할은 더욱 증가 전망
-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자립 기반 강화, 복지 수준 제고, 역량 강화 및 자녀교육 기회 제공, 다문화 수용성 제고 등 다각적 노력을 통해 '외국인 포용 사회' 구축

[표 2-16] 전략 5. '외국인 포용 사회' 추진과제 및 추진 목적

추진과제명	추진 목적
1. 외국인근로자 친화 근로환경 조성 (6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근로자의 일자리 매칭의 체계적 관리, 외국인 근로자 주거 안정 및 건강 보호 강화, 지역 수요에 부응한 외국인근로자 확보
2. 외국인주민 자립 기반 강화 (6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 자립 기반 확충 등을 통한 정착 도모 외국인 주민 위기 및 인권 침해 등 방지 및 대처
3. 외국인주민 교육기회 균등 제공 (7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교육 기회 지원 외국인 유학생 성공적 한국 생활 지원을 통한 미래 잠재 인력으로 육성 언어 장벽 극복을 통한 교육 등의 기회 활성화
4.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6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지속체계 구축 및 강화 농업 노동력 지속가능성 제고

○ 전략 6. 생활인구와 상생하는 사회: 4개 추진과제 24개 사업

- 생활인구는 상주인구와 체류인구로 구성되며, 상주인구는 전북을 떠나지 않도록 하고 체류인구는 전북을 방문할 수 있도록 접근을 강화
- 생활인구 전체에 대한 공통적인 접근으로 전북의 매력도 제고 필요
- 귀농귀촌·향촌 기반 강화, 전북 농촌 매력도 증진, 전북 가치 제고, 지역재생 활성화 등을 통한 ‘생활인구와 상생하는 사회’ 구축

[표 2-17] 전략 6. ‘생활인구와 상생하는 사회’ 추진과제 및 추진 목적

추진과제명	추진 목적
1. 귀농귀촌·향촌 기반 강화 (12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귀촌 유치 활동 활성화 • 귀농귀촌 환경 조성 • 귀농귀촌 인구를 위한 주거 안정화 지원 • 농촌유학 활성화
2. 전북농촌매력도 증진 (5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북도 고유 농촌문화 콘텐츠 발굴 • 농촌 환경 개선
3. 전북 가치 제고 (3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체험·힐링마을 육성 • 지역특화 향토 산업 육성
4. 지역재생 활성화 (4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집 등 재생을 통한 환경 개선

■ 군산시 적용 가능성 및 시사점

- 군산시는 도내에서 산업·교통 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춰진 도시이나, 최근 대기업 철수 및 산업구조 침체로 인한 인구 유출 심화
 - 특히 20~30대 청년층 유출과 고령화가 동시 진행됨에 따라 자연감소와 사회감소가 함께 발생 중
 - 제2차 전라북도 인구정책 종합계획의 전략은 군산시 특성과 연계성이 높아 적용 가능성이 큼
- ‘청년이 도약하는 사회’ 전략 적용 가능성
- 군산시는 청년 유출이 심화된 지역으로, 청년층 정착 유도를 위한 정책 필요성 높음

- 산학연 연계를 통한 지역대학 취업역량 강화, 창업 지원 강화 등이 군산대 등 지역 대학과 연계 가능
 -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임대료 지원, 청년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플랫폼 조성도 적용 가능
- ‘함께 양육하는 사회’ 전략 적용 가능성
- 출산율 하락 및 돌봄 사각지대 존재 → 출산·양육 관련 인프라 확충 필요
 - 공공산후조리원, 국공립 어린이집 등 지역 기반 돌봄서비스 확대 필요
 -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 강화, 미혼부모 및 한부모가정 지원체계 도입 가능
- ‘중년과 노후가 활기찬 사회’ 전략 적용 가능성
- 신중년 및 고령층 인구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돌봄·건강 인프라 구축 필요
 - 신중년 대상 사회공헌형 일자리 사업 및 고령자 친화 산업 육성 확대 가능
 - 고위험 고령층 대상으로는 지역 요양시설 및 방문건강서비스 확충 필요
- ‘생활인구와 상생하는 사회’ 전략 적용 가능성
- 군산의 해양 관광 자원, 근대문화유산, 산업단지 등을 활용해 체류인구 유입 기반 마련 가능
 - 귀농귀촌 유도형 농촌마을 조성, 체험형 향토산업 콘텐츠 개발 등도 추진 가능
 - 지역재생 관점에서 원도심 빈집 활용, 청년·고령층 대상 커뮤니티 리빙 모델 적용 가능
- 정책적 시사점
- 군산시는 전북형 인구정책 6대 전략 전반을 지역 여건에 맞춰 맞춤형으로 적용할 수 있는 도시
 - 특히 청년층 및 돌봄 중심 정책은 군산의 인구유지 및 인구순환 구조 마련의 핵심 수단이 될 수 있음
 - 도 차원의 정책을 시 차원으로 세분화하여, 지역 내 이해관계자 및 주민 수요 기반의 실행전략 마련 필요
 - 단, 산업기반 및 재정 여건의 한계, 정책 실행 주체 간 역할 분담 부족 등은 사전 조율 및 협치 체계 필요

제4절 타 지자체 인구정책

1) 전라남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2022-2026)⁴⁾

- 전국적으로 인구감소지역 증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 심화로 지방소멸 위기 가속화
 - 기존의 정부 정책은 지방소멸 방지와 관련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시책’이 존재하고 있으나, 임신, 출산, 육아 지원 등에 초점을 둔 인구의 자연증가에 초점을 부여하는 시책으로 지방소멸 대응에 초점을 둔 시책 수립 필요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시책 특징 : 임신, 출산, 육아 지원 등에 초점을 둔 인구의 자연증가에 초점을 부여하는 시책 추진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23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은 **전남이 16곳으로 가장 많이 지정**되었으며,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한 전남도 환경에 맞는 중장기 인구감소 대응 전략 마련 및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필요
 - 인구 감소/관심 지역 107곳 지정(감소지역 89곳, 관심지역 18곳)
- 지역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5개년 기본계획 및 1년 단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남도민을 포함한 생활인구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정주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
 -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뿐 아니라 통근, 통학,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체류하는 생활인구를 포함하고, 전라남도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의 인구감소에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고자 기본계획을 수립함
 - **(기본방향)** 청년인구 유입과 생활인구 확대를 최우선 정책목표로 추진하되, 전라남도만의 강점과 기회를 활용한 공격적이고 지속가능한 추진전략 수립
 - **(전략도출)** 전라남도의 약점과 위협요인 해소를 위한 4개의 추진전략 도출
 - **(추진전략 1)** ‘전남사랑, 전남품애향’ 인구활력 증진
 - **(추진전략 2)** 지역특화산업 ‘미래 일자리’ 창출
 - **(추진전략 3)** 지역인재 ‘꿈배움터’ 조성
 - **(추진전략 4)** ‘생활오아시스’ 거점 육성

4) 전라남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2022~2026)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용역 - 요약보고서 -, 2022



[그림 2-13] 전라남도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2022-2026) 비전 및 추진전략

[표 2-18] 전라남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추진전략별 세부사업

전략	실천과제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1. '전남사랑, 전남품' 인구활력 증진	1.1. 체류주민 확보를 통한 생활인구 확대	전남에서 살아보기 운영	도시민 또는 귀농·귀촌인 대상 전문 기술전수 및 농촌 체험 프로그램 제공	4,900
		귀농인(귀어인)의 집 조성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해 예비 귀농·귀어인의 임시 거주 주택 조성	1,490
		귀농산어촌 어울림마을 조성	마을경관 조성, 귀농·산·어촌인과 지역주민 융화 프로그램 추진	1,800
		귀농산어촌 종합지원 서울센터 운영	귀농·산·어촌 상담 및 안내, 정보 제공, 교육 등	4,050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융자금 지원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농가주택 구입·신축 자금 지원	-
		도시민 어촌 유치 지원	추진 기구 운영, 귀어·귀촌 활성화를 위한 도시민 어촌유치 프로그램 운영	1,250
		귀산촌인 정책자금 지원	임산물 및 목재 생산·재배·이용·가공·유통·보관 등 기반 시설 설치 및 주거공간 마련 자금 지원	7,500
		귀농·귀촌인 맞춤형 영농교육 확대	신규농업인 영농기초교육 및 현장 실습교육 실시, 우수모델 선발	4,869
		귀농어·귀촌인 창업, 컨설팅 지원	귀농·귀어·귀촌인 창업자금 지원	5,760
	1.2. 작지만 강한 연결 - 체류 관광객 확충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7~30일 간 전남 여행 참가자 모집을 통해 숙박비, 체험비 등을 지원	1,597
		전남 블루 워케이션 프로그램 운영	워케이션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마케팅을 통한 생활인구 유입	2,400
	1.3. 외국인 주민 유입 촉진	외국인 주민 정착 및지역사회 통합 지원	무료법률상담, 의료비 지원, 모국어 자막뉴스, 모니터링단 운영 등	1,270
		지역특화비자 도입을 통한 외국인근로자 거주 유도	거주를 조건으로 외국인에게 장기 체류 비자 발급	720
		북한이탈주민 생활밀착형 전문일터 만들기	취업지원금, 고용지원금, 장기근속장려금 등 지급	280
	1.4. 더불어 잘사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추진	마을유래·역사 등 자원조사, 계획수립, 마을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활동 공간 개선, 브랜드 사업 등	10,140
		시·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립	운영비(인건비, 일반운영비, 사업비) 150백만원 3년간 지원	5,476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낙후 주거지역 생활환경 개선, 마을공동체 회복	356,056

전략	실천과제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1.5. 청년공동체 사회참여 활성화 유도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청년 주거지(빈집 리모델링, 공유 경제) 및 활동공간 조성, 지역특화 산업과 연계 청년일자리 마련 등	5,500
		전남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 지원	청년 대상 운동·체질 개선 등 신체건강 및 심리지원 등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563
		청년농업인 연구동아리 지원	청년농업인 연구동아리 네트워킹 비용 지원	352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청년들을 마을사업장에 근무 배치하여 사업장의 경쟁력 강화 및 청년 근로자 정착 유도	10,378
		청년 공동체 활성화 지원	청년공동체 활동 및 네트워크 등 교류·협력 지원	9,380
2. 지역특화산업 '미래 일자리' 창출	2.1. 청·장년의 일자리 확충을 통한 정착 촉진	청년 창업농장 조성	청년 창업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종사를 위한 농장 기반 조성 비용 지원	3,200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청년후계농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 정착 지원금 지급	55,503
		청년 어촌정착 지원	청년 귀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창업 지원	6,815
		전남 청년 창업 지원	만 39세 이하 미취업 예비 창업자 에게 창업 사업화 지원	7,977
		스마트팜 청년 창업 보육센터 운영	청년창업 보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스마트팜 온실 설치 및 전문인력 양성 교육 과정 운영	9,000
		청년 4-H 우수과제 창업농 육성사업	'청년 4-H 과제공모전' 을 통해 선발된 우수회원 성장기반 지원	3,420
		청년농업인 스타트업(초기창업) 지원	자율형 사업 공모 및 선정, 역량· 기술교육·컨설팅을 통한 사업계획 보완 및 사업비 지원	3,600
		농촌 청년 창업스케일업(성장) 지원	농촌지역 특성과 틈새 자원을 활용한 창업활동을 통해 농산물 생산·가공·판매사업 중점 지원	1,353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도내 중소기업 취업 청년 대상 1인당 4년간 최대 2천만원의 근속장려금 지원	22,000
		청년내일저축계좌 운영	3년간 청년 본인저축액에 정부 지원금 매칭	28,831
		찾아가는 일자리 희망버스 운영	도내 기업 방문을 통한 중소기업에 대한 구직자 인식개선, 기업 현장 면접 후 채용을 통한 취업 연계	150
		일자리 꿈터 운영	민간(LH)과 공공(전남도, 고용부) 협업으로 일자리 창출 추진 체계 마련	2,039

전략	실천과제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사무장 지원사업	활동실적 관리가 어려운 공동체 사무장 채용지원	2,798
		유휴수면 활용 유망양식품종 창업어장 개발	유망품종 양식어장 개발 시설비 지원	7,604
		지역자원 연계형 청년창업 지원사업	지역자원조사 활동비, 창업교육, 멘토링, 사업화 지원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청년 창업 지원	5,700
		콘텐츠산업 청년 일자리 리쇼어링 프로젝트	청년이 선호하는 지식정보 문화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콘텐츠 기업유치	4,724
		전남 청년 잡스 존(Jobs Zone) 조성 프로젝트	지역별 특화형 청년 친화형 혁신 지구 청년 잡스 존(Jobs Zone) 지정 및 지원사업 발굴	100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	경영실습 임대농장 이수 청년농 지원, 스마트팜 현장 지원센터 연계	39,272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	「전남 으뜸 청년농업인」 성공 모델 발굴 및 성과확산	28,336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지원	혁신클러스터 용지 내 사무공간을 임차한 기업 임차료 또는 분양 대출금 이자 지원	9,200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대 지원	인구늘리기 참여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416,800
	2.2. 여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	경력단절 여성, 경력이음 바우처 지원사업	취업 재개에 어려움이 많은 여성에게 구직활동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로 조기 사회복귀 유도	3,800
		여성 일자리 박람회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지역 일자리를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	1,400
		여성 취·창업 교실 운영	여성들의 자격증 취득 및 취·창업 연계	1,161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여성농어업인의 문화·복지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행복 바우처 지원 확대	95,000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중·고등학생의 이공계 진학을 제고 및 우수한 전문 여성인력 양성	1,225
	2.3. 로컬 기반 고부가가치 지역 특화산업 육성	모터스포츠 청년인구 유입 환경 조성	모터스포츠 대회, 스포츠 주행, 모터 페스티벌 등	9,615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 지원	기반시설 확충, 특화기업 육성,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	5,200
		수리조선 클러스터 구축	선박수리 연구·시험동 건축, 장비 구축, 기업지원, 인력양성 등	10,622

전략	실천과제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3. 지역인재 '꿈배움터' 조성	2.4. 디지털 전환 시대 스마트 인프라 조성	바이오 의약품 인력양성 교육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바이오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업무협약체결 등을 통한 바이오 전문인력 확보 및 청년 일자리 창출	6,049
		지역 기반형 콘텐츠 코리아랩 운영	청년 대상 콘텐츠 창업·창작 프로그램 운영 및 제작 지원	7,950
		전남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운영	지역 콘텐츠기업 강소화 및 시장진출 지원	7,100
		전남 지역기반 게임산업 육성사업	지역 특성에 맞는 게임산업 인프라 구축 및 기업역량 강화	13,000
		전남 스마트팜 혁신밸리 단지 조성	스마트팜 집적화·청년창업, 기술 혁신 등 생산·교육·연구 기능이 집약된 혁신밸리 조성	2,000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원료 가공·R&D 수출이 연계된 '종합단지형 클러스터' 조성	107,832
		해양수산 창업투자 유망기업 발굴 육성	창업기업 발굴, 제품 개발, 국내외 마케팅 등 기업육성	8,000
		고흥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구축	세계 7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391,900
	2.4. 디지털 전환 시대 스마트 인프라 조성	DNA+US 기반형 일자리 프로젝트	DNA+US 관련 8대 선도 분야 기업 혁신성장 프로젝트 인력지원	3,506
		에너지신산업 성장플랫폼 e-뉴딜 프로젝트	에너지밸리클러스터-에너지융복합단지-규제자유 특구를 연결하는 혁신성장플랫폼 구축	4,298
		그린뉴딜 G.P.S 프로젝트	녹색전환기술·산업, 해양·바이오 산업 등서비스 융합형 인력양성 및 혁신체계 구축	2,746
		스마트제조+유망기업 2.0 프로젝트	저탄소 스마트공장 등 관련 산업군 및 집중육성 혁신기업(스타·강소기업 등) 청년일자리 창출	3,790
		스마트원예단지 기반 조성	생산물 유통을 위한 간선 및 지선 도로 공사, 스마트팜 단지에 필요한 시설 공사	7,788
		AI 첨단 축산업 융복합 밸리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함평군) 축산업 전주기 산업화 거점 단지 조성 (도내)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및 고체연료화 시설 확충 	89
	3.1. 지역 재창조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무한도전 프로젝트	스스로 지역 현안을 고민하고 해결방안 모색하여 지역 주역으로 성장	1,450
		연구인재 역량강화 프로젝트	지역 대학원생 공동연구 지원을 통한 역량 강화 기회 제공	2,540
		지역인재 채용 우수기업 지원	목표관리제 달성 우수기업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 등	500

전략	실천과제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관광두레 지역협력사업	주민 주도의 마을 단위 관광산업 발굴 및 젊은 층 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	1,500
		전라남도 해외유학생 지원	어려운 여건의 지역 인재들에게 해외 석·박사 유학 기회 제공	2,718
		청년 해외인턴 지원	해외 직무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적 역량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	1,404
	3.2.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대학-기업 연계 활성화	지역 중소기업 취업청년 학자금 대출 상환 지원	도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대학 재학 중대출받은 학자금 상환액 일부 지원	590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지원	세계 에너지 신산업 선점 등을 위한 세계 최고의 한국에너지공대 설립	668,900
		한국폴리텍대학 전력기술교육원 건립	에너지밸리드 전력·에너지 분야 맞춤형 인력양성 기반조성을 위한 전력기술교육센터 건립	17,638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특성화고 등 고교졸업생에 조기취업과 현장맞춤형 인력 양성 지원	3,142
	3.3. 아이키우기 좋은 돌봄 환경 조성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게 주거비를 지원하여 젊은세대의 조기 경제자립 및 저출산 극복	16,794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청년세대 유입·정착을 위한 결혼 축하금 2백만원 지원	48,800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에게 일정액의 주거 지원금을 지원하여 조기 자립 기반 마련	5,400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운영	저소득 청년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립통장 개설·운영	16,693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아동) 자립 지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 지원	25,664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세 자녀 이상 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50만원 지원	6,920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대해 난임부부 경제적 부담 완화	2,054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신혼(예비)부부의 건강한 임신·출산을 돕기 위해 임신 관련 건강검진 서비스 지원	1,105
한방 난임치료 지원		임신에 적합한 체질개선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1,437	
출산가정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 확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을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	4,999	
첫만남 이용권 지원		출생아에게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을 지급하여 육아에 따른	91,4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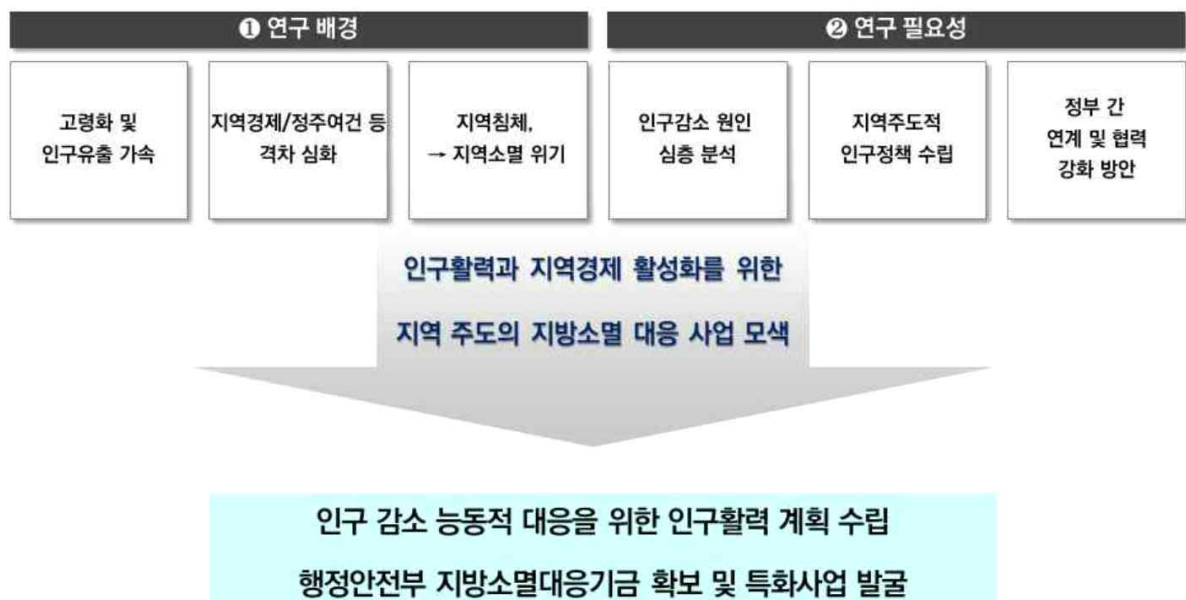
전략	실천과제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4. '생활오아시스' 거점 육성			경제적 부담 경감		
		아동수당 지원	아동에 대한 투자 확충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473,596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지원 확대 지원	양육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방문 돌봄 서비스 지원	161,756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건설 확대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장 가까운 곳에 주변보다 저렴한(행복주택 건립·공급)	22,205	
		영아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면역력이 낮은 영아기에 감염 우려가 높은 질병 예방을 위한 접종비를 지원	8,059	
		산부인과 취약지 의료서비스 지원	분만 취약지역에 산부인과 시설·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	16,500	
		다자녀 가정 중학생 교육비 지원	3자녀 이상 가정 중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4,908	
		출산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	여성농업인의 출산 시 영농활동을 대행할 농가도우미를 지원	1,705	
		농촌 공동 아이돌봄 지원	소규모 어린이집의 설치와 운영 지원	4,010	
	3.4. 교육자치 협업형 교육기반 확충	국제학교 설립	국제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학교' 설립	40,000	
		농산어촌유학 활성화	농촌유학에 관심 있는 도시 학생의 유학비 지원	28,505	
	3.5. 지역 사회단체 역량 강화 및 리더 육성	청년 농수산 유통 활동가 지원	지역 농·수·축협 등 유통기관 일 경험 지원	2,140	
		전남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확대	사회적경제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 제품 민간 판로지원	29,659	
		대학 사회적경제 교육강좌 운영	도내 대학생 대상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강좌 개설 운영	128	
	4.1. 건강·의료시설 확보를 통한 웰니스 기반 구축	노인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 지원	주간보호센터에 전문강사를 활용한 인지향상,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 지원	3,006	
		찾아가는 건강지킴비스 운영	의료취약지역 방문 순회 보건의료통합서비스 제공	3,470	
		의료취약지 지원	소아청소년과 및 인공신장실 지원	3,316	
		4.2. 거점활력공간 조성으로 인구유출방지담 조성	청년 창농타운 운영	맞춤형 농산업 창업교육, 컨설팅으로 고부가가치 농산업 창업 육성	1,107
			지역 활력타운 조성	도농교류 확대 및 농촌지역 교육공동체 형성 등 농촌 활력 제고	48,504
전남 영농 스마트단지 조성			주거환경 개선 등을 통한 청년농업인 마을 조성	24,000	

전략	실천과제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필수근로자 주거지원	관내 필수근로자 대상 주거지원 사업으로 지역 정착 및 생활 안정 도모	21,332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활성화 지원	주민수요에 맞는 육아돌봄, 창업시설 구축으로 정주시설 지원	29,700	
		친환경 재생에너지 기반 스마트 시티 조성	모빌리티, 에너지, 관광, 데이터허브, 헬스케어	26,000	
	4.3. 생애특성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도내 거주하는 청년에게 1인당 연 20만원의 문화 활동비를 지원	125,002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설치	출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추가 설치	32,940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를 중심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10,178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공동육아나눔터 확대를 통한 가족돌봄 기능 및 공적 돌봄의 사각지대 보완	7,934
			꿈사다리 공부방 운영	고학력·미취업 청년을 지역아동센터 학습선생님으로 배치	9,857
			전라남도 청년비전센터 건립	청년 지원 종합공간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	40,200
			은퇴자 정주형 새꿈도시 조성	30세대 이상 복합 주거단지(주택+편의시설) 조성	-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	무주택 청년을 위한 맞춤형(성별, 소득별) 공공주택 공급	87,490
	가족센터 통한 가족서비스 제공	가족 통합서비스 프로그램 운영(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지역공동체)	67,912		
	4.4. 세대조화·통합형 정주기반 조성		예술가 레지던스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문화예술 공간 조성 커뮤니티형 창작 프로그램 운영 	4,000
			세대어울림 복합 커뮤니티 센터 조성	다양한 세대(어린이, 청년, 중장년, 노인)가 이용하는 커뮤니티 거점 조성	24,050

자료 : 전라남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2022~2026)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용역 - 요약보고서 -, 2022

2) 남원시 인구활력계획수립 연구⁵⁾

- 남원시는 2020년 현재 합계 출산율은 1.22명으로 최저 수준에 도달함
 - 1995년 남원시 인구는 남원군과 통합으로 109천명으로 역사상 최고에 도달한 이후 연평균 △1.24%씩 감소해 2021년에는 49천명으로 감소
 - 남원시 인구가 현재 추세로 감소할 경우 연평균 1,200명씩 감소하여 향후 10년 이내에는 67천명대로 감소할 전망
- 지난 10여년간 남원시 지역총생산(GRDP) 성장에도 전북 전체 대비 비중은 꾸준히 감소해 전북 내 지역간 소득격차도 확대
 - 남원시는 인구활력과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전북의 다른 인구감소지역과도 비교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지 못해 혁신적 인구활력대책 발굴 시급
- 남원시 주도 인구활력대책을 수립하고, 국가균형발전특례법 개정에 따른 정부 지원 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구 필요성 증대
 - 본 연구는 남원시 인구 감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인구활력 계획 수립,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및 특화 사업 발굴을 주요 연구 목적으로 설정



[그림 2-14] 남원시 인구활력계획 수립 목표

5) 한국능률협회, 남원시 인구활력계획수립 연구, 2022

- 남원시는 “더 머물고 싶고, 더 살고 싶은 다채로운 지리산 체류거점 남원”이라는 비전으로 기존의 정책방향성과 현재 지역여건을 바탕으로 정주인구 확대뿐 아니라 지리산권 생활인구·관계인구 확대를 통해 인구감소에 대응·적응하도록 방향성 설정
- 남원시의 정주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신규 정주인구를 유입하여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목표로 함
 - (남원) 정주인구 7만 8천 명대 유지 / 생활인구 : (현) 10만 → 11만 목표
 - (지리산권) 정주인구 26만 명대 유지 / 생활인구 : (현) 37만 → 40만 목표
- 또한, 정성적인 목표로는 ① 정책의 내실화 및 사각지대 해소 ② 지역 산업육성·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③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는 차별화된 복지서비스 구축 ④ ‘지리산권’ 브랜드화를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1 비전

더 머물고 싶고, 더 살고 싶은 다채로운 지리산 체류거점 남원

2 정량목표

정주인구 유지

남 원: 7만 8천 명대 유지
지리산권: 26만 명대 유지

생활인구 확보

남 원: 10만 → 11만 증가
지리산권: 37만 → 40만 증가

3 추진전략

전략방향
생활거점기능 강화를 통한 정주인구 증가

전략방향
관광거점기능 강화를 통한 체류인구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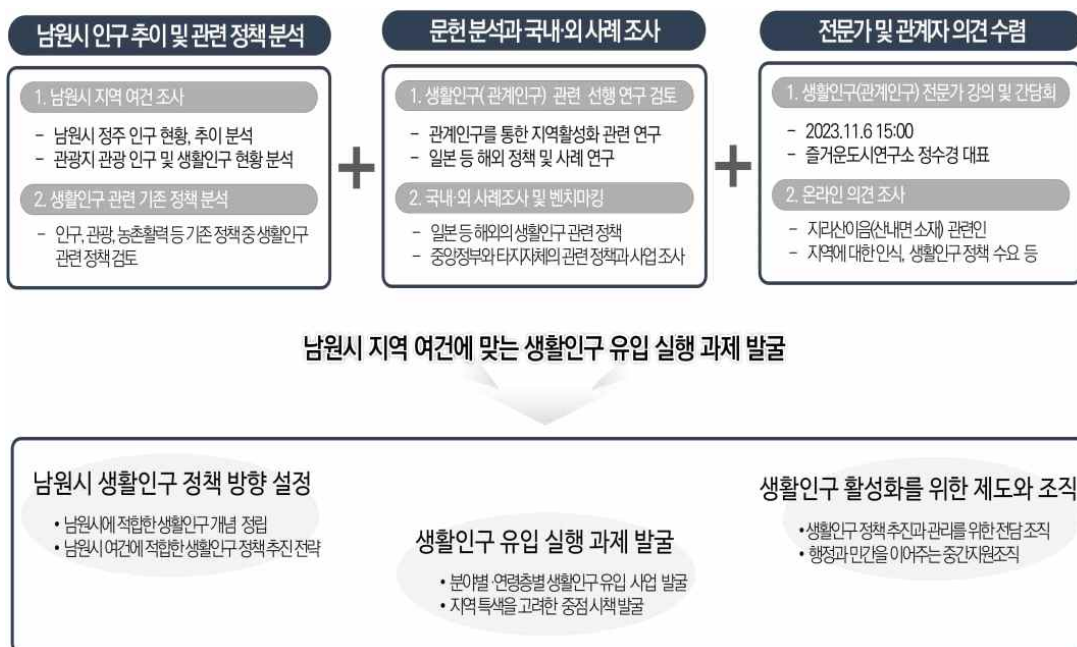
4 추진과제

추진전략	3대 프로젝트	8대 프로그램
지리산권 생활거점기능 강화	남원 책임형 정주여건 개선	지리산권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지리산권 인재양성 프로젝트: 춘향골 인재학당
	남원특화형 지역경제활성화	지리산권 귀농·귀촌인을 위한 공공주택
		지리산권 로컬푸드 플랫폼 사업
지리산권 관광거점기능 강화	남원 연계형 생활-문화-예술 복합관광도시 구축	지리산권 최대 미꾸리 공유양식 플랫폼 구축
		지리산권 청년 창업-정착과 도시재생연계 사업
		"걸고 싶고 머물고 싶은..." 지리산권 관광휴양벨트 조성
		지리산권 워케이션 둘다 빌리지

[그림 2-15] 2022-2026 남원시 인구활력계획 비전 체계도

3) 남원시 2024년 공모사업 대응을 위한 생활인구 유입 방안 연구용역⁶⁾

- 자연적 인구감소와 사회적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2021년 10월 89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 전라북도는 10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이 해당됨
- 2022년 5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
 - 국가와 자치단체는 인구감소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본계획(5년 단위)과 시행계획(1년 단위)을 상향식으로 수립함
 -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체류(통근, 통학, 관광 등)하며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인구로 정의하는 생활인구⁷⁾ 개념을 도입하고, 국가와 자치단체가 이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토록 함
- 생활인구 개념이 부각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촘촘한 생활인구 증진 정책을 수립해 국가 예산사업 발굴 및 공모사업 선정에 기여하는 것이 본 과업의 목적임



[그림 2-16] 남원시 생활인구 유입방안 체계도

6) 사회적협동조합 지리산이음, 2024년 공모사업 대응을 위한 생활인구 유입 방안 연구용역, 2023

7)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정의.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

- 주거·교통 분야는 살아보기 주택과 두 도시 거주를 지원하는 인프라와 주거 및 교통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체류 여건을 개선함
 - 생활인구 유입의 물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가능하도록 함
- 문화·관광 분야는 남원의 문화, 관광 자원을 활용해 저변 관계인구를 확보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
 - 일회적인 방문에 그치지 않도록 시간을 두고 관계를 형성하는 프로그램 모색
- 교육 분야는 지역의 자연환경이 가진 강점을 살려 잠재적 관계인구 유입을 위한 생활인구 교육거점공간 조성
 -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해, 생활인구 유입으로 작은학교와 마을 활성화 모색
- 일·활동 분야는 지역과 더 깊게 관계 맺기 위한 일과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연령별(청년, 신중년) 일, 활동 특징에 따른 타겟 사업 마련

[표 2-19] 남원시 정책분야별 세부 추진과제 전체 목록

분야	번호	사업명	사업 규모	소요 예산 (백만원)	주관 및 협력 부처
1. 주거 교통 분야	1.1.	마을 공유 게스트 하우스	2호/년	50	건축과/ 각 읍·면사무소
	1.2.	빈집 활용 '한달 살이' 주택 공급	10호/년	250	건축과/생활인구지원센터(신규)
	1.3.	빈집은행 운영	100호	-	건축과/한국국토정보공사(LX)
	1.4.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사업 주택 확대	5채	1,000	농촌활력과
	1.5.	두 도시 거주를 위한 임대형 캠핑농장 조성	8,000명, 체류인구 120명	5,000	도시과
	1.6.	촌토피아 실험마을 조성 (모듈러주택 활용 / 저렴한 세컨하우스 단지)	2,000평, 20채, 체류인구 30명	400	도시과
	1.7.	읍·면 지역 공유자전거 운영	100대	50	교통과/생활인구전담팀(신규)
2. 문화 관광 분야	2.1.	농부와 도시민을 연결하는 '나의 포도나무' 사업	과실수 300주, 논 2,000평, 참여인구 400명	-	생활인구전담팀(신규) 각 읍·면사무소
	2.2.	지리산 아티스트 레지던시	2팀	40	문화예술과
	2.3.	남원 일주 여행	20팀 * 4개 시즌	24	관광과
	2.4.	시골에서 한달살이	15명 * 2회	80	생활인구전담팀(신규) 농촌활력과
	2.5.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포럼/행사 개최	-	50	생활인구전담팀(신규) 생활인구지원센터(신규)

분야	번호	사업명	사업 규모	소요 예산 (백만원)	주관 및 협력 부처
3. 교육 분야	3.1.	생활인구 교육거점공간 -삶의 전환을 위한 지리산 인생학교	-	4,000	생활인구전담팀(신규)
	3.2.	마을 거점 교육공동주택 단지 조성	10호 * 5개	10,000	도시과 / 남원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중학교
	3.3.	빈집 활용 농촌유학 연계 임대주택 공급	5호 * 5개 면	1,000	건축과 / 남원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중학교, 읍·면사무소
4. 일·활동 분야	4.4.	지리산 워크스테이	30개 객실	200	생활인구전담팀 / 관광과
	4.2.	로컬크리에이터로 한달살기	10명 * 2회	50	일자리경제과(인구청년팀) 청년·창업센터 청년마루
	4.3.	청년 로컬투어 기획자 양성	10명	300	생활인구지원센터(신규)/ 관광과, 농촌활력과, 농촌종합지원센터
	4.4.	신중년 워킹홀리데이	10명 * 2회/년	70	생활인구전담팀(신규) 서울시 50플러스재단
	4.5.	한달 농부	10개 농가 * 5명 * 한달	50	농정과/ 생활인구전담팀(신규)
	4.6.	청년 레지던시플랫폼 조성	500평	1,000	도시과, 일자리경제과 인구청년팀 청년·창업센터 청년마루
5. 특화 공동 기본 사업	5.1.	지역 자원조사와 아카이빙	-	80	생활인구전담팀(신규) 생활인구지원센터(신규)
	5.2.	남원 곳곳에 N개의 관계안내소	-	-	생활인구전담팀(신규) 생활인구지원센터(신규)
	5.3.	'남원을 구독하다' -생활인구와 구독서비스의 결합	-	-	생활인구전담팀(신규) 생활인구지원센터(신규)

자료 : 남원시, 2024년 공모사업 대응을 위한 생활인구 유입 방안 연구, 2023

4) 임실군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2022-2026)⁸⁾

- 임실군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구 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5개년 법정계획)
- 임실군의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인구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일자리, 주거, 교통, 문화,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중장기 대응 계획수립 목표
 - 인구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5개년) 및 시행계획(1년)을 수립하고, 이에 연계한 지방소멸대응 기금 투자계획 마련 목표
- 임실군은 ‘미래 100년을 견인할 그린오션 농·축·관광도시, 젊은 임실’이라는 비전으로 임실군의 친환경 생태자원 개발을 통하여 청년세대가 중심이 되고 생태관광자원을 이용한 관광지 개발, 정주환경과 의료건강 복지 등 리빌딩을 위해 미래 100년을 견인할 사업 동시 추진
- 친환경 생태자원의 융·복합화를 통한 미래 농·축·관광산업 경쟁력 확보 및 정주 환경 기반조성을 목표로 함
 - 임실군은 ①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임실 ② 다시 찾고 싶은 그린 관광도시, 임실 ③ 청년의 미래 삶이 있는, 임실을 전략으로 정주 환경 기본 조성을 목표
 - 공공임대 아파트 건립 등 정주여건 개선으로 신규 40세대 유입(2026년 기준)
 - 문화관광 인프라 개선을 통한 생활인구 1천만 명 시대 개막(2026년 기준)
 - 교육·일자리 환경 개선으로 사회적 증감 +100명 유지(2026년 기준)

8) 임실군,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2022-2026), 2023



[그림 2-17] 임실군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2022-2026 비전 및 전략

[표 2-20] 임실군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2022-2026) 전략체계 및 실천과제

전략	실천과제	세부사업	사업비 (단위 : 백만원)
1. 살고싶고, 머물고 싶은, 임실	1.1. 인구 유입을 위한 양질의 주거지 조성	군무원·중소기업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53,300
		관촌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36,200
		오수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24,900
	1.2. 생활 중심지 정주여건 개선	오수면 행복누리원 건립사업	12,500
		관촌면 행복누리원 건립사업	12,000
		오수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21,700
		오수지구 도시재생 인정사업	8,000
	1.3.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체육시설 조성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14,500
		임실군 생활체육관(탁구·피구) 건립사업	5,900
		임실군 야구장 조성사업	5,500
2. 다시 찾고 싶은 그린 관광도시, 임실	2.1. 문화·관광 인프라 개선을 통한 생활인구 확대	임실 문예담터 건립사업	2,000
		반려동물 캠핑장 조성사업	2,000
		제2기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	25,000
		옥정호 봉어섬 에코브릿지 건설사업	9,500
		옥정호 생태숲 조성사업	2,400
		옥정호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6,087
		세계명견 테마랜드 조성사업	18,000
	2.2.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상권 확충	반려동물특화 청년창업공간 조성사업	10,000
		옥정 “牛” 푸드 플레이스 조성사업	6,145
		임실 전통시장 청년 맛잇길 특화 거리 조성사업	2,400
	2.3. 지역특화형 외국인 근로자 유입 촉진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6,500

전략	실천과제	세부사업	사업비 (단위 : 백만원)
3. 청년의 미래 삶이 있는 임실	3.1.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임실군 가족 체류형 농촌 유학 거주 시설 조성사업	3,521.6
		치즈아이랜드 조성사업	5,000
		봉황인재학당 운영사업	6,630
		육아지원금 확대 지원사업	3,780
		다문화가족 육아지원금 지원사업	720
		출산장려 지원사업	3,457
	3.2. 임실을 위한 청년 정착 촉진	농공단지 복합문화공간 건립사업	3,850
		오수 제3 농공단지 조성사업	17,000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 조성사업	4,170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	3,355
		인구 늘리기 시책 전입 장려금 지급사업	150

자료 : 임실군,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2022~2026),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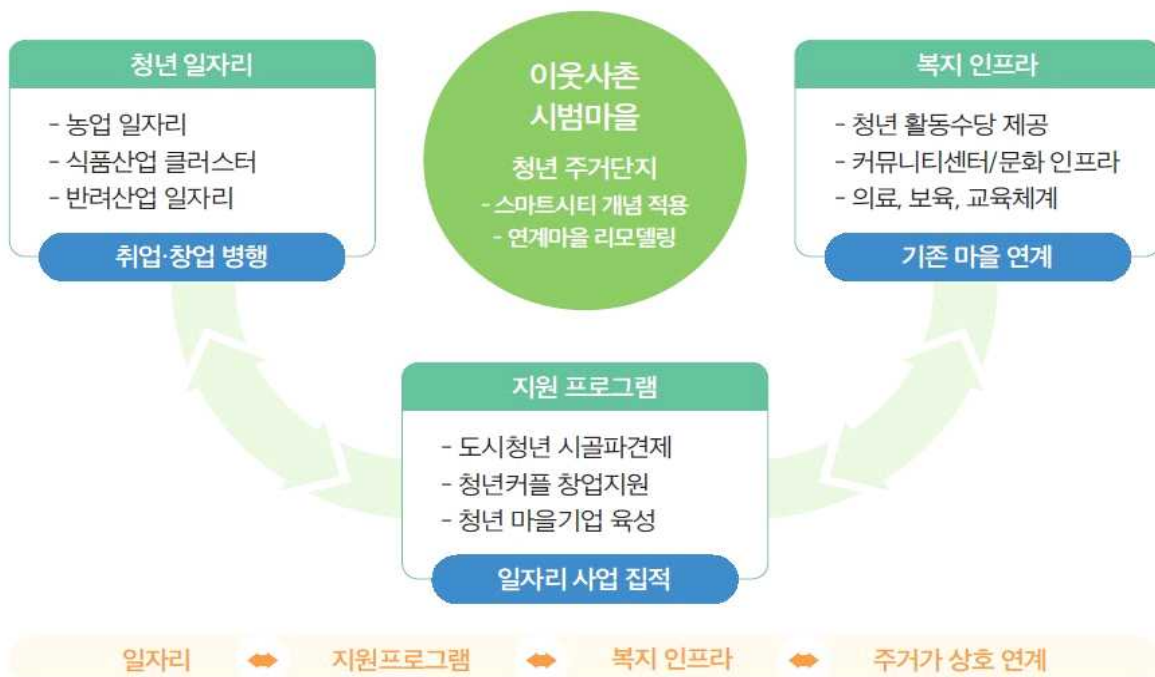
제5절 국내외 인구정책 사례 분석

1) 국내 인구정책 우수사례

■ 경북 의성군: 청년 유입과 정착 유도를 위한 ‘이웃사촌 시범마을’

○ 도입배경

- 2018년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방소멸지수에서 의성군은 전국 1위의 소멸위험지역(지수 0.15)으로 지정됨
- 의성군 안계면을 중심으로 청년층 유출, 고령화, 출산율 저하 등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위기가 심화되면서 경북도와 의성군은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함
- 민선 7기 경상북도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채택되어 ‘사라지는 농촌을 살아나는 농촌으로’라는 비전 아래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이 기획됨
- 경상북도는 청년유입을 통해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새로운 정책모델을 기획하고, 의성군은 이에 부응해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함



[그림 2-18] 경북 의성군 이웃사촌 시범마을사업 개념도

○ 정책 내용

- 사업명: 이웃사촌 시범마을사업
- 사업기간
 - 1단계 시범사업: 2019~2022
 - 2단계 이후 확장: 2022년 이후에도 순차적으로 확대 예정, 2-3단계는 2022~2023년까지 진행됨
- 총사업비: 약 1,220억 원
- 핵심 전략
 - 청년 일자리·주거·복지 인프라를 통합 제공해 청년 유입 및 정착 유도
- 추진 방식의 특징
 - 경상북도와 의성군 간의 협력 거버넌스
 - 부처 연계형 융복합 사업(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스마트팜, 공공임대주택, 문화센터 등 포함)
 - 하드웨어(시설 중심) + 소프트웨어(지원 프로그램) 통합 추진
- 주요 사업영역
 - 청년일자리: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농업·반려동물·식품산업 일자리 창출 등
 - 청년주거: 모듈러주택, 컨테이너하우스, NH임대주택, 게스트하우스 등 조성
 - 생활환경 개선: 도로·간판·공원 정비, 보건복지센터, 어린이집 증설 등
 - 공동체 활성화: 문화예술 지원, 청년 커뮤니티 운영, 청년 힐링페스티벌 개최
 - 청년유입 프로그램: '의성 살아보기', 청년예술캠프, 홍보사업 등 다각적 추진

[표 2-21] 경북 의성군 '이웃사촌 시범마을사업' 세부사업

구분	주요사업	주관부서	구분	주요사업	주관부서
일 자리 창출	스마트팜 구축 및 청년농부 육성(H/W, S/W)	농업기술원, 의성농업 기술센터	생활환경 개선	안계 우리밀 시범단지 조성사업(H/W, S/W)	친환경농업과
	청년시범마을 일자리 사업(S/W)	인구정책과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H/W)	에너지산업과
	도시청년 시골파견제(S/W)	청년정책관		공공미술프로젝트(H/W)	문화예술과
	청년마을 일자리 뉴딜(S/W)	청년정책관		안계 가로길 조성(H/W)	산림산업 관광과
주거 단지 조성	스마트팜 연계 청년주거 (컨테이너 하우스)(H/W)	인구정책과	마을공동체 강화	이웃사촌 시범마을 경관가로등 설치(H/W)	인구정책과
	포스코 연계 청년주거 (모듈러주택)(H/W)	인구정책과		안계 식당문화 혁신 추진(H/W)	관광정책과
	금수장 리모델링 (청년게스트하우스)(H/W)	인구정책과		안계 주차문화 혁신 연구(S/W)	인구정책과
	LH공공임대주택 건립(H/W)	인구정책과		안계 간판문화 혁신 추진(H/W)	도시재생과
생활환경 개선	청년이 살고 싶은 의성 행복 포레스트(H/W, S/W)	인구, 도시, 기술원	청년유입	이웃사촌 지원센터 운영(S/W)	인구정책과
	안계행복플랫폼 (복합문화복지센터)(H/W)	인구, 도시		행복마을 자치사업(주민공모)(S/W)	인구정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H/W, S/W)	도시계획과		팜문화빌리지 조성(H/W)	문화산업과
	안계시장 현대화사업(H/W)	의성군 자체		안계 청년교차방 운영(H/W, S/W)	사회적 경제과
	의성 펫 월드 조성(H/W)	인구정책과, 동물방역과	기타	이웃사촌 마을 청년단체 육성(S/W)	인구정책과
	안계 하나 국공립어린이집 신·증축(H/W)	아이세상 지원과		이웃사촌 시범마을 청년예술캠프(S/W)	인구정책과
	3대필수의료체계 내실화(H/W)	보건정책과		서울지역상생일자리사업 (청년플러스)(S/W)	인구정책과
	안계 초등학교 KT-A이스쿨 (경북미래학교) 구축(S/W)	인구정책과		도시청년 의성 살아보기(S/W)	인구정책과
	안계 AI 어린이공원 조성(H/W)	인구정책과	이웃사촌 시범마을 홍보(S/W)	인구정책과	
	안계 다함께 돌봄사업(H/W)	아이세상 지원과	이웃사촌 마을 청년 힐링페스티벌(S/W)	인구정책과	
	출산통합지원센터(H/W)	보건정책과	통합브랜드 디자인(B.I) 선정(S/W)	인구정책과	
	이웃사촌 시범마을 골목정원 조성(H/W, S/W)	인구정책과	중간성과분석 및 확산전략 수립 연구용역(S/W)	인구정책과	
	이웃사촌 시범마을 청년특화거리 조성(H/W)	인구정책과		이웃사촌 시범마을 기본계획 수립(S/W)	인구정책과
	안계평야 경관개선사업(S/W)	의성군 농축산과, 기술센터			

○ 정책 성과

• 청년 유입 및 정착

- 2019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총 97명의 외부 청년 유입 및 정착, 그 중 61명은 창업, 36명은 스마트팜에 참여
- 연계면 참여 청년 중 104명은 주소 이전을 통해 실제 정착한 것으로 확인됨

• 인구구조 변화

- 19세~39세 청년 총 인구: 2019년 981명 → 2024년 기준 820명으로 16% 감소하였지만, 의성군 전체 청년 감소율(22%)보다 완만한 추세

• 정책확산 영향

- 2022년부터 영천시 금호읍(정착 77명), 영덕군 영해면(정착 20명)에도 유사한 이웃사촌 마을 사업이 확대됨
- 영덕의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은 2024년에만 1,596명 참여

• 사회적 성과

- 청년 주도의 마을공동체 형성
- 지역 내 창업 및 사업체 종사자 수 증가
- 보육 및 문화 기반 확대

○ 시사점

• 정책적 통합성과 유연성 확보가 핵심

- 청년 일자리와 주거, 복지, 문화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청년의 다양한 생활 양식과 취향을 반영한 정책 설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했음

• 정량적 유입보다 질적 정착 중심의 정책 설계

- 창업이나 지역 소득 활동 기반 마련이 중요함
- 의료·문화·생활 기반 강화는 청년 정착의 핵심 요소로, 응급의료와 보육 및 문화공간 구축은 매우 긍정적 평가를 받음

•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와 협력하는 수직적 거버넌스 필요

- 도 차원에서의 예산 확보와 기획 주도, 군 단위의 집행 협력이 중요한 성공 요인이었음

• 압축적·집중적 추진의 한계

- 단기간에 다양한 사업을 몰아넣으면서 지역사회와의 충돌 및 이질적 요소로 인한 부조화 발생

- 사업의 속도와 지역사회 수용성 간 균형 필요.
- 전체지역 파급 부족
 - 사업이 특정 지역(안계면)에 집중되며, 인접 지역(다른 읍·면·동)과의 연계성이 부족해 공간적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 민간 주도성 부족
 - 사업 기획 및 운영의 상당 부분이 행정 중심으로 이루어져 주민 자발성, 민간 참여가 제한적이었음
 -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과 주민의 자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군산시 적용 시 고려사항
 - 청년 창업 기반과 체류형 주거 제공 중심의 통합 프로그램 설계
 - 기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인프라 병행 구축
 - 청년 + 가족 + 고령층을 아우르는 대상별 세분화 정책 설계
 - 인근 도농복합 지역의 유사 사업 확산 사례 분석 및 연계 적용

■ 전북 완주군: 정주여건 개선과 복합정책 연계를 통한 인구 10만 회복

○ 도입배경

- 2021년 기준 주민등록인구는 약 9만 1천 명 수준으로 감소, 지방소멸 우려 지역으로 분류됨
- 청년층 유출과 고령화, 출산율 저하 등 복합적인 인구감소 요인이 지속됨
- 전주시와 인접한 지리적 이점, 기존 산업단지 및 교통 인프라 등 정주여건 개선 가능성 보유
- 민선 8기 출범(2022년)을 기점으로 산업·주거·복지 등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본격화됨
- 단일 출산장려정책 중심에서 벗어나 복합전략형 인구정책(산업+정주+청년+복지)으로 접근
- 인구증가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인구구조 전환 및 자립형 지역발전 기반 마련 목적

○ 정책 내용(2020~2024년 시행 정책 기준)

- 신규 주거단지 조성
 - 삼봉지구에 1만 3천 세대 규모의 정주 기반 조성, 운곡지구에는 복합행정타운 연계 주거단지 개발
 - 정착 인구 유입을 위한 기반시설 집중 투자

- 테크노밸리 제2산업단지 본격 분양 및 기업 유치
 - 2023년 기준 분양률 97.6%, 80개 기업 입주
 - 1조 2,7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 유치로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기반 마련
- 청년 쉼어하우스 조성 및 확대 운영
 - 2021년부터 삼례·고산·봉동·이서 지역에 청년 쉼어하우스 도입, 최대 월 5만 원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 주거 지원 시작
 - * 현재 11개소 운영 중, 최대 3년 거주 가능, 커뮤니티 프로그램 포함
 - 2023년 추가로 LH 매입임대주택 1개 동을 쉼어하우스로 전환,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 유도
- 청년·신혼부부 임대보증금 무이자 용자지원
 - 2024년 기준, 무주택 만 18~39세 미혼 청년 및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대상
 - 임대보증금 최대 2,000만 원까지 무이자 용자 지원(계약금은 본인 부담)
 - 지원 기간: 최초 2년, 최대 10년(연장 4회 가능)까지 연장 가능
 -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유인을 통해 정착 기반 마련
- 출산 및 산후지원 정책 강화
 - 신생아 출산장려금 지급: 첫째아 200만 원(2년간), 둘째아 300만 원, 셋째 이상 600만 원까지 지원체계 명확화 (2021년 조례 개정)
 - 산후건강관리비, 임신부 교통비, 고위험 산모 지원, 출산축하용품(내의, 미역, 소고기 등) 제공 등 폭넓은 산모·신생아 지원 강화
- 아동친화도시 추진 및 돌봄체계 개선
 - 2020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고, 6개 영역·18개 과제를 포함한 중장기 정책 기반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추진함
 - 2021~2023년 어린이·청소년의회, 아동참여예산제, 아동옴부즈퍼슨 운영 등을 통해 아동의 권리 보장과 정책 참여를 제도화함
- 마을돌봄공동체 구축, 공동육아나눔터 확충,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등 지역 기반 돌봄 인프라를 확대하며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함

○ 정책 성과

- 인구 회복 및 정착
 - 2025년 5월 기준 완주군 인구는 100,005명으로, 36년 만에 인구 10만 선 회복
 - 평균적으로 매월 약 260명씩 순유입, 2023년 군 단위 전국 1위 증가 (5,405명 증가)
 - 인구 순유입률(인구 100명당 순유입 인원)
 - * 2022년: 2.3% → 2023년: 6.3%로 상승하며 호남·제주 내 1위 기록
- 산업단지 분양 및 기업 유치
 - 완주테크노밸리 제2산업단지 분양률
 - * 2022년 7월: 38.7% → 2024년 12월: 97.6%로 급등
 - 입주 기업 수 및 현황 (2025년 1월 기준)
 - * 총 33개 기업 입주 계약 완료
 - * 그 중 16개 기업 실제 가동 중, 1,720명 고용 창출, 1조 1,600억 원 투자 유치
 - 고용 전망 및 주거 효과
 - * 산업단지 완공 시 최대 2만 5,601명 근로자 수용 가능
 - * 미니복합타운 내 3,354세대 공동/단독주택 계획, 8,386명 인구 유입 효과 기대
- 출생 및 출산정책 영향
 - 2024년 출생아 수: 총 548명, 전년 대비 33.3% 증가
 - 전북 전체 출생아 증가분(205명)의 67% 차지

○ 시사점

- 정주·산업·복지를 연계한 통합적 인구정책 필요성 확인
 - 단일 출산장려정책 중심에서 벗어나 주거, 일자리, 돌봄 등 다차원 정책 연계를 통해 인구구조 전환의 가능성을 보여줌
- 청년 정착을 위한 맞춤형 주거·금융지원 확대의 중요성
 - 셰어하우스 및 무이자 보증금 지원은 청년층 유입·정착에 실효적이며, 타 지자체에도 적용 가능한 모형으로 평가됨
- 산업단지와 연계된 인구유입 전략의 효과 확인
 -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은 단기 인구증가뿐 아니라 지역의 경제적 자립기반 형성에도 기여함

- 지속가능한 인구정책을 위한 아동·가족지원 체계 강화 필요
 -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돌봄 인프라 확충은 장기적인 정주환경 조성에 핵심 요소로 작용
- 군산시 적용 시 고려사항
 - 기존 산업단지 재생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전략이 필요(완주군의 신규 산업 중심 접근과의 차이 고려)
 - 도심공동화 해결을 위한 원도심 중심의 정주 기반 정비가 요구됨(신도시 확장보다는 리모델링 중심)
 - 청년 주거 수요에 맞춘 지역별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함(공공임대 선호도 및 지역별 수요 차이 반영)
 - 읍면 지역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균형 있는 보육 인프라 확충이 요구됨
 - 정책 성과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 마련이 필요함(청년 정착률, 순이동 등 지표 관리)

■ 충남 예산군: 예산형 구도심 지역상생 프로젝트

○ 도입배경

- 예산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지속적인 출산율 저하와 지방소멸 위험에 직면해 있었음
- 특히 원도심 공동화와 청년 유출 등으로 생활인구 증가가 절실한 상황이었음
- 이에 지역 활성화 수단으로 민간과 협업하여 전통시장 리노베이션을 추진하고, 생활인구의 체류 시간 증가를 통해 정주화 기반을 마련하기위해 구도심 지역상생 프로젝트를 시행함

○ 정책 내용

- 예산시장 새단장 (예산시장 살리기 프로젝트)
 - 민간(더본코리아)과 협업하여 예산전통시장 내 매장 구성, 음식점 추가 창업, 레트로 감성 재구성 등을 추진
 - 개장 초기부터 인테리어 개선, 신규 점포 11곳 포함 총 16개 점포 추가 입점, 어린이 간식 등 메뉴 구성 지원
- 청년 창업 플랫폼 '오픈스페이스' 조성
 - 예산시장 내에 청년창업 복합공간인 '오픈스페이스'를 설치해, 단순 창업 점포뿐만 아니라 문화체험, 교육, 커뮤니티 기능을 갖춘 청년 중심 플랫폼으로 설계함
 - 전통시장 내 청년 창업의 거점이자 지역 활력의 핵심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음
- 예당호 관광지와 연계 관광 활성화
 - 예당호 출렁다리, 음악 분수, 모노레일, 수변무대, 쉼하우스 등의 체험 관광 인프라 확충

- 전통시장 방문객이 예당호로 이동하는 관광 경로 유도 전략 운영
- 생활인구 중심 정책 설계 및 인프라 확대
 -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방문객을 '생활인구'로 정의하고 이 수치를 중시하여 정책 설계
 - 'K773 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 등 창업·관광 복합단지 개발 계획 및 청년 정주시설 마련 포함



[그림 2-19] 예산시장 내 청년창업공간 '오픈스페이스'

○ 정책 성과

- 생활인구 증가
 - 예산시장 개장 초기 78일 만에 방문객 100만 명 돌파
- 연간 관광객 수 증가
 - 2024년 기준 예산군 방문 관광객은 전년 대비 10.6% 증가한 약 355만 명 기록
- 생활인구의 상시 체류 증가
 - 예산시장 및 주변 관광지가 확대되며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방문객이 크게 늘어 정주 가능성 상승

- 인구 증가
 - 내포신도시 신규 아파트 입주와 여타 정책 복합효과로 주민등록 인구가 13개월간 2,794명 증가, 2023년 총 인구 8만 1천여 명 회복
- 정책 평가 및 수상
 - 국토교통부 ‘우수 지역개발사업’ 선정, 지역 브랜드 평판 1위,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등 다수 상 수상

○ 시사점

- 생활인구 중심 정책 설계의 효과
 - 단기 방문객을 정주 인구로 전환시키는 전략이 지역 활력에 크게 기여하며, 생활인구 개념을 정책 설계 핵심으로 삼을 수 있음
- 지역 특산물·문화 자원과 외부 전문가 협업의 시너지
 - 민간과의 협업이 콘텐츠 경쟁력과 방문객 관심도를 획기적으로 높임
- 관광 자산과 전통시장 간 연계 효과 극대화
 - 예산시장 방문 → 주변 관광지(예당호 등) 체류로 이어지는 관광 루트 설계가 필수적 전략임
- 단순 관광 인프라 구축을 넘어 창업·청년 정착 인프라 연계
 - 관광 활성화와 병행해 청년 정주시설, 창업 지원, 장기 인프라 구축까지 계획한 것이 핵심적 효과 요인
- 군산시 적용 시 고려사항
 - 전통시장 리뉴얼 + 관광지 연계 프로그램 구성으로 방문객 → 생활인구 전환 전략 추진
 - 문화·외식 콘텐츠 전문가 협업(예: 셰프, 크리에이터 등) 도입 가능
 - 단계적 인프라 확대 계획
 - * 시장 활성화 → 주변 관광지 연계 → 청년 정착시설 조성
 - 제도적 기반 마련
 - * 인구감소 조례, 전입지원 확대, 생활인구 통계 관리 등 포함

2) 해외 인구정책 우수사례

■ 일본 시마네현: 아마정(海士町) 청년 유입 및 정착 사례

○ 도입배경

- 인구소멸위기
 - 아마정은 일본 혼슈 시마네현 오키 제도의 도서 지역으로, 한때 인구 7,000명 수준에서 2000년대 초반 2,000명 수준으로 급감
 - 2004년 '지자체 재정 쇼크' 이후 '재정재건단체'로 지정될 위기에 처함
- 지역 존속 위기 대응
 - 2007년을 '미래를 떠받치는 인재 만들기 원년'으로 선언
 - 청년층의 이탈을 막고 외부 인재를 유입하기 위한 지역 재생 전략을 본격 추진

○ 정책 내용

- 청년 유입 및 정착 기반 조성 (UITN 촉진)
 - 지역 특산물 산업(사카에카레, 오키 소고기, 동결오징어 등) 육성을 통해 외화 획득과 청년 일자리 창출
 - 민간 주도의 지역경제를 지향하며 행정은 기반만 마련하고 운영은 민간에 위탁하는 공설 민영 방식 채택
 - 관광, 숙박, 세탁 등 지역산업 연계를 통해 멀티워크 고용체계 구축 → 계절편중형 일자리 구조 극복
- 청년의 창업·자립 기반 조성
 - '섬 팩토리' 등 법인을 통한 청년 창업 지원
 - 관광협회와 연계하여 산업 간 복합과제 해결, 다양한 직종 경험 및 지역 사회 기여 확대
- 지역 교육 기반 강화 및 유입 유도
 - 오키지마전 고등학교 내에 '특별진학코스'(대학 진학 목표) 및 '지역창조코스'(지역 일 경험·창직 목표) 운영
 - '섬 유학' 제도를 도입하여 외부 학생의 고교 유입을 장려함으로써 지역 학생과 상호 자극 및 정주 가능성 확대
 - 공영학원 '오키지마학습센터' 설치 → 도시와의 교육격차 해소 및 진로 설계 지원

○ 정책 성과

- 청년 순유입 및 정착 실현
 - 2004년 이후 약 410명의 청년 1턴 유입⁹⁾, 이 중 약 55%가 아마정에 정착함
- 지역 고등학교의 활성화
 - 오키지마전 고등학교는 입학생이 매년 50명 수준으로 증가하며, 한때 폐교 위기였던 학교가 재활성화됨
 - 학급 수가 1학급에서 2학급으로 증설되는 등 교육 인프라 회복
- 경제 내재화 기반 형성
 - 지역에서 생산된 소득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섬 안에서 순환되는 구조 확립
 - '멀티워커' 체계를 통해 관광·숙박·물류 분야에서 계절별 일자리 불균형 완화
- 지역 청년의 자긍심 및 공동체 의식 제고
 - 외부에서 온 청년들이 지역 콘텐츠 개발, 주민 연계 프로젝트 등에 적극 참여
 - 교육과 산업을 통해 지역 정체성 기반의 정착문화 형성

○ 시사점

- 산업-교육-정주를 연계한 통합적 정책 설계 필요
 - 단순한 청년 유입이 아닌, 지역 자원 기반의 경제활동 및 교육과 연결된 지속가능한 정착 모델 필요
- 지역 고교는 청년 정착의 핵심 통로
 - 고등학교가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의 미래 인재 양성 및 외부 청년 유입의 관문으로 기능함
- 청년 주도 참여 구조가 정착률을 높임
 - 청년이 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도록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해야 함
- 소규모 지자체일수록 공공의 의욕적 역할 중요
 - 민간의 자율적 운영을 기반으로 하되, 초기 기반 조성 및 인재 유입은 지자체의 리더십과 전략 기획력이 필수
- 관계인구 활용 및 교육복지의 중요성 재조명
 - 외부 유학생, 도시 청년 등 다양한 관계인구가 지역의 활력을 제공하며, 장기적으로 정주 가능성도 높임
- 군산시 적용 시 고려사항

9) 수도권 등 대도시에서 출생·성장한 사람이 지방으로 이주하여 정착하는 형태

- 청년 유입을 위한 산업-교육-정주 통합 모델 구축 필요
- 지역 고교 활성화를 통한 청년 정주 기반 강화
- 청년 다직종 연계형 일자리(멀티워크) 구조 도입 검토
- 청년의 자율성과 주도성을 기반으로 한 참여형 정책 추진
- 소규모 실행단위 중심의 유연한 지원체계 운영 필요

■ 미국 오하이오주 영스타운: Youngstown 2010 Citywide Plan

○ 도입배경

- 영스타운은 20세기 중반까지 철강산업을 기반으로 급격히 성장했으나, 1970년대부터 탈산업화와 제조업 쇠퇴로 인해 인구감소와 경제 침체가 본격화됨
- 1950년대 약 17만 명에 달했던 인구는 2000년에는 약 8만 명 수준으로 절반 이상 감소
- 기존의 성장 중심 도시계획은 현실과 괴리가 있었고, 방치된 공간 증가, 재정 악화, 슬럼화 등이 심화됨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9년부터 시민참여를 중심으로 한 장기 도시계획 수립이 추진됨

○ 정책 내용

- 성장 지향에서 축소 지향으로의 철학적 전환
 - 영스타운 2010 계획은 “A City That’s Not Going to Grow Anymore”라는 슬로건을 통해 성장을 목표로 삼는 도시계획에서 탈피하고, 인구감소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현실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도시구조를 모색하였음
 - 기존 도시계획은 인구 회복을 전제로 한 외연적 팽창과 재개발 위주의 공급 중심 계획이었으나, 영스타운은 그 기조 자체를 포기하고 ‘더 작지만 더 나은 도시(Smaller but Better City)’라는 목표를 수립
- 노후 주거지 및 유휴 공간 정비 → 녹지·커뮤니티 공간으로 전환
 - 전체 주택의 약 30%가 공가로 남아 있던 현실을 반영하여, 관리 불가능한 노후 주거지는 철거하고 이를 커뮤니티 정원, 도시 숲, 공공녹지 등으로 전환하는 ‘Greening Strategy’ 도입
 - 빈 집이 범죄와 슬럼화를 유발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도시 생태계 회복과 삶의 질 개선을 동시에 추구함
 - 철거 작업은 단순한 ‘제거’가 아니라, 시민 그룹과 협업하여 녹지화 프로그램(Green Youngstown)으로 전환함

- 거주 가능한 커뮤니티 회복: 기능 밀도 강화 및 공간 재배치
 - 인구 감소 지역 내 기반시설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여, 수요가 적은 지역의 공공 서비스 축소 및 재배치를 단행
 - 도시 기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물리적 인프라와 생활권 공간을 재정렬하고, 존치할 공간과 철수할 공간을 구분함
 - 시민참여 기반 계획 수립: 지역 거버넌스 구축
 - Youngstown State University, 지역 시민단체, 시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200여 회의 이상 워크숍 및 포럼 개최
 - 총 5,000명 이상의 시민이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하며, 계획 초안부터 공청회, 최종 실행계획까지 전 과정에서 주민의견 반영
 - 이는 단순한 top-down 방식의 도시계획이 아닌, 지역 공동체 주도형 도시 비전 설정의 모범사례로 평가됨
 - 지역 정체성 회복 및 도시 이미지 전환
 - 산업 쇠퇴 이후 ‘쇠퇴한 도시’ 이미지를 지닌 영스타운은 이번 계획을 통해 문화예술, 고등교육, 의료산업 중심의 도시 정체성 재구축에 착수.
 - ‘Youngstown Pride’ 캠페인을 통해 시민 주도의 도시 이미지 개선 운동 병행
 - 슬로건: “Right-size our city”, “Make it greener”, “Create community anchors”.
- 정책 성과
- 빈집 철거 및 환경개선 성과
 - 2005년 이후 2,000채 이상의 공가 철거. 일부 지역은 공공 텃밭, 도시숲, 수변공원 등으로 재생됨
 - 철거 지역 범죄율 감소, 주민 만족도 증가, 도시 미관 개선 등의 효과 확인
 - 녹지 조성 및 ‘Greening Youngstown’ 확대
 - 영스타운 시는 녹지 조성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시민 자원봉사 기반의 도시녹화 프로젝트 확대 운영
 - 폐허화된 토지(특히 철거지)의 10% 이상을 도시농업·커뮤니티 가든으로 활용함
 - 지역의 비영리단체와 협력해 청소년 고용형 텃밭사업도 진행
 - 도시기능 효율화 및 재정 건전화
 - 공공 서비스 공급지역 재조정으로, 물·전기·도로 유지 비용 약 20% 절감
 - 인구밀도에 기반한 시설 재배치를 통해 재정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 확보

- 정책확산 효과
 - Youngstown 2010 모델은 이후 디트로이트(Detroit Future City Plan), 클리블랜드, 플린트 등 인구감소 도시계획 수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줌
 - 미국 도시계획계에서 'Right-sizing'이라는 개념을 대중화시킨 사례로 널리 인용됨

○ 시사점

- '모든 도시는 성장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의 탈피
 - 인구감소가 되돌릴 수 없는 흐름임을 인정하고, 도시계획의 목표를 확장에서 생존과 질적 유지로 전환한 점은 한국 지방도시에도 시사하는 바 큼
 - 특히 산업 쇠퇴와 지방소멸 위험이 혼재된 지역에서는 '적정 규모' 설정이 필수적임
- 공간 축소와 기능 밀도의 전략적 재배치
 - 인프라, 행정, 교통, 복지시설 등을 무조건 유지하기보다, 수요 기반 선택과 집중을 통해 도시 기능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질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영스타운처럼, 축소할 곳은 과감히 줄이고, 존속 지역은 밀도와 품질을 강화하는 방식이 합리적
- 녹지·공공공간 중심의 생태적 회복 전략
 - 방치된 공간을 새로운 자연 기반 도시자산으로 전환한 점은, 기후위기 시대에 더욱 효과적인 전략임
 - 한국 중소도시의 방치지, 폐가, 노후 공업지대를 그린 인프라로 전환하는 도시생태계 회복 전략에 응용 가능
- 시민참여 기반의 지역 거버넌스 구축
 - 도시계획은 기술과 공학의 영역을 넘어 사회적 합의와 시민 동의 기반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임
 - 계획수립 단계부터 실행, 모니터링에 이르기까지 주민참여를 제도화하는 시스템 설계 필요
- 군산시 적용 시 고려사항
 - 성장 중심의 기존 도시계획에서 벗어나, 인구감소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도시관리 전략을 전환해야 함
 - 노후 주거지와 유휴공간은 철거 후 녹지나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전환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해야 함
 - 도심과 생활권 중심지에 도시기능과 공공서비스를 재배치하여 행정·재정적 효율성을 높여야 함
 - 도시계획 전 과정에서 시민과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함
 - 군산의 산업·역사·자연자원을 기반으로 도시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살기 좋은 도시 이미지를 강화해야 함

■ 핀란드 로바니에미시: 가족 및 청년정책 사례

○ 도입배경

- 로바니에미시는 핀란드 북부, 북극권에 접한 라플란드 지역의 중심 도시로 상대적으로 인구밀도가 낮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중소도시임
- 최근 몇 년간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출과 출산율 저하가 지역 공동체 지속성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
- 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 및 청년 정책 혁신에 착수함
- 이에 따라 로바니에미시는 ‘가족이 안심하고 자녀를 키우며, 청년이 머무르고 싶은 도시’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복지, 교육, 고용, 사회 참여 전반에 걸친 통합 정책을 추진해옴

○ 정책 내용

- 자택근무 부모 대상 무료 보육 지원 - Open Day Care Program
 - 로바니에미시는 자택에서 근무하는 부모(원격근무자, 육아휴직 중 부모 등)를 위한 무료 오픈 보육 프로그램을 시립 보육시설 중심으로 운영함
 - 해당 프로그램은 일반 보육과 달리 정규 등원 대신, 부모가 자녀를 동반하여 참여하는 시간제 놀이·교육 공간이며, 사회적 상호작용과 육아 지원 네트워크 형성을 목적으로 함
 - ‘Open Early Childhood Education(Avoim varhaiskasvatus)’ 형식으로 제공되며, 전문 보육교사, 아동심리 전문가가 활동을 지도하고, 부모 간 정보 교환 및 공동 육아의 기회를 마련함
 - 특히, 정규 보육기관에 등록하지 않은 자녀도 사전 등록 없이 유연하게 참여 가능하며, 외국인 가정·이주 가정도 언어 적응을 위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영어 안내를 병행함
 - 핀란드 사회보장제도(Kela)의 Home Care Allowance와 연계하여, 3세 미만 아동을 자택에서 돌보는 부모에게 일정 수준의 수당도 제공됨
- 다자녀 가정 및 유연근무제도 지원
 - 세 자녀 이상 가정을 위한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인센티브를 제공함
 - * 이는 주거 우선 배정, 보육비 면제, 교통 및 문화 활동비 할인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적용됨
 -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 차원의 보육료 상한제 및 급식비 지원이 시행되며, 공공기관 채용 시 가족친화 인증을 반영한 가점제도도 일부 도입되어 있음
 - 또한, 공공부문 및 협력 민간기업에서 유연근무제, 재택근무 활성화를 장려하고 있으며, 가족 돌봄 휴직 등도 법적 권한 내 최대한 보장하고 있음

- 청년 정책 및 사회참여 활성화
 - 시는 청년의 시정 참여 확대를 위해 청년의회(Youth Council), 청년 자문위원회 등을 활성화하고 있음
 - * 시의 예산 편성, 도시계획, 문화행사 기획 등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30세 이하 청년을 위한 원스톱 상담센터인 Ohjaamo Rovaniemi에서는 진로·교육·주거·정신건강에 대한 전방위적 서비스를 제공함
 - * EU의 NextGenerationEU 기금을 바탕으로 구축
 -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청소년센터 Poppari는 청년들의 일상적 모임 공간으로 활용됨
 - * 비형식적 학습·문화활동·멘토링 프로그램이 운영됨
 - * PlayStation, 보드게임, 당구 등 다양한 시설이 무료 제공되며, 청년들이 '제3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자주 이용하는 대표 공간
 - 특히 학교와의 협업을 통해 'JOPE'라는 프로젝트 기반 교육도 병행됨
 - * 청소년이 직접 기획한 캠프, 실습, 미디어 프로젝트 등을 통해 자기 주도적 학습 경험을 쌓도록 도움
 - 가족친화 인프라 및 생활 기반 시설 구축
 - 로바니에미시는 시 전역에 걸쳐 보육시설, 가족지원센터, 커뮤니티 거점시설을 균형적으로 배치하고 있음
 - * 특히 주거단지 인근에 어린이 놀이터, 산책로, 복합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하고 있음
 - 공공도서관, 마을 공동 주방, 멀티유스센터 등은 세대 통합형 공간으로 기획되어, 가족 간·세대 간 교류 활성화를 도모함
 - 이러한 인프라는 물리적 접근성을 넘어, 심리적 안전감과 정주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며, 청년 및 가족의 도시 내 정착을 유도하고 있음
- 정책 성과
- 자택근무 부모의 육아 부담 완화
 - Open Day Care 프로그램을 통해 정규 보육시설 이용이 어려운 자택 양육 가정의 보육 부담 해소
 - 부모 간 공동체 형성과 사회적 고립감 감소, 재택근무와 육아의 병행이 가능해짐
 -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안정 기여
 - 보육비 감면, 주거지원, 문화비 할인 등 체감 가능한 지원 확대로 생활비 부담 경감
 - 출산·양육 친화적 도시 이미지 제고로 정주 인식 개선, 일부 지역에서 출산율 안정세 확인
 - 청년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

- 청년의회 및 자문기구 운영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 직접 참여
- 참여 경험을 통해 청년의 소속감 및 지역 기여 의식 증가
- 청소년 문화활동 및 자기주도성 증진
 - 청소년센터 Poppari 이용률 확대, 놀이·예술·미디어 활동 참여 증가
 - JOPE 프로젝트 기반 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창의성 및 사회참여 역량 강화
- 국제적 정책 모델로 부상
 - 북극권 및 EU 내 가족·청년 정책 우수 사례로 평가받으며 대외적 주목도 상승

○ 시사점

- 보육과 근로의 양립을 돕는 유연한 돌봄 지원의 필요성
 - 자택근무·비정규 노동자 등 다양한 근로형태에 맞춘 시간제 보육 지원은 육아 부담을 줄이고 부모의 경제활동 참여를 돕는 핵심 수단임
 - 정규 보육 외 대안적 보육 모델(예: Open Day Care)의 도입은 다양한 가족의 수요에 부응하는 유연한 돌봄체계로서 유용함
- 다자녀 가정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출산친화 환경 조성에 기여
 - 주거·보육·문화비 감면 등 체감 가능한 경제적 지원이 병행될 때 다자녀 가정의 생활 안정과 출산 유인이 강화됨
 - 재정 지원뿐 아니라 가족친화적 도시 이미지를 조성함으로써 정주 유인도 함께 높일 수 있음
- 청년의 시정 참여를 제도화하면 정책 실효성과 정주성이 향상
 - 청년의회, 자문기구 등을 통한 시정 참여는 청년을 수동적 수혜자가 아닌 능동적 주체로 전환시키는 장치로 작동함
 - 청년의 사회적 소속감과 책임감을 키워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과 정착 가능성을 높임
- 청년복지의 통합 접근은 자립 역량을 높이는 기반
 - 진로, 주거, 정신건강 등 복합적 문제를 다루는 통합형 청년지원센터는 정책의 접근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핵심 인프라임
 - 다양한 위기를 겪는 청년에게 예방적 개입과 회복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청년층의 사회 진입 장벽을 낮춤
- 물리적 인프라와 심리적 안전망의 병행 구축이 중요
 - 청소년 전용 공간, 커뮤니티 센터 등 '일상 속 제3의 공간'은 세대별 교류와 문화 활동의 거점 역할을 하며 정주 만족도를 높임
 - 물리적 거리뿐 아니라 정서적 안정과 공동체 연결을 고려한 인프라 설계가 요구됨

- 가족정책과 청년정책의 연계는 지속가능한 도시 전략으로 유효
 - 세대별 정책을 분절적으로 운영하기보다, 보육·교육·참여·주거 등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설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
 - 가족이 살기 좋고, 청년이 떠나지 않는 도시 구조는 인구 유지와 도시 지속성 확보에 직결됨

3) 국내외 사례의 군산시 적용 가능성

- 군산시는 급격한 인구 감소, 청년층 순유출, 고령화의 복합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산업 기반의 쇠퇴와 원도심 공동화 현상 또한 도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내외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한 정책 도입 및 적용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음
- 경북 의성군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례의 군산시 적용 가능성
- 청년 유입과 정착 중심의 통합정책 모델은 군산의 도심공동화 및 청년층 유출 대응에 유효함
 - 군산시도 대학, 향만, 산업단지 등을 연계한 청년 창업 및 체류형 정주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체험형 유입 프로그램(예: 군산 살아보기)과 창업 공간, 공공임대주택, 공동체 지원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포함된 청년 정주 정책을 구도심에 집중 적용할 수 있음
 - 기존 주민과 청년 간의 충돌 최소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민간 협력 기반 확대 필요
 - 군산형 시범마을 모델로 도심 내 유휴 공간 및 폐산업시설을 리모델링해 청년특화거리, 청년커뮤니티 거점 등을 조성하는 방안 검토 가능
- 전북 완주군 '정주여건 개선 기반 인구회복' 사례의 군산시 적용 가능성
- 완주군의 신규 산업단지 중심 유치 전략은 군산시가 산업재편기 속에 기존 산업단지 재생 및 고용 창출에 주력할 때 중요한 참고모델이 될 수 있음
 - 셰어하우스,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등 맞춤형 청년 주거지원 정책은 군산에서도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청년 유입·정착을 유도할 수 있음
 - 읍면지역 내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균형적 보육 인프라 구축 필요
 - 정주환경 재정비는 신규 주거 확장보다는 기존 원도심 정비 중심의 전략이 타당하며, 군산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도 연계 가능

○ 충남 예산군 '구도심 지역상생 프로젝트' 사례의 군산시 적용 가능성

- 예산시장 중심의 청년 창업 플랫폼 '오픈스페이스' 모델은 군산의 공설시장, 꾀보선창 등 원도심 내 전통시장 활성화와 창업 인프라 확충에 활용 가능
- 관광지 연계 생활인구 유입 전략은 군산의 풍부한 문화·관광 자산(근대역사문화지구, 군산 내항, 철길마을 등)과 결합하여 단기 체류 → 생활인구 전환을 유도하는 전략으로 적용 가능
- 민간 전문가와 협업한 콘텐츠 재생 전략은 군산이 추진 중인 도시브랜딩 강화 및 외식·관광문화 특화에도 부합
- 시장 리뉴얼-관광지 연계-청년창업 인프라 확대의 단계적 적용이 군산 도심 활성화의 실현 가능 전략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일본 아마정 '청년 유입과 정착' 사례의 군산시 적용 가능성

- 지역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청년 유입 및 교육연계 모델은 군산시의 지역 고교-대학-지역사회 연계 교육 기반 강화 필요성과 맞닿아 있음
- 군산의 산업단지·관광자원·항만물류 등과 연계한 멀티워크(다직종·계절형 일자리) 시스템 도입 가능성 검토 필요
- 청년 자율성과 창의성 중심의 참여형 정책은 지역 공동체 회복과도 밀접하며, 청년기획 프로젝트 등을 공공지원과 연계하는 정책 운영이 유효
- 소규모 실행단위의 정책 추진은 군산시 읍면지역과 구도심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확대적용 방식으로 구현 가능

○ 미국 영스타운 '축소도시 전략' 사례의 군산시 적용 가능성

- 군산시도 성장전략이 아닌 인구감소를 전제한 도시관리로의 전환 필요
- 노후주거지, 방치공간 철거 → 녹지 및 커뮤니티 공간 전환 전략은 군산 도심의 공가 밀집지역에 적용 가능함
- 도시축소구역(철수)과 도시유지구역(존속)을 구분한 기능 밀도 강화 및 재배치 전략은 군산의 행정 효율성과 재정건전화에도 기여 가능
- 시민참여 기반 도시계획 거버넌스는 군산시 도시재생 협치 체계 강화와 연계 필요
- 군산의 산업·역사·문화 자산을 활용한 도시 정체성 재정립 전략 병행 필요

○ 핀란드 로바니에미시 '가족친화·청년 정책' 사례의 군산시 적용 가능성

- 정규 보육 외 시간제·자율 보육(예: Open Day Care) 등 다양한 가족형 보육모델 도입은 군산의 돌봄 격차 해소에 기여 가능

- 청년지원센터형 복합공간 구축은 진로, 주거, 정신건강 등 군산 청년의 복합문제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정책적 기반으로 유용함
- 청소년 문화공간, 멘토링 플랫폼 등 '제3의 공간' 조성은 군산 원도심 재생과 청소년 주도 활동기반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음
- 가족정책과 청년정책의 세대통합형 정책 설계는 군산의 지속가능한 인구구조 전환을 위한 중요한 전략임

■ 소결

○ 인구구조 변화 동향

- 초저출산과 고령화의 동시 진행으로 인구구조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 출생아 수는 1970년 101만 명에서 2024년 28만 명으로 급감, 합계출산율은 0.75명까지 하락
 -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16년 13.2%에서 2025년 20.3%로 증가, 초고령사회 진입
-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부양 부담 확대가 예상됨
 - 2072년에는 고령인구가 전체의 47.7%, 생산연령인구는 45.8%로 역전될 전망
 - 총부양비는 2022년 40.6명에서 2072년 118.5명으로 증가하여, 고령층 부양 중심의 구조로 전환
- 중위연령 상승은 구조적 고령화 심화를 상징하며, 2072년 63.4세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됨
 - 노동시장, 산업구조, 복지정책 전반에 장기적 영향 불가피
- 수도권 집중 및 지방소멸 위기는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음
 - 수도권 인구는 2020년 비수도권을 초과하였으며, 2070년에도 수도권 우위 유지 전망
 - 전북, 전남 등은 청년 순유출이 8%를 상회하며 지방의 활력 저하 및 소멸위험 심화

○ 국가 인구정책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은 기존 출산장려 중심에서 삶의 질 중심 정책으로 전환됨
 - 생애주기별 지원, 성평등 실현, 사회구조 개선 등 4대 전략 기반으로 출산·돌봄·노인·청년 정책 추진
 - 아동수당 확대, 영아수당·육아휴직 강화, 공보육 확충, 노인일자리 60만 개 창출 등이 대표 과제
- 새 정부 정책은 생애주기 맞춤형 인구정책을 지향하고 있음
 - 청년 자립 기반 강화(청년미래적금, 무이자 대출), 자동 육아휴직제, 주 4.5일제 시범도입 등 추진

- 고령층 대상 실버주택, 공공일자리 확대, 청년 연장 등으로 노인경제활동 기반을 확대하려는 방향
- 국가정책의 시사점은 '구조적 대응'과 '맞춤형 접근'의 병행임
- 단기 출산율 제고보다는 장기적 삶의 기반 조성에 초점, 사회 전반의 구조 혁신 필요성이 강조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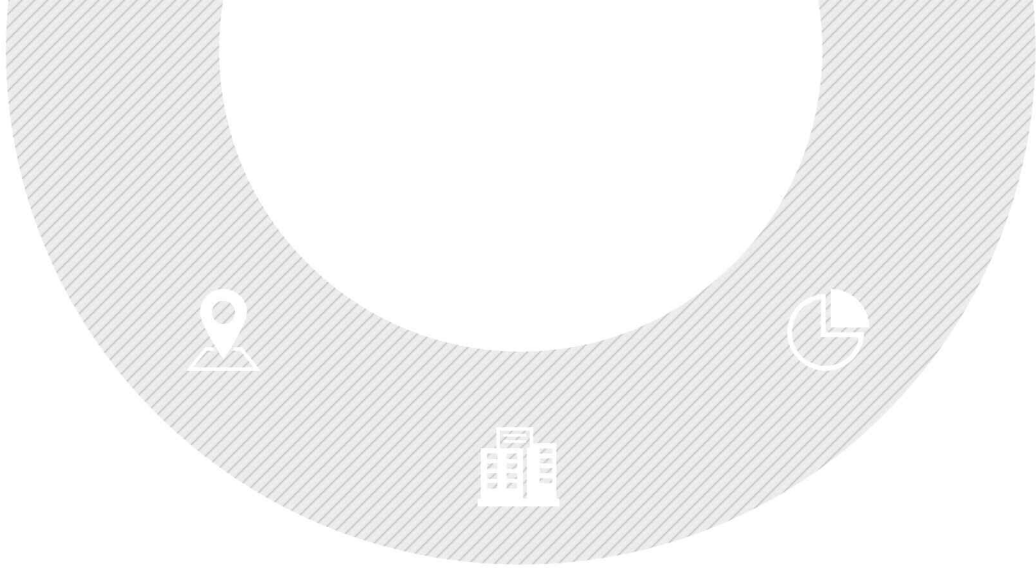
○ 전라북도 인구정책

- 제2차 전라북도 인구정책 종합계획(2023~2027)은 6대 전략을 중심으로 종합 대응체계를 마련함
 - '함께 양육하는 사회', '청년이 도약하는 사회', '중년과 노후가 활기찬 사회', '미래세대가 행복한 사회', '외국인 포용 사회', '생활인구와 상생하는 사회'로 구성됨
- 군산시 적용 가능성도 높으며, 전략별 맞춤형 실행이 요구됨
 - 청년 유출 대응을 위한 청년일자리·창업·주거 정책, 출산율 저하 대응을 위한 돌봄 인프라 확충 필요
 - 신중년 및 고령층 증가에 대응해 사회공헌형 일자리 및 건강 돌봄 체계 확장이 요구됨
 - 관광·해양자원, 근대유산, 농촌 공간 등을 활용한 생활인구 유입 전략도 추진 가능함
- 정책 실행을 위한 지역 내 이해관계자 협력과 재정기반 확보가 병행되어야 함
 - 군산시는 전북형 정책을 시 차원에서 구체화할 수 있는 적절한 플랫폼을 갖춘 도시임

○ 국내외 인구정책 사례분석

- 경북 의성군 '이웃사촌 시범마을'은 청년 유입과 정착을 위한 통합정책 모델
 - 청년 유출이 심각한 군산시에 적용 가능성이 높음
 - 일자리·주거·생활환경·공동체 활성화를 통합한 전략은 군산대와 연계한 청년창업 지원, 청년임대주택 확대, 커뮤니티 플랫폼 구축 등으로 전환 가능
 - 다만, 특정 지역에 집중된 점과 행정 중심의 추진 방식은 군산시에서 민간 주도성과 지역 전역 확산 전략으로 보완 필요
- 전북 완주군은 정주여건 개선과 산업·복지 연계로 인구 10만 회복에 성공한 사례
 - 도시 전반의 기반 정비가 필요한 군산시와 유사성이 큼
 - 산업단지 활성화, 청년세어하우스, 임대보증금 지원 등은 군산의 산업재편 및 주거 안정 정책에 접목 가능
 - 출산지원, 보육인프라 확충 등도 병행되어야 인구 선순환 구조 형성에 실효성 확보

- 충남 예산군은 구도심과 인접 농촌지역을 연계한 '지역상생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 및 고령층 정주 기반을 마련한 사례
 - 군산 원도심 재생과 도시-농촌 연계를 위한 유용한 모델임
 - 군산 구시가지의 빈집 활용, 근대문화자원과 연계한 마을 만들기, 지역 공동체 기반 강화 등으로 도시재생형 인구정책 적용이 가능
- 일본 시마네현 아마정은 청년 유입을 위한 정주·일자리·공동체 통합 전략을 추진한 사례
 - 군산의 읍면지역 고령화 대응 및 청년 정착 유도에 시사점이 큼
 - 농촌형 스마트워크, 공동체 기반 보육, 지역자치활동 등을 군산 농촌지역에 도입하여 청년 귀향·귀촌 기반 조성 가능
- 미국 영스타운시는 도시 쇠퇴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 수용 전략과 삶의 질 중심 도시공간 재편을 추진한 사례
 - 군산의 구도심 관리 및 인프라 최적화에 적용 가능함
 - 빈집 정비, 커뮤니티 리빙 도입, 복합용도 전환 등은 군산 구도심의 고령층 및 청년 공존형 공간 구성 전략으로 활용 가능
- 핀란드 로바니에미시는 가족 및 청년 정착을 위해 공공주택·보육·문화 정책을 통합 추진한 사례
 - 청년·가족 대상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돌봄 연계 커뮤니티 설계 등은 군산형 생애주기별 정주정책의 실현 모델로 활용 가능



CHAPTER

03

군산시 지역환경 분석

제1절 군산시 지역 여건 및 인구 현황

제2절 군산시 관련 계획 및 정책

제3절 군산시 인구현황 및 전망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제3장 군산시 지역환경 분석

제1절 군산시 지역 여건 및 인구현황

1) 일반현황 및 도시 특성

○ 행정구역 및 위치

- 군산시는 전라북도 북서부에 위치한 해안 도시로, 북쪽은 충청남도 서천군과 금강 하구를 경계로 접하고 있으며, 동쪽은 익산시, 남쪽은 김제시, 부안군과 인접함
- 행정구역은 1읍 10면 16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을 지님
- 도심은 주로 나운동, 수송동, 조촌동 등으로 형성됨

○ 도시 형성과 발전 배경

- 군산은 일제강점기에 항만 및 근대 도시계획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음
- 1960~1980년대에는 군산항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과 수출입 산업이 성장하며 서해안 지역의 대표 산업도시로 발전함
- 2000년대 이후에는 자동차, 조선업, 기계금속 등 중화학공업이 주력산업으로 자리 잡았으나, GM 군산공장 및 조선소 폐쇄 이후 산업구조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됨

○ 도시 공간 구조 및 생활권 특성

- 군산은 산업·항만·도심·농촌권역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도시로, 중심 시가지(나운·수송·조촌 등), 산업권역(소룡·오식도 등), 농촌권역(옥산·회현·개정면 등) 간 기능이 뚜렷하게 구분됨
- 생활권 간의 균형발전과 노후 도심 재생, 농촌지역의 정주환경 개선 등이 주요 도시관리 이슈로 부각됨

○ 인구 및 면적 개요

- 군산시의 2025년 기준 인구는 약 26만 명이며, 전체 면적은 약 399.4km²로 전라북도 내에서 인구 및 면적 기준 중상위권에 해당함
- 인구는 2010년대 후반부터 감소세를 보이며, 고령화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임

2) 경제·산업

☑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 군산시 전체 사업체 수는 2022년 기준 총 32,870개, 전체 종사자 수는 총 117,057명임

- 제조업은 총 2,784개 사업체에서 약 25,902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어, 전체 종사자의 23.3%를 차지하며 군산시 산업 중 가장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산업으로 나타남
- 도매 및 소매업은 7,680개 사업체로 전체 사업체의 23.4%를 차지하여 사업체 수 기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다만, 종사자 비중은 13.1%로 제조업보다 낮음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958개 사업체에서 12,50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종사자 비중이 11.3%로 세 번째로 높음
- 숙박 및 음식점업은 4,861개 사업체(14.8%)에 11,177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중심의 생계형 업종으로 지역 내 정주 기능과 생활경제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건설업은 3,286개 사업체(10.0%), 8,833명 종사자(7.9%) 규모로, 도심 재개발 및 주거 정비,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관련된 지역 고용 기여도가 높은 업종임

[표 3-1] 군산시 산업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단위 : 개, 명

산업구분	사업체수	사업체비중	종사자수	종사자비중
합계	32,870	100%	117,057	100%
제조업	2,784	8.47%	25,902	23.32%
도매 및 소매업	7,680	23.36%	14,498	13.0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958	2.91%	12,505	11.26%
숙박 및 음식점업	4,861	14.79%	11,177	10.06%
건설업	3,286	10%	8,833	7.95%
교육서비스업	1,256	3.82%	8,505	7.66%
운수업	3,695	11.24%	7,638	6.8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3,110	9.46%	4,769	4.29%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659	2%	4,345	3.9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117	0.36%	4,156	3.74%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653	1.99%	2,900	2.61%
금융 및 보험업	238	0.72%	2,729	2.46%
부동산업 및 임대업	1,056	3.21%	2,500	2.25%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447	4.4%	2,446	2.2%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657	2%	1,652	1.49%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03	0.31%	1,294	1.17%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97	0.6%	684	0.62%
농업, 임업 및 어업	106	0.32%	434	0.39%
광업	7	0.02%	90	0.08%

자료 : 군산시, 통계연보, 2024

☑ 산업단지

○ 군산시 주요 산업단지

- 군산시는 국가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 새만금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등 다양한 유형의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음
- 이는 서해안권 제조업 거점으로서의 위상을 뒷받침하는 핵심 산업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음
- 각 산업단지는 조성 목적과 입지 특성에 따라 외국인 투자 유치, 공업용지 공급, 지역 균형발전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표 3-2] 군산시 산업단지 위치 및 특성

산업단지명	위치	목적 및 특징
군산국가산업단지	소룡동, 해수면 일원	해안 매립을 통한 국토 확장, 공업용지 확보, 서해안 개발 전진기지 용도
군산2국가산업단지	소룡동, 오식도동, 비응도동 일원	국가산단 확장, 균형개발 및 공업용지 공급
군산자유무역지역	군산2국가산단 내	외국인투자·수출진흥, 표준공장·생산·물류·지원단지 조성
새만금산업단지	새만금권역	지식·친환경 산업 허브, 에너지·해양·항공·융합기술 등 연구 R&D 집적지 개발
지방산업단지	소룡동 일원	서해안 중심 산업기지,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
농공단지	옥구읍, 서수면 등	농촌지역 공장 유치로 고용창출 및 균형 발전 지원

자료 : 군산시, 군산시청 홈페이지, 2025.12

○ 군산시 주요 산업단지 현황

- 군산 주요 산업단지 현황¹⁰⁾을 살펴보면 군산2국가산업단지는 입주기업 수와 고용 규모 모두 가장 큰 산업단지로, 총 592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약 8천 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음
- 군산국가산업단지는 가장 오래된 단지로, 비교적 안정된 가동률을 보이며 약 4,500여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고 수출 실적은 2억 1,300만 달러로 전체 산업단지 중 상위 수준에 해당함
- 군산 자유무역지역은 입주 기업 수는 적지만 100%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단위 기업당 수출 실적이 높은 편으로 수출 중심 산업단지의 성격이 뚜렷함
- 새만금 산업단지는 아직 초기 조성 단계에 가까우며, 입주기업 수는 적고 고용 규모도 작지만 향후 성장 가능성이 있는 단지로 평가됨
- 지방산업단지는 비교적 적은 기업 수 대비 생산 실적이 매우 높아, 단위 기업당 생산성과 효율성이 뛰어난 편에 속함
- 농공단지는 중소기업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용과 생산, 수출 규모는 상대적으로 낮으나 지역 내 일자리 제공에 기여하는 산업단지로 볼 수 있음

10) 생산 및 수출은 연간 누계 기준임(25.1분기 누계생산 : 25.1월~25.3월까지 생산액 합계)

[표 3-3] 군산 주요 산업단지 현황

산업단지명	입주 계약업체(개)	가동업체(개)	고용현황(명)	누계생산 (백만원)	누계수출 (천달러)
군산 국가산업단지	208	173	4,501	946,195	213,214
군산2 국가산업단지	592	520	8,020	1,065,607	125,512
군산 자유무역지역	57	57	1,543	293,643	130,220
새만금 산업단지	76	37	1,586	229,490	22,498
지방산업단지	62	62	4,614	1,151,784	414,203
농공단지	172	168	2,343	114,533	3,206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 현황통계(25.1분기), 2025

☑ 군산시 지역 내 총생산(GRDP)

○ 군산시의 GRDP(지역내총생산)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2018년 약 10조 1,548억 원에서 2022년 약 10조 8,043억 원으로 5년간 약 6,495억 원 증가함
- 같은 기간 전북특별자치도 전체 GRDP는 약 55조 2,218억 원에서 58조 9,887억 원으로 증가함
- 군산시의 GRDP는 전북특별자치도 GRDP의 17% 후반에서 18%대 중반 수준을 꾸준히 유지함

[표 3-4] 군산시 지역내 총생산(GRDP)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전북특별자치도	55,221,867	56,458,982	56,361,767	58,223,882	58,988,748
군산시	10,154,820	10,158,897	10,049,439	10,692,423	10,804,384
비중	18.39%	17.99%	17.83%	18.36%	18.32%

자료 : 국가데이터처,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2025.

시군구 GRDP. 지역내총생산(시장가격) 실질 GRDP. (자료 검색일: 2025.12.15.)

※ 연쇄가중법에 의해 추계된 실질 GRDP는 비가법적 특성에 의해 총량 금액과 그 구성항목 금액의 합이 일치하지 않음

☑ 고용률

- 경제활동인구는 2021년 133천 명에서 2025년 139천 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제참가율도 57.3%에서 60.8%로 상승함
 - 고용률은 2021년 56.1%에서 2025년 59.7%로 개선, 일자리 창출이 증가하고 있는 흐름을 보임
 - 실업률은 2021~2022년 2.2% 수준에서 2025년 상반기에는 1.8%까지 하락하여, 최근 고용 안정성이 강화되고 있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음
 - 전체적으로 군산시의 고용지표는 참가율 및 고용률 상승, 실업률 감소 등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

[표 3-5] 군산시 고용지표

단위 : 천명, %

구분	2021.2/2	2022.2/2	2023.2/2	2024.2/2	2025.1/2
15세 이상 인구	232	232	231	231	232
경제활동인구	133	134	139	139	141
참가율	57.3%	57.7%	60.1%	60.3%	60.8%
취업자	130	131	136	137	139
고용률	56.1%	56.6%	58.8%	59.4%	59.7%
실업자	3	3	3	2	3
실업률	2.2%	2.2	2.1	1.4	1.8

자료 : 국가데이터처, 지역별 고용조사, 2025

- 30~49세 연령층은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은 고용률(2025년 기준 77.7%)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의 핵심 생산연령층으로 기능하고 있음
 - 50~64세 계층도 2023년부터 70% 이상의 고용률을 유지하며, 중장년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안정적인 편임
 - 15~29세 청년층의 고용률은 2021년 31.3%에서 2025년 37.2%로 완만하게 증가했지만, 여전히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청년 고용 확대가 과제로 남아 있음
 - 65세 이상 고령층의 고용률은 2025년 기준 41.3%로 매년 조금씩 증가하다가 감소하고 있으며, 고령 인구의 노동시장 재참여 경향이 나타남
 - 전체적으로 15~64세 근로가능 연령층의 고용률은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66.0%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보임

[표 3-6] 군산시 연령별 취업자수 및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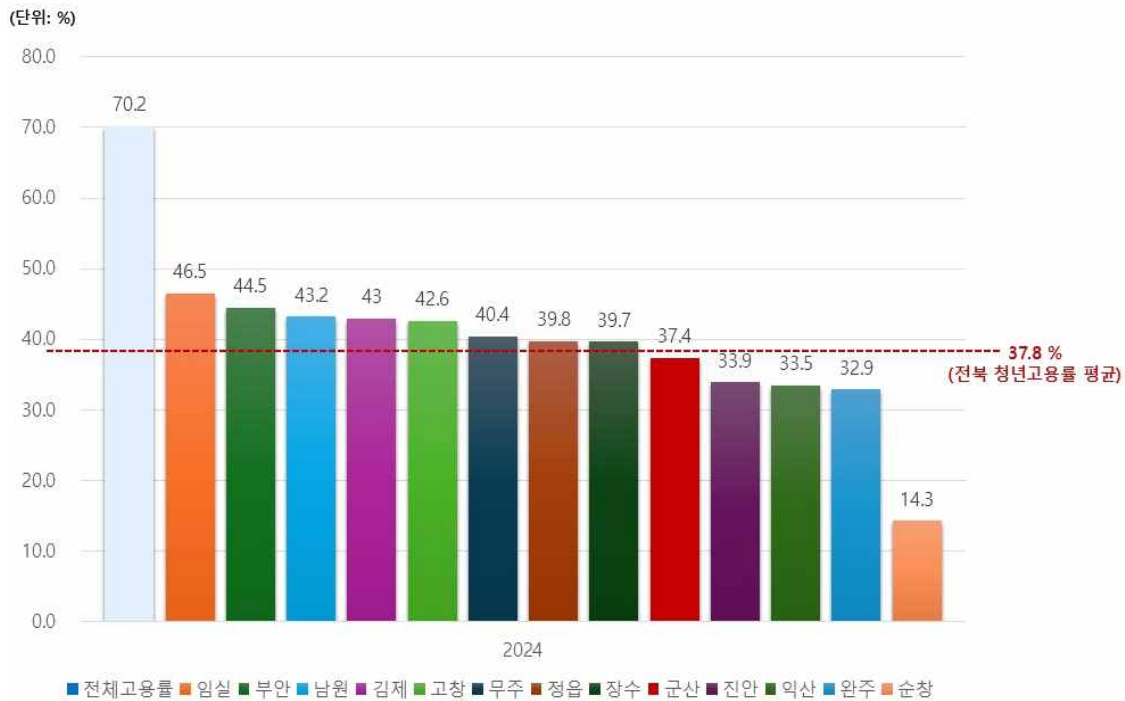
단위 : 천명, %

구분	2022.2/2		2023.2/2		2024.2/2		2025.1/2	
	취업자	고용률	취업자	고용률	취업자	고용률	취업자	고용률
15-29세	14	33.1%	14	33.8%	15	37.4%	15	37.2%
30-49세	53	73.7%	51	73.9%	50	73.8%	53	77.7%
50-64세	44	67.8%	48	72.2%	48	71.8%	47	71.0%
55세 이상	47	48.9%	52	52.8%	53	52.8%	53	51.6%
15-64세	111	62.1%	113	64.0%	112	64.8%	114	66.0%
65세 이상	21	38.5%	24	42.3%	25	43.3%	25	41.3%

자료 : 국가데이터처, 지역별 고용조사, 2025

○ 군산시의 청년 고용률은 37.4%로 전라북도 평균(37.8%)에 근접한 수준이며, 도내 14개 시군 중 중위권에 해당함

- 군산시보다 청년 고용률이 높은 지역은 총 8곳으로, 이 중 임실군(46.5%), 부안군(44.5%), 남원시(43.2%), 김제시(43.0%) 등은 군산시보다 5~9%포인트 이상 높은 고용률을 기록하며 청년 고용환경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역으로 파악됨
- 반면, 군산시보다 청년고용률이 낮은 지역은 진안군(33.5%), 익산시(32.9%), 완주군(32.9%), 그리고 순창군(14.3%)으로, 특히 순창군은 전북에서 가장 낮은 청년 고용률을 보여 대조적인 양상을 나타냄
- 군산시는 평균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인구 규모나 산업기반을 고려할 때 청년 고용률이 기대보다 낮은 편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의 보완이 요구됨
- 특히 군산은 국가산단과 자유무역지역을 기반으로 한 산업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고용 흡수력이 주변 농촌 지역보다 낮은 점은 지역산업 구조와 청년 일자리의 연계 미흡을 시사함



[그림 3-1] 전라북도 청년고용률

3) 교통

☑ 교통 현황

○ 군산시 도로 현황

- 군산시 전체 도로망은 총 2,517개 노선, 1,502.86km의 연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100% 기준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 고속도로는 1개 노선, 총연장 15.06km로 전체 도로의 1%를 차지함. 이는 서해안고속도로 구간 등이 해당됨
- 일반국도는 6개 노선, 총연장 143.9km로, 전체의 9.6%를 구성함. 군산-익산 간 연계 기능을 수행하며, 시외 연결성이 높음
- 지방도는 6개 노선으로 구성되며, 총연장 121.2km, 전체의 8%를 차지함. 주로 시 내부 또는 인접 시·군 연결 통로로 기능함
- 시군도는 가장 많은 2,276개 노선, 총연장 788.6km로, 전체 도로의 52.5%를 차지함. 군산시 내 생활권 간 이동을 담당하는 주요 내부도로임
- 농어촌도로는 228개 노선, 총연장 434.1km, 전체의 28.9%를 구성함. 농촌 지역 및 외곽마을 접근성 확보에 기여함

[표 3-7] 군산시 도로 현황

단위 : 개, km, %

구분	노선수	총연장	비율
계	2,517	1,502.86	100%
고속도로	1	15.06	1%
일반국도	6	143.9	9.6%
지방도	6	121.2	8%
시군도	2276	788.6	52.5%
농어촌도로	228	434.1	28.9%

자료 : 군산시, 군산시청 홈페이지, 2025.12

○ 군산시 철도 현황

- 철도 노선 및 운행 현황
 - 군산시를 통과하는 철도 노선은 장항선이 유일하며, 이 노선을 따라 군산역과 대야역이 운영 중임
 - 옥구선은 군산역에서 출발하여 옥구읍 어은리에 위치한 옥구역까지 연결되는 지선 노선으로, 현재 화물 전용 노선으로 활용되고 있음
 - 장항선과 옥구선 모두 화물 및 여객 수송 기능을 일부 병행하며, 여객 수송은 장항선을 중심으로 운영됨
- 군산역 현황 및 기능
 - 군산역은 2008년 현재 위치(내흥동)로 신축 이전되었으며, 무궁화호, 서해금빛열차 등의 일반열차가 정차함. KTX는 정차하지 않으며, 익산역 등에서 환승 필요
 - 여객 수송량은 전체의 약 98%를 차지하고, 화물도 군산역에서 대부분 처리됨. 연간 화물 처리량은 발송 약 22만 톤, 도착 약 9만 톤 규모임
 - 현재 장항선 복선전철화 사업이 추진 중이며 군산역 시설 개선도 예정됨
- 대야역의 역할 변화 및 확대
 - 대야역은 2008년 장항선 편입 이후 여객역으로 재정비되었으며, 2020년 익산~대야 복선전철 구간 개통에 따라 정차 열차 수가 증가함
 - 군산시는 대야역을 광역환승 허브역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새만금 인입철도 및 국가철도망 계획과 연계될 예정임

- 향후 철도 인프라 계획

- 군산시는 장항선 복선전철화 사업(2026년 완료 예정)과 새만금항·새만금공항 인입철도 사업을 통해 철도 접근성 향상을 추진 중임
- 대아역은 향후 새만금 연계 교통망의 핵심 환승거점으로 지정되어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 환승 기능 확대가 예상됨

- 항만 및 수상 교통 현황

- 지리적 요충지

- 군산항은 인근에 산업단지(군장국가산업단지 등)가 있어 물류·산업 연계 효율이 높은 입지를 확보함

- 부두·보관시설

- 정기 컨테이너선 운항이 가능하며 부두 및 야적장, 보관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 고용량 물류 처리에 유리

- 복합 운송체계의 연결

- 도로·철도·공항을 하나로 연결하는 전북 트라이포트(Tri-Port) 시스템 일환으로 개발되어 있으나, 실질적 활용도는 다소 낮은 편임

- 공항 및 항공 접근성

- 군산공항 위치 및 교통 접근

- 군산시 옥서면 산동길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도 21·26번을 통한 도로 접근성 확보됨

- 대중교통 접근성

- 시내버스 1번·13번이 군산역 및 시외버스터미널과 공항을 약 60분 간격으로 연결하며, 시외버스(전주·익산 방면)도 운행 중임
- 공항버스를 통한 군산↔인천공항 노선도 재개 운행 중임

- 항공 운항 노선

- 제주, 김포, 부산 등 주요 국내선 항공사 운항이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일부 항공편은 매일 또는 주 7회 이상 운항함

4) 생활 인프라

☑ 교육

○ 교육기관

[표 3-8] 군산시 교육기관 현황

단위 : 개소, 명

연별 및 기관별	학교수 및 대학원별	학급(과) 수	교실수	학생수	교원수	교원1인당 학생수
2023	163	1,821	2,338	47,391	5,040	9.4
유치원	67	214	216	3,070	389	7.9
초등학교	56	757	1,194	14,384	1,205	12.3
중학교(국공립)	15	241	391	6,027	502	12.0
중학교(사립)	4	55	85	1,428	108	13.2
일반계고등학교 (국공립)	5	117	155	2,799	280	10.0
일반계고등학교 (사립)	4	108	147	2,880	225	12.8
특수목적고등학교 (국공립)	2	42	108	707	112	6.3
특성화고등학교 (국공립)	1	26	42	351	56	6.3
전문대학	2	32	-	2,701	257	10.5
대학교	2	101	-	11,716	1,285	9.1
대학원	4	160	-	878	622	1.4

자료 : 군산시, 통계연보, 2024

○ 공공도서관

- 군산시에는 총 7개 공공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음
 - 전체 도서관의 좌석 수는 1,172석, 자료 수는 516,904권, 연간 이용자 수는 약 72만 3천 명임
 - 총 직원 수는 106명, 연간 운영 예산은 약 79억 원 수준임

[표 3-9] 군산시 공공도서관 현황

단위 : 개, 명, 권, 천원

연별 도서관별	도서관수	좌석수	자료수	연간 이용자수	직원수	예산
2023	7	1,172	516,904	723,678	106	7,935,287
군산시립 도서관	1	691	166,204	426,845	35	2,017,500
군산늘푸른 도서관	1	260	82,114	150,818	14	659,699
군산설림 도서관	1	229	54,319	34,351	12	762,501
군산 임피 채만식 도서관	1	18	32,643	2,346	2	54,040
군산산들 도서관	1	130	18,633	18,524	5	254,736
군산교육문화회관	1	321	106,292	89,824	33	3,130,242
군산교육문화회관 대야분관	1	72	56,699	970	5	516,569

자료 : 군산시, 통계연보, 2024

☑ 주거 및 의료

○ 주택 현황

- 전체 가구 수 및 주택 수 증가
 -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군산시의 일반 가구수는 108,539가구에서 115,636가구로 약 6.5% 증가함
 - 같은 기간 주택 수는 112,370호에서 119,129호로 약 6.0% 증가하여, 가구 수 증가율에 비해 주택 수 증가율이 다소 낮음
- 주택 보급률 추이
 - 주택 보급률은 2018년 103.5%에서 2022년 103.0%로 소폭 하락(-0.004), 이는 가구 수 증가에 비해 주택 수 증가가 다소 부족했음을 의미함
- 군산시의 주택 보급률은 여전히 100%를 상회하나, 단독주택 비중 감소 및 아파트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가 뚜렷함

- 향후 인구구조 변화와 수요 유형에 따른 주거 형태 다변화 대응 필요성이 있음

[표 3-10] 군산시 주택 현황 및 보급률

단위 : 가구, 호, %

구분	일반 가구수	주택수							주택 보급률
		소계	단독 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2018(A)	108,539	112,370	29,338	2,040	75,568	4,264	1,376	-	103.5
2019	108,999	113,112	29,119	2,060	76,460	4,306	1,404	1,823	103.8
2020	111,817	116,663	29,065	2,089	80,048	4,310	1,403	1,837	104.3
2021	116,744	117,489	28,928	2,098	81,018	4,305	1,409	1,829	100.6
2022(B)	115,636	119,129	28,812	2,093	82,793	4,295	1,410	1,819	103.0
증감률 (B-A)/A	0.065	0.060	-0.017	0.025	0.095	0.007	0.024	-	-0.004

자료 : 군산시, 통계연보, 2024

○ 의료시설

- 의료기관
 - 군산시에는 총 359개소의 병·의원인 운영 중이며, 총 병상 수는 4,591개임
 -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수는 396명, 간호사는 953명으로 집계됨.

[표 3-11] 군산시 의료기관 및 의료인력(2022년 기준)

구분	의료기관(개)		의료기관 의료인력(명)	
	병원수	병상수	의사	간호사
합계	359	4,591	396	953

자료 : 군산시, 통계연보, 2024

- 보건소 및 보건지소
 - 군산시에는 보건소 1개소, 보건지소 14개소, 보건진료소 18개소가 설치되어 있음
 -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종사하는 의사는 9명, 간호사는 25명임.

[표 3-12] 군산시 보건소 및 보건소 의료인력(2022년 기준)

구분	보건소(개)			보건소 의료인력(명)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의사	간호사
합계	1	14	18	9	25

자료 : 군산시, 통계연보, 2024

☑ 관광 및 여가

○ 주요 관광지

- 시간여행마을

[표 3-13] 시간여행마을

사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산은 일제강점기 수탈의 아픔과 항거의 역사를 간직한 도시로, 당시 근대문화를 상상해볼 수 있는 문화유산이 원도심 일대에 밀집되어 있음 • 이러한 공간을 '시간여행마을'이라 부르며, 방문객에게 과거로 돌아간 듯한 체험을 제공함 • 근대역사박물관, 호남관세박물관, 근대미술관, 근대건축관, 뜰다리부두, 해망굴, 히로쓰가옥, 동국사 등 다양한 문화재가 보존되어 있고, 초원사진관과 우체통거리 등도 추억을 되새기게 하는 주요 관광 요소로 자리하고 있음


- 경암동 철길마을

[표 3-14] 경암동 철길마을

사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암동 철길마을은 1944년 일제강점기에 군산 경암동에 조성된 철로 주변 마을로, 페이퍼코리아 공장과 군산역을 연결하는 총연장 2.5km의 철도에 따라 형성됨 • 철길은 신문용지 원료 수송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북선 제지 철도', '고려 제지 철도', '세풍 철도'를 거쳐 현재는 '페이퍼 코리아선'으로 불림 • 1950년대 이후 주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해 1970년대 들어 본격적인 주거지가 형성되었으며, 철도와 주택이 혼재된 독특한 경관으로 현재는 관광명소로 활용되고 있음


- 고군산군도

[표 3-15] 고군산군도

사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군산군도는 전북 군산시 옥도면에 속한 16개 유인도와 47개 무인도로 이루어진 섬의 군락이며,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유명해 '천혜의 해상관광공원'으로 불림 • 선유도·신시도·무녀도·장자도·대장도 등 주요 섬들이 새만금 방조제와 연륙교로 연결되어 차량 이동이 가능하며 백사장 '명사십리', 기암절벽, 낙조 등 풍광이 뛰어남 • 해양 레저 활동(자전거, 유람선, 스쿠버다이빙 등)과 자연·역사 테마 관광이 결합되어 있어 '선유 8경'(명사십리, 선유낙조 등)으로 불릴 만큼 풍경이 아름답음

• 말랭이마을


[표 3-16] 말랭이마을

사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흥동 일대는 1930~40년대 일본인들이 주거지를 형성하면서 시작되었고, 6·25전쟁 이후 피란민들이 정착하면서 마을이 형성됨 • 바위 위에 판자집을 다닥다닥 붙여 지어 만든 산비탈 마을로, '말랭이'는 전라도 방언으로 산비탈을 뜻하며 이로 인해 '말랭이마을'이라 불리게 됨 • 현재는 인구 유출로 쇠퇴하였으나, 2014년 전북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을 통해 예술인 레지던스와 전시관이 조성되어 주민과 예술가가 함께 살아가는 문화마을로 재탄생 중

○ 주요 축제

• 군산시간여행축제

[표 3-17] 군산시간여행축제

사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제강점기 수탈과 항거의 역사, 근대문화 자산을 중심으로 원도심 일대에서 개최되는 대표 축제 ('시간여행마을') • 체험·전시·공연·시민기획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구성으로 16만여 명이 몰린 대표 축제, 2024년 경제적 파급효과 약 520억 원

• 군산새만금마라톤대회

[표 3-18] 군산새만금마라톤대회

사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년부터 매년 봄에 열리는 전국 규모의 마라톤 행사로, 새만금방조제와 금강 하구둑 일대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대규모 스포츠 축제 • 대한육상연맹과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의 공인 코스로 인정받은 대회로, 자연경관과 도심이 어우러진 트랙에서 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으며, 마라톤 마니아들 사이에서도 인기 높은 대회로 자리잡음

• 군산콩당보리축제

[표 3-19] 군산콩당보리축제

사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년 시작된 지역 주민 참여형 농업문화 축제로, 우리나라 대표 봄 농촌 체험 축제. 군산시 미성동 보리밭 일대에서 매년 개최됨 • 총 6개 테마 마당에서 약 50여 개의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보리밭 사잇길 걷기, 농촌 체험, 전통음식 시식 등) • 20년 동안 농업과 농촌 문화의 가치를 알리고, 도시-농촌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며 대표적인 농촌축제로 자리 잡음

○ 공원

• 공원 현황

- 군산시에는 총 145개의 공원이 있으며, 이 중 근린공원이 면적 비중이 가장 큼
- 어린이공원이 가장 많은 개소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운동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 일부 공원(총 13개소)은 아직 미조성 상태로 향후 개발이 필요한 여지가 있음
- 체육·역사 관련 공원도 포함되어 있어 주민 여가와 문화 향유를 위한 공간으로 다양성 확보

[표 3-20] 공원 현황 총괄

총계		근린		어린이		소		체육·역사·묘지	
개소	면적(m ²)	개소	면적(m ²)	개소	면적(m ²)	개소	면적(m ²)	개소	면적(m ²)
145	5,986,016	38	5,636,719	79	170,635	25	36,945	3	141,717

자료 : 군산시, 군산시청 홈페이지, 2025.12

[표 3-21] 공원별 현황

구분	공원명	비고
근린공원 (38개소)	월명, 군봉, 새들, 금강, 통매, 은파, 지곡, 흥남, 나운, 구암, 27, 28, 29, 34, 37, 38, 39, 40, 미장 1·2·3·4, 해망, 신흥, 월명2, 가도, 입이도, 분말, 중앙 1·2호, 오식, 내초, 공단 1·2·3호, 요죽, 비응도, 새만금비응	미조성 6개소
어린이공원 (79개소)	삼화3길공원 등 79개소(삼학동 1, 문화동 1, 서흥남동 1, 조촌동 13, 나운동 19, 경장동 1, 소룡동 4, 산북동 6, 미룡동 7, 지곡동 5, 오식도 5, 내흥동 1, 내초동 1, 수송동 5, 개정면 1, 미장동 6, 임피면 2)	미조성 1개소
소 공 원 (25개소)	제1호 공원 등 25개소(비응도 3, 미장동 8, 월명동 1, 내흥동 3, 개사동 2, 옥구읍 4, 중동 2, 조촌동 1, 금광동 1)	미조성 5개소
체육·역사·묘지 공원 (3개소)	생말체육, 내흥동 역사, 오식묘지공원	미조성 1개소

자료 : 군산시, 군산시청 홈페이지, 2025.12

5) 읍면동별 지역 특성

☑ 읍·면(농촌·자연 중심)

○ 군산시는 1읍 10면이 있으며, 읍·면별 지역 특성은 다음과 같음

[표 3-22] 군산시 읍·면별 지역 특성

구분	지역	면적/인구(세대)	특성
읍	옥구읍	38.3km ² / 2,791명(1,531세대)	벼농사 중심의 간척 평야 농업지역으로, 옥구향교와 읍성 유적 등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한 전통 지역
면	옥산면	16.73km ² / 4,289명(1,890세대)	전원과 도시가 어우러진 면 단위 도농복합 지역으로, 벼농사와 함께 하우스 적육멜론 등 농업이 활발하며, 산성로를 중심으로 현대 복지·문화·교육 인프라가 존재
	회현면	38.34km ² / 3,050명(1,475세대)	만경강 하류의 비옥한 간척평야와 구릉지로 구성된 농업 중심 지역으로, '옥토진미' 브랜드 쌀과 흰찰쌀보리 등 주곡재배가 활발하며 유적 분포로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음
	임피면	21.97km ² / 2,350명(1,360세대)	백제 시산군부터 유래한 역사 깊은 지역으로, 향교 및 채만식 생가 같은 문화유산과, 국도 27호·지방도 711·718호가 교차하는 교통 요충지로 농업·교육·행정 기능이 공존하는 지역
	서수면	24.23km ² / 2,276명(1,268세대)	간척 평야와 구릉지 복합 농업 지역으로, 상주사·보천사 등 사찰과 마룡농공단지 중소기업 입주, 서수초 통합 등의 교육·문화 기반이 공존하는 도농 복합형 면
	대야면	37.83km ² / 4,382명(2,451세대)	서해안고속도로와 전주 - 군산 고속화도로가 지나는 군산 동쪽의 교통 요충지이자 넓은 평야에서 전통 5일장(대야장)과 벼농사가 활발한 농촌·도농 복합 지역
	개정면	16.80km ² / 2,681명(1,418세대)	충적 평야와 구릉지로 구성된 농·축산·원에 복합 영농 지역이자 고봉산 아래 호국 정신이 살아있는 면으로, 고려시대 석등·탑 등 다수 문화재와 국도·철도로 교통망이 잘 발달한 시내 근교 지역
	성산면	27.41km ² / 2,482명(1,338세대)	농림·어업 중심의 구릉성 농촌지역으로, 오성산·고봉산 등 산악지와 금강 하구 생태 관광 자원을 보유하며, 국도·지방도 교차로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초·중·고교 및 농공단지 등 교육·산업 인프라가 공존
	나포면	31.08km ² / 1,982명(1,146세대)	금강 하구와 망해·취성산 자락에 자리한 농업·생태 중심 지역으로, 친환경 과수·벼농사와 철새 생태테마공원이 공존하며, 서해안고속도로와 지방도 교통망도 발달

구분	지역	면적/인구(세대)	특성
	옥도면	23.56km ² / 2,764명(1,658세대)	고군산군도(선유도·장자도·무녀도 등)를 포함한 16개 유·무인도로 구성된 해상 관광명소로, 천혜의 섬 경관과 어업 중심의 주민생활이 공존하는 농·어·관광 복합 섬 지역
	옥서면	20.88km ² / 2,553명(1,449세대)	서남단 해안 간척 평야와 구릉지가 조화된 농·어업 중심 도농복합 지역으로, 선연리의 540년 된 팽나무 천연기념물 등 자연·문화유산 보유

자료 : 군산시, 군산시청 홈페이지, 2025.11

☑ 동(도시 중심)

○ 군산시는 16개의 동이 있으며, 동별 지역 특성은 다음과 같음

[표 3-23] 군산시 동별 지역 특성

구분	지역	면적/인구(세대)	특성
동	해신동	3.03km ² / 1,902명(1,122세대)	해망동·신흥동·금동이 통합된 행정동으로, 어업 중심의 수산물 시장 및 유통 단지가 형성되어 있고, 교육·문화 기반시설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으로 구도심 활성화가 진행 중
	월명동	1.14km ² / 4,507명(2,608세대)	일제강점기의 근대 건축이 다수 남아 있어 '근대문화지구'로 발전 중이며, 내항 인근 역사성을 유지한 채 예술창작벨트와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원도심 중심지
	신평동	1.21km ² / 5,822명(3,072세대)	월명산 자락의 구릉과 경포천 유역에 걸친 주거 밀집 구도심으로, 관내 학교 7곳·도서관·청소년수련원이 자리한 교육 중심지
	삼학동	0.56km ² / 4,978명(2,933세대)	1970년대 주택 구획 정리 후 구릉지에 아파트 중심 주거 밀집지가 형성된 도시 행정동이며, 법정동 오룡·금광 포함해 주로 주거·교육 기능이 강한 지역
	중앙동	0.67km ² / 3,964명(2,317세대)	군산시 도심의 심장부로, 법정동 7개, 행정동 14개에 걸쳐 상업·행정·주거 기능이 집중된 고밀도 구도심 지역
	흥남동	0.99km ² / 11,126명(5,476세대)	주거와 녹지가 조화로운 교통 요충지이자 교육 중심지로, 아파트 단지와 구도심 재생 분위기가 공존하며 주민센터 일대에 전통 시장과 외식 상권이 활발

구분	지역	면적/인구(세대)	특성
	조촌동	3.11km ² / 25,908명(11,407세대)	행정·교육·상업 중심지로, 시청·법원·교육지원청 등 주요 공공기관이 밀집해 아파트 단지와 신형 주거지로 지속 개발되고 있는 신도심
	경암동	1.22km ² / 6,580명(3,789세대)	철길마을을 중심으로 관광 기능이 강화된 구도심이자, 복합 생활 SOC 도입을 통해 도시재생이 활발히 진행 중인 지역
	구암동	5.63km ² / 15,298명(7,252세대)	3·1운동 발상지이자 구암교회·철길마을 등 근대 교육·종교 유산과 관광 기능이 공존하는 역사·문화 복합 지역
	개정동	5.11km ² / 2,388명(1,163세대)	고봉산·용미산 구릉과 총적 평야가 어우러진 도농복합 지역으로, 군산동고·간호대 등 교육 기반과 국도 26호·장항선 철도 교통망을 갖춘 전형적인 근교 주거·농경지 개발 지역
	수송동	5.41km ² / 52,806명(21,710세대)	군산 최대의 신도심·도농 복합 행정동으로, 미룡저수지·은파호수공원 등 자연 환경과 교육·의료·상업·문화 시설이 밀집되어 도시 기능이 집중된 중심지
	나운1동	1.6km ² / 12,627명(6,493세대)	월명산 자락에 인접한 주거밀집지역과 상업지역이 어우러진 행정동
	나운2동	0.81km ² / 20,553명(9,320세대)	고밀도 아파트 중심 주거지역으로, 월명 공원의 한자락 옆에 위치한 현대적 도심형 동
	나운3동	8.55km ² / 30,002명(14,741세대)	은파관광지, 군산대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대단위 아파트단지와 농촌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도농 복합지역
	소룡동	33.48km ² / 15,863명(9,061세대)	주거·공업·도농이 혼합된 지역으로 외국인 주민이 많고, 월명공원 주변 벽화와 생태터널을 중심으로 도시경관 개선 중인 지역
	미성동	29.54km ² / 10,599명(6,642세대)	월명산 구릉과 간척 평야가 조화를 이루는 도농 복합형 주거문화 지역

자료 : 군산시, 군산시청 홈페이지, 2025.11

제2절 군산시 관련 계획 및 정책

■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군산시장은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인구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군산시는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5조에 따라 인구정책사업을 추진해야 함

[표 2-24]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주요 내용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3조, 제4조, 제5조
<p>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인구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인구 구조의 불균형이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군산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4조(계획의 수립·시행)</p> <p>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구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구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 사업 및 시책의 발굴·추진에 관한 사항 3. 인구교육 등 시민의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p>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p> <p>제5조(인구정책사업)</p> <p>① 시장은 시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을 발굴·추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결혼·임신·출산·양육 지원 2. 일-생활 균형 및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지원 3.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4.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 5. 법 제7조의2에 따른 인구교육과 인식개선사업 6. 인구감소 대응 및 인구유입 대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 <p>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업·법인·단체·개인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인구정책사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 전문 교육·조사·연구기관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p>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선 8기 정책 비전 및 중장기 전략

☑ 시정 운영 비전 및 목표

▷ 시정슬로건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

▷ 시정 목표

시정운영 원칙 : 시민, 자립, 상생

소통공감 행정
혁신도시



다함께 배우는
교육도시



지속 성장하는
경제도시



군산다운 문화
관광도시



시민행복 안전
복지도시



소통공감 행정
혁신도시

- ① 시민 모두가 신뢰하는 청렴행정도시
- ② 지속가능발전 시정혁신 도시



다함께 배우는
교육도시

- ① 영유아부터 초중고까지 전 연령 맞춤형 교육지원
- ② 시민 행복 평생학습 도시 실현



지속 성장하는
경제도시

- ① 신산업 중심 지속가능 성장동력 확보
- ② 농수산 6차 산업 육성으로 농어촌 신부가가치 창출



군산다운 문화
관광도시

- ① 지역 문화자산 활용 도시 브랜드 창출, 문화도시 추진
- ② 맛과 멋이 있는 체류형 관광산업 활성화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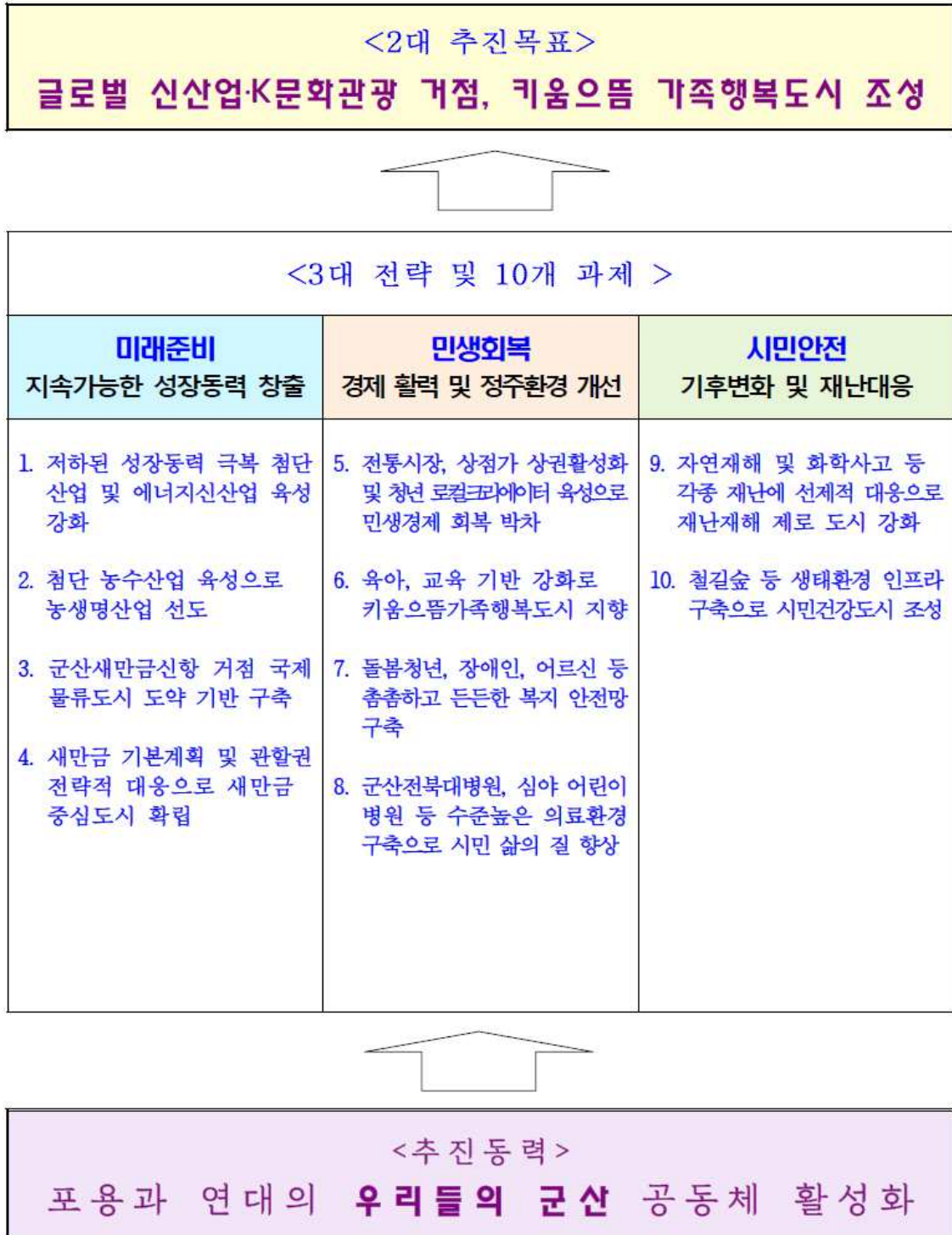
시민행복 안전
복지도시

- ① 소외없이 더불어 행복한 안전 복지도시 구축
- ② 기후위기 극복에 앞장서는 탄소중립 선도도시

[그림 3-2] 군산시 민선 8기 후반기 비전체계

☑ 민선 8기 시정전략 및 인구정책 연계방향

○ 군산시 민선 8기 후반기 시정전략



[그림 3-3] 군산시 민선 8기 후반기 시정전략

○ 군산시 비전·전략체계 기반 인구정책 시사점

-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
 - 육아 및 교육 기반을 강화하고 키움·품앗이 공동체를 지원함으로써 젊은 세대의 정착을 유도하고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이는 저출산 대응형 인구정책으로 해석 가능
- 맞춤형 교육과 돌봄 정책 강화
 - 영유아부터 초중고까지 전 연령을 아우르는 맞춤형 교육 및 돌봄 지원정책은 아동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청년층의 인구 유출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돌봄·장애인·어르신 복지 안전망 구축
 - 돌봄청년, 장애인, 어르신 등 다양한 계층을 포괄하는 복지 체계 구축은 인구구조 고령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인구 유지 기반을 확보하는 정책 방향으로 해석됨
-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통한 삶의 질 향상
 - 군산전북대병원 유치 및 어린이병원 등 수준 높은 의료환경 조성은 정주 매력을 높여 외부 인구 유입과 지역 내 인구 정착 유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전통시장·상권 활성화 및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 청년 창업 지원 및 지역경제 기반 강화는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정착 유인을 제공하여 청년 인구의 유출을 방지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예상됨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정주환경 구축
 - 철길숲 등 생태환경 인프라 구축 및 재난에 강한 도시 조성은 전 연령층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정주할 수 있는 도시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인구 유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공공행정 신뢰 및 시민 참여 기반 조성
 - 시민 모두가 신뢰하는 행정혁신 도시는 인구정책 실현의 전제가 되는 행정의 투명성과 시민 협력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1) 군산시 인구정책

☑ 인구정책 추진 배경 및 기본 방향

○ 추진배경

- 지속되는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필요성
 - 출생아 수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자연감소 심화
 - * 2024년 출생아 수는 1,000명, 사망자 수는 2,372명 → 자연감소 1,372명
 - 수도권 중심의 인프라 집중으로 인한 지역 인구의 순유출 지속
 - * 전출 > 전입 현상 지속 중 (2024년 순유출 568명)
- 청년·학령인구의 지속 감소 및 초고령사회 진입
 - 2024년 고령인구 비율: 23%, 이미 초고령사회
 - * 노년부양비(생산가능인구 100명당 고령인구 수): 2024년 34.5명
- 정부 인구정책 방향의 변화 반영
 -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넘어 외국인과 체류인구 등 인구구조 전반에 대응
 - 2024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 정책체계 강화
 - '생활인구' 개념 도입 확대 필요 (군산 외국인 주민 약 13,374명, 전체 인구의 5%)

○ 기본 방향

- 추진 목표: 정주와 유입의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발전 도시
- 추진전략(2트랙)
 - 추진전략 1. 아이낳고 살기좋은 행복공동체
 - * 저출생 심화로 자연감소 대응: 출산, 육아, 돌봄, 교육, 주거
 - 추진전략 2. 새롭게 머물고 싶은 포용공동체
 - * 인구 유출로 사회적 감소 대응: 청년 및 외국인 유입·정주 생태계

☑ 군산시 '20년-'24년 인구정책 성과

- 총인구는 '20년 12월 대비 '24년 12월 3.67% 감소되었으나, 인구감소율은 소폭 회복됨
 - '20년 12월 267,859명 → '24년 12월 258,047명
 - '21년 12월 3,555명 감소되었던 인구감소율은 '24년 12월 1,933명
- 고령화율은 '20년 12월 대비 '24년 12월 4.1% 증가
 - '20년 12월 18.9% → '24년 12월 23%
- 혼인건수는 '23년까지 감소했다가, '24년 다시 증가하며 소폭 회복됨
 - '20년 12월 943건 → '23년 12월 825건 → '24년 12월 949건
- '20년 12월 대비 '24년 12월 청년인구 3.1% 감소되었으나, 청년인구 감소율은 소폭 회복됨
 - '20년 12월 66,333명 → '24년 12월 56,117명
 - '21년 12월 0.9% 감소되었던 청년인구 감소율은 '24년 12월 0.5%
- 전입·전출의 차이는 '21년에 감소했다가, '22년부터 소폭 회복됨
 - '21년 12월 859명 → '22년 12월 1,333명 → '24년 12월 568명
- '20년 12월 대비 '24년 12월 출생아수 24% 감소 및 합계출산율 0.17명 감소되었으나, 합계출산율은 '21년 12월부터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있음
 - 출생아수: '20년 12월 1,315명 → '24년 12월 1,000명
 - 합계출산율: '20년 12월 0.97명 → '24년 12월 0.80명
- '20년 12월 대비 '24년 12월 사망자수 26% 증가
 - '20년 12월 1,880명 → '24년 12월 2,372명
- '20년 12월 대비 '24년 12월 학령인구(6-21세) 13.1% 감소되었으나, 학령인구 감소율은 소폭 회복됨
 - '20년 12월 43,824명 → '24년 12월 38,086명
 - '21년 12월 1,344명 감소 → '22년 12월 1,686명 감소 → '24년 12월 1,242명 감소

[표 3-25] 군산시 2020-2024 인구변화 추이

그림/연도	'20년 12월	'21년 12월	'22년 12월	'23년 12월	'24년 12월
 총 인구	267,859명 △ 2,272명 감소	265,304명 △ 3,555명 감소	262,467명 △ 2,837명 감소	259,980명 △ 2,487명 감소	258,047명 △ 1,933명 감소
 고령화율	18.9% + 1.1% 증가	19.8% + 0.9% 증가	21.0% + 1.2% 증가	21.9% + 0.9% 증가	23% + 1.1% 증가
 혼인건수	943건 △ 197건 감소	847건 △ 96건 감소	817건 △ 30건 감소	825건 + 7건 증가	949건 + 124건 증가
 청년인구	66,333명(24.8%)	63,491명(23.9%) △ 0.9% 감소	60,249명(23.0%) △ 0.9% 감소	57,735명(22.2%) △ 0.8% 감소	56,117명(21.7%) △ 0.5% 감소
 전입·전출	전입 14,585명 전출 16,352명 △ 1,767명 차이	전입 14,145명 전출 14,999명 △ 859명 차이	전입 12,214명 전출 13,547명 △ 1,333명 차이	전입 11,984명 전출 13,212명 △ 1,228명 차이	전입 12,760명 전출 13,328명 △ 568명 차이
 출생아수	1,315명 합계출산율: 0.97명 △ 41명 감소 -	1,161명 합계출산율: 0.954명 △ 151명 감소 △ 0.16명 감소	1,145명 합계출산율: 0.88명 △ 16명 감소 △ 0.074명 감소	983명 합계출산율: 0.80명 △ 162명 감소 △ 0.08명 감소	1,000명 합계출산율: 0.80명 + 17명 증가 -
 사망자수	1,880명 △ 62명 감소	1,962명 + 82명 증가	2,310명 + 348명 증가	2,263명 △ 47명 감소	2,372명 + 109명 증가
 학령인구 (6-21세)	43,824명	42,480명 △ 1,344명 감소	40,794명 △ 1,686명 감소	39,328명 △ 1,466명 감소	38,086명 △ 1,242명 감소

☑ 전략별 주요성과

○ 다함께 돌보는 지역사회 조성

- '24년
 - 건강하고 행복한 결혼·임신·출산 지원
 - * 난임부부 시술비 및 한방난임 치료 지원(665건), 예비맘 임신부 영양제 지원(2,538명), 산후조리비용, 건강관리비 지원(1,452명), 출산장려금 지원(1,266명)
 - 촘촘한 돌봄지원으로 양육친화환경 조성
 -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840명, 535백만원), 북스타트 사업(941건)
 - 마음 편한 임신과 출산환경 조성
 - *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2개소), 유연 근무제 활성화(50명)
 - 다양하고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
 - *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지원(1,370명), 다문화가족 지원(11,521명)

○ 모두의 역량 발휘로 지역 경쟁력 강화

- '24년
 -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 * 공부의 명수 운영(2,370명), 자기계발 연수비(1,208명), 중고등학생 무상교통 교통비 지원(35,772명/월별 누적), 마중물 희망 스터디 사업(3,368명), 천원의 아침밥 사업(3개소, 51,700식)
 - 청년 성장 및 지역정착 지원
 - * 공공부문 청년멘토 사업(18명), 전북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464명),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지원(261명), 전북형 창업패키지 지원(13개사),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102가구), 신혼부부 및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65명), 전세 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70가구)
 - 일자리 지원 및 확충
 - * 투자유치 MOU 체결 (19개사, 1조 2,587억원), 창업희망키움(11명), 신중년 취업지원(28명/월), 경력단절여성 취업연계 (1,550명), 귀농귀촌인 맞춤형교육 등 지원(222명), 찾아가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15명)
 - 세대를 아우르는 배움터 조성
 - * 동네카페 운영(1,355강좌, 7,497명), 군산새만금캠퍼스 운영(210명)

○ 머물고 싶은 정주환경 조성

- '24년
 -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 * 1인 가구 주거안전 방문 지킴이 사업(100명)
 -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
 - * 도시바람길숲(철길숲 등) 조성 (2개소), 농촌주택개량사업(49동)
 - 함께 즐기는 문화도시 조성
 - * 지역문화예술 활성화(60여개 행사), 군산북페어(서점 출판사 100개소)
 - 다시 찾고 싶은 생태 힐링 관광지 조성
 - * 새만금어린이랜드 쉼터 조성,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공정률 60%)

○ 건강하고 활력있는 고령사회 구축

- '24년
 -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
 - * 노인일자리 지원(10,979명, 53,477백만원)
 - 노인시설 확충으로 고령친화 환경 조성
 - * 노인복지시설(양로, 장기요양) 지원(262개소), 고령자 복지주택 준공
 - 예방적 보건·의료서비스 확충
 - * 치매조기검진(7,025명), 대상포진 접종(3,719명),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5,259명)

○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체계적 대응

- '24년
 - 지속가능한 인구정책 추진기반 마련
 - * 인구정책위원회(2회), 부서 TF회의(9회), 시민참여단 회의(2회), 부서릴레이 및 전략회의(9회), 인구정책 직원 아이디어 표어 공모(60건)
 - 인구구조 변화 대응 인식 개선
 - * 민·관·학 거버넌스 확대(9개 기관), 대학생 군산 탐방(2회), 산단체류인구 정주화 정책과제 용역 시행, 가이드북(1,500부), 임신·출산·육아리플렛(4,000부), 인구교육(2회/80명), 두근두근 인연만들기(2회/60명), 제13회 인구의 날 기념 '키움옴 페스티벌' (400명)

☑ 평가 및 개선사항

○ 추진평가

• '24년

- 인구대응 정책 전담 부서 신설 후, 각종 자료 및 현황·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시행계획 수립(5개 전략, 17개 중점과제, 92개 세부사업/24개 부서, 426,164백만원)하여,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함
- 인구가 늘지는 않았으나 감소세가 다소 완화하였으며, 전북자치도 내 시 중에서는 감소세가 제일 낮았음. 특히 청년의 유출이 대폭 줄어 긍정적인 상황으로 청년이 정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발굴하여 여건을 조성한다면 인구 증가의 반전도 기대할 수 있음
- '24년 인구정책 분야별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대체로 만족도가 높은편으로 모든 분야 불만족은 적은 편이었음

• '23년

- 인구감소를 최소화하고, 출산, 육아, 시민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 대응에도 불구하고 2022년 인구수 2,497명(-0.95%) 감소
- 시민중심 행정서비스 실현 및 청년 공동체 형성을 위한 다양한 청년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취업·학업 등의 이유로 청년인구 감소('23년말 대비 -2,514명)
- 제조업체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생산직, 단순 노무 등 근로업종의 제약으로 청년들의 이직률이 높고, 청년의 대도시 유출로 기업의 청년 채용이 어려움

○ 개선사항

• '24년

- 출생아는 소폭 늘었으나, 사망자 또한 늘어 자연감소는 증가하는 상황으로 고령인구의 사망을 줄일 수 있는 정책 보완 추진이 필요함
- 또한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정주인구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새로운 체류인구의 유입을 위한 정책도 적극 발굴하는 등 2트랙 전략으로 인구정책 추진이 필요함

• '23년

- * 결혼에 필요한 정책 : 사회적 불이익개선, 주거지원
- * 출산에 필요한 정책 : 양육 및 돌봄지원, 양성평등 분위기 조성, 임신 및 출산관련 비용 지원
- * 고령에 필요한 정책 : 의료 및 건강지원, 돌봄시스템 구축, 경제활동 지원
- * 청년에 필요한 정책 : 교육인프라 확충, 기업유치 및 일자리 증대, 주택지원

[표 3-26] 2021-2023 군산시 인구정책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2021-2023 군산시 인구정책 시행계획 분야별 사업 목록		2021	2022	2023
1. 마음을 더하는 행복한 군산(결혼, 임신, 출산 지원)		3,110	5,890	6,128
1	출산장려 지원 사업	1,618	1,608	2,155
2	마음을 더하는 행복한 군산	1	1	1
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02	240	320
4	산후 조리비용 지원	625	625	625
5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184	184	183
6	한임 난임 치료 지원	54	54	54
7	건강한 임신을 위한 영양제 지원	40	30	30
8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386	530	533
9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	-	2,618	2,218
10	전북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	9
2. 지역사회가 다함께 돌봄(양육, 보육, 지원)		99,440	96,891	98,432
1	아동교육 올타리 사업지원	6	6	-
2	다함께 돌봄사업 추진	166	259	272
3	영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 가입	450	610	610
4	국공립 및 직장어린이집 확충	760	190	610
5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72,697	64,872	58,220
6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873	1,272	1,133
7	아동수당 지급	15,209	16,036	14,857
8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492	498	534
9	아이돌봄 환경 조성	4,348	3,753	4,668
10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강화	3,899	6,325	6,352
11	영유아 위탁 보육비 지원	540	540	500
12	유연 근무제 확대 운영	-	-	-
13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	2,514	10,650
14	복스타트 사업	-	16	26
3. 안심할 수 있는 노후생활(노인복지)		48,867	58,435	66,831

2021-2023 군산시 인구정책 시행계획 분야별 사업 목록		2021	2022	2023
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27,966	35,985	40,262
2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지원 강화	19,891	21,635	25,509
3	치매안심센터 운영	1,010	815	1,060
4. 정착할 수 있는 일자리 마련(일자리)		54,587	23,654	27,384
1	귀농인 농지 및 주택 임차료 지원 사업	10	-	-
2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	310	-	-
3	군산STAY 청년창업 주거지원	80	-	-
4	군산형 청년수당 지원사업	300	300	-
5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자금 지원사업	45,000	139	-
6	기업사랑 실천과제 추진	881	881	1,100
7	내실있는 투자유치	3,850	17,146	10,103
8	신중년 취업지원 사업	336	336	336
9	청년 희망 공공일굼터 사업	493	447	501
10	전북형 청년 취업 지원사업	234	234	252
11	전북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199	1,350	1,588
12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일터복귀 지원	506	720	729
13	공공일자리 사업(공공근로사업 및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	1,588	1,716	2,359
14	창업 희망키움 사업(청년창업 희망키움 사업)	775	360	550
15	귀농귀촌인 맞춤형 교육 운영 및 현장실습 지원	25	25	80
16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지원 사업	-	-	882
17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	-	8,810
18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	-	-	95
5. 살기좋은 군산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교통, 주거, 교육, 건강 등)		73,567	203,390	13,519
1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기반 구축	36,000	-	-
2	여성안심귀갓길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	20	-	-
3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	200	-	-
4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35	40	-
5	귀농인 농지 및 주택 임차료 지원 사업	10	10	-
6	수요응답형(DRT) 행복콜버스	400	600	-

2021-2023 군산시 인구정책 시행계획 분야별 사업 목록		2021	2022	2023
7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	10,609	10,923	4,354
8	고교 창의적 역량강화 사업	520	520	520
9	어린이 원어민 화상 교육	97	97	97
10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885	685	514
11	예술·체육·기능·상업 분야 지역인재장학금	100	100	80
12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 운영	1,388	1,388	1,388
13	마중물·희망스터디 사업	320	450	480
14	군산사랑배달앱(배달의명수) 운영	550	550	560
15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733	746	764
16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838	844	919
17	농촌 주택개량사업	-	-	-
18	빈집재생 희망하우스 사업	100	100	50
19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20,380	185,305	293
20	자살예방 심리치유지원	146	173	183
21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236	346	362
22	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 지킴이 사업(여성 안심홈세트 지원 및 안심거울 설치)	-	33	9
23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	-	-
24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	200	200
25	신혼부부 및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	200	60
26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	80	-
27	귀농인 안정정착 주거기반 조성	-	-	167
28	청년 농업인 생활안정 및 조기정착 영농기반 지원	-	-	850
29	인구 유입을 위한 귀농귀촌정책 홍보 강화	-	-	341
30	공부의 명수	-	-	520
31	청소년 자기계발연수비 지원	-	-	250
32	중·고등학생 시내버스 무상교통	-	-	527
총 예산		279,571	388,260	212,294

자료 : 군산시, 2021-2023 군산시 인구정책 시행계획, 2023

[표 3-27] 2024 군산시 인구정책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2024 군산시 인구정책 시행계획 분야별 사업 목록		예산
(추진전략 1) 다함께 돌보는 지역사회 조성		142,426
1-1	1. 건강하고 행복한 결혼·임신·출산 지원	6,318
1-1-1	결혼축하금 지원	-
1-1-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442
1-1-3	한방 난임 치료 지원	54
1-1-4	전북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26
1-1-5	예비맘·임산부 영양제 지원	38
1-1-6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192
1-1-7	산후 조리비용 지원	625
1-1-8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130
1-1-9	출산장려 지원 사업	2,152
1-1-10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	2,559
1-2	2. 촘촘한 돌봄지원으로 양육친화 환경 조성	127,904
1-2-1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17,903
1-2-2	아동수당 지급	13,405
1-2-3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950
1-2-4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74,756
1-2-5	영유아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	915
1-2-6	아이돌봄 환경 조성	6,887
1-2-7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1,258
1-2-8	다함께 돌봄사업 추진	278
1-2-9	지역아동센터 운영	10,940
1-2-10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지원	567
1-2-11	어린이장난감도서관(소룡점) 운영	18
1-2-12	복스타트 사업	27
1-3	3. 마음 편한 임신과 출산환경 조성	940
1-3-1	국공립 및 직장어린이집 확충	540
1-3-2	직원 영유아 위탁보육비 지원	400

2024 군산시 인구정책 시행계획 분야별 사업 목록		예산
1-3-3	유연 근무제 확대 운영	-
1-4	4. 다양하고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	7,264
1-4-1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강화	6,533
1-4-2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731
(추진전략 2) 모두의 역량 발휘로 지역 경쟁력 강화		51,559
2-1	1.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지원	5,590
2-1-1	공공학습 플랫폼 공부의 명수 운영	540
2-1-2	청소년 자기계발연수비 지원	275
2-1-3	어린이 원어민 화상 교육	97
2-1-4	중·고등학생 무상교통 교통비 지원	2,535
2-1-5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514
2-1-6	고교 창의적 역량강화 사업	550
2-1-7	예술·체육·기능·상업 분야 지역인재장학금	80
2-1-8	마중물·희망스터디 사업	560
2-1-9	지역출신 멘토가 함께하는 「청소년 인생등대 만들기」	50
2-1-10	청소년 지역연구과제 발표 대회	50
2-1-11	전략적 진로설계 부모 함께 아카데미	10
2-1-12	지역대학과 함께하는 전국 교육 경진대회(발명, 기행문)	44
2-1-13	군산시립예술단지휘자와 함께하는 키움옴 아카데미	1
2-1-14	천원의 아침밥 사업	284
2-2	2. 청년성장 및 지역 정착 지원	13,818
2-2-1	청년성장 프로젝트 추진	148
2-2-2	공공부문 청년멘토 사업	399
2-2-3	전북형 청년 취업 지원사업	126
2-2-4	전북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1,670
2-2-5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지원 사업	882
2-2-6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7,060
2-2-7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	82
2-2-8	전북형 창업패키지 지원사업	1,000
2-2-9	청년 농업인 생활안정 및 조기정착 영농기반 지원	1,037

2024 군산시 인구정책 시행계획 분야별 사업 목록		예산
2-2-10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200
2-2-11	신혼부부 및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1,200
2-2-1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14
2-3	3. 일자리 지원·확충	30,655
2-3-1	기업사랑 실천과제 추진	829
2-3-2	내실있는 투자유치	25,200
2-3-3	공공일자리 사업	2,176
2-3-4	창업 희망키움 사업	501
2-3-5	신종년 취업지원 사업	239
2-3-6	군산사랑배달앱(배달의명수) 운영	666
2-3-7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일터복귀 지원	749
2-3-8	귀농귀촌인 맞춤형 교육 운영 및 현장실습 지원	80
2-3-9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
2-3-10	귀농인 안정정착 주거기반 조성	75
2-3-11	젊은 농촌 「그려군산」 귀농귀촌 인구유치	140
2-3-12	산업현장 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운영	-
2-3-13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지자체 추천제 추진	-
2-4	4. 세대를 아우르는 배움터 조성	1,496
2-4-1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 운영	1,388
2-4-2	평생학습 「러닝 업(learning up) 지원사업」 운영	33
2-4-3	전북시민대학 군산새만금캠퍼스 운영	75
(추진전략 3) 머물고 싶은 정주환경 조성		117,131
3-1	1.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20,397
3-1-1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20,380
3-1-2	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 지킴이 사업	17
3-2	2.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	50,761
3-2-1	도시바람길숲(철길숲) 조성사업	20,000
3-2-2	로컬컨텐츠 타운(중앙동 2지구)	26,000
3-2-3	빈집재생 희망하우스 사업	25
3-2-4	농촌 주택개량사업	-

2024 군산시 인구정책 시행계획 분야별 사업 목록		예산
3-2-5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	4,736
3-3	3. 함께 즐기는 문화도시 조성	683
3-3-1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609
3-3-2	힐링·문화·여가생활을 위한 독서문화공간 확충	54
3-3-3	다양한 가치가 살아있는 문화플랫폼 조성을 위한 문화재단 활성화 추진	-
3-3-4	군산북페어 2024	20
3-4	4. 다시 찾고 싶은 생태 힐링 관광지 조성	45,290
3-4-1	서해안 선셋드라이브 명소화(서해안권 관광벨트)	6,600
3-4-2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	38,690
(추진전략 4) 건강하고 활력있는 고령사회 구축		115,006
4-1	1.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	53,557
4-1-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53,557
4-2	2. 노인시설 확충으로 고령친화 환경 조성	58,542
4-2-1	나운3동 도시재생인정사업(노인복합문화시설)	10,860
4-2-2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지원 강화	25,641
4-2-3	고령자 복지주택사업 추진	22,041
4-3	3. 예방적 보건·의료서비스 확충	2,907
4-3-1	치매안심센터 운영	1,653
4-3-2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804
4-3-3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450
(추진전략 5)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체계적 대응		42
5-1	1. 지속가능한 인구정책 추진 기반 마련	3
5-1-1	인구정책 추진 기반 강화	3
5-1-2	인구정책 수요·만족도 조사 실시	-
5-2	2. 인구구조 변화 대응 인식 개선	39
5-2-1	인구구조 변화 대응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	39
총 예산		426,164

자료 : 군산시, 2024 군산시 인구정책 시행계획, 2024

[표 3-28] 2025 군산시 인구정책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2025 군산시 인구정책 시행계획 분야별 사업 목록	예산
① 아이낳고 살기 좋은 행복공동체 - 3대 실행과제 / 76개 세부사업	264,985
(실행과제 1) 꿈키움 아이키움(36개)	132,397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360
· 한방 난임 치료 지원	54
· 전복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85
· 예비맘·임산부 영양제 지원	38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192
· 산후 조리비용 지원	505
·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136
· 출산장려 지원 사업	2,152
·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	2,258
·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12,781
· 아동수당 지급	11,664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900
·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68,904
· 영유아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	850
· 아이돌봄 환경 조성	7,261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1,278
· 건강한 돌봄이 중심이 되는 다함께 돌봄사업 추진	283
· 지역아동센터 운영	12,510
·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지원	556
· 어린이장난감도서관(소룡점) 운영	18
· 책과 함께 시작하는 북스타트 사업	25.5
· 국공립 및 직장어린이집 확충	720
· 직원 영유아 위탁보육비 지원	400
· 유연 근무제 확대 운영	-
· 공공학습 플랫폼 공부의 명수 운영	455
· 청소년 자기계발연수비 「자기신청 장학금」	275

2025 군산시 인구정책 시행계획 분야별 사업 목록	예산
· 중·고등학생 무상교통 교통비 지원	1,201
·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514
· 고교 창의적 역량강화 사업	600
· 예술·체육·기능·상업 분야 지역인재장학금	80
· 마중물·희망스터디 사업	590
· 지역출신 멘토가 함께하는「청소년 인생등대 만들기」	30
· 전략적 진로설계 부모 함께 아카데미	10
· 교육발전특구 사업 추진	3,876
·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지원	435
· 새들허브숲 어린이 숲 놀이터 조성	400
(실행과제 2) 신도불이 청년키움(17개)	19,507
· 천원의 아침밥 사업	62
· 공공부문 청년멘토 사업	414
· 전북형 청년 취업 지원사업	94
· 전북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1,667
·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지원 사업	882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1,762
· 청년 여촌정착 지원사업	50
· 전북형 창업패키지 지원사업	1,000
· 창업 희망키움 사업	166
· 청년 농업인 생활안정 및 조기정착 영농기반 지원	1,037
·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	917
· 내실있는 투자유치	11,200
· 귀농귀촌인 맞춤형 교육 운영 및 현장실습 지원	92
·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
· 귀농인 안정정착 주거기반 조성	47
· 젊은 농촌 『그려군산』 귀농귀촌 인구유치	107
· 청년 면접정장 지원사업	10
(실행과제 3) 가족키움 지역살기(23개)	113,801
·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200

2025 군산시 인구정책 시행계획 분야별 사업 목록	예산
· 신혼부부 및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1,200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151
· 공공일자리 사업	2,288
· 신중년 취업지원 사업	178
·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일터복귀 지원	814
·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강화	6,681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60,122
· 나운3동 도시재생인정사업(노인복합문화시설)	4,690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지원 강화	25,610
·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 운영	1,378
· 전북시민대학 군산새만금캠퍼스 운영	75
· 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 점검이 사업	17
·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588
· 힐링·문화·여가생활을 위한 독서문화공간 확충	54
· 다양한 가치가 살아있는 문화플랫폼 조성을위한 문화관광재단 활성화 추진	982
· 치매안심센터 운영	1,662
· 군산시 예방접종 사업	679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110
· 군산사랑배달앱(배달의명수) 운영	666
·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	4,920
· 농촌 주택개량사업	-
· 평생학습 행복포인트제 운영	16
② 새롭게 머물고 싶은 포용공동체 - 3대 실행과제 / 14개 세부사업	18,183
(실행과제 1) 디지털 노마드 청년 유입(3개)	4,234
· 로컬컨텐츠 타운(중양동 2지구)	4,000
· 빈집재생 희망하우스 사업	150
· 창업스테이 창업가 주거지원	84
(실행과제 2) 외국인 주민 유입·정착·포용 생태계 구축(4개)	984
·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826
· 외국인 주민의 정착을 위한 외국인지원센터 운영	49

2025 군산시 인구정책 시행계획 분야별 사업 목록	예산
· 외국인 우수인력 장기비자 전환 지원사업	19
· 공공형 계절근로자 지원사업	90
(실행과제 3) 체류인구 유입 및 정주기반 구축(7개)	12,965
· 서해안 선셋드라이브 명소화(서해안권 관광벨트)	630
·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	4,100
· 군산북페어 2025	100
·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47
· 도시바람길숲(철길숲) 조성사업	6,196
· 국립대지역연계 복합센터 건립	100
· 서군산체육센터 운영	1,792
총 예산	283,168

자료 : 군산시, 2025 군산시 인구정책 시행계획, 2025

2) '25년 군산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사업 이행계획¹¹⁾

☑ 추진배경 및 전략

○ 추진근거

- 유엔아동권리협약(1989.11.20. 채택) 제4조
- 「아동복지법」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군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 추진배경

- 경제성장에 따라 시민·권리의식도 성숙되었으나, 아동 인식 변화는 지체
 - 전통적으로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로 보고, 훈육 대상으로 인식
 - 아동을 권리 주체로 바라보기 시작했으나, 명목적 수준에 그침
 - 아동의 권리·참여 의식은 높으나 학교 등 사회에서 참여를 경험해 본 수준은 낮음
-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필요
 - 아동기의 행복은 성인기까지 연결되어 개인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사회·국가 발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실천 및 지속적인 이행
 -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4대 기본원칙과 4대 기본권 실현을 위한 시정 방향 설정을 통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를 연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아동을 위한 시 차원의 체계적인 정책 개발 및 지역사회 시스템 구축 필요

○ 추진사항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재인증 추진
 - 최초인증 단계에서 수립한 중점과제를 이행하고 이행성과를 분석하여 유니세프 성과지표를 충족하여 상위단계를 인증하였고 아동친화도시를 지속추진하여 재인증 달성 추진

11) 군산시 아동정책과, 군산시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회의자료, 2025

☑ 목표 및 전략



[그림 3-4] 군산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사업 이행계획 목표 및 전략

☑ 목표별 세부 추진과제

[표 3-29] 2025 군산시 아동친화도시 분야별 추진사업

추진전략	세부사업	추진부서	비고
건강 성장 지원	평생건강 첫걸음, 균형맞춤 영양관리	건강관리과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경로장애인과	
	공공급식 안심구매 및 환경급식지원금 지원	먹거리정책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아동정책과	
	군산시 가족센터 운영	여성가족청소년과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위생과	
교육 기회 확대	공공학습 플랫폼 공부의 명수 운영	교육지원과	중점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사업 운영	교육지원과	
	행복교육 지원사업	교육지원과	
	독서문화플랫폼 작은도서관 운영	도서관관리과	
	특화프로그램으로 차별화된 도서관 운영	도서관관리과	
아동 복지 서비스 증진	중·고등학생 시내버스 무상교통 추진	교통행정과	중점
	어린이집 1-2세반 운영비 지원	아동정책과	중점
	군산시 출산 장려 추진사업	여성가족청소년과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여성가족청소년과	중점
의견 제시와 반영	어린이·청소년 리포터 운영	공보협력과	
	아동친화도시 정책제안 운영	아동정책과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	아동정책과	중점
	청소년 자치활동 및 참여증진 활성화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여성가족청소년과	
아동 권리 존중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운영	아동정책과	중점
아동친화 거버넌스 강화	아동 친화 정책 추진	아동정책과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운영	아동정책과	
놀이 공간 확충	생활밀착기반시설(어린이공원) 개선사업	산림녹지과	중점
	새만금어린이랜드 운영	아동정책과	중점
	다양한 장르의 공연으로 어린이공연장 활성화	예술의전당관리과	중점
놀이 기회 확대	자전거문화센터 및 공공자전거 위탁운영	건설과	

추진전략	세부사업	추진부서	비고
	어린이 농촌문화 복합공간 체험프로그램 운영	농촌지원과	
	군산시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 개최	문화예술과	
	박물관 주말 연극, 인형극 등 상설공연	박물관관리과	
	청소년 문화활동 확대	여성가족청소년과	
	어린이 스포츠교실 등 운영	체육진흥과	
놀이 권리 증진	어린이 맘껏광장운영 및 관리	아동정책과	
안전 환경 조성	어린이를 위한 맞춤형 안전체험 프로그램 운영	교통행정과	중점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기후환경과	중점
범죄로부터 보호	아동보호(학대) 대응	아동정책과	
	아동학대 예방 강화	아동정책과	중점
기후위기 대응	학교숲조성사업	산림복지과	

자료 : 군산시 아동정책과, 군산시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회의자료, 2025

3) 군산시 청년정책 기본계획(2024년~2028년)¹²⁾

☑ 수립배경 및 주요경과

○ 추진근거

- 청년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
-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기본계획)
 - 군산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필요성

- 군산시 청년문제 심화
 - 지역 경기침체 및 취업난 심화로 청년인구 이탈 및 경제활동인구 감소
 - 취업난, 주거 불안 등 다양한 청년문제 대처 필요
-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
 - 청년들의 구조적 어려움 해결을 위한 다양한 청년정책 입안을 위한 기초자료 필요
 -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장기적인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필요

○ 추진경과 및 성과

- 청년정책 기반 마련
 - 조직 신설 및 정비
 - * 청년정책계 신설 : 일자리창출과 청년정책계 : '18. 12. 21.
 - * 직속부서 개편 : 일자리정책과 → 인구대응담당관 : '23. 12. 29.
 - * 청년정책계 분리 : 청년정책계, 청년지원계 : '23. 12. 29.
 - > 청년 취창업 지원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청년의 삶 전반에 대한 지원 확대 모색

12) 군산시 인구대응담당관, 군산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안) (2024년~2028년), 2024

☑ 비전 및 전략

비 전	도전과 기회의 전북, 함께 성장하는 전북 청년				
목 표	청년일자리 창출 9,000명	행복주택 공급 600호	개업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1,200명	전북형 청년수당 지급 2,800명	청년 정책제안 실행·반영 5건
추진전략	핵심과제				
(1) 생애주기별 지원 · 청년농업 육성	일자리	① (확대) 대학생 직무인턴 ②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③ 전북 미래산업 청년 기술 창업지원 ④ (확대)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⑤ (신규)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			
(2) 주거부담 완화로 주거 상향 지원	주거	① 전라북도 장학숙 운영 ②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③ (신규)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④ 공공임대 주택공급 ⑤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조성			
(3) 교육기회 보장 · 미래 역량강화	교육	① 맞춤형 기술 인력교육지원 ② 대학 산학과 커플링 사업 ③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 ④ 지역특성화 산업 전문인력 양성 ⑤ (신규) 주역산업분야 전문인력 양성			
(4) 생활안전기반 · 창작활동 지원	복지·문화	① (신규)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② (확대) 전북형 청년수당(지역정착 지원사업) ③ (신규) 정북청년 함께 두배 적금 ④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⑤ (신규) 문화예술 일자리 지원사업			
(5) 참여 거버넌스 · 활동 생태계 조성	참여·권리	① 전북청년허브센터 운영 ② 전북청년 생생 아이디어 지원사업 ③ 청년정책포럼단 운영 ④ 전북 청년마을 만들기 ⑤ (신규) 전북청년 도약프로젝트			

[그림 3-5]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정책

☑ 목표별 세부 추진과제

[표 3-30] 군산시 청년정책 기본계획(2024년~2028년)

단위 : 백만원

과제 번호	세부과제명	예산계획					소관 부서	비 고	
		합계	'24	'25	'26	'27			'28
		404,036. 51	68,730. 85	86,818. 44	90,808 .74	86,736 .24	70,942 .24		
1. 일자리 (24개 과제)									
1-1. 구직과 정착에 이르기까지 유기적 연계로 고용안정 사다리 구축									
1-1-1	공공부문 청년멘토 사업	2,095	399	409	419	429	439	인구대응 담당관	자체
1-1-2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지원사업	4,410	882	882	882	882	882	인구대응 담당관	
1-1-3	군산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1,500	300	300	300	300	300	인구대응 담당관	
1-1-4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1-1-5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	1,260	252	252	252	252	252	인구대응 담당관	
1-1-6	청년성장프로젝트	148.2	148.2	-	-	-	-	인구대응 담당관	신규
1-1-7	군산새만금 미래성장센터 건립사업	32,000	330	6,660	12,505	12,505	-	산업 혁신과	신규
1-1-8	청년도전지원사업	1,084	-	271	271	271	271	인구대응 담당관	신규
1-1-9	구직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	54	-	12	13	14	15	인구대응 담당관	자체 신규
1-2. 구직과 정착에 이르기까지 유기적 연계로 고용안정 사다리 구축									
1-2-1	청년 어촌정착지원	173	34.6	34.6	34.6	34.6	34.6	어업 진흥과	
1-2-2	신기술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	450	50	50	100	100	150	농촌지원과	
1-2-3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250	50	50	50	50	50	농촌지원과	자체
1-2-4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조성	5,300	-	500	500	500	3,800	농정과	신규
1-2-5	첨단복합영농단지 원예산업지구	25,462.5	-	6,790	8,487.5	6,111	4,074	기술보급과	신규
1-3. 창업 플랫폼 및 씨드머니 조성 지원									
1-3-1	공설시장 청년몰	10	2	2	2	2	2	일자리 경제과	자체
1-3-2	청년창업플랫폼(청춘미가)사업	45	5	10	10	10	10	일자리 경제과	
1-3-3	수제창업플랫폼 지원사업	234	46.8	46.8	46.8	46.8	46.8	일자리 경제과	자체

과제 번호	세부과제명	예산계획						소관 부서	비고
		합계	'24	'25	'26	'27	'28		
1-3-4	창업 희망키움사업	700.71	500.71	167	33	-	-	일자리 경제과	자체
1-3-5	전북형 창업패키지 지원사업	3,000	1,000	1,000	1,000	-	-	일자리 경제과	
1-3-6	청년기업 인증사업	미정	미정	미정	미정	미정	미정	산업혁신과	자체
1-3-7	사회적경제 청년 혁신가 지원사업	304.8	221	75.8	8	-	-	일자리 경제과	
1-3-8	시군 청년혁신가 예비창업지원사업	225	45	45	45	45	45	일자리 경제과	
1-3-9	청년창업가 제품 우선구매 지원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인구대응 담당관	
1-3-10	로컬컨텐츠 타운 조성	9,500	-	-	-	3,000	6,500	도시재생과	신규
2. 일자리 (5개 과제)									
2-1. 청년주거 안정성 확보									
2-1-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812.6	812.6	-	-	-	-	주택행정과	
2-1-2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1,000	200	200	200	200	200	주택행정과	자체
2-1-3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6,000	1,200	1,200	1,200	1,200	1,200	주택행정과	
2-1-4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70.2	14.04	14.04	14.04	14.04	14.04	주택행정과	
2-2. 맞춤형 주거 지원									
2-2-1	군산 STAY 청년창업주거지원사업	366	106	118	118	24	-	일자리 경제과	자체
3. 교육 (12개 과제)									
3-1. 교육비 부담 경감									
3-1-1	대학생 학자금 이차지원	140	28	28	28	28	28	교육지원과	
3-2. 전문인력 양성 및 신산업 성장동력 확보									
3-2-1	지역혁신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기반 구축	191,900	38,380	38,380	38,380	38,380	38,380	교육지원과	
3-2-2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	12,650	2,530	2,530	2,530	2,530	2,530	교육지원과	
3-2-3	신산업분야 지식재산 융합인재 양성	219.8	219.8	-	-	-	-	교육지원과	
3-2-4	이공분야 대학 중점연구소 지원사업 풍력기술연구	858	858	-	-	-	-	산업혁신과	
3-2-5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18,000	3,600	3,600	3,600	3,600	3,600	산업혁신과	
3-2-6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3.0)	4,640	1,160	1,160	1,160	1,160	-	산업혁신과	
3-2-7	대학생 자작자동차 대회	344	344	-	-	-	-	산업혁신과	
3-2-8	지역맞춤형 전기차 클러스터 전문인력 양성사업	716	358	358	-	-	-	일자리 경제과	

과제 번호	세부과제명	예산계획					소관 부서	비 고	
		합계	'24	'25	'26	'27			'28
3-2-9	청년농후계능 역량 강화교육	87.5	17.5	17.5	17.5	17.5	17.5	농정과	자체
3-2-10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	20	20	-	-	-	-	기술보급과	자체
3-2-11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사업	30,000	-	10,000	10,000	10,000	-	교육지원과	신규
4. 복지·문화 (19개 과제)									
4-1. 자산형성 등 경제적 기반 조성 지원									
4-1-1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사업	1,116	216	360	360	180	-	인구대응 담당관	
4-1-2	전북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	8,352	1,670.4	1,670.4	1,670.4	1,670.4	1,670.4	인구대응 담당관	
4-1-3	청년희망키움통장지원	20	20	-	-	-	-	복지정책과	
4-1-4	청년저축계좌지원	71	71	-	-	-	-	복지정책과	
4-1-5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5,672	1,130	1,134	1,135	1,136	1,137	복지정책과	
4-1-6	자립준비청년 경제적 자립지원	3,364	480	646	696	746	796	이동정책과	
4-1-7	출산장려 지원사업	10,897	2,152	2,130	2,205	2,205	2,205	여성가족 청소년과	자체
4-1-8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사업	123	24.6	24.6	24.6	24.6	24.6	농정과	
4-1-9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사업	35	7	7	7	7	7	농정과	
4-1-10	통장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60	60	-	-	-	-	행정지원과	자체
4-2. 청년 건강 및 복지 증진									
4-2-1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130	26	26	26	26	26	여성가족 청소년과	
4-2-2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66	66	-	-	-	-	경로 장애인과	
4-2-3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2,855	571	571	571	571	571	경로 장애인과	
4-2-4	천원의 아침밥 사업	1,420	284	284	284	284	284	먹거리 정책과	
4-2-5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사업	335.5	67.1	67.1	67.1	67.1	67.1	인구대응 담당관	
4-3. 청년 문화 활동 지원									
4-3-1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200	200	-	-	-	-	문화예술과	
4-3-2	청년예술가 창작활동 지원사업	30	30	-	-	-	-	문화예술과	
4-3-3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	132	132	-	-	-	-	문화예술과	
4-3-4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사업	70	14	14	14	14	14	농정과	
5. 참여·권리 (11개 과제)									

과제 번호	세부과제명	예산계획					소관 부서	비 고
		합계	'24	'25	'26	'27		
5-1. 청년 참여형 거버넌스 구축								
5-1-1	청년협의체 운영	84	16.8	16.8	16.8	16.8	16.8	인구대응 담당관
5-1-2	군산시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27	5.4	5.4	5.4	5.4	5.4	인구대응 담당관
5-1-3	청년정책 제안 운영	8	-	2	2	2	2	인구대응 담당관
5-1-4	청년위원 할당제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인구대응 담당관
5-1-5	청년 통(統計)으로 청년과 통(疏通)	60	-	15	-	-	45	인구대응 담당관
5-1-6	전북 청년 생생아이디어 지원사업	150	150	-	-	-	-	인구대응 담당관
5-1-7	청소년 참여 활성화 지원사업	150	30	30	30	30	30	여성가족 청소년과
5-1-8	군산시간여행축제 청년 서포터즈 운영	100	20	20	20	20	20	관광진흥과
5-2. 청년 교류 활성화								
5-2-1	군산시 청년·창업지원센터(청년뜰) 운영	4,975	995	995	995	995	1,100	인구대응 담당관
5-2-2	청년의 날 기념행사 추진	150	30	30	30	30	30	인구대응 담당관
5-2-3	군산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	50	-	-	-	-	50	인구대응 담당관

자료 : 군산시 인구대응담당관, 군산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안) (2024년~2028년), 2024

4) 2025년 「군산시 외국인정책」 종합계획¹³⁾

☑ 추진배경 및 방향

○ 추진근거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 수립('23.12월)
- 군산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제5조(외국인주민 지원계획 수립)

○ 추진근거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문제, 지방소멸 위기, 생산동력 상실 등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을 외국인 정책 방향으로 전환 필요
-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기반으로 내·외국인 주민의 상생과 통합을 위한 지역맞춤형 정책 필요
- 외국인정책 종합계획을 통한 각 부서별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체계적인 통합과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도모

○ 추진방향

- 외국인정책 추진의 근간이 되는 기반 환경 조성, 추진체계 마련, 기존 사업 확대 및 신규 지원사업 발굴 추진
- 외국인 주민 유입지원 → 정착지원 → 사회통합의 단계적 추진
- **(법무부)** ①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등 이민장려 ② 외국인력 도입 애로해소를 위해 E7-4 숙련기능 비자 확대(5천명 → 35천명/지역 추천제), 허가제 규모 확대(12만명→16만5천명) ③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 발표('24.9.26.) ④ 출입국·이민정책 후속 조치 시행
- **(행안부)** 외국인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시도기구설치 기준'에 외국인 수 포함·산정 등 외국인주민(생활인구)유입 중요성 강화
- **(외교부)** 재외동포 정책 총괄 조직 확대, 재외동포청 신설('23.6.5.)

13) 군산시, 2025년 「군산시 외국인정책」 종합계획, 2025

☑ 비전 및 목표

비전	서로 다른 We, 함께하는 We, 글로벌 성장도시 군산	
목표	외국인주민 비율* 5.5%, 체류 외국인 수**, 11,500명 달성	
목표	◆(경제활성화) 외국인 유입을 통한 경제 활성화	
	◆(정착지원) 장기 정착을 위한 맞춤형 체류지원	
	◆(사회통합) 지역민과 외국인의 존중과 소통으로 만드는 사회통합	
	◆(협력/인프라) 지역기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14개 추진 전략	외국인 유입을 통한 (경제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역 산업 성장 동력에 필요한 숙련 인재 유치 ② 농·어업 분야의 필요 인력 확대 ③ 외국인 유학생 대상 취업 발전 지원 ④ 출입국 특례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유입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맞춤형(정착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외국인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 방안 마련 ② 초기 정착 유도를 위한 지원금 지원 ③ 취약계층 외국인 대상 기본적 건강권 보장 ④ 맞춤형 체류 서비스 지원으로 정착 여건 조성
	존중과 소통으로 만드는(사회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역민과 외국인의 상호존중 및 소통체계 마련 ②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적응 및 자립환경 조성 ③ 정주화를 위한 외국인주민 역량 강화 지원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역기반 외국인 지원 추진체계 구축 ② 다양한 기관 참여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운영 ③ 지역데이터 구축 기반한 외국인 지원 서비스 추진

[그림 3-6] 2025년 군산시 외국인정책 종합계획 비전 및 목표

☑ 목표별 세부 추진과제

[표 3-31] 2025년 군산시 외국인정책 목표별 세부 추진과제

4대 목표	연번	사업명	부서명	예산(백만원)		비고
				'24	'25	
1. 외국인 유입을 통한(경제 활성화)	1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지자체 가점 추천제 추진	인구대응담당관	-	-	
	2	산업현장 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운영	인구대응담당관	-	-	종료('24)
	3	[역점] 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반 운영기관 운영 추진	인구대응담당관	-	-	신규
	4	출입국관리법 특례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유입	인구대응담당관	-	-	
	5	찾아가는 외국인 유학생 기업설명회	교육지원과	-	-	종료('24)
	6	유학생 현장실습기반 채용 프로그램 운영	교육지원과	-	-	종료('24)
	7	공공기관 외국인 유학생 직무인턴 활동사업	인구대응담당관	-	-	종료('24)
	8	[역점]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	교육지원과	-	200	신규
	9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	농정과 산식품정책과	35	35	
	10	[역점] 공공형 계절근로자 지원사업	농정과	-	100	신규
	11	농업 근로자 기숙사 신축	농정과	-	240	신규
	12	공공형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운영	농정과	-	35	신규
	13	외국인 관광 통역 서비스 운영	관광진흥과	-	-	
	14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국어 안내지도 제작	관광진흥과	20	20	
2. 지역사회 장기정착을 위한 맞춤형 (정착 지원)	1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인구대응담당관	21	-	미반영
	2	[역점] 숙련기능인력 정착지원금 지원 ('25)외국인 우수인력 장기비자 전환 지원	인구대응담당관	60	19	신규
	3	[역점] 외국인근로자 정착 지원사업(고용노동부 공모사업) ('25) 외국인근로자 정착을 위한 외국인 지원센터 운영	인구대응담당관	400	49	신규
	4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여성가족청소년과	198	203	
	5	국적취득 축하금 지원	인구대응담당관	50	-	미반영
	6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산업혁신과	144	182	(총예산)
	7	중도입국청소년, 결혼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지정기관 (다음세대학교)	-	-	종료('24)
	8	외국인주민 긴급 복지 지원	복지정책과	2,938	2,876	(총예산)
	9	결핵관리사업 등 의료 지원	보건소 전북특자도	35	75	(총예산)
	10	농공단지로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전북특별자치도 (법무행정과)	-	-	
	11	군산시민안전보험 제도 운영	안전총괄과	368	400	(총예산)
	12	국제결혼 이주여성 합동결혼식	행정지원과	8	3	

4대 목표	연번	사업명	부서명	예산(백만원)		비고
				'24	'25	
3. 존중과 소통으로 만드는 (사회통합)	1	외국인근로자 사회통합활동 지원	인구대응담당관		13	신규
	2	외국인주민 인식개선 「함께해요 We 캠페인」 추진	인구대응담당관	2	2	신규
	3	[역점] 외국인주민 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관광진흥과		7	신규
	4	외국인주민 체육대회 지원	여성가족청소년과	5	5	
	5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지원	여성가족청소년과	169	173	종료('24)
	6	다문화 학부모 한국어 교육지원	교육지원과	2	-	
	7	이중언어 학습지원	여성가족청소년과	73	92	
	8	외국인주민 역량 강화 지원	여성가족청소년과	20	20	
	9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	여성가족청소년과	131	134	
	10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자립지원, 고행나들이, 국적취득지원 등)	여성가족청소년과	191	191	
	11	외국인주민 통번역 서비스 지원	여성가족청소년과	102	108	
	12	군산시 외국어 통역봉사 서비스	기획예산과	10	10	
	13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 운영	교육지원과	1,388	1,378	(총예산)
	14	오식도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	교육지원과	31	79	(총예산)
	15	행복학습센터 및 평생학습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	교육지원과	60 (55/5)	52 (48/4)	(총예산)
	16	[역점]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지원 서비스	열린민원과	-	-	신규
4.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1	군산시 외국인정책 전담부서 신설	인구대응담당관	-	-	종료('24)
	2	군산시 외국인주민 지원 협의회 구성·운영	인구대응담당관	-	-	
	3	외국인정책 실무 협의회 구성·운영	인구대응담당관	-	-	
	4	[역점] 외국인근로자 대상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 추진	인구대응담당관	3	1	신규
	5	외국인주민 명예통장제도 운영	행정지원과	28	28	
	6	외국인주민 관련 통계 및 현황분석	인구대응담당관	-	-	

자료 : 군산시, 2025년 「군산시 외국인정책」 종합계획, 2025

■ 타 정책과의 연계성 및 시사점

☑ 중앙정부 및 전라북도 정책과의 정합성

- 군산시 인구정책은 중앙정부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제21대 정부의 인구정책 공약과 방향성을 공유하고 있음
 - 삶의 질 제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일·가정 양립 등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사업(임신·출산 지원, 돌봄·보육 지원, 일·가정 양립 및 고용지원, 결혼·주거 지원, 청년 정착·취업 지원)을 반영함
- 전라북도 제2차 인구정책 종합계획(2023~2027)의 6대 전략과 높은 정합성을 보이며, 전략별 적용 가능성이 높음
 - 특히 ‘청년이 도약하는 사회’, ‘함께 양육하는 사회’, ‘중년과 노후가 활기찬 사회’ 등은 군산시의 인구감소 원인과 구조에 대응하는 핵심 전략임
 - 산학연 연계, 지역대학과 연계한 창업 및 취업 지원, 청년 임대료 지원, 돌봄 인프라 확충 등 주요 사업들이 도 차원의 전략과 일치함
 -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확보는 정책의 연속성과 정책 자원 확보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함

☑ 향후 보완 방향

- 정합성 확보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실행체계 정비가 필요함
 - 부서 간 연계, 민관 협력, 시-도 간 협치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행정체계 구축 필요
 - 청년층과 고령층 등 주요 정책 대상별로 세분화된 수요분석 및 정책 타겟팅 강화 필요
 - 단순 인프라 확충을 넘어 지역대학, 산업, 주거, 문화가 통합된 청년 정착 기반 조성이 필요함
 - 정책 효과 측정을 위한 성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정착률, 청년 유입률 등 중간지표 중심의 관리체계가 요구됨
 - 재정 여건을 고려한 사업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하며, 단계적 추진전략 마련이 필요함
 - 도 및 중앙정부 공모사업, 특별교부세 등 외부 자원 확보 방안도 병행되어야 함
 - 종합적으로 지역의 여건과 자원을 반영한 맞춤형 실행전략이 향후 군산시 인구정책의 실효성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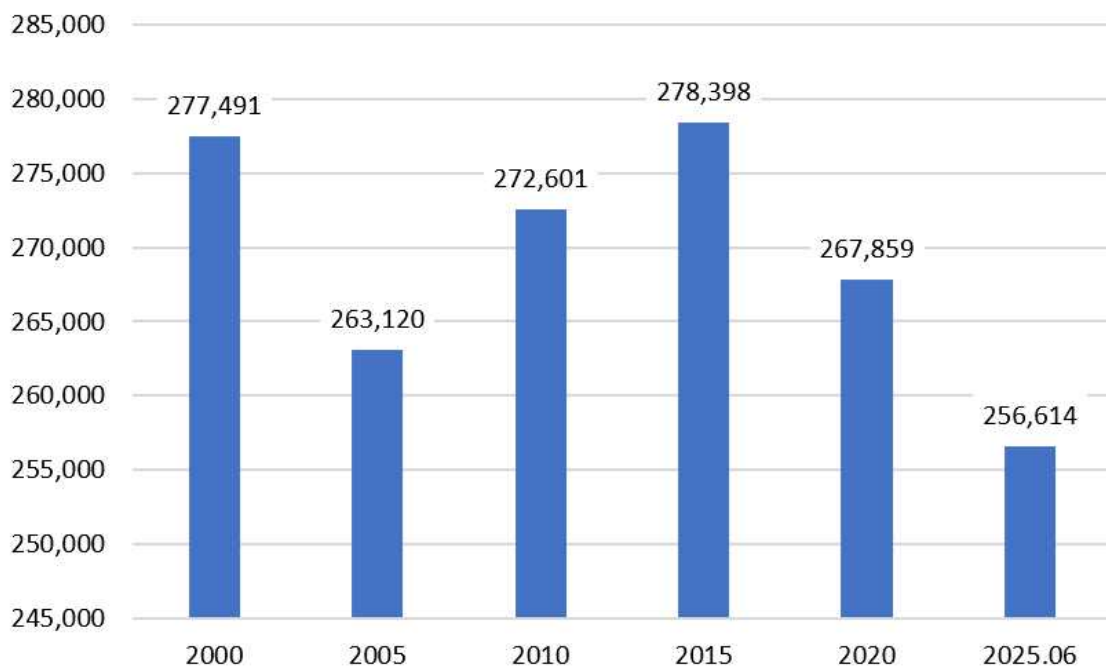
제3절 군산시 인구현황 및 전망

1) 인구 및 세대 변화 추이

☑ 인구 및 세대 변화 추이

○ 연도별 총인구

- 2000년 군산시 총인구는 277,491명으로 인구 감소세 이전의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임
- 2005년(263,120명)에는 인구가 점차 감소하였으나, 이후 2010년(272,601명)부터 인구가 반등하여 증가세로 전환됨
- 2015년에는 278,398명으로 관측 기간 중 가장 높은 인구를 기록, 군산시 인구의 정점을 이룸
- 최근 10년간 인구가 약 2만 명 이상 감소하면서 도시 규모와 지역 활력의 축소가 우려됨
-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인구구조 관리와 함께, 정주 여건 개선, 청년 유입 유인책, 출산·육아 인프라 강화 등의 정책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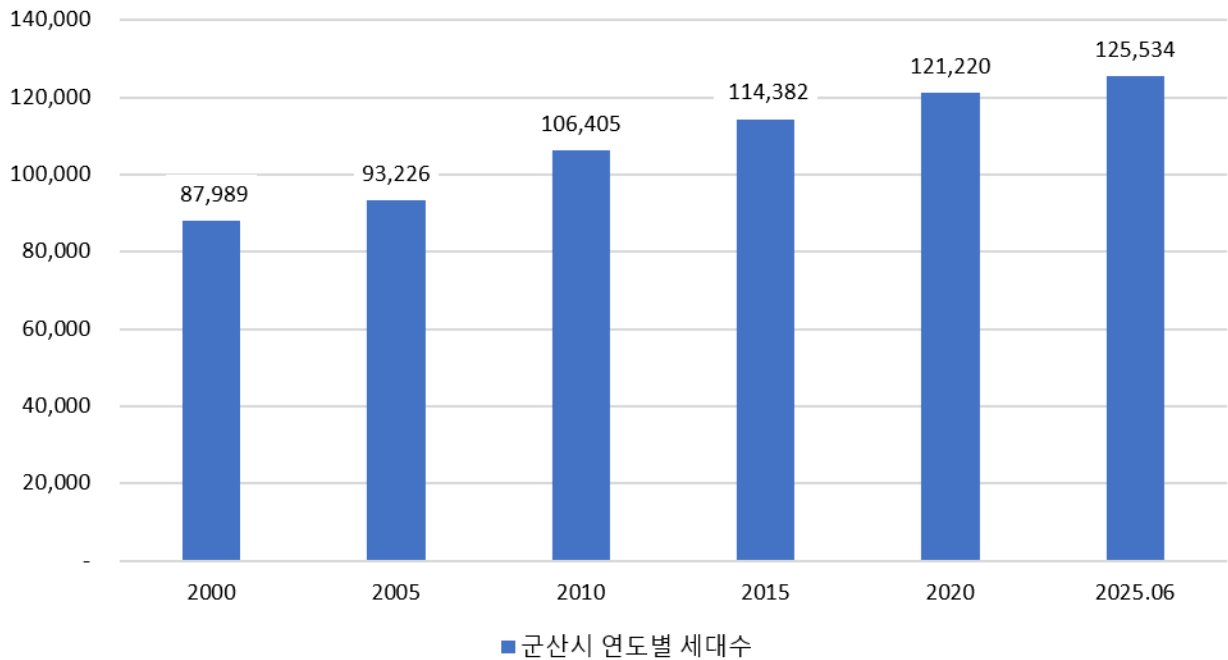


[그림 3-7] 군산시 연도별 인구수

자료 : 국가데이터처, 주민등록인구현황, 2025

○ 연도별 세대수

- 2000년 군산시의 세대수는 87,989세대로 시작함
- 이후 2005년(93,226세대), 2010년에는 106,405세대로 10만 세대를 처음 돌파함
- 2015년(114,382세대), 2020년(121,220세대)로 계속 증가하는 양상 유지
- 2025년 6월 기준 125,534세대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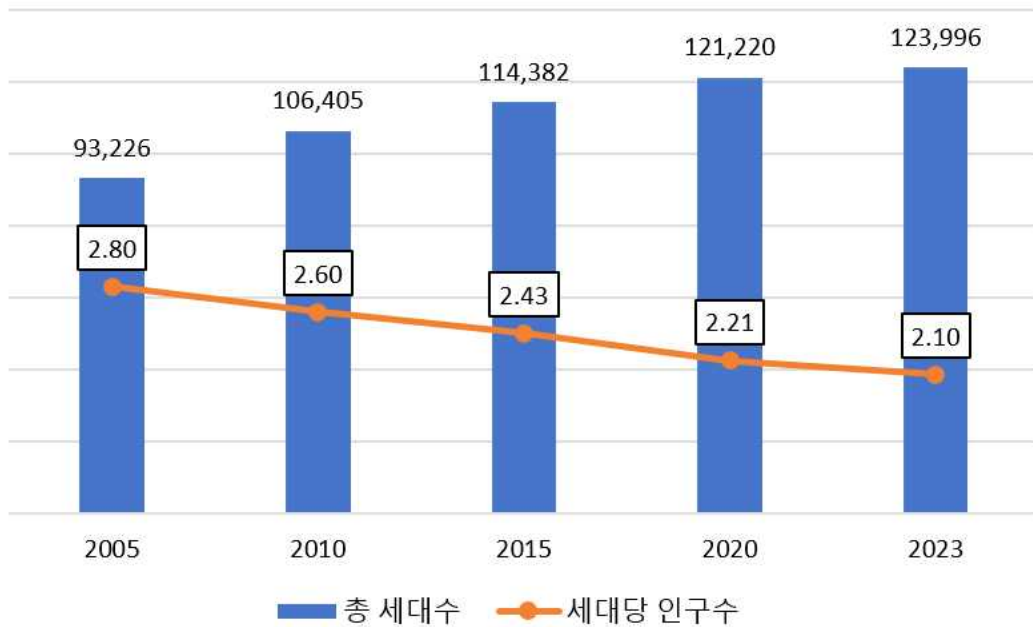
[그림 3-8] 군산시 연도별 세대수

자료 : 국가데이터처, 주민등록인구현황, 2025

○ 연도별 평균 세대원수

- 2005년 평균 세대원수는 2.8명으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 2.60명으로 하락세가 두드러짐
- 2015년(2.43명), 2020년(2.21명) 등 2010년대 이후에도 감소 추세가 꾸준히 이어짐
- 2023년 기준으로는 2.10명까지 떨어져 2명 이하에 근접한 초소형 가구 중심 사회로 전환 중임을 보여줌
- 핵가족화와 더불어 1인 가구·고령 단독세대 증가, 청년 독립가구 확대, 출산 기피 및 결혼 감소 등이 주요 원인으로 해석됨

- 세대수는 늘고 있으나 평균 세대원 수는 줄어드는 추세로 인구는 줄지만, 가구 수는 증가하는 이중 구조적 변화를 드러냄
- 향후 군산시는 소형 주거 수요, 1~2인 가구 중심 복지 서비스, 고독사 예방 대책, 생활인프라 접근성 개선 등 생활 단위 중심의 정주환경 재구조화가 필요함



[그림 3-9] 군산시 연도별 평균 세대원수

자료 : 국가데이터처, 지역통계('24년 기준), 2025

☑ 인구증감률

○ 전북특별자치도 시·군별 인구증감률

- 전북특별자치도 전체 인구는 2000년 1,999,255명에서 2025년 1,730,258명으로 약 13% 감소, 지속적인 인구 감소세를 보임
- 인구 증가 지역
 - 완주군은 2000년 84,009명에서 2025년 100,131명으로 약 19% 증가, 도내에서 유일하게 두 자릿수 인구 증가를 기록한 지역으로 나타남
 - 전주시는 620,521명에서 630,274명으로 2% 증가, 도내 대도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한 지역임
- 인구 감소폭이 비교적 작은 지역 (10% 미만 감소)

- 군산시: 277,491명 → 256,614명, 약 8% 감소, 대도시 중 비교적 안정적인 인구 유지
- 위험 수준 감소 지역 (20% 내외 감소)
 - 익산시: 344,324명 → 267,618명, 약 20% 감소
 - 무주군: 29,207명 → 22,917명, 약 22% 감소
 - 순창군: 34,587명 → 26,792명, 약 23% 감소
 - 진안군: 31,273명 → 24,191명, 약 23% 감소
 - 남원시: 103,571명 → 75,011명, 약 28% 감소
- 고위험 감소 지역 (30% 내외 감소)
 - 김제시: 115,865명 → 81,382명, 약 30% 감소
 - 고창군: 74,104명 → 50,631명, 약 32% 감소
 - 장수군: 30,051명 → 20,476명, 약 32% 감소
 - 임실군: 37,514명 → 25,401명, 약 32% 감소
 - 정읍시: 152,022명 → 101,240명, 약 33% 감소
 - 부안군: 74,716명 → 47,580명, 약 36% 감소
- 전주시와 완주군을 제외한 모든 시군에서 인구가 감소, 특히 농촌지역 군 단위 지역의 감소폭이 심각하여 지방소멸 위험이 높은 상태임
- 전주-군산-익산 등 도시권은 상대적으로 인구 유지가 가능했으나, 그 외 지역은 20~30% 수준의 인구 급감을 겪고 있음
- 도내 시지역과 군지역 간의 인구 격차 및 중심지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향후 인구구조 대응 및 지역 활성화 전략이 요구됨

[표 3-32] 전북특별자치도 시·군별 인구증감률

단위 : 명, %

구분	2000(A)	2005	2010	2015	2020	2025.06 (B)	증감률 (B-A)/A
전북	1,999,255	1,885,335	1,868,963	1,869,711	1,804,104	1,730,258	-0.13
전주시	620,521	621,749	641,525	652,282	657,432	630,274	0.02
군산시	277,491	263,120	272,601	278,398	267,859	256,614	-0.08
익산시	334,324	318,506	307,289	302,061	282,276	267,618	-0.20
정읍시	152,022	129,050	122,000	115,977	108,508	101,240	-0.33
남원시	103,571	93,670	87,775	84,856	80,662	75,011	-0.28
김제시	115,865	102,720	94,346	88,721	82,450	81,382	-0.30
완주군	84,009	83,651	85,119	95,303	91,609	100,131	0.19
진안군	31,273	29,021	27,543	26,203	25,394	24,191	-0.23
무주군	29,207	25,876	25,578	25,220	24,036	22,917	-0.22
장수군	30,051	24,755	23,386	23,277	22,085	20,476	-0.32
임실군	37,514	32,511	30,593	30,271	27,314	25,401	-0.32
순창군	34,587	32,012	30,209	30,248	27,810	26,792	-0.23
고창군	74,104	63,676	60,861	60,046	54,529	50,631	-0.32
부안군	74,716	65,018	60,138	56,848	52,140	47,580	-0.36

자료 : 국가데이터처, 주민등록인구현황, 2025

2) 인구구조

☑ 연령계층별 인구구조

○ 전라북도와 군산시의 연령계층별 인구구조 비교

- 총인구 기준
 - 2025년 6월 기준 전라북도는 총 1,730,258명이며, 군산시는 256,614명으로 나타남
- 유소년 인구(0~14세)
 - 전라북도는 169,614명으로 전체의 9.8%를 차지함
 - 군산시는 27,212명으로 전체의 10.6%를 차지하여 전북 평균보다 높은 비중을 보임
 - 군산시가 전라북도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젊은층(유소년) 인구 비중이 약간 높음
- 생산연령 인구(15~64세)
 - 전라북도는 1,111,629명으로 전체의 64.25%를 차지함
 - 군산시는 168,481명으로 전체의 65.66%를 차지하여 전북 평균보다 높은 비중을 보임
 - 군산시의 경제활동 가능 인구 비율이 전라북도보다 다소 높음
- 고령 인구(65세 이상)
 - 전라북도는 449,015명으로 전체의 25.95%를 차지함
 - 군산시는 60,921명으로 전체의 23.74%를 차지함
 - 군산시의 고령 인구 비중은 전라북도 평균보다 낮아, 상대적으로 고령화가 덜 진행된 지역으로 판단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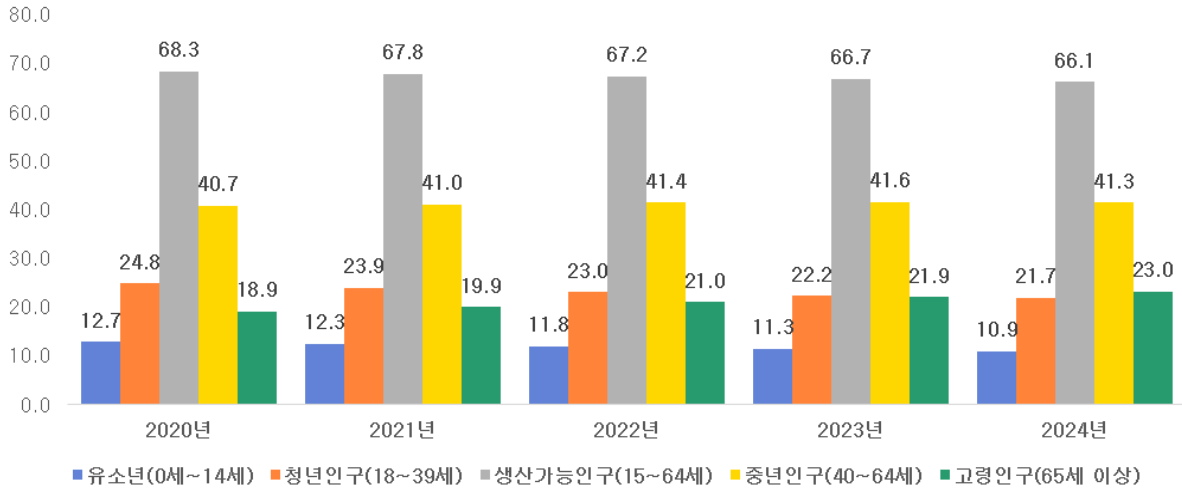
[표 3-33] 연령계층별 인구비중(2025.06 기준)

단위 : 명

구분	합계	0-14세		15-64세		65세 이상	
		인구수	비중	인구수	비중	인구수	비중
전북	1,730,258	169,614	9.8%	1,111,629	64.25%	449,015	25.95%
군산시	256,614	27,212	10.6%	168,481	65.66%	60,921	23.74%

자료 : 국가데이터처, 주민등록인구현황, 2025

- 군산시는 영아·유소년·청년인구와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고령인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4년에는 고령인구(23.0%) 비중이 청년인구(21.7%) 비중을 넘어섰으며, 생산가능 인구는 '20년 기준 '24년 2.2% 감소



[그림 3-10] 2020년-2024년 군산시 연령별 인구 현황

[표 3-34] 2020년-2024년 군산시 연령별 인구 현황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인구/전년대비 비율	인구/전년대비 비율	인구/전년대비 비율	인구/전년대비 비율	인구/전년대비 비율
합 계	267,859	265,304	262,467	259,980	258,047
유소년 (0~14세)	34,090 (△1,473)	32,738 (△1,352)	31,004 (△1,734)	29,481 (△1,523)	28,047 (△1,434)
	12.7%	12.3%	11.8%	11.3%	10.9%
청년인구 (18~39세)	66,333 (△2,845)	63,491 (△2,842)	60,249 (△3,242)	57,735 (△2,514)	56,117 (△1,618)
	24.8%	23.9%	23.0%	22.2%	21.7%
생산가능 (15~64세)	183,069 (△3,440)	179,852 (△3,217)	176,466 (△3,386)	173,457 (△3,009)	170,542 (△2,915)
	68.3%	67.8%	67.2%	66.7%	66.1%
중년인구 (40~64세)	108,952 (△196)	108,862 (△90)	108,606 (△256)	108,022 (△584)	106,671 (△1,351)
	40.7%	41.0%	41.4%	41.6%	41.3%
고령인구 (65세이상)	50,700 (+2,641)	52,714 (+2,014)	54,997 (+2,283)	57,042 (+2,045)	59,458 (+2,416)
	18.9%	19.9%	21.0%	21.9%	23.0%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2025

☑ 고령인구 비율

○ 군산시 고령인구 비율 추이

-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율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임
 - 2000년 8.05%에서 2005년 10.30%, 2010년 12.30%, 2015년 14.84%, 2020년 18.92%로 상승
- 유엔(UN)에 따르면 지역 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 시 초고령화 사회로 분류하고 있음
 - 군산시는 2025년 6월 기준 23.74%로 전체 인구의 약 4명 중 1명이 고령인구에 해당하여 초고령화 사회로 분류됨

[표 3-35] 군산시 연도별 고령인구 비율

단위 : 명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06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65세 이상	22,413	8.05%	27,177	10.30%	33,555	12.30%	41,317	14.84%	50,700	18.92%	60,921	23.74%



자료 : 국가데이터처, 주민등록인구현황, 2025

3) 인구감소 요인 분석

☑ 자연적 증감 요인

○ (가) 자연증가율(출생-사망)

- 군산시 연도별 자연증가율 변화 특성
 - 군산시는 최근 5년간 지속적인 자연감소 현상을 겪고 있으며, 출생자 수는 감소하고 사망자 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출생자 수는 1,315명에서 1,000명으로 315명 감소한 반면, 사망자 수는 같은 기간 동안 1,880명에서 2,372명으로 492명 증가함
 - 이로 인해 자연증감 수치는 2020년 -565명에서 2024년 -1,372명으로 악화되었으며, 자연증가율도 -2.1%에서 -5.3%로 급격히 하락함
 - 조출생률과 조사망률의 차이를 기준으로 한 자연증가율은, 2024년 기준 조출생률 3.9%, 조사망률 9.2%로, 인구 1,000명당 자연감소가 약 5.3명 발생한 것으로 분석됨
 - 특히 2022년 이후 출생자 수는 연간 1,000명 안팎으로 떨어지며,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 수 증가와 맞물려 자연감소 폭이 확대되는 구조적인 인구위축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추세는 단기간의 회복이 어려운 구조적 인구문제를 시사하며, 출산율 제고 및 사망률 감소를 위한 다각도의 정책적 대응이 요구됨

[표 3-36] 군산시 연도별 자연증가율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출생	1,315	1,161	1,145	983	1,000
사망	1,880	1,963	2,310	2,263	2,372
증감	-565	-802	-1,165	-1,280	-1,372
자연증가율 (조출생률- 조사망률)	-2.1% (4.8-6.9)	-3.1% (4.3-7.4)	-4.6% (4.3-8.9)	-4.9% (3.8-8.7)	-5.3% (3.9-9.2)

단위 : 명, %

자료 : 군산시 인구대응담당관. 2024년 군산시 인구 종합분석, 2025

○ 합계출산율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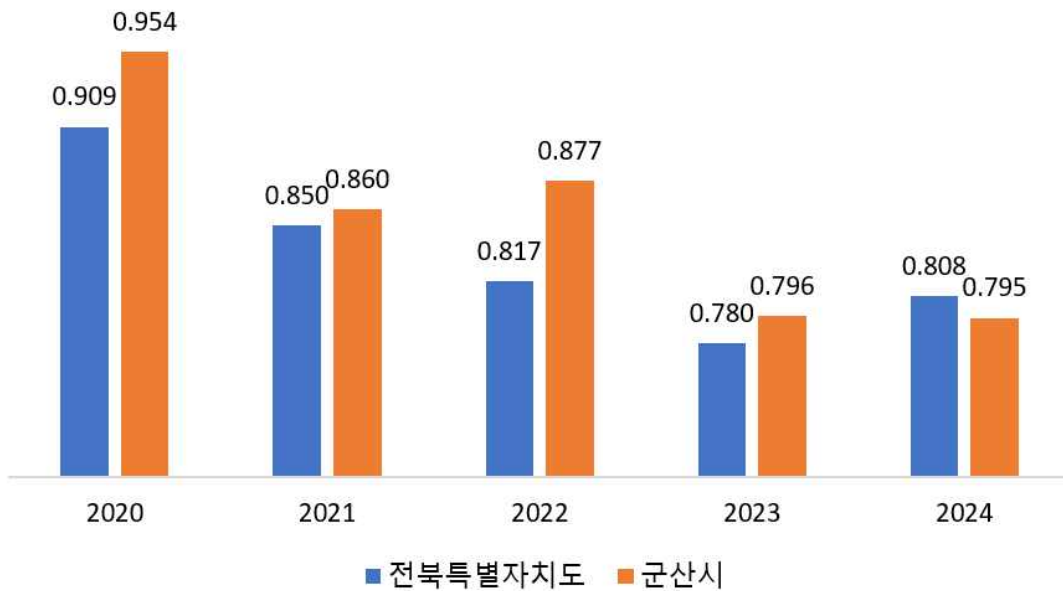
• 군산시 연도별 합계출산율 변화 특성

- 2020년에는 0.954명 수준으로 전북도 평균보다 다소 높은 출산 수준을 보였음
- 2021년은 0.86명으로 0.9명 미만으로 떨어지는 초저출산 상태에 진입함
- 전체적으로 보면, 군산시는 전북 전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해왔으나 2024년에는 전북 전체보다 낮아지는 수준까지 도달함
- 출산율이 반등한 적은 있었으나, 상승세로 이어지지 못하고 구조적 저출산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해석됨

[표 3-37] 군산시 연도별 합계출산율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전북	0.909	0.850	0.817	0.780	0.808
군산시	0.954	0.860	0.877	0.796	0.795

단위 : 명



자료 :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2025

14)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은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를 나타내는 지표로, 출산 수준과 인구 재생산 구조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임. 일반적으로 2.1명은 인구 유지에 필요한 대체출산율로 간주되며, 이 보다 낮을 경우 장기적으로 인구 감소가 지속될 수 있음

○ 혼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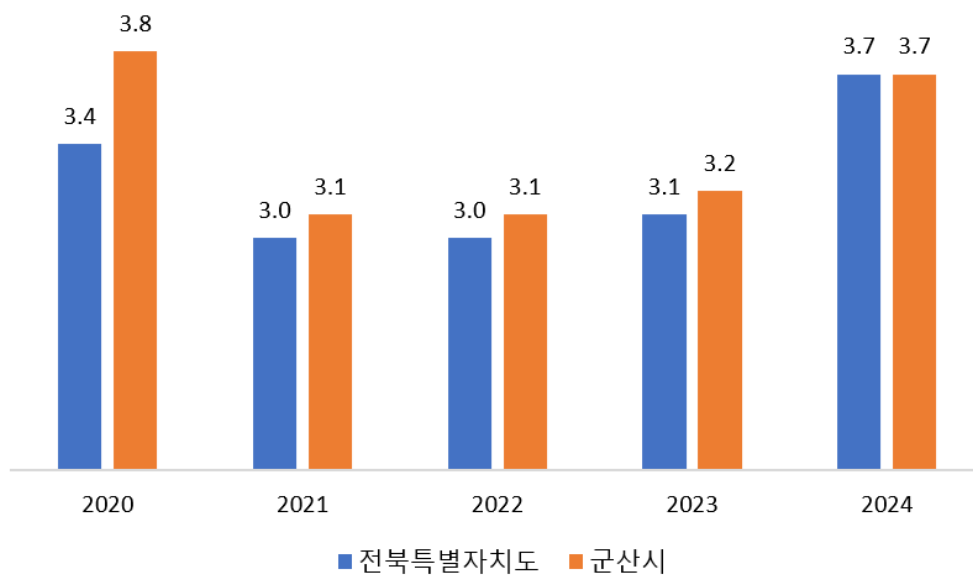
• 군산시 연도별 조혼인율¹⁵⁾ 변화 특성

- 2020년 이후부터는 급격한 하락세가 이어졌으며, 혼인 건수가 현저히 줄어드는 구조적 변화가 나타남
- 2020년에는 3.8%로 동일 연도 전북 평균(3.4%)을 0.4포인트 상회함
- 2021년부터는 3.1%로 하락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전북 평균(3.0%)과 비슷한 상태에 진입함
- 2024년에는 3.7%로 다소 회복했으며, 동일 연도 전북 평균(3.7%)과 같아짐
- 이는 결혼 가치관 변화, 경제 불안, 주거 부담 등 복합적 요인의 결과로 볼 수 있음

[표 3-38] 군산시 연도별 조혼인율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전북	3.4	3.0	3.0	3.1	3.7
군산시	3.8	3.1	3.1	3.2	3.7

단위 : %



자료 :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2025

15) 조혼인율(Crude Marriage Rate)은 인구 1,000명당 발생한 혼인 건수를 나타내는 지표로, 혼인 수준과 사회적 결혼 경향을 파악하는 데 활용됨

☑ 사회적 증감 요인

○ 군산시 인구이동 추이

- 군산시는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년 연속 인구 순유출이 지속되고 있으며, 전출 인원이 전입 인원보다 많은 구조가 계속되고 있음
 - 전체 순이동자 수는 2017년에 -2,531명으로 가장 큰 순유출을 기록하였으며, 이후 점차 순유출 규모가 줄어들어 2024년에는 -568명으로 비교적 완화된 수준을 보임
 - 2023년(-1,228명)과 비교하면, 2024년 순유출 규모는 660명 감소하였으며, 유출 인원이 줄어든 양상으로 해석됨
 - 전북도내 이동의 경우, 2024년 순유출은 -88명으로 전년도(-452명)보다 유출 규모가 축소됨
 - * 이는 전입 인원이 469명 증가하고, 전출 인원도 105명 증가했지만, 전입 증가 폭이 더 커서 순유출이 다소 완화된 결과로 해석됨
 - 시도간 이동에서는 2024년 순유출 규모가 -480명으로, 전년도(-776명) 대비 296명 감소하여 시도 간 유출이 뚜렷이 줄어든 양상을 보임
 - * 특히 전출 인원이 줄고 전입 인원이 늘어난 점이 영향을 미침
 - 전체적으로 보면, 군산시의 인구 순유출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나, 2024년에는 유출 규모가 눈에 띄게 줄어들며 완화된 경향을 나타냄
 - * 이는 지역 여건 변화, 청년 유입 정책 등의 영향과 연계해 해석할 필요가 있음

[표 3-39] 군산시 연도별 인구이동 추이(2014-2024)

단위 : 명, %

연도	이동자수							
	전체 순이동	전북도내 이동			시·도간 이동			
		전입	전출	순이동	전입	전출	순이동	
2014	-1,005	4,732	4,956	-224	10,395	11,176	-781	
2015	-543	4,554	4,602	-48	10,634	11,129	-495	
2016	-1,295	4,605	4,765	-160	10,074	11,209	-1,135	
2017	-2,531	4,476	4,551	-75	8,887	11,343	-2,456	
2018	-2,070	4,843	4,562	281	9,498	11,849	-2,351	
2019	-1,997	4,341	4,208	133	9,417	11,547	-2,130	
2020	-1,768	4,708	4,550	158	9,855	11,781	-1,926	
2021	-847	4,149	4,197	-48	9,974	10,773	-799	
2022	-1,329	3,773	3,938	-165	8,454	9,618	-1,164	
2023	-1,228	3,400	3,852	-452	8,584	9,360	-776	
2024	-568	3,869	3,957	-88	8,891	9,371	-480	
전년 대비	증감	660	469	105	364	307	11	296
	증감률	53.76%	13.79%	2.73%	80.53%	3.58%	0.12%	38.14%

자료 :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2025

○ 연령별·사유별 인구이동 현황

- 군산시 연령별 이동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10세 이하 인구는 2023년 -237명에서 2024년 -32명으로 순유출 급감
 - * 영유아 자녀를 동반한 전입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며, 가족 정착이나 출산친화 정책의 효과 가능성 존재
 - 20대는 2023년 -564명 → 2024년 -847명으로 여전히 최대 순유출 연령대
 - * 청년층의 지역 이탈 지속되고 있으며, 유출 규모는 상승
 - 30대는 2023년 -118명에서 2024년 +157명으로 전환되어 순유입 발생
 - * 가족 형성과 정착 수요가 유입으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 가능하며 청년 정주 및 보육 인프라 정책 효과 시사
 - 40대는 +85명 순유입으로 전환(2023년 -43명 → 2024년 +85명)
 - * 중장년층의 생활 기반 정착이 이뤄지고 있는 양상
 - 50대는 2023년 -168명에서 2024년 -5명으로 유출 감소
 - * 전출세가 완화되며 상대적 정주 안정성 향상
 - 60대 이상 고령층은 2023년 -92명 → 2024년 +80명으로 순유입 전환
 - * 노년층 정착 또는 귀촌 경향 증가, 고령친화 도시로서의 가능성 반영
 - 시사점
 - * 전체 인구 순유출은 감소세이며, 특히 30대, 40대,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순유입 전환이 뚜렷
 - * 이는 지역 정주여건 개선, 고령층 정착 기반 확대, 가족 동반 이주 증가 등을 반영하는 긍정적 신호
 - * 반면, 20대 청년층 순유출은 여전히 심각하여, 교육·일자리·주거 정책을 통한 청년 유출 방지대책이 시급
 - * 생애주기별 인구특성에 따른 맞춤형 인구정책 수립이 필요함

[표 3-40] 군산시 연령별 이동현황

단위 : 명

연령별	2024			2023		
	순이동	전입	전출	순이동	전입	전출
계	-562	12,782	13,344	-1,222	12,002	13,224
10대 이하	-32	1,425	1,457	-237	2,155	2,392
20대	-847	3,483	4,330	-564	2,841	3,405
30대	157	2,452	2,295	-118	2,119	2,237
40대	85	1,866	1,781	-43	1,809	1,852
50대	-5	1,679	1,684	-168	1,570	1,738
60대 이상	80	1,877	1,797	-92	1,508	1,600

자료 : 군산시 인구대응담당관, 2024년 군산시 인구 종합분석, 2025

- 군산시 관외 전출입 사유별 이동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직업 사유 순이동은 2023년 -794명 → 2024년 -398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개선
 - * 직업 관련 유출은 여전히 많지만, 상대적으로 유입 증가 또는 유출 감소로 완화
 - 가족 사유 순이동은 2023년 +320명 → 2024년 +502명으로 증가
 - * 가족을 동반한 유입이 증가한 것으로, 정착 기반 마련 가능성을 시사
 - 주택 사유 순이동은 2023년 -170명 → 2024년 -94명으로 소폭 완화
 - * 주거 여건 개선 혹은 신규 주거지 확보 증가 가능성 존재
 - 교육 사유 순이동은 -575명(2023)에서 -713명(2024)으로 오히려 악화
 - * 교육 목적의 외부 유출 증가, 특히 학령기 인구 유출 지속 우려
 - 기타 사유 순이동은 2023년 -3명 → 2024년 +141명으로 전환
 - * 기타 요인에 의한 유입 증가, 이는 일시적 혹은 정책 연계 이동일 가능성 있음
- 시사점
 - * 직업·주택 관련 유출은 다소 완화, 가족·기타 사유 전입 증가가 주요 요인
 - * 반면, 교육 목적 유출은 증가하여 지역 내 교육 인프라 개선 필요성을 시사
 - * 향후 전입 사유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예: 정주여건 개선, 교육기관 확충 등)이 필요함

[표 3-41] 군산시 사유별 이동현황

단위 : 명

연도	구분	계	관외 전출·입 사유				
			직업	가족	주택	교육	기타
2024	순이동	-562	-398	502	-94	-713	141
	전입	12,782	4,802	3,820	1,780	912	1,468
	전출	13,344	5,200	3,318	1,874	1,625	1,327
2023	순이동	-1,222	-794	320	-170	-575	-3
	전입	12,002	4,810	3,422	1,493	870	1,407
	전출	13,224	5,604	3,102	1,663	1,445	1,410

자료 : 군산시 인구대응담당관, 2024년 군산시 인구 종합분석,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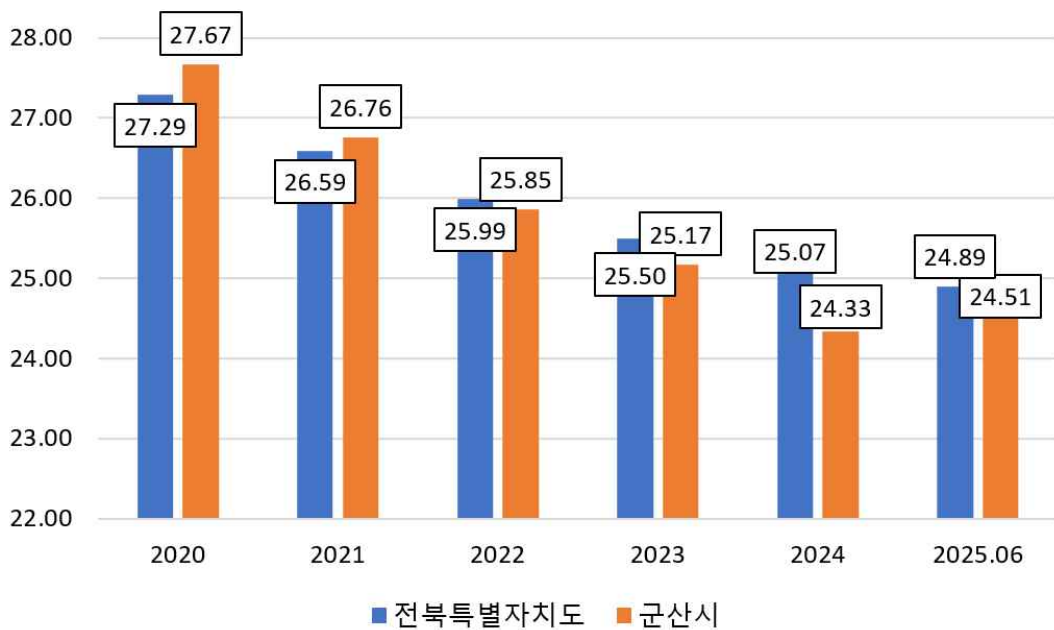
○ 청년층 비중 및 순이동률

- 군산시의 청년층(15~39세) 인구는 지난 5년간 절대 규모와 인구 내 비중 모두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2020년 군산시 청년층 인구는 약 7만 4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27.67%에 달했으나, 2025년 6월에는 약 6만 3천 명 수준(24.51%)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같은 기간 전라북도 전체 청년층 비중(27.29% → 24.89%)보다 더 빠르게 하락한 것으로, 지역 내 청년 유출이 더욱 심각하게 진행되었음을 시사함
 - 전북도 전체 청년층 인구 역시 감소세를 보이나, 군산시는 전북 평균보다 항상 높은 청년 비중을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차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음
 - 2023년에는 군산시 25.17%, 전북 25.50%로 역전되었고, 2025년에는 군산시 24.51%, 전북 24.89%로 격차가 더욱 좁혀짐
 - 이는 군산시의 청년층 비중이 전북 평균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까지 암시하는 지표로, 향후 청년층 기반 약화에 따른 지역사회 활력 저하와 인구 재생산 구조 위축이 우려됨
 - 전반적으로 군산시의 청년층 인구감소는 학령인구 감소, 대학 진학 및 취업을 위한 외부 지역 이동, 지역 내 정주 여건의 한계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됨

[표 3-42] 군산시 연도별 청년층 비중

단위 : 명,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06
전북	492,302	475,198	459,873	447,425	435,878	430,709
	27.29	26.59	25.99	25.50	25.07	24.89
군산시	74,117	70,990	67,860	65,435	63,871	62,901
	27.67	26.76	25.85	25.17	24.33	24.51



자료 : 국가데이터처, 주민등록인구현황, 2025

- 군산시 청년층의 전체 순이동은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지속적인 순유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연도별로 등락을 반복하였음
 - 특히 2017년에는 전체 순유출 인원이 -2,214명으로 가장 큰 폭의 순감소를 보였고, 이후 2020~2022년에도 -1,000명 이상 순유출이 지속됨
 - 2024년에는 -969명으로 순유출 규모가 줄었으나, 여전히 유출이 유입보다 많은 구조는 개선되지 않은 상태임
 - 전북 도내 이동에서는 군산시로 전입한 청년보다 전출한 청년이 소폭 더 많은 경향을 보이며, 연평균 순유출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았음(-18명)
 - 그러나 시도 간 이동, 즉 타 시·도로의 청년 전출이 군산시 청년 인구 유출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예컨대 2017년 시도 간 순이동은 -2,024명, 2020년에는 -1,650명에 달하며, 청년층 인구 유출의 대부분이 타지역(주로 수도권 등)으로의 이동임을 보여줌
- 2024년 기준 시도 간 순이동은 -953명으로 다소 개선되었으며, 전년 대비 168명 증가(유출 감소)하면서 순유출 규모가 완화되는 흐름을 보임
- 전반적으로 군산시 청년층의 전입·전출 흐름은 전북 도내 이동보다 광역권(시도 간 이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지역 내 정주 매력도와 경제 기반 약화가 외부 지역으로의 청년 유출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다만 2023~2024년에는 전체 순이동자 수가 증가(+382명), 시도 간 순유출 규모가 감소(-1,121명 → -953명)한 점에서, 청년 유출의 완화 가능성이 일부 감지됨
- 이 같은 변화는 청년정책 강화, 일자리 인프라 확대, 또는 사회적 여건 개선 등의 영향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아직까지 구조적 유출 경향을 반전시키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 청년층 인구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는 배경에는 이 같은 장기적인 순유출 흐름이 핵심적인 인구 동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표 3-43] 군산시 연도별 청년층 이동 추이(2014-2024)

단위 : 명, %

연도	이동자수							
	전체 순이동	전북도내 이동			시·도간 이동			
		전입	전출	순이동	전입	전출	순이동	
2014	-990	2,351	2,365	-14	5,234	6,210	-976	
2015	-692	2,261	2,209	52	5,412	6,156	-744	
2016	-1,161	2,238	2,267	-29	5,056	6,188	-1,132	
2017	-2,214	2,118	2,308	-190	4,274	6,298	-2,024	
2018	-1,782	2,354	2,230	124	4,524	6,430	-1,906	
2019	-1,691	2,163	2,015	148	4,536	6,375	-1,839	
2020	-1,515	2,385	2,250	135	4,735	6,385	-1,650	
2021	-1,327	2,121	2,249	-128	4,735	5,934	-1,199	
2022	-1,575	1,955	2,043	-88	4,077	5,564	-1,487	
2023	-1,351	1,833	2,063	-230	4,210	5,331	-1,121	
2024	-969	2,171	2,187	-16	4,380	5,333	-953	
전년 대비	증감	382	338	124	214	170	2	168
	증감률	28.27%	18.43%	6.01%	93.04%	4.03%	0.03%	14.98%

자료 :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2025

4) 읍·면·동별 인구 특성

☑ 군산시 읍·면·동별 인구수 추이

○ 읍·면·동별 인구수 추이 개요

- 군산시 전체 인구는 2000년 277,491명에서 2020년 267,859명으로 약 1만 명 감소하였으며, 2025년 6월 기준 256,614명으로 2000년 대비 약 2만 명(-8%) 줄어들며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임
- 읍면 지역과 동 지역 간 인구변화의 양상에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남

○ 읍·면 지역 인구 특성

- 가장 큰 감소 지역
 - 옥서면: 7,343명 → 2,582명으로 -65%, 전 지역 중 가장 큰 인구 감소폭
 - 다음으로 대야면 (-51%), 개정면(-47%), 임피면·나포면(-44%), 옥구읍(-43%), 성산면·서수면(-42%), 옥도면(-39%), 회현면(-32%) 순으로 감소폭이 큼
 - 농촌 외곽지와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30~65% 수준의 심각한 인구감소가 발생함
- 인구 증가 지역
 - 옥산면: 2000년 3,635명에서 2020년 4,720명으로 증가했으나, 2025년 4,335명으로 소폭 감소 전환(2000년 대비 +19%)

○ 동 지역 특성

- 가장 큰 감소 지역
 - 해신동: 7,420명 → 1,956명으로 -74%, 동 지역 중 가장 큰 인구 감소폭
 - 다음으로 나운2동(-61%), 신평동(-53%), 개정동(-50%), 중앙동·경암동(-45%), 나운1동(-41%), 미성동(-35%), 삼학동(-24%) 순으로 감소폭이 큼
 - 전반적으로 기존 시가지와 주거밀집지역을 중심으로 30~70%대의 인구 감소가 광범위하게 발생
- 인구 증가 지역
 - 수송동: 12,705명 → 53,098명으로 +318%, 동 지역 중 인구 증가폭이 가장 큼

- 다음으로 구암동(+59%), 흥남동(+57%), 조촌동(+52%), 소룡동(+19%) 순으로 증가폭이 큼
- 수송·조촌·구암·소룡동 등은 신도시 조성지 및 산업단지 배후 주거지로 개발되며, 인구 유입이 집중

○ 종합해석 및 시사점

- 읍·면 지역은 옥서면(-65%), 개정면(-47%) 등에서 40~60%대 인구감소가 나타나며 농촌소멸이 심화됨
- 동지역도 해신동(-74%), 나운2동(-61%) 등 기존 시가지 중심으로 급격한 인구 유출이 진행됨
- 수송동(+318%), 구암동(+59%) 등 신도시 조성지는 인구 유입이 집중됨
- 전체적으로 공간구조의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별 정주기반 확충과 도시재생 등 맞춤형 대응이 요구됨

[표 3-44] 군산시 읍·면·동별 인구수 추이

단위 : 명

구분	2000(A)	2005	2010	2015	2020(B)	2025.06(C)	증감률 (C-B)/B	증감률 (C-A)/A
군산시	277,491	263,120	272,601	278,398	267,859	256,614	-0.04	-0.08
옥구읍	4,988	4,145	3,907	3,541	3,184	2,855	-0.10	-0.43
옥산면	3,635	3,199	3,064	3,457	4,720	4,335	-0.08	0.19
회현면	4,520	4,003	3,763	3,737	3,454	3,085	-0.11	-0.32
임피면	4,259	3,715	3,476	3,122	2,677	2,366	-0.12	-0.44
서수면	3,991	3,482	3,202	2,867	2,589	2,296	-0.11	-0.42
대야면	9,090	7,336	6,587	5,644	5,043	4,438	-0.12	-0.51
개정면	5,134	4,350	4,004	3,563	3,021	2,708	-0.10	-0.47
성산면	4,263	3,690	3,591	3,287	2,903	2,491	-0.14	-0.42
나포면	3,540	3,002	2,804	2,530	2,224	1,996	-0.10	-0.44
옥도면	4,635	4,395	4,509	4,081	3,394	2,823	-0.17	-0.39
옥서면	7,343	6,238	5,038	4,000	3,039	2,582	-0.15	-0.65
해신동	7,420	5,255	3,933	2,825	2,406	1,956	-0.19	-0.74
월명동	5,533	5,521	9,230	7,110	5,547	4,557	-0.18	-0.18
신평동	12,636	10,834	9,236	8,388	7,186	5,940	-0.17	-0.53
삼학동	6,630	5,733	8,099	6,901	5,705	5,053	-0.11	-0.24
중앙동	7,352	5,705	4,427	3,721	4,466	4,017	-0.10	-0.45
흥남동	7,152	5,332	10,502	10,764	12,805	11,261	-0.12	0.57

구분	2000(A)	2005	2010	2015	2020(B)	2025.06(C)	증감률 (C-B)/B	증감률 (C-A)/A
조촌동	17,223	15,664	13,718	15,668	22,238	26,243	0.18	0.52
경암동	12,146	10,120	8,583	8,456	7,511	6,696	-0.11	-0.45
구암동	8,330	7,277	7,204	6,488	7,753	13,213	0.70	0.59
개정동	4,805	4,097	3,744	3,364	2,878	2,416	-0.16	-0.50
수송동	12,705	16,238	35,491	50,589	55,353	53,098	-0.04	3.18
나운1동	21,504	18,196	17,122	15,977	12,699	12,767	0.01	-0.41
나운2동	53,455	26,853	28,221	26,894	23,838	20,782	-0.13	-0.61
나운3동	-	36,051	37,619	36,990	32,345	29,862	-0.08	-
소룡동	13,537	16,606	19,063	19,281	16,755	16,139	-0.04	0.19
미성동	16,347	13,439	12,464	15,153	12,126	10,639	-0.12	-0.35

자료 : 국가데이터처, 주민등록인구현황, 2025

☑ 군산시 읍·면·동별 인구구조

○ 읍·면·동 연령계층별 인구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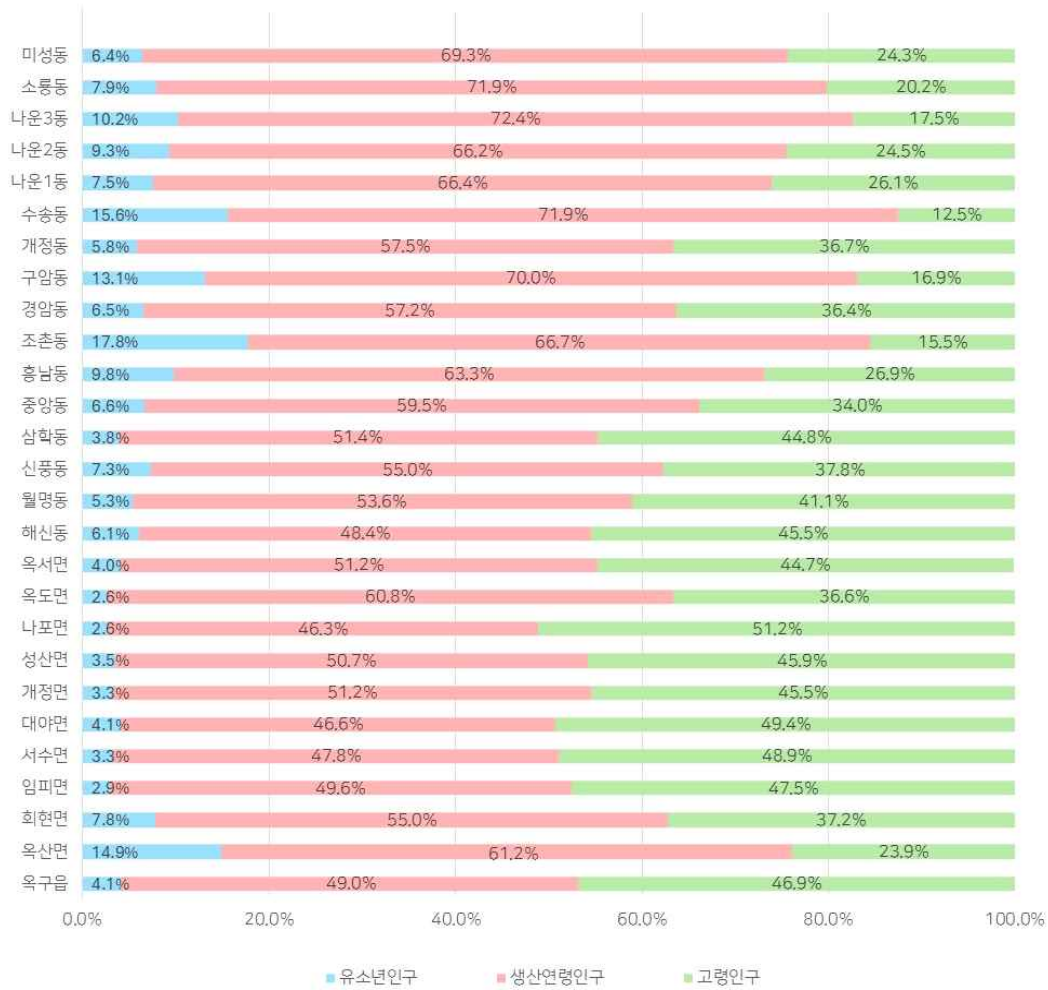
- 군산시 전체 인구 구조는 15~64세 생산연령인구가 65.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0~14세 유소년인구는 10.6%,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3.7%로 나타남
-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수면(48.9%), 대야면(49.4%), 나포면(51.2%) 등 농촌 면지역으로, 초고령사회 수준의 인구구조를 보임
- 반면 65세 이상 비중이 가장 낮은 지역은 수송동(12.5%), 조촌동(15.5%), 구암동(16.9%) 등으로,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구조를 가짐
- 0~14세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조촌동(17.8%), 수송동(15.6%), 옥산면(14.9%), 구암동(13.1%) 등으로, 신혼부부 및 자녀 양육 가구의 밀집 가능성을 시사함
- 15~64세 생산연령인구의 비중은 수송동, 소룡동 등 신도시 및 산업단지 인접 지역에서 70% 내외로 가장 높게 나타나, 경제활동 중심 지역의 특성이 반영됨

[표 3-45] 군산시 읍·면·동 연령계층별 인구구조(2025.06)

단위 : 명, %

구분	합계	0-14세		15-64세		65세 이상	
		인구수	비중	인구수	비중	인구수	비중
군산시	256,614	27,212	10.6%	168,481	65.7%	60,921	23.7%
옥구읍	2,855	116	4.1%	1,400	49.0%	1,339	46.9%
옥산면	4,335	646	14.9%	2,654	61.2%	1,035	23.9%
회현면	3,085	242	7.8%	1,696	55.0%	1,147	37.2%
임피면	2,366	69	2.9%	1,173	49.6%	1,124	47.5%
서수면	2,296	76	3.3%	1,098	47.8%	1,122	48.9%
대야면	4,438	181	4.1%	2,066	46.6%	2,191	49.4%
개정면	2,708	89	3.3%	1,386	51.2%	1,233	45.5%
성산면	2,491	86	3.5%	1,263	50.7%	1,142	45.9%
나포면	1,996	51	2.6%	924	46.3%	1,021	51.2%
옥도면	2,823	74	2.6%	1,716	60.8%	1,033	36.6%
옥서면	2,582	104	4.0%	1,323	51.2%	1,155	44.7%
해신동	1,956	119	6.1%	947	48.4%	890	45.5%
월명동	4,557	241	5.3%	2,444	53.6%	1,872	41.1%
신평동	5,940	433	7.3%	3,264	55.0%	2,243	37.8%
삼학동	5,053	191	3.8%	2,597	51.4%	2,265	44.8%
중앙동	4,017	265	6.6%	2,388	59.5%	1,364	34.0%
흥남동	11,261	1,100	9.8%	7,133	63.3%	3,028	26.9%
조촌동	26,243	4,670	17.8%	17,514	66.7%	4,059	15.5%
경암동	6,696	432	6.5%	3,827	57.2%	2,437	36.4%
구암동	13,213	1,728	13.1%	9,255	70.0%	2,230	16.9%
개정동	2,416	141	5.8%	1,389	57.5%	886	36.7%
수송동	53,098	8,290	15.6%	38,194	71.9%	6,614	12.5%
나운1동	12,767	961	7.5%	8,472	66.4%	3,334	26.1%
나운2동	20,782	1,926	9.3%	13,761	66.2%	5,095	24.5%
나운3동	29,862	3,034	10.2%	21,615	72.4%	5,213	17.5%
소룡동	16,139	1,265	7.9%	11,608	71.9%	3,266	20.2%
미성동	10,639	682	6.4%	7,374	69.3%	2,583	24.3%

자료 : 국가데이터처, 주민등록인구현황, 2025



[그림 3-11] 군산시 읍면동 연령계층별 인구구조(2025.06)

○ 읍·면·동별 유소년 인구(0-14세)

- 군산시 전체 유소년(0~14세) 인구는 2000년 대비 2025년 약 29,612명 감소하여, 연평균 -2.90% 수준의 감소세를 보임
- 유소년 인구는 대부분 읍면동에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며, 특히 농촌지역의 감소폭이 큼
- 반면 일부 동 지역(조촌동, 수송동 등)은 인구유입 및 정주환경 개선에 따라 유소년 인구가 증가하거나 감소폭이 작음
- 유소년 인구 감소폭이 큰 읍면지역 (연평균 -6% 이하)
 - 나포면(-8.44%), 옥도면(-8.41%), 옥서면(-8.85%) 등은 유소년 인구가 25년간 80% 이상 감소하였으며, 지속적인 인구 이탈과 고령화 진행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지역으로 볼 수 있음
 - 임피면(-7.99%), 성산면(-7.82%) 등도 유사한 감소세를 보이며, 정주 및 교육 기반 약화로 젊은 세대 유입이 거의 없는 상태로 해석됨
- 유소년 인구가 증가하거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
 - 수송동(연평균 +4.07%)과 조촌동(+1.09%), 옥산면(+1.15%)은 유일하게 유소년 인구가 순증했으며, 신도시 조성, 주거지 개발, 교육여건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흥남동(0.00%)은 거의 변동 없이 안정적이며, 정주 지속성이 있는 중심지 지역으로 분석됨
- 유소년 인구 감소폭이 큰 동지역
 - 해신동(-8.43%), 나운2동(-7.96%), 개정동(-7.51%), 미성동(-6.63%), 신평동(-6.46%)은 연평균 6% 이상 감소하며, 유소년 인구 감소폭이 동지역 중 가장 크게 나타남
 - 이들 지역은 신시가지 확장 이전의 기존 주거지 또는 중심기능 약화 지역으로, 젊은 세대의 전출 및 학령기 아동 감소가 주요 요인으로 해석됨
 - 삼학동(-6.79%), 경암동(-6.30%)도 유사한 감소세를 보이며, 구도심 기능 약화와 정주 매력 감소가 작용한 것으로 보임

[표 3-46] 군산시 읍·면·동별 유소년인구 변화

단위 : 명, %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06	연평균 증감률
군산시	56,824	50,184	45,470	41,027	34,090	27,212	-2.90
옥구읍	623	378	301	214	137	116	-6.50
옥산면	485	445	294	409	780	646	1.15
회현면	584	454	364	456	392	242	-3.46
임피면	554	454	295	169	107	69	-7.99
서수면	467	312	205	139	123	76	-7.00
대야면	1,249	824	573	370	262	181	-7.44
개정면	780	566	382	248	146	89	-8.32
성산면	658	450	331	233	165	86	-7.82
나포면	462	323	221	127	86	51	-8.44
옥도면	665	518	490	313	170	74	-8.41
옥서면	1,056	822	471	299	184	104	-8.85
해신동	1,075	695	394	275	177	119	-8.43
월명동	885	764	1,145	665	375	241	-5.07
신평동	2,302	1,842	1,296	910	605	433	-6.46
삼학동	1,108	836	836	491	295	191	-6.79
중앙동	963	602	289	228	335	265	-5.03
흥남동	1,101	744	1,315	1,261	1,613	1,100	0.00
조촌동	3,563	2,901	2,025	2,205	3,627	4,670	1.09
경암동	2,200	1,664	993	851	634	432	-6.30
구암동	1,811	1,378	1,112	842	797	1,728	-0.19
개정동	994	748	569	393	272	141	-7.51
수송동	3,061	3,843	8,558	11,156	10,727	8,290	4.07
나운1동	5,435	3,748	2,600	1,929	1,160	961	-6.70
나운2동	15,309	6,422	5,827	4,515	3,108	1,926	-7.96
나운3동	-	10,136	9,083	7,192	4,701	3,034	-5.85
소룡동	3,386	3,862	3,639	3,070	1,972	1,265	-3.86
미성동	3,793	2,794	1,862	2,067	1,140	682	-6.63

자료 : 국가데이터처, 주민등록인구현황, 2025

○ 읍·면·동별 청년인구(15-39세)

- 군산시 전체 청년인구는 2000년 118,820명에서 2025년 62,901명으로 감소, 연평균 -2.51% 감소율을 보임
- 청년인구는 전반적으로 읍면지역에서 더 큰 폭으로 감소, 일부 동지역과 도심 인근 지역에서는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거나 증가 추세도 나타남
- 특히 산업단지 배후지, 주거 신도시 등 일부 동지역은 최근 들어 청년유입이 비교적 활발한 편임
- 청년인구 감소폭이 큰 읍·면 지역
 - 옥서면(-7.41%), 대야면(-7.11%), 나포면(-7.09%)은 청년인구의 연평균 감소율이 -7%대를 기록하며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임
 - 그 외에도 옥구읍(-6.58%), 개정면(-6.42%), 임피면(-6.41%), 서수면(-6.38%), 성산면(-6.29%) 등도 농촌 외곽 지역 중심으로 청년 인구 이탈이 두드러짐
 - 이는 교육·일자리 접근성 부족과 정주여건 미흡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 가능
- 청년인구가 증가하거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
 - 수송동은 연평균 4.12% 증가, 유일하게 뚜렷한 청년인구 증가를 보이는 지역으로 주거단지 및 교육시설 인접지역임
 - 구암동(0.79%)도 소폭 증가, 인근 산업단지와 주거환경 개선 효과로 유입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 조촌동(-0.13%)과 흥남동(-0.66%)은 도심 인근이면서 감소폭이 크지 않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청년인구 구조를 유지
 - 읍면 중에서는 옥산면(-1.87%)이 가장 감소폭이 작음
- 청년인구 감소폭이 큰 동지역
 - 해신동(-9.18%)은 연평균 감소율이 가장 높아, 청년층의 이탈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남
 - 신흥동(-6.13%), 나운2동(-6.01%), 경암동(-5.83%), 개정동(-5.57%) 등도 인구감소가 뚜렷, 대부분 노후 주거지 및 인프라 쇠퇴지역에 해당
 - 중앙동(-4.95%), 삼학동(-4.53%), 미성동(-4.51%) 역시 도심 내 상대적 쇠퇴지역으로, 청년 정주 매력도 감소가 원인으로 예상됨

[표 3-47] 군산시 읍·면·동별 청년인구 변화

단위 : 명, %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06	연평균 증감률
군산시	118,820	99,790	96,264	88,970	74,117	62,901	-2.51
옥구읍	1,835	1,251	997	770	510	335	-6.58
옥산면	1,426	1,014	852	938	1,265	890	-1.87
회현면	1,665	1,225	1,015	811	603	469	-4.94
임피면	1,584	1,127	943	689	446	302	-6.41
서수면	1,381	947	776	573	389	266	-6.38
대야면	3,445	2,326	1,798	1,197	835	545	-7.11
개정면	1,999	1,445	1,170	865	525	381	-6.42
성산면	1,581	1,167	1,018	761	507	312	-6.29
나포면	1,321	935	740	527	324	210	-7.09
옥도면	1,986	1,619	1,450	1,104	686	428	-5.95
옥서면	3,104	2,303	1,619	990	552	453	-7.41
해신동	3,102	1,835	1,188	715	451	279	-9.18
월명동	2,231	2,041	2,976	1,869	1,127	744	-4.30
신평동	5,388	4,055	2,975	2,480	1,716	1,108	-6.13
삼학동	2,816	2,061	2,494	1,790	1,202	883	-4.53
중앙동	3,075	2,065	1,289	808	1,189	864	-4.95
흥남동	3,095	1,929	3,397	3,248	3,678	2,625	-0.66
조촌동	7,771	6,192	4,800	5,084	7,324	7,523	-0.13
경암동	5,655	4,029	3,000	2,543	1,750	1,260	-5.83
구암동	3,525	2,658	2,513	2,006	2,320	4,288	0.79
개정동	1,982	1,436	1,186	917	697	473	-5.57
수송동	5,556	6,461	13,678	18,464	17,962	15,252	4.12
나운1동	9,548	7,126	6,561	5,540	3,492	3,214	-4.26
나운2동	23,795	10,072	10,278	8,732	6,689	5,057	-6.01
나운3동	-	15,659	15,143	13,242	9,931	8,538	-2.40
소룡동	6,127	6,947	7,946	6,952	4,753	3,828	-1.86
미성동	7,518	5,362	4,462	5,355	3,194	2,374	-4.51

자료 : 국가데이터처, 주민등록인구현황, 2025

○ 읍·면·동별 생산연령인구(15-64세)

- 군산시 전체 생산연령인구는 2000년 198,254명에서 2025년 168,481명으로 약 30,000명 감소하였고, 연평균 -0.65%의 감소율을 보이며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나타냄
- 특히 읍·면 지역은 절대 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감소율이 높아, 지역 내 노동력 고갈 및 지역 유지 가능성 저하 우려가 큼
- 동지역은 일부 산업단지 인접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생산가능 인구의 유출이 진행되고 있음
- 생산연령인구 감소폭이 큰 읍·면지역
 - 옥서면(-5.58%), 대야면(-4.45%), 나포면(-3.86%), 개정면(-3.72%), 옥구읍(-3.63%), 서수면(-3.54%), 성산면(-3.33%)은 연평균 3% 이상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한 지역으로, 노동력 기반 붕괴, 지역 소멸 위험 증가, 경제활동 지속성 약화 등의 우려가 큼
 - 특히 옥서면과 대야면은 2000년 대비 2025년 생산연령인구가 70% 이상 급감, 군산시 내에서 가장 심각한 감소 지역에 해당함
 - 이들 지역은 대부분 농촌지역으로 고령화 심화, 청년층 유출, 정주 여건 악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됨
- 생산연령인구가 증가하거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은 읍·면지역
 - 옥산면(0.14%)은 유일하게 생산연령인구가 소폭 증가한 지역으로, 신규 주거지 유입, 접근성 양호, 생활 여건 개선 등의 요인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 생산연령인구 감소폭이 큰 동지역
 - 해신동(-6.87%)은 동지역 중 생산연령인구 감소폭이 가장 큰 지역으로, 2000년 대비 약 83% 급감
 - 그 외에도 신평동(-4.17%), 나운2동(-3.75%), 개정동(-3.50%), 경암동(-3.45%), 중앙동(-3.41%) 등이 연평균 3% 이상 감소하며, 도심 쇠퇴 및 주거 노후화, 청년층의 외부 유출 등 구조적 문제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됨
- 생산연령인구가 증가하거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은 동지역
 - 수송동(6.00%), 구암동(1.79%), 조촌동(1.29%), 흥남동(1.05%), 소룡동(0.82%) 등은 2000년 대비 생산연령인구가 증가한 지역임
 - 이는 산업단지 인접, 정주 기반 확충, 주거환경 개선, 교통 접근성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 나운3동(-0.44%), 미성동(-1.76%)은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으며, 군산시 내 다른 동지역과 비교해 정주 여건이 비교적 안정적인
 - 나운1동은 -2.27%로 비교적 감소폭이 작지만, 나운지구 전반에서 완만한 감소세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정주 매력도와 지역 활성화 전략 재정비가 필요함

[표 3-48] 군산시 읍·면·동 생산연령인구 변화

단위 : 명, %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06	연평균 증감률
군산시	198,254	185,759	193,576	196,054	183,069	168,481	-0.65
옥구읍	3,529	2,845	2,573	2,208	1,800	1,400	-3.63
옥산면	2,564	2,089	2,033	2,275	3,024	2,654	0.14
회현면	3,073	2,616	2,419	2,237	1,955	1,696	-2.35
임피면	2,952	2,439	2,297	1,962	1,524	1,173	-3.62
서수면	2,706	2,168	1,977	1,679	1,383	1,098	-3.54
대야면	6,442	5,027	4,367	3,441	2,771	2,066	-4.45
개정면	3,580	2,981	2,752	2,340	1,794	1,386	-3.72
성산면	2,942	2,517	2,451	2,128	1,705	1,263	-3.33
나포면	2,472	2,012	1,810	1,583	1,208	924	-3.86
옥도면	3,489	3,337	3,359	2,976	2,327	1,716	-2.80
옥서면	5,556	4,473	3,517	2,546	1,697	1,323	-5.58
해신동	5,616	3,827	2,772	1,802	1,359	947	-6.87
월명동	4,103	4,128	6,641	4,864	3,423	2,444	-2.05
신평동	9,476	7,907	6,624	5,767	4,475	3,264	-4.17
삼학동	5,001	4,186	5,729	4,579	3,390	2,597	-2.59
중앙동	5,678	4,363	3,254	2,449	2,892	2,388	-3.41
흥남동	5,493	3,988	7,576	7,477	8,693	7,133	1.05
조촌동	12,708	11,555	10,116	11,266	15,487	17,514	1.29
경암동	9,214	7,546	6,393	5,952	4,785	3,827	-3.45
구암동	5,946	5,251	5,238	4,626	5,526	9,255	1.79
개정동	3,388	2,839	2,581	2,284	1,822	1,389	-3.50
수송동	8,905	11,259	24,692	35,878	39,657	38,194	6.00
나운1동	15,060	13,235	12,994	12,052	9,001	8,472	-2.27
나운2동	35,799	18,458	19,900	19,277	16,650	13,761	-3.75
나운3동	-	24,141	26,288	26,777	23,691	21,615	-0.44
소룡동	9,475	11,739	14,055	14,409	12,354	11,608	0.82
미성동	11,494	9,482	9,168	11,220	8,676	7,374	-1.76

자료 : 국가데이터처, 주민등록인구현황, 2025

○ 읍·면·동별 고령인구(65세 이상)

- 군산시 전체 고령인구는 2000년 22,413명에서 2025년 60,921명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4.08%의 증가율을 기록
- 읍·면·동 전 지역에서 고령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도심지역과 농촌지역 모두에서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양상
-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는 지역과 고령인구가 동시에 증가하는 지역이 겹치면서, 심각한 인구구조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 고령인구 증가폭이 큰 읍·면지역
 - 옥도면(3.10%), 옥산면(2.30%), 성산면(2.20%), 나포면(2.11%)은 연평균 2% 이상 고령인구가 증가한 지역으로, 농촌지역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맞물려 지역 내 고령자 비중이 급격히 상승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음
 - 일부 지역은 전체 인구 중 고령인구가 절반에 근접하거나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 돌봄서비스 및 복지 인프라 확대가 시급함
- 고령인구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작은 읍·면지역
 - 서수면(1.27%), 회현면(1.14%), 임피면(1.62%), 대야면(1.81%), 옥서면(1.85%)은 고령인구 증가율이 1~1.8%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완만한 편임
 - 다만 전반적인 인구감소 및 청년층 유출로 인해 고령인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크며, 장기적으로 복지 수요가 누적될 수 있음
- 고령인구 증가폭이 큰 동지역
 - 수송동(9.16%), 흥남동(7.00%), 소룡동(6.50%), 삼학동(6.05%), 조촌동(5.97%), 구암동(5.59%), 월명동(5.06%), 경암동(4.93%)은 고령인구가 증가한 지역으로,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도심과 산업단지 배후 주거지, 구도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고령층 비중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으며, 지역 내 복지·의료 인프라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큼
- 고령인구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작은 동지역
 - 해신동(0.80%)은 고령인구 연평균 증가율이 동지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나, 생산연령인구는 -6.87%로 동 전체에서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함
 - 고령인구 규모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청장년층 유출이 급격히 진행되며, 남은 고령자들이 지역 내에서 고립된

소수로 잔존할 가능성이 높음

- 이는 지역 내 복지 인프라 접근성 저하, 효율적인 돌봄 전달체계의 부재로 이어질 수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함

[표 3-49] 군산시 읍·면·동 고령인구 변화

단위 : 명, %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06	연평균 증감률
군산시	22,413	27,177	33,555	41,317	50,700	60,921	4.08
옥구읍	836	922	1,033	1,119	1,247	1,339	1.90
옥산면	586	665	737	773	916	1,035	2.30
회현면	863	933	980	1,044	1,107	1,147	1.14
임피면	753	822	884	991	1,046	1,124	1.62
서수면	818	1,002	1,020	1,049	1,083	1,122	1.27
대야면	1,399	1,485	1,647	1,833	2,010	2,191	1.81
개정면	774	803	870	975	1,081	1,233	1.88
성산면	663	723	809	926	1,033	1,142	2.20
나포면	606	667	773	820	930	1,021	2.11
옥도면	481	540	660	792	897	1,033	3.10
옥서면	731	943	1,050	1,155	1,158	1,155	1.85
해신동	729	733	767	748	870	890	0.80
월명동	545	629	1,444	1,581	1,749	1,872	5.06
신평동	858	1,085	1,316	1,711	2,106	2,243	3.92
삼학동	521	711	1,534	1,831	2,020	2,265	6.05
중앙동	711	740	884	1,044	1,239	1,364	2.64
흥남동	558	600	1,611	2,026	2,499	3,028	7.00
조촌동	952	1,208	1,577	2,197	3,124	4,059	5.97
경암동	732	910	1,197	1,653	2,092	2,437	4.93
구암동	573	648	854	1,020	1,430	2,230	5.59
개정동	423	510	594	687	784	886	3.00
수송동	739	1,136	2,241	3,555	4,969	6,614	9.16
나운1동	1,009	1,213	1,528	1,996	2,538	3,334	4.90
나운2동	2,347	1,973	2,494	3,102	4,080	5,095	3.15
나운3동	-	1,774	2,248	3,021	3,953	5,213	4.41
소룡동	676	1,005	1,369	1,802	2,429	3,266	6.50
미성동	1,060	1,163	1,434	1,866	2,310	2,583	3.63

자료 : 국가데이터처, 주민등록인구현황, 2025

○ 읍·면·동별 외국인 주민현황

- 군산시 전체 외국인 주민수는 연평균 6.1% 증가하여, 시 전역에 걸쳐 외국인 인구가 꾸준히 증가했음을 보여줌
- 읍면지역 외국인 주민수 변화
 - 읍면지역 전반에서도 외국인 주민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특히 농업·제조업 중심의 지역에서 증가율이 높았음
 - 임피면(14.2%), 대야면(2.8%), 서수면(2.6%) 등은 연평균 증가율을 기록하며 외국인 유입이 활발했음을 시사함
 - 개정면(-5.7%), 옥서면(-4.6%), 옥구읍(-4.6%) 등 일부 지역은 감소세를 보이며 지역 여건상 외국인 정주 여건이 미흡하거나 산업 기반이 약한 것으로 추정됨
- 동지역 외국인 주민수 변화
 - 전체적으로 다수의 동 지역에서 외국인 주민수가 증가함. 특히 산업단지 배후지역 및 대규모 주거지 인접 동에서 증가율이 두드러짐
 - 소룡동(11.2%)에서 연평균 1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외국인 유입이 활발했으며, 수송동(9.1%), 흥남동(8.8%), 나운3동(8.1%) 등도 비교적 꾸준한 증가세를 보임
 - 반면, 삼학동(-5.2%), 월명동(-3.2%)은 소폭 감소한 상태로 나타나, 외국인 인구 유입이 제한적이었음

[표 3-50] 군산시 읍·면·동별 외국인 주민수 변화

단위 : 명,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감률
군산시	10,539	10,436	10,427	11,378	13,374	6.1
옥구읍	111	98	91	86	92	-4.6
옥산면	82	81	79	80	83	0.3
회현면	102	98	88	84	94	-2.1
임피면	199	181	152	274	339	14.2
서수면	195	192	179	186	216	2.6
대야면	119	122	121	123	133	2.8
개정면	75	66	63	64	59	-5.7
성산면	148	129	118	139	131	-3.1
나포면	67	58	59	57	65	-0.8
옥도면	974	811	735	926	1,042	1.7
옥서면	77	68	60	63	64	-4.6
해신동	155	136	135	146	149	-1.0
월명동	178	153	162	153	156	-3.2
신평동	113	101	102	118	113	0.0
삼학동	108	94	87	85	87	-5.2
중앙동	144	178	186	175	175	4.9
흥남동	226	287	298	308	317	8.8
조촌동	555	559	540	599	670	4.8
경암동	548	562	602	674	682	5.6
구암동	120	154	157	145	158	7.1
개정동	33	38	38	43	41	5.6
수송동	876	936	1,010	1,069	1,241	9.1
나운1동	263	217	227	267	317	4.8
나운2동	408	393	395	389	429	1.3
나운3동	1,467	1,472	1,569	1,685	2,001	8.1
소룡동	2,435	2,500	2,478	2,709	3,729	11.2
미성동	761	752	696	731	791	1.0

자료 : 국가데이터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 2025

☑ **군산시 읍·면·동별 지방소멸지수(2025.06 기준)**

○ 지방소멸위험지수¹⁶⁾

- 지역 내 출산 가능 세대(20~39세 여성) 대비 고령 인구(65세 이상)의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인구구조의 지속가능성과 미래 출산 기반의 유지를 함께 반영하는 지표
- 지방소멸위험지수 = 20~39세 여성 인구 수 ÷ 65세 이상 인구 수

[표 3-51] 지방소멸위험지수와 소멸위험 단계

명칭		지방소멸 위험지수
소멸위험 매우 낮음		1.5 이상
소멸위험 보통		1.0~1.5 미만
주의단계		0.5~1.0 미만
소멸위험지역	소멸위험진입단계	0.2~0.5 미만
	소멸고위험지역	0.2 미만

- 군산시 전체 지방소멸지수는 0.38로 ‘소멸위험진입단계’에 해당하며, 장기적으로 인구 유지가 어려운 구조임을 보여줌
- 소멸고위험지역(0.2 미만)
 - 소멸고위험지역(지방소멸지수 0.2 미만)에 속하는 읍면동은 총 16곳으로, 군산시 전체 행정구역 중 절반 이상이 해당됨
 - 나포면(0.07), 서수면(0.08), 임피면(0.08), 옥구읍(0.08), 대야면(0.09), 성산면(0.10), 개정면(0.10), 회현면(0.12) 등 농촌 외곽지역 대부분이 포함되며, 이들 지역은 고령인구가 절대적으로 많고 출산 가능 여성 인구는 급감하여 인구 재생산이 어려운 구조임
 - 옥서면(0.13), 옥도면(0.13)은 해안·도시지역으로 지리적 접근성 한계와 청년층 유출이 겹치며 소멸위험이 심화되고 있음
 - 해신동(0.13), 월명동(0.14), 삼학동(0.15), 신평동(0.18), 개정동(0.18), 경암동(0.19) 등 도심 내 구시가지 일부도 소멸고위험군에 포함됨
 - * 이는 단지 농촌만이 아니라 도시 내부의 쇠퇴지역에서도 구조적 인구위기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줌
 - 해당 지역들은 고령화율이 극단적으로 높고, 청년 여성의 비중이 매우 낮아, 정주환경 개선이나 출산장려 정책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상태임

16) 일본 총무성 장관을 역임한 마스다 히로야가 2014년 일본 창성회의(日本創成會議)의 보고서를 통해 제안한 개념으로, 이 지수는 특정 지역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인구 재생산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됨

- 중장기적으로 생활권 통합, 행정조직 조정, 공간 재구조화 등의 근본적 대책이 필요함
- 소멸위험진입단계 지역 (지방소멸지수 0.2 이상 ~ 0.5 미만)
 - 군산시 전체 읍면동 중 7개 지역이 소멸위험진입단계(0.2~0.5 미만)에 해당하며, 출산 가능 여성 인구가 고령인구에 비해 부족해 장기적으로 인구감소 위험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
 - 옥산면(0.31)은 농촌지역으로 청년 여성 인구 유출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며 인구 재생산 기반이 약화되고 있음
 - 중앙동(0.27), 흥남동(0.32)은 도심 내 구도심 지역으로 고령화 비중이 높고 젊은 층의 정착률이 낮아 인구구조의 불균형이 지속되는 상황임
 - 나운1동(0.36), 나운2동(0.35)은 군산 신시가지 주거지역으로 소멸위험진입단계에 해당해 상대적으로 청년 여성 인구의 비중이 부족함을 시사함
 - 미성동(0.31), 소룡동(0.37)은 생활 중심지 및 산업단지 배후지역으로 기능하고 있으나, 고령화와 출산 기반 약화가 동반되며 중장기적 인구 유지에 불안요인이 있음
 - 이들 지역은 아직 소멸고위험지역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인구구조의 경계선에 위치한 전환기적 지역임
 - 청년층 유입 확대, 출산 가능 인구의 정착 지원, 생활 인프라 개선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
- 주의단계 지역(지방소멸지수 0.5 이상 ~ 1.0 미만)
 - 군산시 읍면동 중 4개 지역(조촌동, 구암동, 수송동, 나운3동)은 지방소멸지수가 0.5 이상 1.0 미만으로 주의단계에 해당함
 - 이들 지역은 청년 여성 인구가 일정 수준 존재하지만, 고령화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어 인구 재생산이 장기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평가됨.
 - 조촌동(0.74)과 수송동(0.82)은 비교적 주거환경이 양호하여 청년층 유입이 일정 부분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방소멸지수는 여전히 1.0에 미치지 못해 장기적 인구 재생산 구조는 불안정한 상태임
 - 구암동(0.82) 역시 교육 및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이지만, 고령층 비중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나운3동(0.57)은 신도심에 해당하지만, 청년 여성 인구 대비 고령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주의단계로 진입한 상태임
 - 이들 지역은 즉각적인 소멸위험은 아니지만, 인구구조의 균형을 유지하려면 출산 기반 강화, 청년 정주 지원정책 등이 필요한 상태로 볼 수 있음

[표 3-52] 군산시 읍·면·동별 지방소멸지수

단위 : 명

구분	전체인구	20-39세(여)	65세 이상	지방소멸지수
군산시	256,614	22,871	60,921	0.38
옥구읍	2,855	104	1,339	0.08
옥산면	4,335	322	1,035	0.31
회현면	3,085	135	1,147	0.12
임피면	2,366	94	1,124	0.08
서수면	2,296	89	1,122	0.08
대야면	4,438	190	2,191	0.09
개정면	2,708	129	1,233	0.10
성산면	2,491	109	1,142	0.10
나포면	1,996	69	1,021	0.07
옥도면	2,823	134	1,033	0.13
옥서면	2,582	153	1,155	0.13
해신동	1,956	117	890	0.13
월명동	4,557	261	1,872	0.14
신평동	5,940	395	2,243	0.18
삼학동	5,053	342	2,265	0.15
중앙동	4,017	370	1,364	0.27
흥남동	11,261	963	3,028	0.32
조촌동	26,243	3,015	4,059	0.74
경암동	6,696	462	2,437	0.19
구암동	13,213	1,830	2,230	0.82
개정동	2,416	159	886	0.18
수송동	53,098	5,454	6,614	0.82
나운1동	12,767	1,210	3,334	0.36
나운2동	20,782	1,776	5,095	0.35
나운3동	29,862	2,976	5,213	0.57
소룡동	16,139	1,213	3,266	0.37
미성동	10,639	800	2,583	0.31

자료 : 국가데이터처, 주민등록인구현황, 2025

5) 장래인구추계

■ 2040년 군산도시기본계획 장래인구추계¹⁷⁾

☑ 전북특별자치도 장래인구추계 시군편 : 2015~2035(2018. 1.)

- 2015년 대비 2035년 전주 등 6개 시의 총인구는 감소하고, 부안군을 제외한 7개 군의 총인구는 증가할 전망
- 6개 시 중 익산시의 인구감소가 크며, 8개 군 중 완주군, 진안군, 순창군, 임실군의 인구증가가 클 것으로 나타남
- 군산시 총인구는 2015년 275,029명(15.0%)에서 2035년 267,583명(14.9%)으로 7,446명 감소할 것으로 나타남

[표 3-53] 전북특별자치도 시군별 총인구 추계(2015~2035)

단위 : 명

지역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15년 대비 '35년	
	인구 (명)	구성비 (%)	인구 (명)	구성비 (%)	인구 (명)	구성비 (%)	인구 (명)	구성비 (%)	인구 (명)	구성비 (%)	증감 (명)	증가율 (%)
전 북	1,835,125	100.0	1,823,507	100.0	1,815,361	100.0	1,809,662	100.0	1,800,104	100.0	-35,021	-2.0
전주시	658,586	35.9	652,478	35.8	644,242	35.5	635,707	35.1	625,061	34.7	-33,525	-5.4
군산시	275,029	15.0	272,048	14.9	270,778	14.9	269,892	14.9	267,583	14.9	-7,446	-2.8
익산시	302,416	16.5	296,520	16.3	290,439	16.0	286,535	15.8	282,993	15.7	-19,423	-6.9
정읍시	110,847	6.0	107,684	5.9	106,005	5.8	105,118	5.8	104,745	5.8	-6,102	-5.8
남원시	80,700	4.4	79,189	4.3	78,786	4.3	78,684	4.3	78,903	4.4	-1,797	-2.3
김제시	84,625	4.6	82,252	4.5	81,710	4.5	81,788	4.5	82,101	4.6	-2,524	-3.1
완주군	93,425	5.1	100,576	5.5	104,468	5.8	107,648	5.9	109,537	6.1	16,112	14.7
진안군	23,019	1.3	23,753	1.3	24,884	1.4	25,836	1.4	26,632	1.5	3,613	13.6
무주군	23,396	1.3	23,789	1.3	24,573	1.4	25,246	1.4	25,856	1.4	2,460	9.5
장수군	21,654	1.2	22,214	1.2	23,002	1.3	23,729	1.3	24,303	1.4	2,649	10.9
임실군	26,169	1.4	27,155	1.5	28,273	1.6	29,099	1.6	29,849	1.7	3,680	12.3
순창군	26,750	1.5	27,826	1.5	29,058	1.6	30,046	1.7	30,903	1.7	4,153	13.4
고창군	56,041	3.1	56,243	3.1	57,366	3.2	58,348	3.2	59,307	3.3	3,266	5.5
부안군	52,468	2.9	51,780	2.8	51,777	2.9	51,986	2.9	52,331	2.9	-137	-0.3

자료 :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장래인구추계 시군편(2015-2035), 2018

17) 군산시, 2040년 군산도시기본계획, 2024

☑ **모형에 의한 인구추정**

○ 모형식에 의한 추정

- 등차급수법, 등비급수법, 최소자승법(회귀분석), 콤페르츠법, 로지스틱함수법, 수정지수함수법 등 6가지 방법에 의한 인구추정
- 목표연도 2040년의 인구추정 결과 로지스틱함수법에서 가장 높은 약 299천명이 추정되었고, 등차급수법에서 가장 낮은 약 292천명으로 추정됨
- 6가지 인구추정 모형 전체 평균값은 약 296천명으로 나타남

○ 모형식에 의한 추정 결과

- 추정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장 신뢰도가 높은 상위 3개의 모형식에 의한 추계치를 산술평균으로 산정
- 신뢰도 평가를 위해 평균오차백분율법(MAPE : Mean of Absolute Percentage Error)과 상대분산계수법(CRV : Coefficient Relative Variation) 중 관찰된 자료와 각 추정식의 결과와의 차이를 가지고 평가하는 평균오차백분율법(MAPE)을 적용
- 일반적으로 $MAPE \leq 10$ 이면 모형 적합성이 높아 사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6가지 모형 모두 적합성이 높으나 MAPE 값이 낮은 회귀분석, 콤페르츠모형, 로스틱함수모형을 선정
- 선정된 3개 모형의 목표연도 2040년 인구추정치의 산술평균값은 약 298천명으로 산정됨

[표 3-54] 모형식에 의한 인구추정 결과

단위 : 명

년도	등차급수 모형	등비급수 모형	최소자승 (회귀분석)	콤페르츠 모형	로지스틱 모형	수정지수 모형
2020	274,293	274,485	280,441	280,447	280,416	274,766
2025	278,647	279,044	284,822	284,863	284,876	280,156
2030	283,000	283,679	289,203	289,293	289,379	285,506
2035	287,354	288,390	293,584	293,736	293,924	290,817
2040	294,707	293,180	297,965	298,192	298,511	296,088
MAPE	2.28	2.26	1.25	1.25	1.26	2.68
평균	-	-	298,223			-

자료 : 군산시, 2040년 군산도시기본계획, 2024

☑ 인가지표 설정

- 현재 군산시 도시유형은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성숙·안정형 유형으로 구분되나, 기준연도 이후 인구 외 고용률, 사업체수, 종사자수는 증가 추세임
- 성숙·안정형 유형의 경우 목표연도 인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라북도 종합계획상 인가지표와 통계청 인구추계치의 105% 이하로 하여야 함
- 군산시 계획인구는 인구변화 추이 및 개발사업 등을 감안하여 생산모형에 의한 자연적 증가인구와 개발사업에 의한 사회적 증가인구로 추정함
- 저성장, 인구감소, 지역산업 쇠퇴 등 대·내외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사회적 증가인구는 기 추진 중인 3개 개발사업의 유발인구만을 포함하여 산정
- 자연적 증가 인구는 생산법으로 산정된 인구에 전출인구를 반영하여 약 25.4만 명이며, 사회적 증가인구 약 1만명으로 추정되어, 입주 및 조성시기를 고려한 단계별 인구계획을 설정하고 목표연도 계획인구는 통계청 인구추계치의 105%인 26.4만 명으로 계획
 - 신역세권, 디오션시티 : 입주시기를 고려하여 1단계 인구 배분
 -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 조성시기를 고려하여 2~4단계 인구 차등 배분

[표 3-55] 인가지표

단위 : 명

구분	2018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계획인구	278,345	268,600	268,400	268,000	264,400
인구추정	278,345	268,644	268,471	268,066	264,489
자연적 증가인구	278,345	279,166	277,542	274,951	269,954
전출비율(약 5.7%) 반영	-	-15,881	-15,789	-15,642	-15,357
사회적 증가인구(누적)	-	5,359	6,718	8,757	9,892
도시개발(주택)	-	5,359	5,359	5,359	5,359
신역세권 택지개발	-	3,635	3,635	3,635	3,635
디오션시티 A3-A6	-	1,724	1,724	1,724	1,724
산업단지	-	-	1,359	3,398	4,533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	-	1,359	3,398	4,533

자료 : 군산시, 2040년 군산도시기본계획, 2024

☑ **군산시 장래 총인구 전망(현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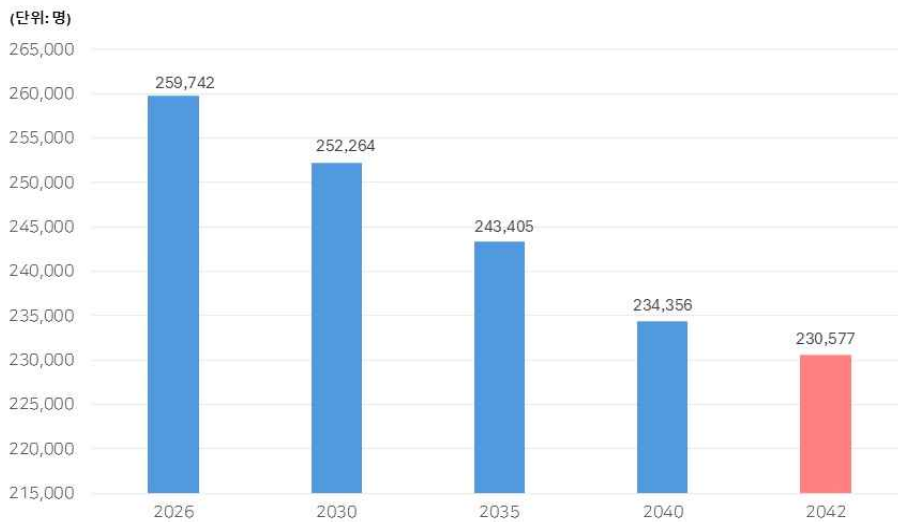
- 총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6년 259,742명에서 2042년 230,577명으로 줄어들어 연평균 -0.74% 수준의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됨
- 인구성장률은 전 기간 동안 -1% 수준의 감소세를 지속하며, 2042년에도 여전히 -1%로 인구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총부양비는 2026년 52%에서 2042년 90%까지 급상승하며,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유소년 및 고령인구가 9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유소년부양비는 점차 하락하여 2026년 15%에서 2042년 14% 수준까지 줄어들며, 저출산·저출생 구조가 심화될 가능성이 큼
- 반면, 노년부양비는 급속히 증가하여 2026년 37%에서 2042년 77%까지 두 배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연평균 증가율도 4.69%로 매우 높게 나타남
- 이러한 추세는 군산시의 고령사회 진입 가속화와 청장년층 인구감소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함

[표 3-56] 군산시 장래 총인구 전망

단위 : 명, %

구분	2026	2030	2035	2040	2042	연평균 증감률
총인구	259,742	252,264	243,405	234,356	230,577	-0.74%
인구성장률	-1%	-1%	-1%	-1%	-1%	0.00%
총부양비	52%	56%	68%	85%	90%	3.49%
유소년부양비	15%	12%	11%	13%	14%	-0.43%
노년부양비	37%	44%	56%	72%	77%	4.69%

자료 :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장래인구추계, 2025



[그림 3-12] 군산시 총인구수 전망

☑ 군산시 인구구조 전망

○ 연령계층별 전망

○ 군산시 전체 인구는 2026년 259,742명에서 2042년 230,577명으로 약 11.2%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 모든 연령계층에서 구조적 변화가 예상됨

○ 유소년 인구(0~14세)는 지속적으로 감소

- 2026년 25,106명(9.66%)에서 2042년에는 16,296명(7.07%)으로 줄어들며, 비중 역시 2.61%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저출산에 따른 유소년층 축소 현상을 반영함

○ 생산연령인구(15~64세) 비중은 2026년 66.02%에서 2042년 52.51%로 급감

- 총인구의 과반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 이는 군산시의 경제활동가능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을 의미함

○ 반면, 고령인구(65세 이상)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026년 63,164명(24.32%)에서 2042년 93,195명(40.42%)으로 증가비중이 16.1%p 상승하면서 군산시는 초고령사회(고령인구 비중 20% 이상)를 넘어선 초고령사회 심화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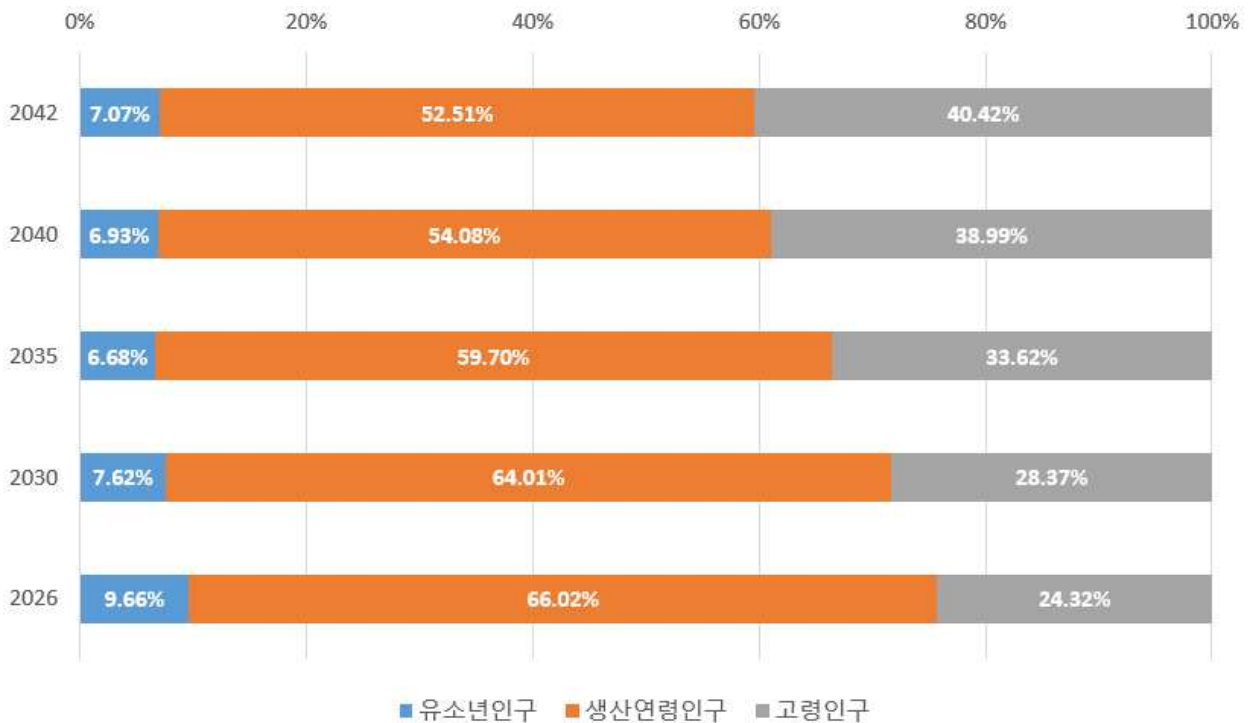
○ 이러한 변화는 군산시가 저출산과 고령화가 동시에 심화되는 구조적 인구위축 국면에 놓여 있으며, 복지, 돌봄, 노동력 대체, 정주여건 개선 등 종합적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함

[표 3-57] 군산시 연령계층별 인구구조 전망

단위 : 명, %

연도	합계	0-14세		15-64세		65세 이상	
		인구수	비중	인구수	비중	인구수	비중
2026	259,742	25,106	9.66%	171,472	66.02%	63,164	24.32%
2030	252,264	19,225	7.62%	161,479	64.01%	71,560	28.37%
2035	243,405	16,272	6.68%	145,301	59.70%	81,832	33.62%
2040	234,356	16,241	6.93%	126,741	54.08%	91,374	38.99%
2042	230,577	16,296	7.07%	121,086	52.51%	93,195	40.42%

자료 :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장래인구추계, 2025



[그림 3-13] 군산시 연령계층별 비중 전망

○ 중위연령 및 노령화지수¹⁸⁾ 전망

- 2026년 군산시의 노령화지수는 252, 중위연령은 50세로 나타나며, 본격적인 고령사회 진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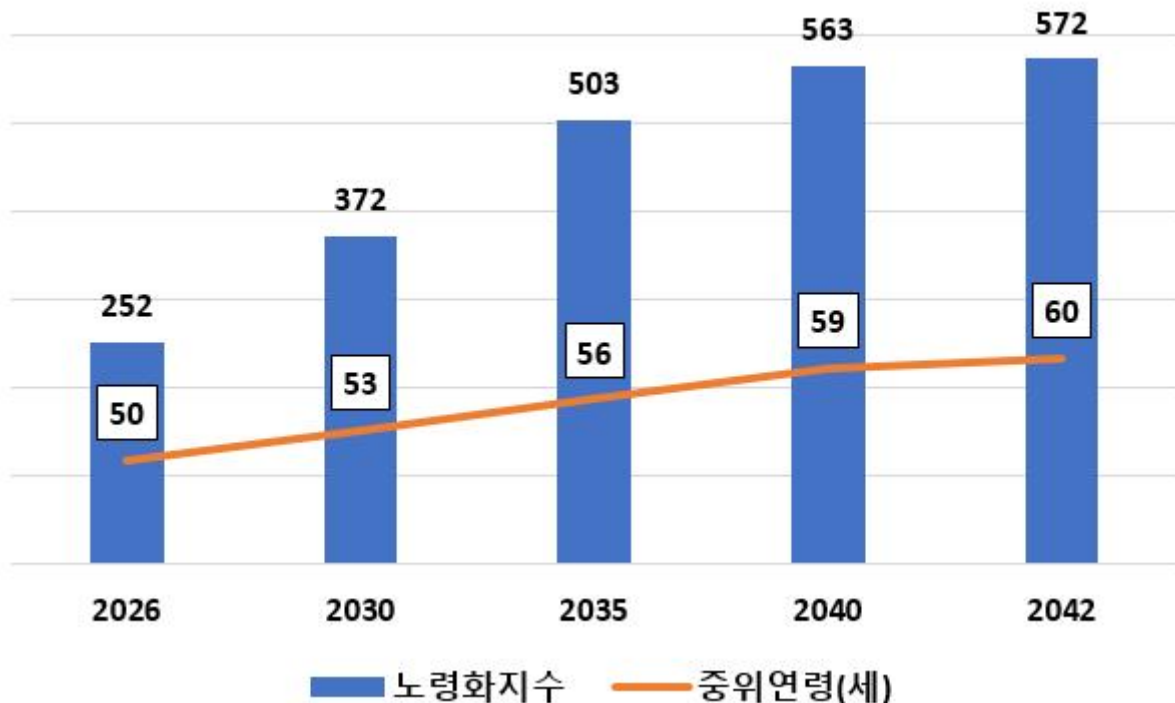
18) 노령화지수는 한 사회의 고령화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유소년 인구(0~14세)에 대한 고령 인구(65세 이상)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임. 100 미만은 유소년 인구가 고령 인구보다 많음(상대적으로 젊은 사회), 100 이상은 고령인구가 유소년 인구보다 많음(고령화 사회), 200 이상은 초고령화 사회로 진행 중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함.

- 이후 노령화지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30년 372, 2035년 503, 2040년 563, 2042년 572에 이를 것으로 예측됨
- 이는 2042년에는 유소년 100명당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572명에 달한다는 의미로, 고령 인구가 유소년 인구의 약 5.7배에 달하는 초고령사회임을 시사함
- 같은 기간 중위연령도 상승 추세를 보여, 2026년 50세 → 2042년 60세로 16년간 10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이는 전체 인구의 중심 연령대가 고령층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지역 사회의 노동시장·복지수요·지역 활력 전반에 구조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노령화지수와 중위연령 모두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군산시는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의료·돌봄 인프라 확대와 청년층 유입·정착 유도 정책이 동시에 요구되는 시점에 있음

[표 3-58] 군산시 중위연령 및 노령화지수 전망

단위 : 세, 지수

구분	2026	2030	2035	2040	2042
중위연령(세)	50	53	56	59	60
노령화지수	252	372	503	563	5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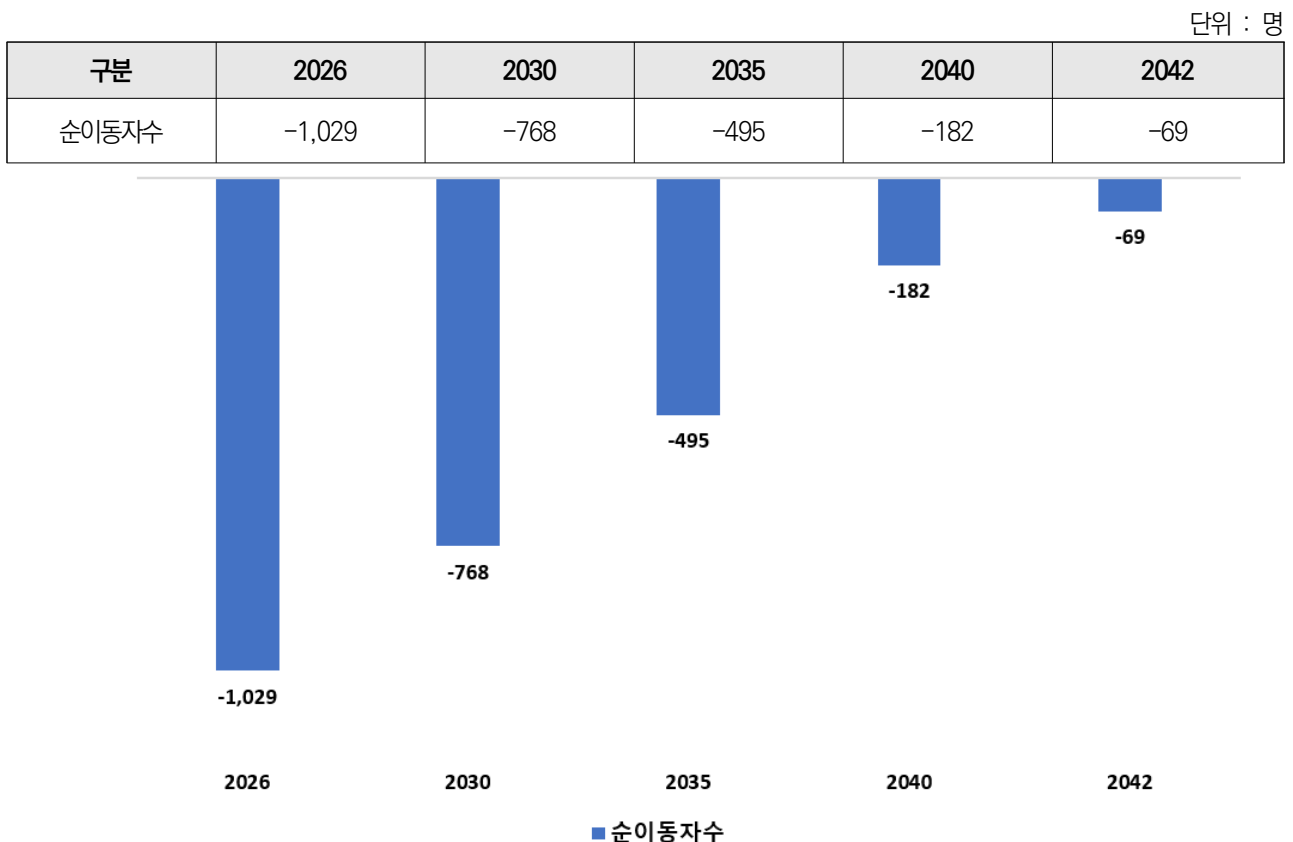
자료 :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장래인구추계, 2025

☑ 인구가동 전망

○ 군산시 순이동자수 전망

- 2026년 군산시의 순이동자수는 -1,029명으로, 전출이 전입보다 크게 많은 인구 순유출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됨
- 이후에도 2030년 -768명, 2035년 -495명 등 순유출 규모는 점차 감소하지만, 2040년까지는 여전히 순유출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2042년에는 순이동자수가 -69명으로 감소하며 순유출 규모가 크게 축소되고 있으며, 전출·전입 규모 간의 격차가 거의 없는 상태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장기적 관점에서 군산시는 순유출 규모는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이나, 단기간 내 순유입 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청년층 유출 방지 및 외부 인구 유입 유도를 위한 전략적 정책 개입이 요구됨

[표 3-59] 군산시 순이동자수 전망



자료 :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장래인구추계, 2025

☑ 시사점

○ 총인구 감소의 지속과 구조적 인구위축 심화

- 군산시 총인구는 2026년 약 26만 명에서 2042년 약 23만 명으로, 약 3만 명(11.2%) 감소할 전망이다
- 연평균 -0.74%의 감소율을 기록하며, 인구성장률은 전 기간 동안 -1% 수준에 머무름
- 이는 장기적 인구감소가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추세로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함

○ 생산가능인구 급감과 고령화 심화

-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26년 66.0%에서 2042년 52.5%로 비중이 급감하며, 경제활동 기반 약화 우려
- 반면 고령인구(65세 이상)는 24.3%에서 40.4%로 증가, 군산시는 초고령사회 심화 단계에 진입할 전망
- 노년부양비는 77%까지 상승하며, 부양 부담이 급격히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유소년 인구 비중 감소 및 인구재생산 기반 약화

- 유소년 인구 비중은 2026년 9.66%에서 2042년 7.07%로 감소하며, 저출산에 따른 기초 인구 기반 약화가 심화
- 유소년부양비도 지속적으로 하락, 노령화지수는 2042년에 572에 달할 전망으로 고령 인구가 유소년의 약 5.7배에 이룸
- 출산율 회복 및 청년층 정착 유도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

○ 중위연령 및 인구피라미드 변화가 시사하는 구조적 고령화

- 중위연령은 2026년 50세에서 2042년 60세로 상승, 사회의 중심 연령이 고령층으로 이동 중임
- 인구피라미드는 종형에서 역삼각형 구조로 변화하며, 80세 이상 고령층 비중 급증
- 이는 장기적으로 노동력 재생산, 지역 활력, 사회 안전망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인구이동 측면에서 순유출 구조 지속

- 2026년 순이동자수는 -1,029명으로 전출이 전입보다 많은 상태가 지속되며, 이후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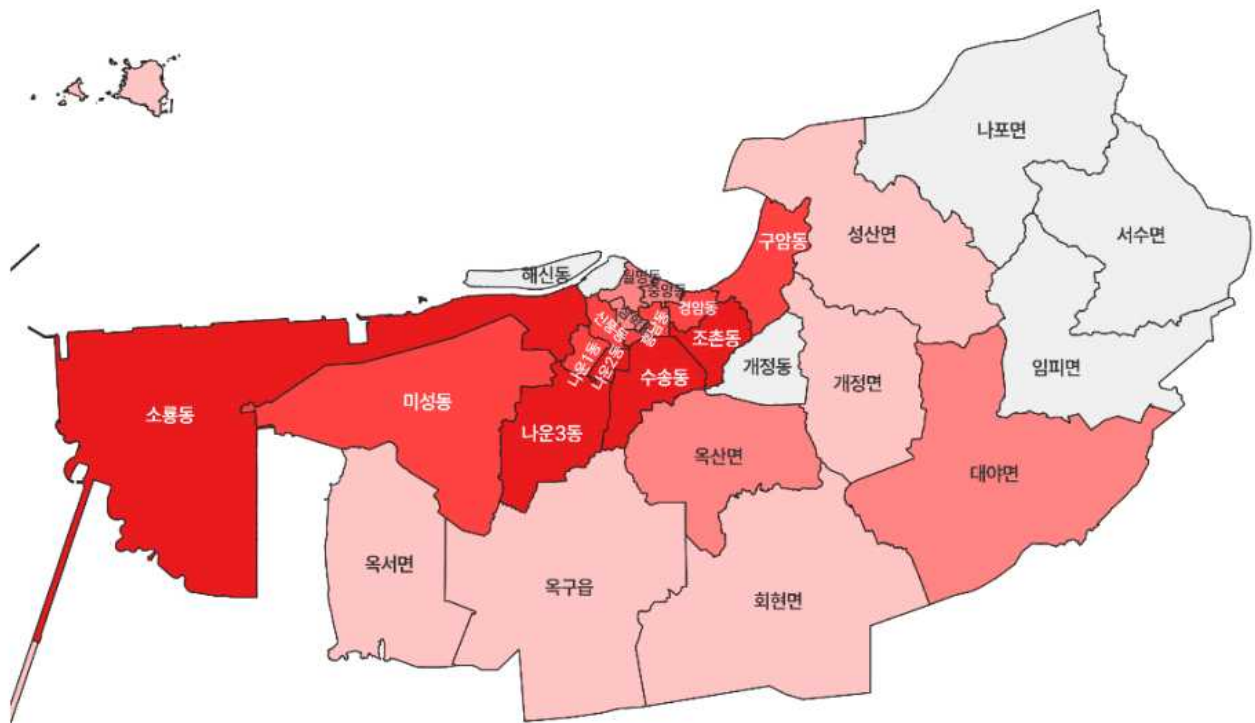
2042년에는 -69명으로 줄어듦

- 단기적으로는 인구 순유입 전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 정주 여건 개선과 인구 유입 유도 전략이 요구됨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 지역 특성과 인구구조

- 군산시는 전라북도 북서부 해안에 위치한 도농복합도시로, 도심·산업·농촌 권역 간 공간적 기능이 구분됨
- 행정구역은 1읍 10면 16동이며, 중심 시가지는 행정·상업·교육 기능이 밀집된 나운·수송·조촌동 중심으로 형성됨
- 산업지역은 소룡·미성동, 농촌지역은 옥산·회현·임피·개정면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생활권 간 정주 여건 격차가 존재함
- 2013년 27만 8천 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인구는 지속 감소하여, 2025년에는 약 25만 6천 명 수준까지 줄었으며 감소세는 구조화되고 있음



[그림 3-14] 읍면동별 인구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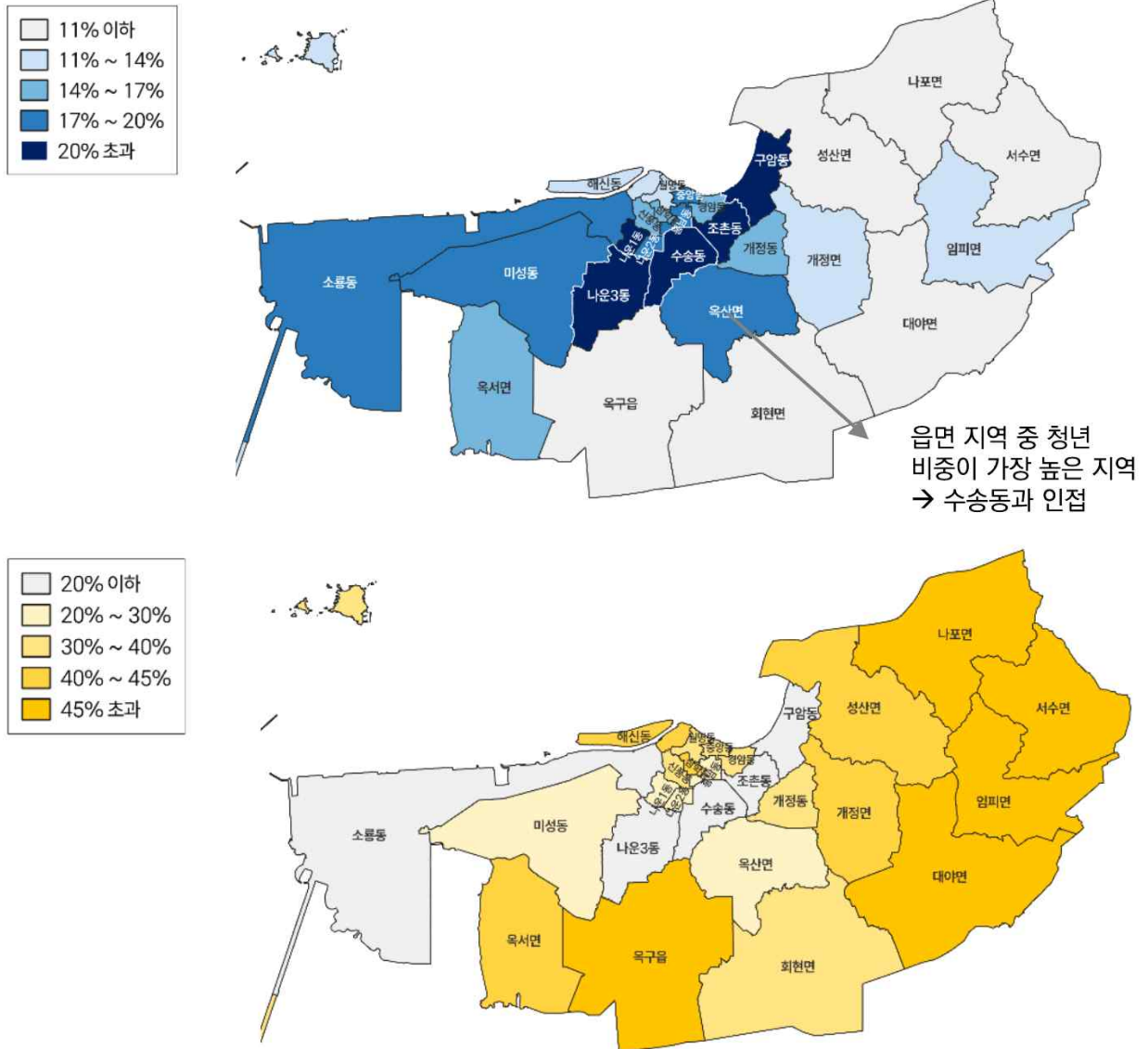
- 고령인구 비율은 2025년 기준 23%로 초고령사회에 해당하며, 고령화는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청년층의 지역 이탈과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해 자연감소와 사회적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 활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음

○ 인구감소 요인

- 2024년 기준 출생아 수는 1,000명, 사망자 수는 2,372명으로 자연감소 폭은 1,372명에 달함
- 청년층을 중심으로 전출이 지속되고 있으며, 같은 해 순유출 규모는 969명으로 나타나 사회적 감소도 구조화됨
- 출산·보육·교육·주거·일자리 등 복합 요인으로 인해 청년층의 지역 정착이 어려워지며, 이는 출생률 저하로도 이어지고 있음
- 고령화 심화로 인해 노년부양 부담이 증가하고,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지역 활력과 지속가능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

○ 장래 인구구조 변화 전망

- 군산시의 향후 인구는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중장기적으로는 20만 명대 초반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제기됨
- 유소년 인구는 빠르게 감소하는 반면, 고령인구는 지속 증가해 노령화지수 및 노년부양비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됨
- 생산연령인구(15~64세)의 절대 규모와 비중 모두 감소하면서 지역의 경제활동 기반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음
- 인구피라미드는 역삼각형 구조로 전환되며, 출산율 반등 없는 한 정주인구 기반의 급격한 축소가 불가피함
- 청년층 인구를 유지하고 유입할 수 있는 정책 개입이 없다면, 군산시는 급속한 고령화와 지역소멸위험에 직면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장기적 인구정책 비전 수립이 요구됨



[그림 3-15] 청년비중(%) / 노인비중(%) 인구 규모

○ 산업 기반과 고용 구조

- 군산시는 국가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 새만금산업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제조업, 물류, 기계·금속 산업이 지역 경제의 중심을 이루고 있음
- GRDP는 2022년 기준 약 10조 8천억 원으로 전북 전체의 약 18.32%를 차지하며 지역 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2025년 상반기 기준 고용률은 59.7%, 실업률은 1.8%로 고용환경은 안정되고 있는 추세이나, 고용의 연령별 편차가 크다는 한계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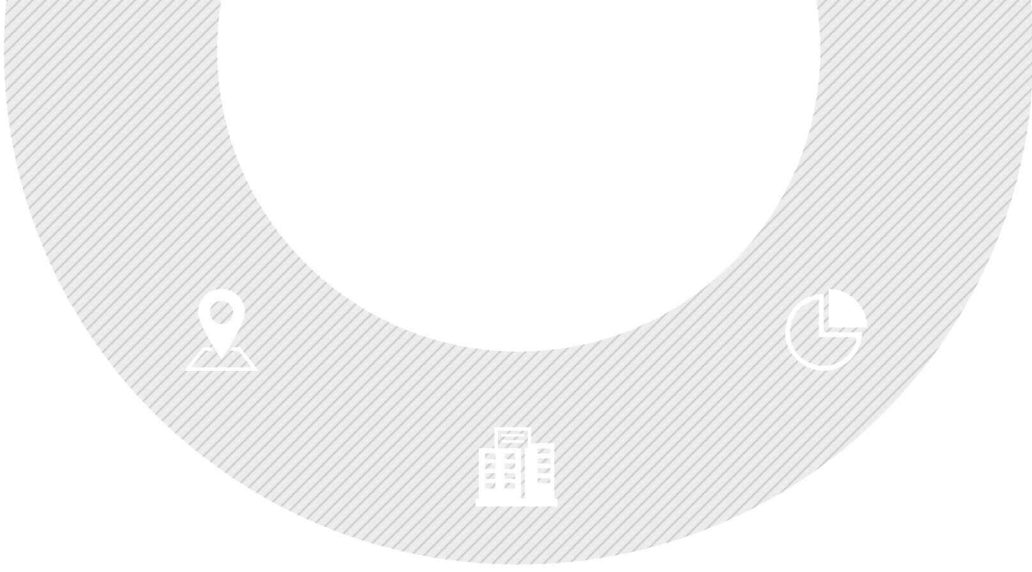
- 30-49세 연령층은 77.7%의 고용률을 기록해 지역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청년층(15-29세)은 37.4%로 고용률이 낮아 청년 일자리 창출이 과제로 지적됨
- 청년 고용률이 군산보다 산업기반이 열악한 농촌 시군보다 낮은 수준인 점은 지역 산업과 청년 고용 간 연계 부족을 시사함

○ 생활 인프라 및 정주 여건

- 교육시설은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폭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2023년 기준 총 163개교에서 4만 7천여 명이 재학 중임
- 의료시설은 359개소가 운영 중이며, 인구 천 명당 병상 수는 약 18.8개, 의사 수는 2.4명으로 중소도시 기준 양호한 편임
- 공공도서관 7개소, 공원 145개소 등 문화·여가 인프라도 확보되어 있으나, 일부 지역 간 접근성 차이가 존재함
-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광역교통체계는 갖춰져 있으나, 철도 접근성과 공항 노선 다양성은 다소 부족함
- 관광자원은 고군산군도, 시간여행마을, 철길마을 등 자연·역사자원을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으며, 정주 매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
- 도심과 농촌지역 간 정주기반 격차는 여전하며, 농촌지역의 인프라 취약성과 인구감소는 상호 영향을 주고받고 있음

○ 정책적 시사점

- 자연감소 대응을 위한 임신·출산·보육 지원 확대와 보육 환경 개선이 필요함
- 청년층 유출 방지를 위한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창업 인프라 강화, 주거 안정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함
- 귀농·귀촌인 및 외국인 주민 등 새로운 유입 인구에 대한 정착 지원과 지역사회 통합 프로그램 마련이 요구됨
- 지역 대학·산업·문화 인프라와 연계한 청년 정착 생태계 구축을 통해 장기적인 유입 기반을 확보해야 함
- 정책 효과 측정을 위한 성과지표(정착률, 청년 유입률 등)를 기반으로 한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며, 단계별 전략 수립이 병행되어야 함
- 중앙정부 및 전북특별자치도 정책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공모사업 참여와 외부재원 확보를 통해 예산 기반을 확충해야 함



CHAPTER

04

인구 실태 및 정책수요

제1절 군산시민 인구정책 인식조사

제2절 군산시 공무원 인구정책 인식조사

제3절 군산시 인구정책 원탁토론회

제4장 인구 실태 및 정책수요

제1절 군산시민 인구정책 인식조사

1) 조사 배경 및 목적

- 인구정책 수립에 필요한 영역별 지역 주민의 욕구 및 생활실태와 정주여건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중요도, 인구정책 방향성 등을 파악하여 주민의 의견에 부합하는 군산시만의 정책을 수립하고자 함
- 또한 군산시민 인식조사를 통하여 시민 의견을 확인하고 나아가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파악하여 주민이 생각하는 군산시와 정책으로 구현되는 군산시의 차이를 최소화하고자 함

2) 조사 설계 및 구성 문항

- 군산시 인구정책 인식조사 대상자는 청년(만18세~39세), 학부모(고등학교 이하 자녀 존재), 중·장년(만 48세~63세) 3그룹으로 나누어 조사함

[표 4-1] 군산시 인구정책 인식조사 대상자

구분	세부 설계 내용
조사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만18세~39세) • 학부모(고등학교 이하 자녀 존재) • 중·장년(만 48세~63세)
조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조사
조사 도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구조화된 표준설문지
조사 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년 7월 1일 ~ 7월 31일(약 1개월간 진행)
조사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897명 (청년 298명, 학부모 299명, 중·장년 300명)

- 공통적인 질문사항으로 응답자의 일반사항, 군산시 인구전망, 군산시 전입 및 전출을 조사하였으며, 청년(만18세~39세), 학부모(고등학교 이하 자녀 존재), 중·장년(만 48세~63세) 3그룹에 따라 조사의 범위를 세분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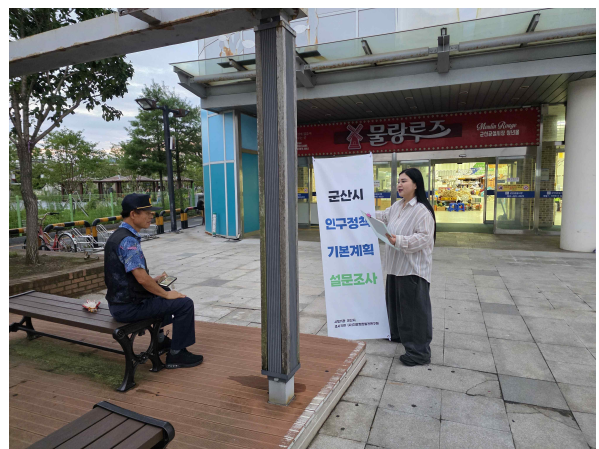
- 청년에게는 취업, 창업, 결혼, 자녀 출산 등의 질문, 학부모에게는 자녀 양육, 교육환경, 타지역 전출 등의 질문, 중·장년에는 은퇴 이후에 대해 중점으로 조사함

[표 4-2] 군산시 인구정책 설문 내용

구분	인식조사 세부 내용
응답자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자 일반사항 성별 / 연령 / 거주지역 / 가구의 연간 소득 / 최종학력 / 혼인상태 / 가구원 수 / 직업 / 직장형태 / 장애 여부
군산시 인구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산시 인구 전망 향후 5년 동안 군산시 인구증가 가능성 / 군산시 인구 증가 희망 / 향후 5년 동안 군산시의 삶의 질 예상
군산시 전입 및 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산시 전입 및 전출 군산시 거주기간 / 직전 거주지 / 군산시 전입 사유 / 향후 전출 여부 / 전출 희망 지역 / 전출 사유
주거 및 정주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 거주지에 대한 만족 • 군산시 거주 만족도 • 거주 만족도 공공기관 / 의료기관 / 소비시설 / 문화시설 / 근린편의시설 / 기타시설 / 안전환경 / 자연환경 / 교통환경 / 교육환경 / 주거환경 / 근로환경 • 군산시 인구 유입을 위해 개선되어야 하는 정주여건 분야
청년(만18세~39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으로 살아가는데 군산시의 종합적 여건 • 현재 가장 큰 걱정거리 • 취업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분 • 군산시에서 창업 의사 • 희망하는 창업 업종 • 청년층에게 가장 필요한 주거정책 • 결혼에 대한 생각 • 결혼을 하는데 있어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 •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 • 자녀 출산 의향 •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경우 • 임신과 출산을 위해 중요한 부분
학부모 (고등학교 이하 자녀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 양육에 대한 군산시 만족도 • 자녀 양육 시 힘든 점 • 미취학 자녀 양육을 위한 필요 서비스 • 자녀 입학(진학) 시기에 맞춰 타지역으로 이주할 의향 • 타지역으로 이주 의향시기 • 자녀 문제로 인한 이주의 주요 이유 •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부분

구분	인식조사 세부 내용
중·장년(만 48세~63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생활에 있어 가장 큰 걱정거리 • 은퇴 이후 삶에 대한 준비 • 은퇴 이후를 위해 하고 있는 준비 • 은퇴 이후 정직자로 군산시에 대한 생각 • 중·장년층 및 은퇴자를 위한 군산시 정책 • 은퇴 이후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선호하는 산업 분야 • 군산시에서 중장년층 대상 평생교육을 진행할 경우 희망하는 교육





[그림 4-1] 군산시민 인구정책 인식조사

3) 인식조사 결과

4.1 청년 인식조사

■ 응답자 일반사항

○ 군산시민(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인구정책 관련 인식조사의 범위는 만 18세~39세로 총 298명(남자 148명, 여자 1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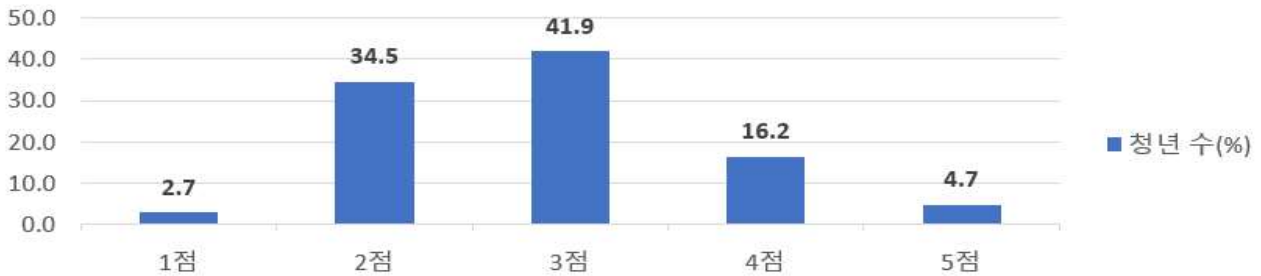
- 응답자는 20대 40.2%, 30대 58.3%, 40대 1.5%를 대상으로 조사함

[표 4-3] 군산시민(청년) 응답자 일반사항

문항 구분	인식조사 세부 내용
성별	총 298명[남자 148명(49.6%), 여자 150명(50.4%)]
연령	20대(40.2%) / 30대(58.3%) / 40대(1.5%)
거주지역	개정동 / 경암동 / 구암동 / 나운1동 / 나운2동 / 나운3동 / 미성동 / 삼학동 / 소룡동 / 수송동 / 신평동 / 월명동 / 조촌동 / 중앙동 / 흥남동
가구의 연간 소득	① 1,000만원 미만(1.34%) ② 1,000~2,000만원 미만(2.34%) ③ 2,000~3,000만원 미만(24.16%) ④ 3,000~4,000만원 미만(34.22%) ⑤ 4,000~5,000만원 미만(28.85%) ⑥ 5,000만원 이상(9.06%)
최종학력	① 초등학교졸업(0.37%) ② 중학교졸업(0%) ③ 고등학교졸업(13.80%) ④ 2년제 대학졸업(18.65%) ⑤ 4년제 대학교 졸업(65.67%) ⑥ 석사졸업(1.11%) ⑦ 박사졸업(0.37%)
혼인상태	① 미혼(70.33%) ② 기혼(28.33%) ③ 혼인 예정(1.33%)
가구원 수	① 1명(37.07%) ② 2명(19.04%) ③ 3명(20.06%) ④ 4명(21.08%) ⑤ 5명 이상(2.72%)
직업	① 사무/기술직(31.43%) ② 기능/작업직(7.35%) ③ 자유/전문직(5.68%) ④ 자영업(4.01%) ⑤ 경영/관리직(4.68%) ⑥ 판매/영업서비스직(13.71%) ⑦ 농/임/축산업(2.00%) ⑧ 전업주부(20.73%) ⑨ 학생(3.67%) ⑩ 무직(3.67%)
직장 형태	① 일반회사(법인, 개인)(88.54%) ② 정부투자/출연기관(0.44%) ③ 국공립 및 사립학교(7.48%) ④ 정부기관(공무원/군인 포함)(2.20%) ⑤ 기타 (주부 3명)(1.32%)
장애 여부	① 장애 없음(99.66%) ②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0%) ③ 장애정도가 경미한 장애인(0%) ④ 비등록 장애인(0.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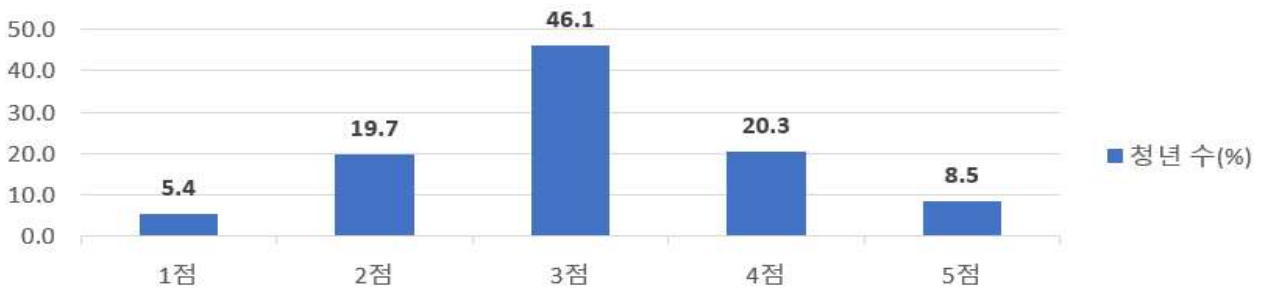
■ 군산시 인구 전망

- 향후 5년 동안 군산시 인구 증가 가능성은 5점에 가까워질수록 매우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군산시민(청년)이 생각하는 점수는 5점 만점 중 약 2.85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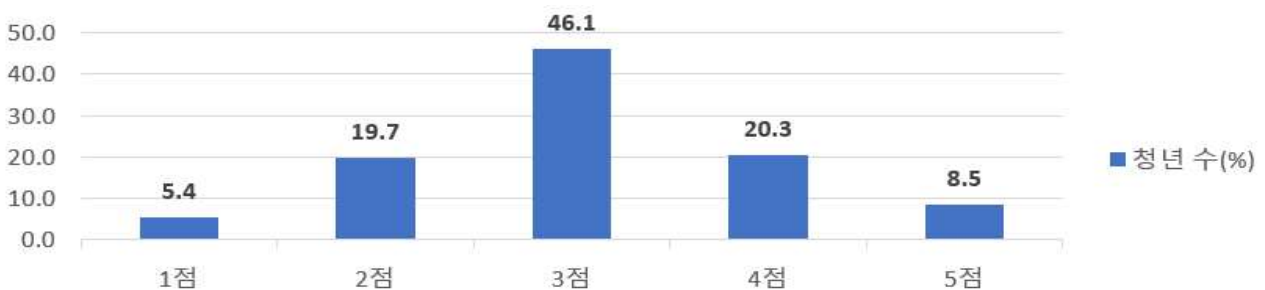
[그림 4-2] 향후 5년 동안 군산시 인구 증가 가능성(청년)

- 군산시 인구 증가 희망은 5점에 가까워질수록 매우 그렇다는 것을 의미하며, 군산시민(청년)이 생각하는 점수는 5점 만점 중 약 3.06점임



[그림 4-3] 군산시 인구 증가 희망 점수(청년)

- 향후 5년 동안 군산시의 삶의 질 예상은 5점에 가까워질수록 매우 좋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군산시민(청년)이 생각하는 점수는 5점 만점 중 약 3.14점임



[그림 4-4] 향후 5년 동안 군산시의 삶의 질 예상 점수(청년)

■ 군산시 전입 및 전출

○ 군산시에 전입한 청년들은 1년 이하 6.64%, 1~2년 23.25%, 2~3년 56.14%, 3년 이상 13.62%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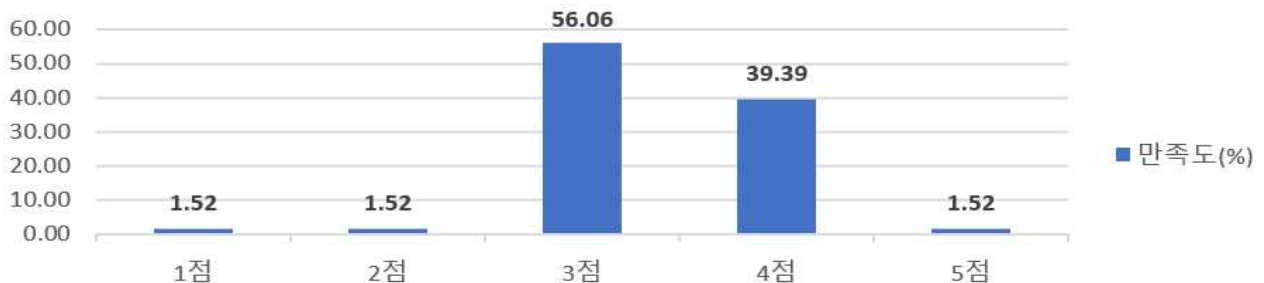
- 군산시 전입 사유는 일자리 20%, 거주환경 17.14%, 주거환경 15.71%로 조사됨

[표 4-4] 군산시 전입 및 전출 응답 사항(청년)

문항 구분	인식조사 세부 내용
군산시 거주기간	1년 이하(6.64%) 1년~2년(23.25%) 2년~3년(56.14%) 3년 이상(13.62%)
군산시 전입 사유 (중복 응답 가능)	① 일자리(20%) ② 양육 및 보육환경(5.71%) ③ 교육 환경(12.85%) ④ 주거환경(15.71%) ⑤ 거주환경(17.14%) ⑥ 문화·체육·여가 인프라(8.57%) ⑦ 의료·복지 환경(2.85%) ⑧ 교통 환경(14.28%) ⑨ 사업환경(2.85%) ⑩ 기태결혼(1.42%), 고향(1.42%), 부모님 일자리(2.85%)
향후 전출 여부 (2년 이내)	① 있다(16.77%) ② 없다(58.72%) ③ 모르겠다(24.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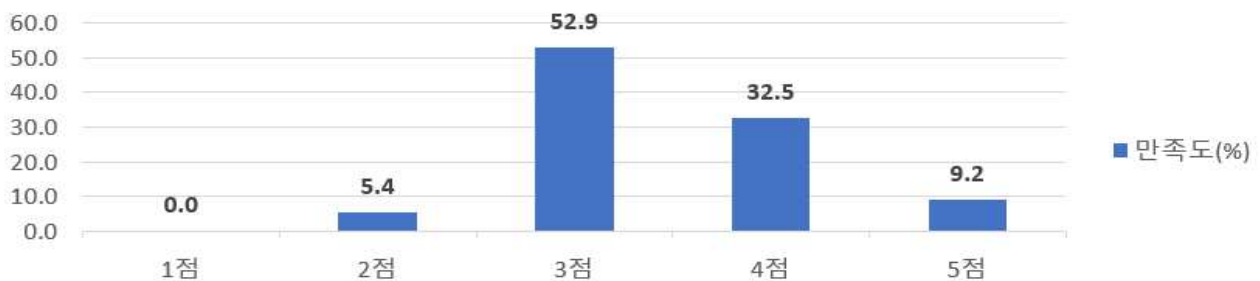
■ 주거 및 정주여건

○ 군산시민(청년)이 생각하는 이전 거주지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5점 만점 중 약 3.43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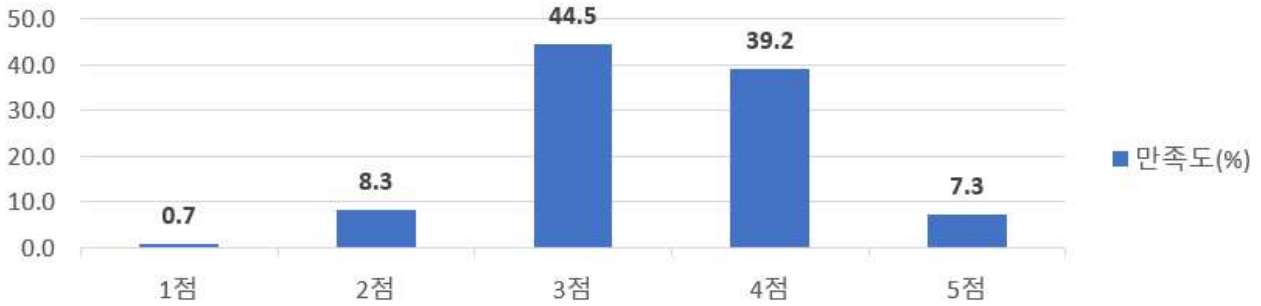
[그림 4-5] 이전 거주지에 대한 만족도 점수(청년)

○ 군산시민(청년)이 생각하는 군산시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5점 만점 중 약 3.45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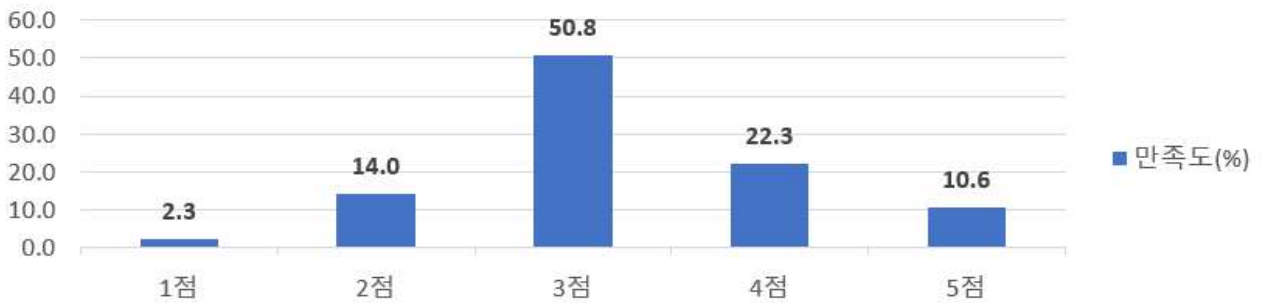
[그림 4-6] 군산시 거주 만족도 점수(청년)

○ 군산시민(청년)이 생각하는 군산시의 공공기관 만족도 점수는 5점 만점 중 약 3.44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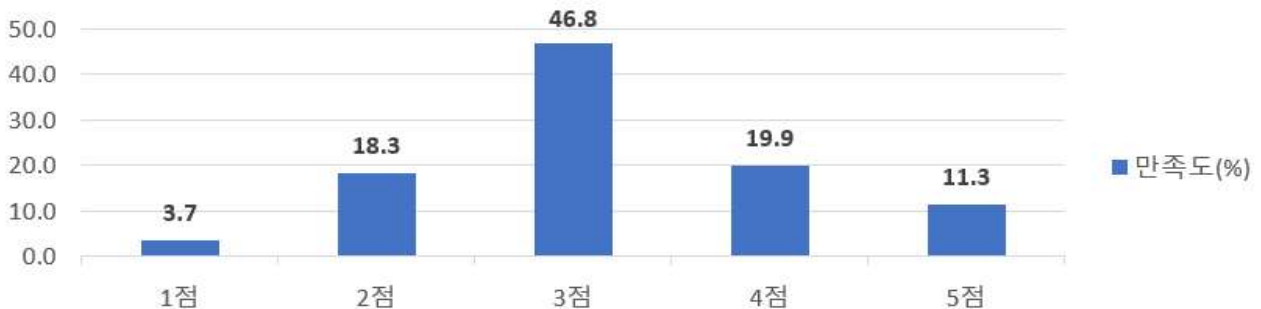
[그림 4-7] 군산시 공공기관 만족도 점수(청년)

○ 군산시민(청년)이 생각하는 군산시의 의료기관 만족도 점수는 5점 만점 중 약 3.24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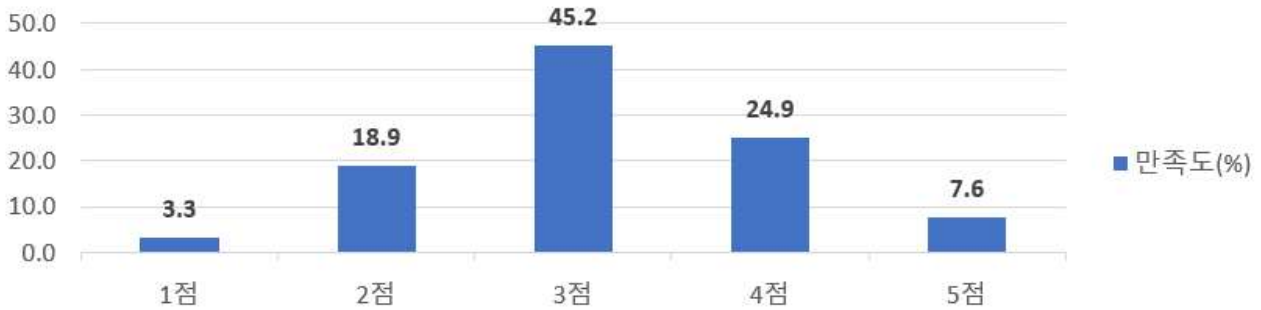
[그림 4-8] 군산시 의료기관 만족도 점수(청년)

○ 군산시민(청년)이 생각하는 군산시의 소비시설 만족도 점수는 5점 만점 중 약 3.16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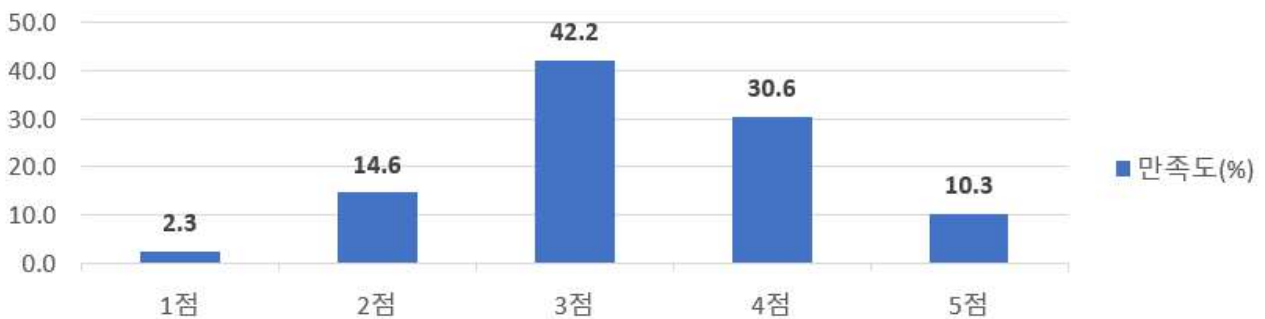
[그림 4-9] 군산시 소비시설 만족도 점수(청년)

○ 군산시민(청년)이 생각하는 군산시의 문화시설 만족도 점수는 5점 만점 중 약 3.14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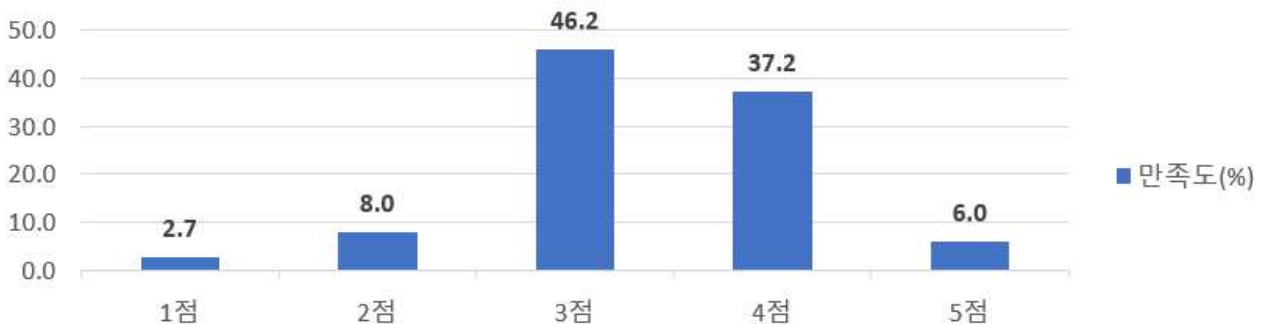
[그림 4-10] 군산시 문화시설 만족도 점수(청년)

○ 군산시민(청년)이 생각하는 군산시의 근린편의시설 만족도 점수는 5점 만점 중 약 3.31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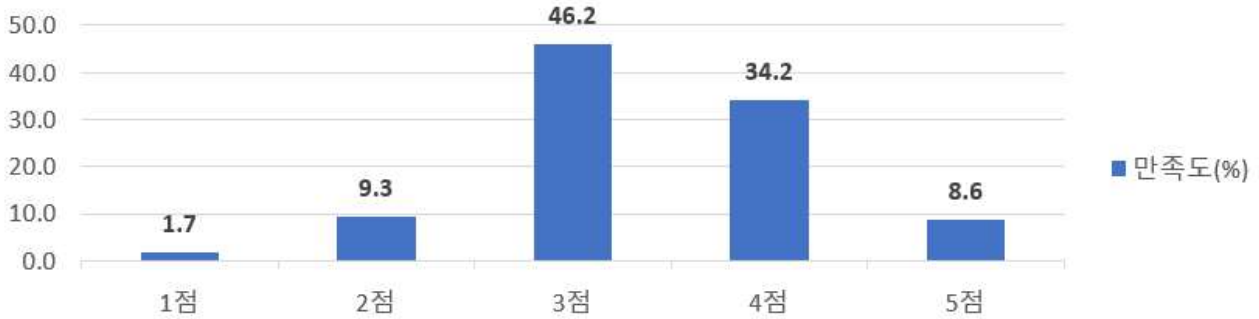
[그림 4-11] 군산시 근린편의시설 만족도 점수(청년)

○ 군산시민(청년)이 생각하는 군산시의 기타시설 만족도 점수는 5점 만점 중 약 3.35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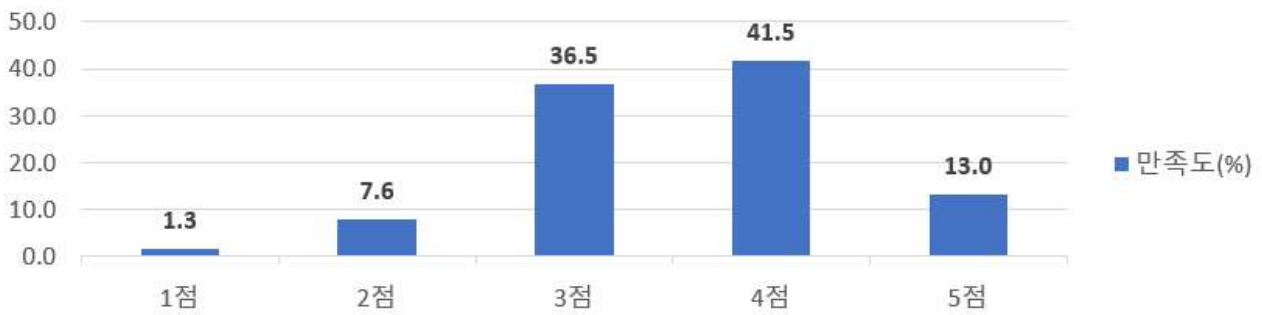
[그림 4-12] 군산시 기타시설 만족도 점수(청년)

○ 군산시민(청년)이 생각하는 군산시의 안전환경 만족도 점수는 5점 만점 중 약 3.38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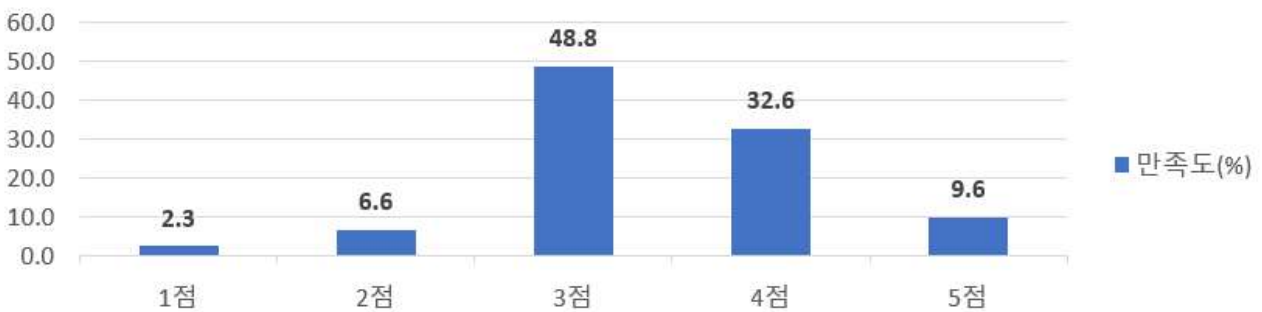
[그림 4-13] 군산시 안전환경 만족도 점수(청년)

○ 군산시민(청년)이 생각하는 군산시의 자연환경 만족도 점수는 5점 만점 중 약 3.57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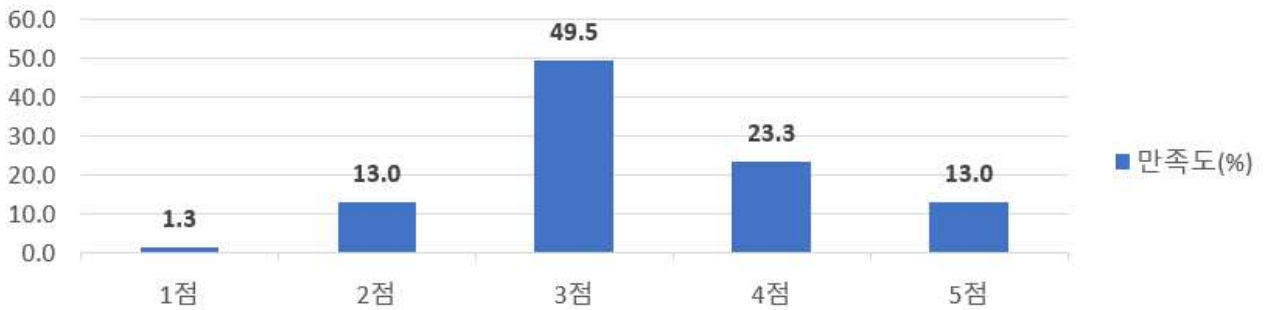
[그림 4-14] 군산시 자연환경 만족도 점수(청년)

○ 군산시민(청년)이 생각하는 군산시의 교통환경 만족도 점수는 5점 만점 중 약 3.40점임



[그림 4-15] 군산시 교통환경 만족도 점수(청년)

○ 군산시민(청년)이 생각하는 군산시의 보육환경 만족도 점수는 5점 만점 중 약 3.33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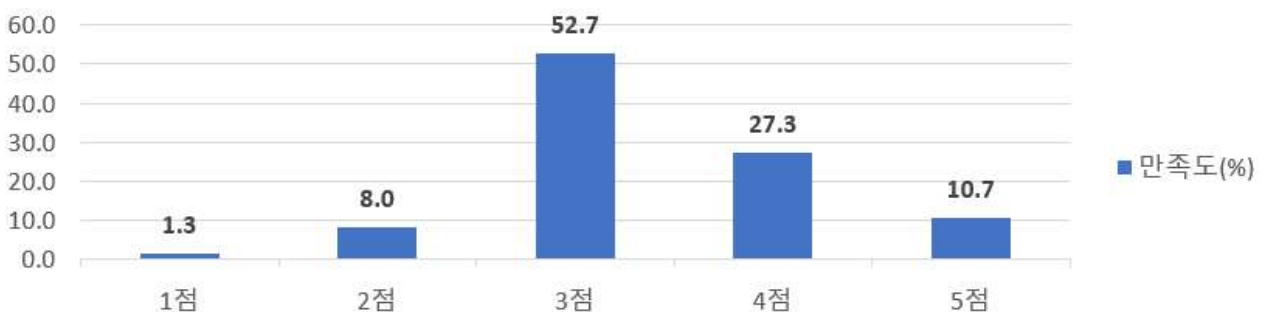
[그림 4-16] 군산시 보육환경 만족도 점수(청년)

○ 군산시민(청년)이 생각하는 군산시의 교육환경 만족도 점수는 5점 만점 중 약 3.25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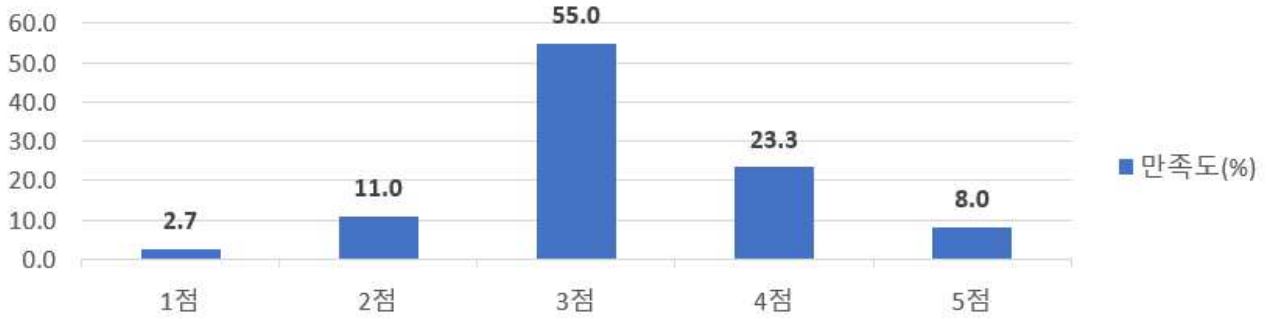
[그림 4-17] 군산시 교육환경 만족도 점수(청년)

○ 군산시민(청년)이 생각하는 군산시의 주거환경 만족도 점수는 5점 만점 중 약 3.38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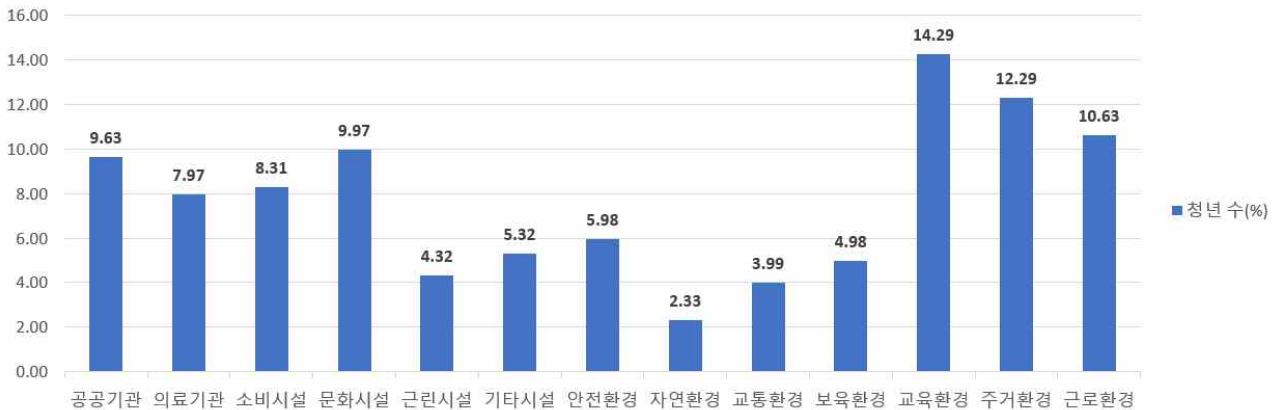
[그림 4-18] 군산시 주거환경 만족도 점수(청년)

○ 군산시민(청년)이 생각하는 군산시의 근로환경 만족도 점수는 5점 만점 중 약 3.38점임



[그림 4-19] 군산시 근로환경 만족도 점수(청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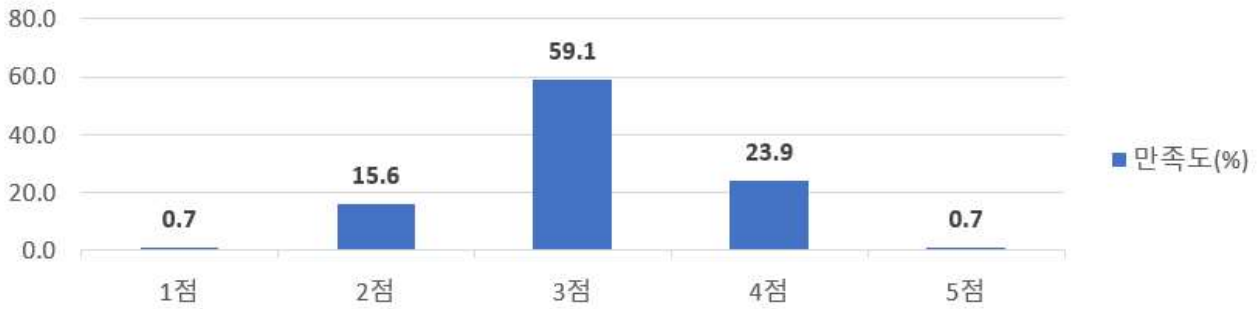
○ 군산시민(청년)이 생각하는 군산시 인구 유입을 위해 개선되어야 하는 정주여건 분야는 교육환경 14.29%, 주거환경 12.29%, 근로환경 10.63%으로 조사됨



[그림 4-20] 군산시 인구 유입을 위해 개선되어야 하는 정주여건(청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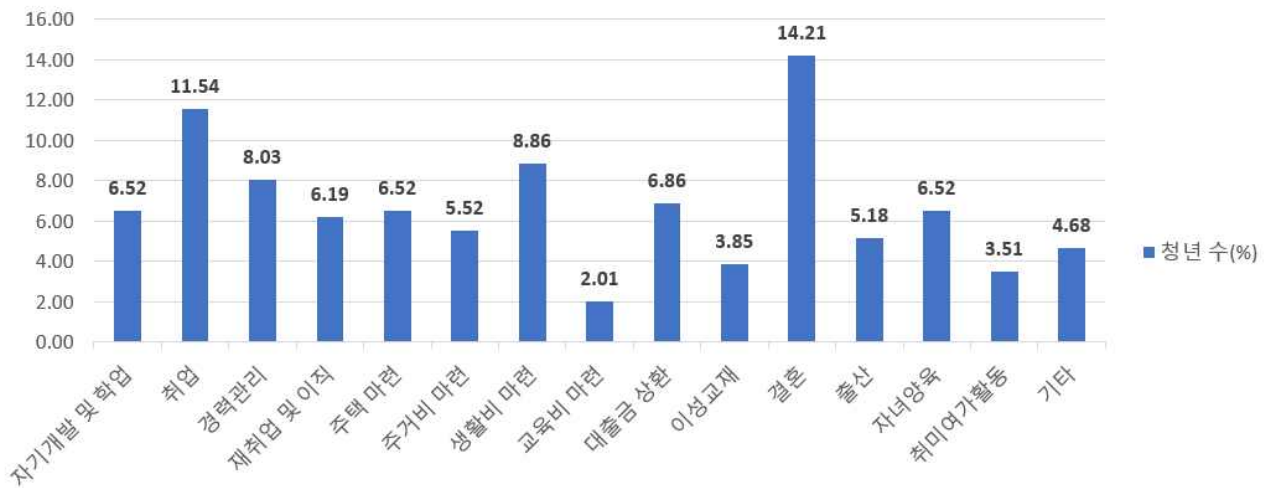
■ 청년(만18세~39세)

- 군산시민(청년)이 생각하는 청년으로 살아가는데 군산시의 종합적 여건의 만족도 점수는 5점 만점 중 약 3.08점임



[그림 4-21] 군산시 종합적 여건 만족도 점수(청년)

- 군산시민(청년)이 생각하는 현재 가장 큰 걱정거리는 결혼 14.21%, 취업 11.54%, 생활비 마련 8.86%로 조사됨



[그림 4-22] 현재 가장 큰 걱정거리(청년)

- 군산시민(청년)이 생각하는 취업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분은 임금 26.08%, 직장의 안정성 14.12%, 회사 규모 및 이미지 9.47%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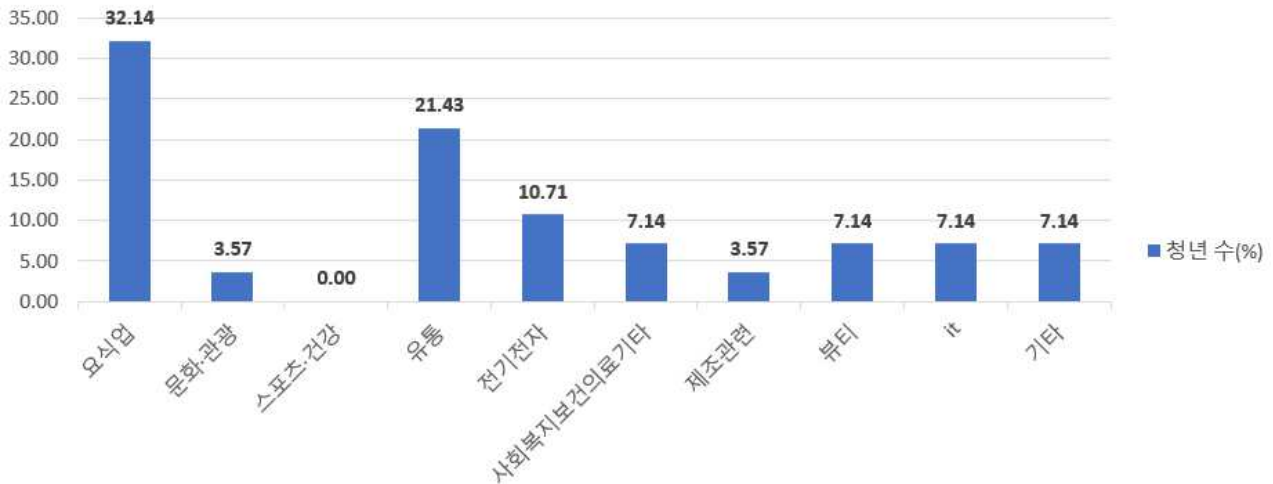
[그림 4-23] 취업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분(청년)

- 군산시민(청년)이 생각하는 군산시에서 취업이 힘들거나 타지역으로 일자리를 알아보는 이유는 영세한 기업규모 18.38%, 낮은 급여 15.18%, 기업정보 부족 12.48%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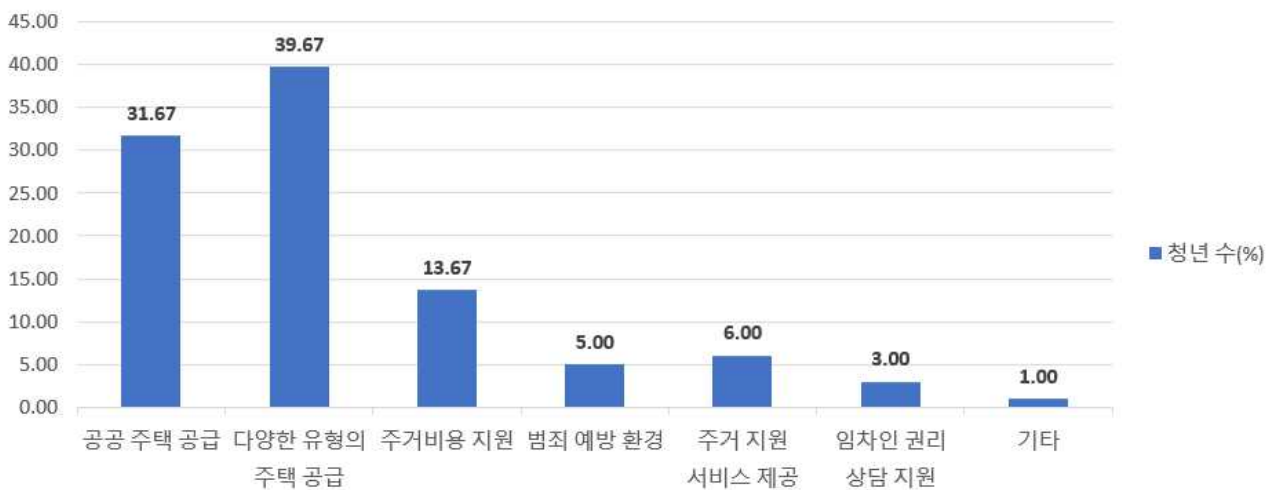
[그림 4-24] 군산시에서 취업이 힘들거나 타지역으로 일자리를 알아보는 이유(청년)

- 군산시민(청년) 중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은 전체 청년 중 약 8.97%이었으며, 희망하는 창업 업종은 요식업 32.14%, 유통 21.43%, 전기전자 10.71%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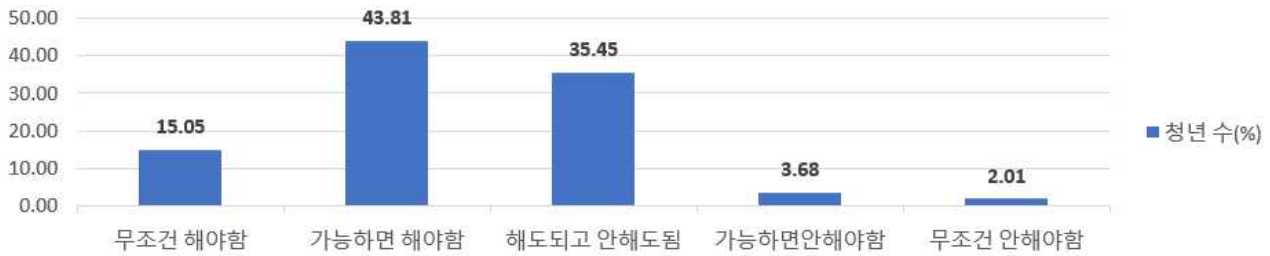
[그림 4-25] 희망하는 창업 업종(청년)

- 군산시민(청년)이 생각하는 청년층에게 가장 필요한 주거정책은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39.67%, 공공주택 공급 31.67%, 주거비용 지원 13.67%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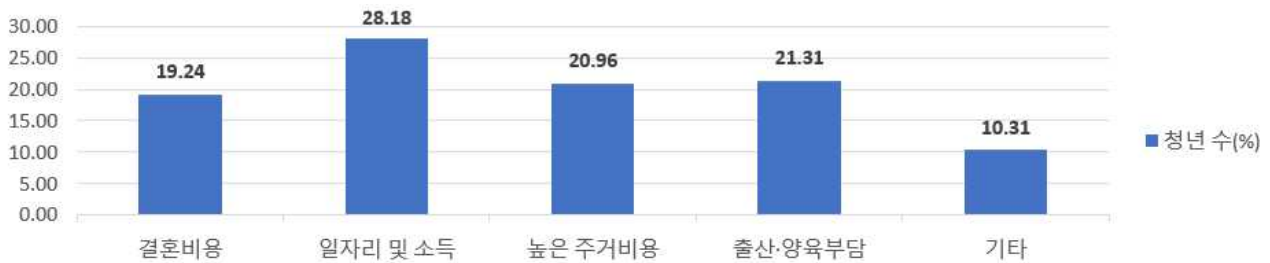
[그림 4-26] 청년층에게 가장 필요한 주거정책(청년)

○ 군산시민(청년)의 결혼에 대한 생각은 해야함이 약 58.86%(무조건 해야함+가능하면 해야함)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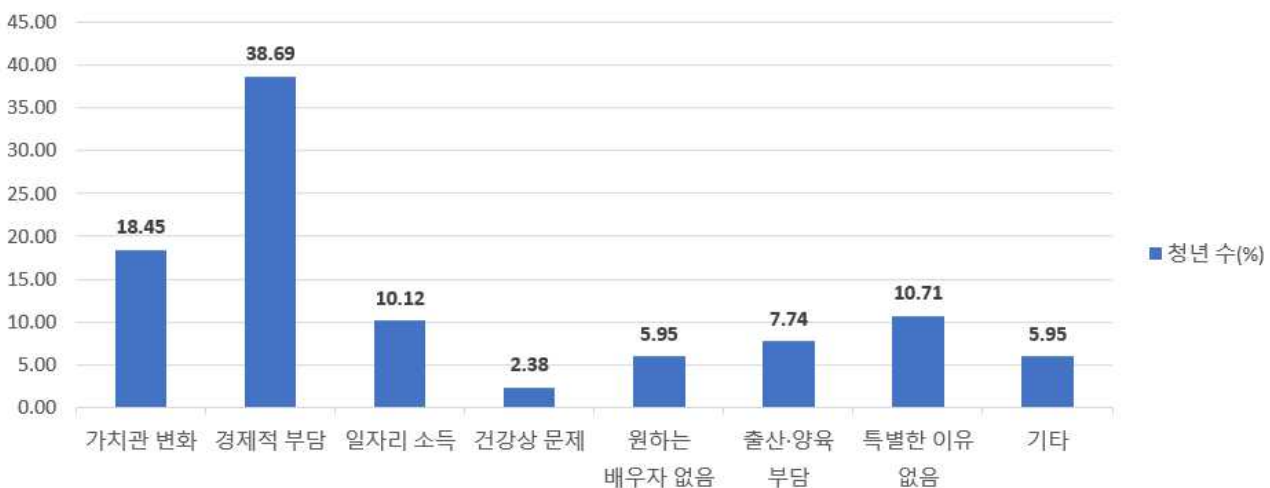
[그림 4-27] 결혼에 대한 생각(청년)

○ 군산시민(청년) 결혼을 하는데 있어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은 일자리 및 소득 28.18%, 출산·양육부담 21.31%, 높은 주거비용 20.96%로 조사됨



[그림 4-28] 결혼을 하는데 있어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청년)

○ 군산시민(청년)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경제적 부담 38.69%, 가치관 변화 18.45%, 특별한 이유 없음 10.71%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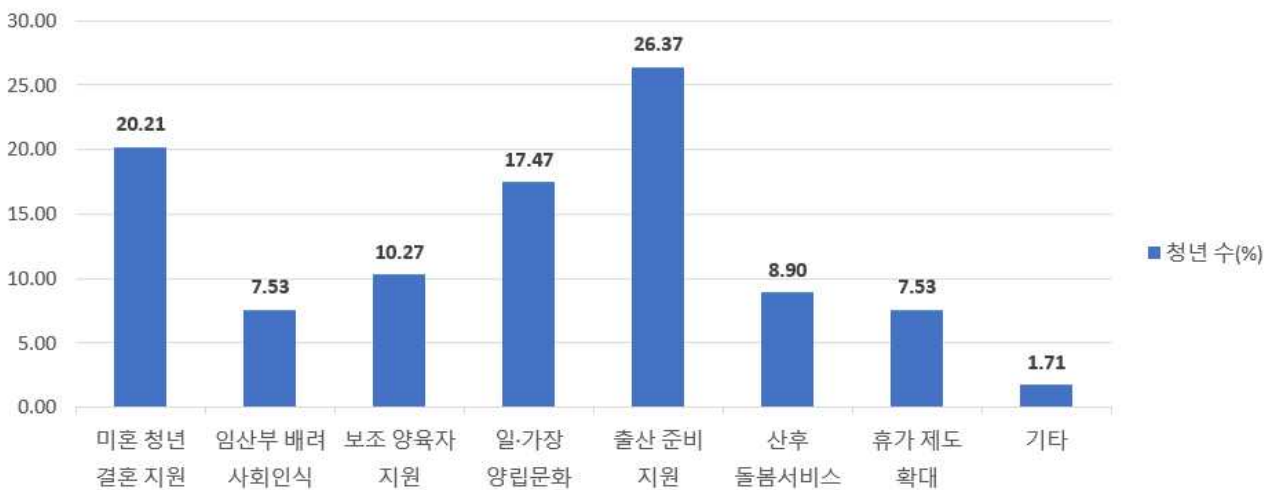
[그림 4-29]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청년)

- 군산시민(청년) 중에서 청년들의 34.9%는 자녀 출산 의향이 없으며,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이유는 미래 불안감 19.82%, 육아 어려움 18.92%, 경력단절 우려 14.41%로 조사됨



[그림 4-30]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이유(청년)

- 군산시민(청년)이 생각하는 임신과 출산을 위해 중요한 부분으로 출산 준비 지원 26.37%, 미혼 청년 결혼 지원 20.21%, 일·가장 양립문화 17.47%로 조사됨



[그림 4-31] 임신과 출산을 위해 중요한 부분(청년)

4.2 학부모 인식조사

■ 응답자 일반사항

○ 군산시민(학부모)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인구정책 관련 인식조사의 범위는 고등학생이하 자녀를 둔 총 299명(남자 149명, 여자 1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함

- 응답자는 30대 13.7%, 40대 46.48%, 50대 32.77%, 60대 7.35%을 대상으로 조사함

[표 4-5] 군산시민(학부모) 응답자 일반사항

문항 구분	인식조사 세부 내용
성별	총 299명[남자 149명(49.83%), 여자 150명(50.17%)]
연령	30대(13.7%) / 40대(46.48%) / 50대(32.77%) / 60대(7.35%)
거주지역	경암동 / 구암동 / 나운1동 / 나운2동 / 나운3동 / 미성동 / 삼학동 / 소룡동 / 수송동 / 신평동 / 월명동 / 조촌동 / 중앙동 / 흥남동
가구의 연간 소득	① 1,000만원 미만(0%) ② 1,000~2,000만원 미만(0%) ③ 2,000~3,000만원 미만(1.66%) ④ 3,000~4,000만원 미만(21.00%) ⑤ 4,000~5,000만원 미만(52.66%) ⑥ 5,000만원 이상(24.66%)
최종학력	① 초등학교졸업(0%) ② 중학교졸업(0.33%) ③ 고등학교졸업(11.40%) ④ 2년제 대학졸업(20.80%) ⑤ 4년제 대학교 졸업(66.44%) ⑥ 석사졸업(1.00%) ⑦ 박사졸업(0%)
혼인상태	① 미혼(0.33%) ② 기혼(98.32%) ③ 혼인 예정(1.00%) ④ 기타(0.33%)
가구원 수	① 1명(1.32%) ② 2명(3.65%) ③ 3명(55.14%) ④ 4명(33.88%) ⑤ 5명 이상(5.98%)
직업	① 사무/기술직(32.55%) ② 기능/작업직(8.97%) ③ 자유/전문직(8.30%) ④ 자영업(9.63%) ⑤ 경영/관리직(4.65%) ⑥ 판매/영업서비스직(11.29%) ⑦ 농/임/축산업(5.64%) ⑧ 전업주부(18.27%) ⑨ 학생(0%) ⑩ 무직(0.66%)
직장 형태	① 일반회사(법인, 개인)(87.70%) ② 정부투자/출연기관(1.22%) ③ 국공립 및 사립학교(0.40%) ④ 정부기관(공무원/군인 포함)(0.81%) ⑤ 기타(9.83%)
장애 여부	① 장애 없음(100%) ②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0명 ③ 장애정도가 경미한 장애인 0명 ④ 비등록 장애인 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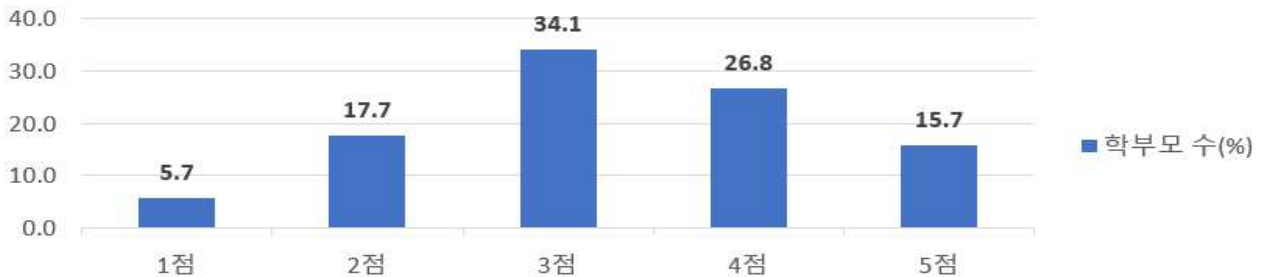
■ 군산시 인구 전망

- 향후 5년 동안 군산시 인구 증가 가능성은 5점에 가까워질수록 매우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군산시민(학부모)이 생각하는 점수는 5점 만점 중 약 2.98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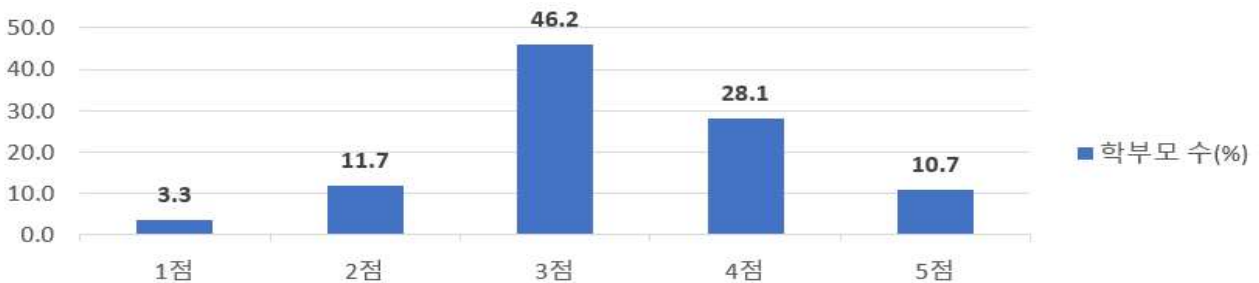
[그림 4-32] 향후 5년 동안 군산시 인구 증가 가능성(학부모)

- 군산시 인구 증가 희망은 5점에 가까워질수록 매우 그렇다는 것을 의미하며, 군산시민(학부모)이 생각하는 점수는 5점 만점 중 약 3.29점임



[그림 4-33] 군산시 인구 증가 희망 점수(학부모)

- 향후 5년 동안 군산시의 삶의 질 예상은 5점에 가까워질수록 매우 좋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군산시민(학부모)이 생각하는 점수는 5점 만점 중 약 3.31점임



[그림 4-34] 향후 5년 동안 군산시의 삶의 질 예상 점수(학부모)

■ 군산시 전입 및 전출

○ 군산시에 전입한 학부모들은 1년 이하 6.64%, 1~2년 9.96%, 2~3년 17.94%, 3년 이상 41.86%, 4년 이상은 23.58%로 조사됨

- 군산시 전입 사유는 양육 및 보육환경 19.01%, 일자리 13.38%, 교육 환경 11.97%로 조사됨

[표 4-6] 군산시 전입 및 전출 응답 사항(학부모)

문항 구분	인식조사 세부 내용
군산시 거주기간	1년 이하(6.64%) 1년~2년(9.96%) 2년~3년(17.94%) 3년~4년(41.86%) 4년 이상(23.58%)
군산시 전입 사유 (중복 응답 가능)	① 일자리(13.38%) ② 양육 및 보육환경(19.01%) ③ 교육 환경(11.97%) ④ 주거환경(11.97%) ⑤ 거주환경(12.67%) ⑥ 문화·체육·여가 인프라(9.15%) ⑦ 의료·복지 환경(5.63%) ⑧ 교통 환경(3.52%) ⑨ 사업환경(2.81%) ⑩ 기타(4.22%)
향후 전출 여부 (2년 이내)	① 있다(5.00%) ② 없다(81.67%) ③ 모르겠다(1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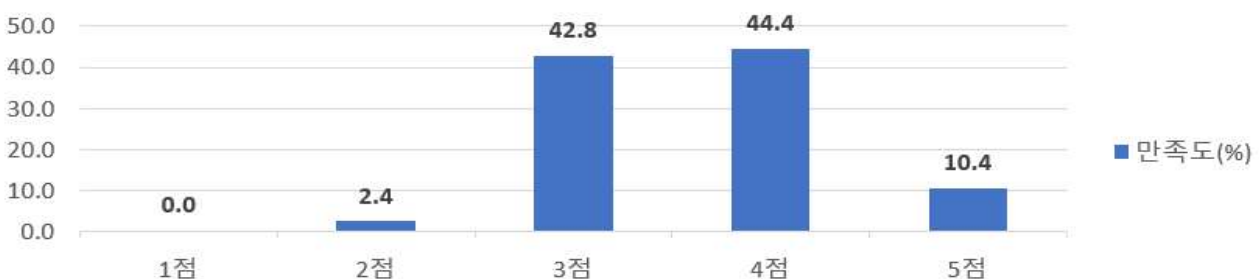
■ 주거 및 정주여건

○ 군산시민(학부모)이 생각하는 이전 거주지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5점 만점 중 약 3.71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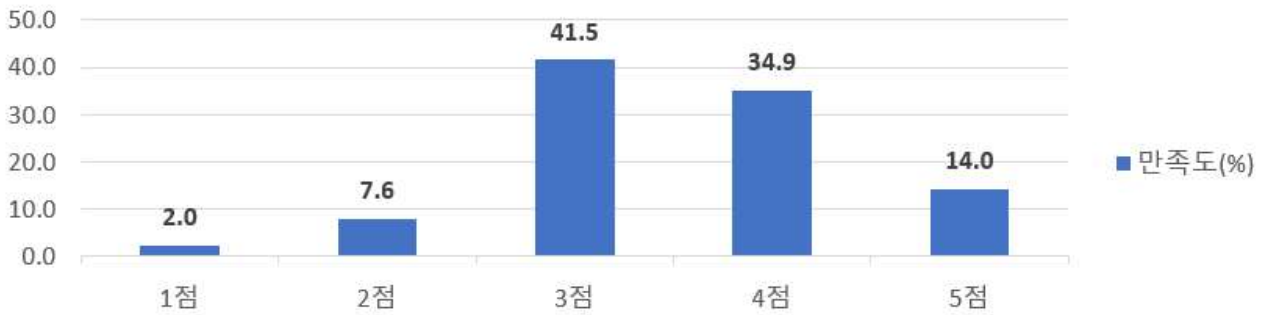
[그림 4-35] 이전 거주지에 대한 만족도 점수(학부모)

○ 군산시민(학부모)이 생각하는 군산시 거주 만족도 점수는 5점 만점 중 약 3.62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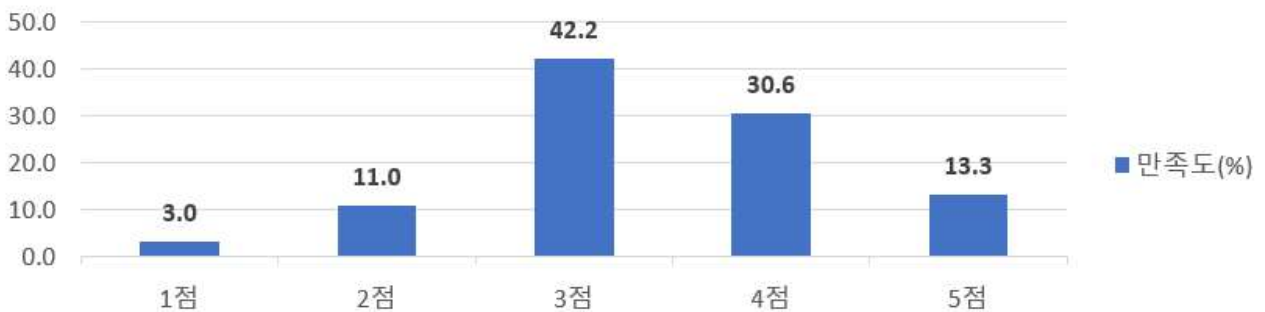
[그림 4-36] 군산시 거주 만족도 점수(학부모)

○ 군산시민(학부모)이 생각하는 군산시의 공공기관 만족도 점수는 5점 만점 중 약 3.51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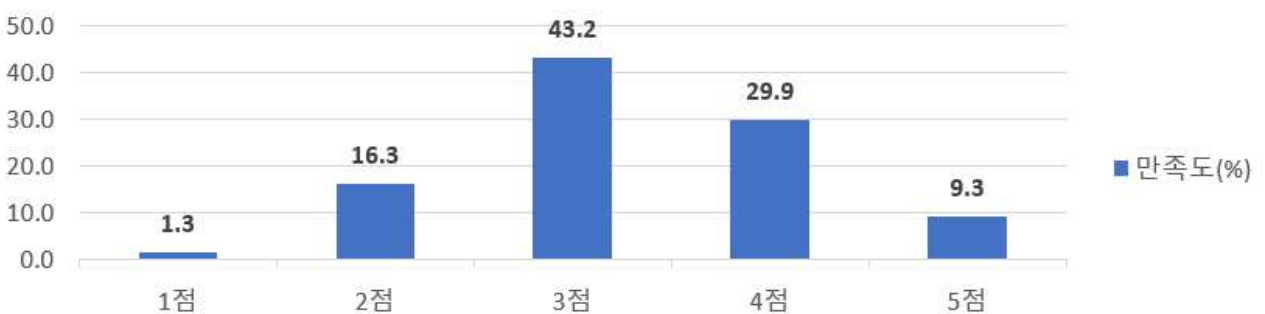
[그림 4-37] 군산시 공공기관 만족도 점수(학부모)

○ 군산시민(학부모)이 생각하는 군산시의 의료기관 만족도 점수는 5점 만점 중 약 3.40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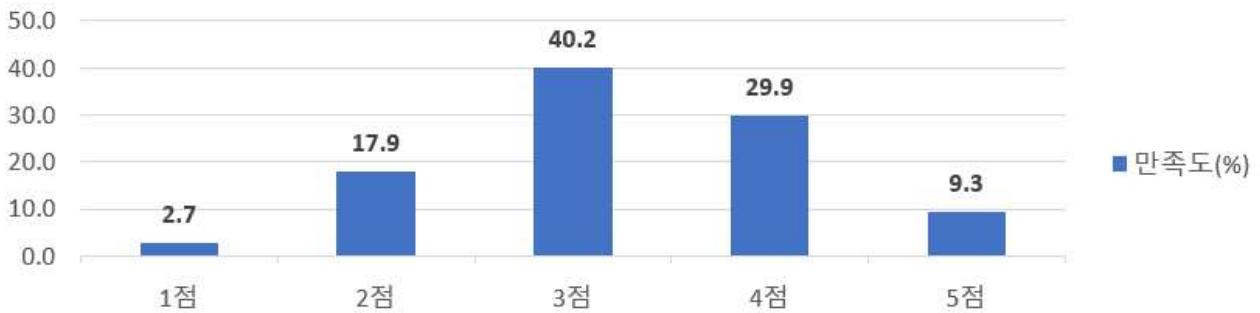
[그림 4-38] 군산시 의료기관 만족도 점수(학부모)

○ 군산시민(학부모)이 생각하는 군산시의 소비시설 만족도 점수는 5점 만점 중 약 3.29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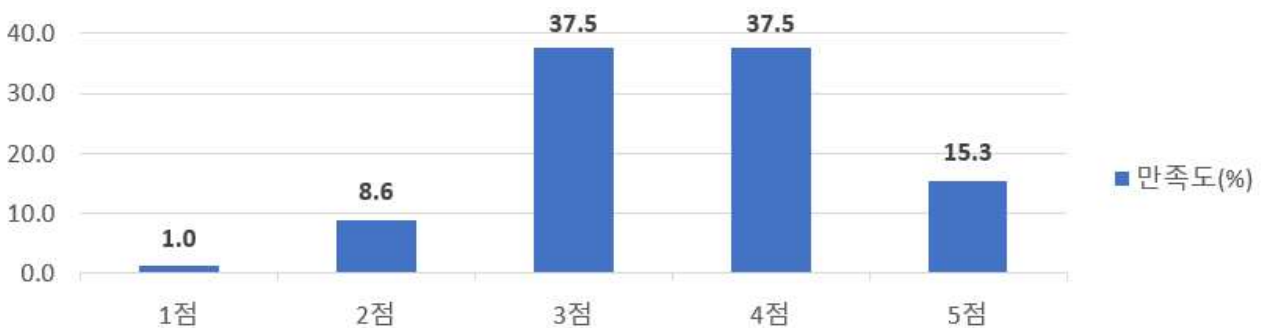
[그림 4-39] 군산시 소비시설 만족도 점수(학부모)

○ 군산시민(학부모)이 생각하는 군산시의 문화시설 만족도 점수는 5점 만점 중 약 3.25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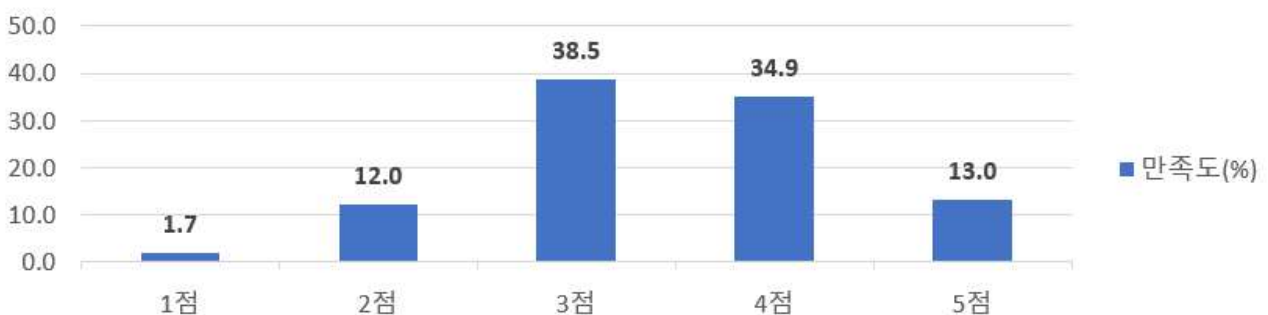
[그림 4-40] 군산시 문화시설 만족도 점수(학부모)

○ 군산시민(학부모)이 생각하는 군산시의 근린편의시설 만족도 점수는 5점 만점 중 약 3.57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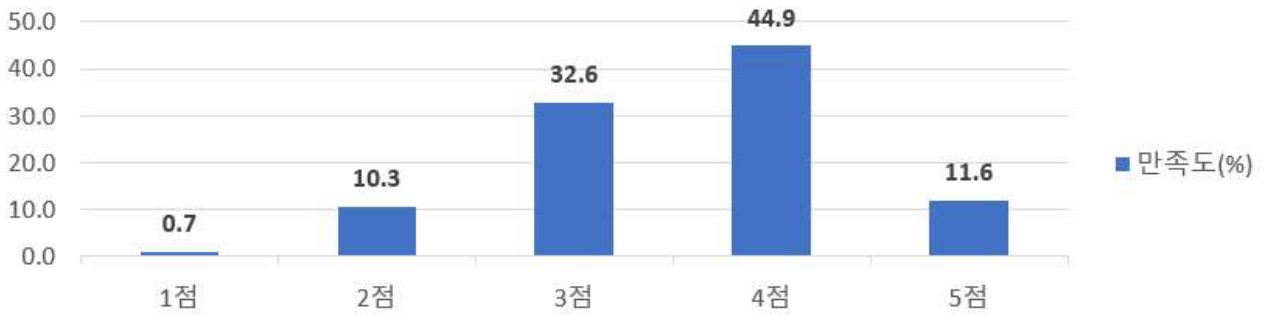
[그림 4-41] 군산시 근린편의시설 만족도 점수(학부모)

○ 군산시민(학부모)이 생각하는 군산시의 기타시설 만족도 점수는 5점 만점 중 약 3.45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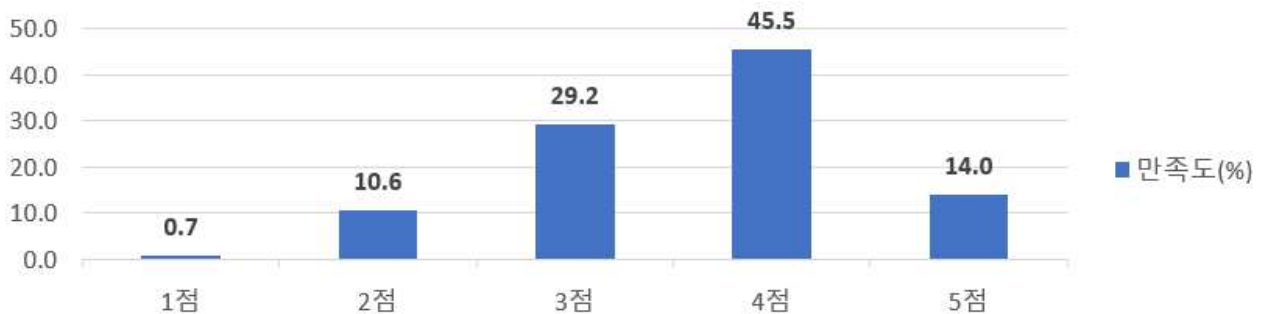
[그림 4-42] 군산시 기타시설 만족도 점수(학부모)

○ 군산시민(학부모)이 생각하는 군산시의 안전환경 만족도 점수는 5점 만점 중 약 3.56점임



[그림 4-43] 군산시 안전환경 만족도 점수(학부모)

○ 군산시민(학부모)이 생각하는 군산시의 자연환경 만족도 점수는 5점 만점 중 약 3.61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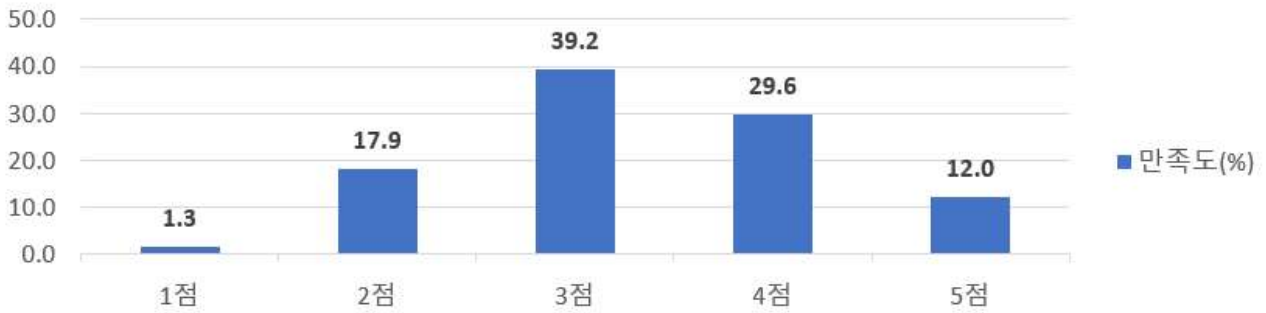
[그림 4-44] 군산시 자연환경 만족도 점수(학부모)

○ 군산시민(학부모)이 생각하는 군산시의 교통환경 만족도 점수는 5점 만점 중 약 3.60점임



[그림 4-45] 군산시 교통환경 만족도 점수(학부모)

○ 군산시민(학부모)이 생각하는 군산시의 보육환경 만족도 점수는 5점 만점 중 약 3.32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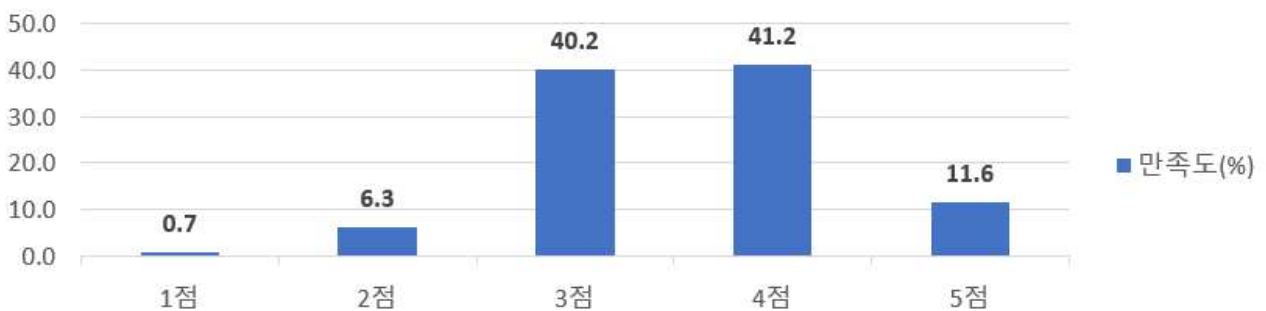
[그림 4-46] 군산시 보육환경 만족도 점수(학부모)

○ 군산시민(학부모)이 생각하는 군산시의 교육환경 만족도 점수는 5점 만점 중 약 3.38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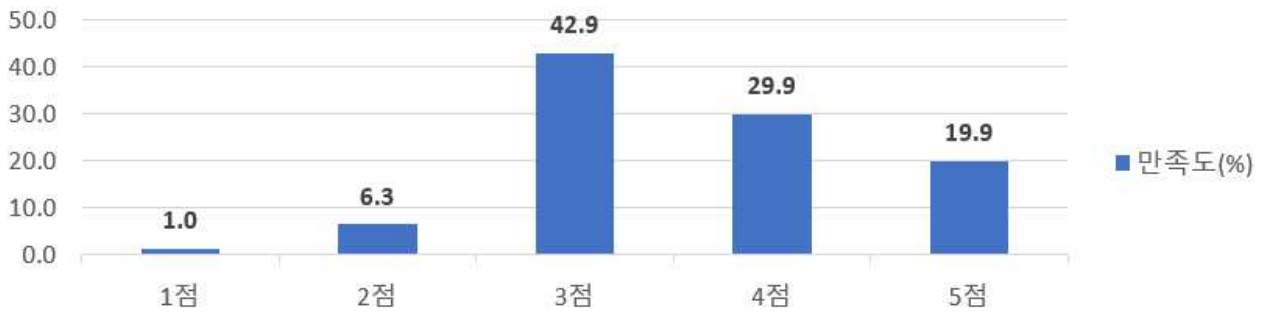
[그림 4-47] 군산시 교육환경 만족도 점수(학부모)

○ 군산시민(학부모)이 생각하는 군산시의 주거환경 만족도 점수는 5점 만점 중 약 3.56점임



[그림 4-48] 군산시 주거환경 만족도 점수(학부모)

○ 군산시민(학부모)이 생각하는 군산시의 근로환경 만족도 점수는 5점 만점 중 약 3.61점임



[그림 4-49] 군산시 근로환경 만족도 점수(학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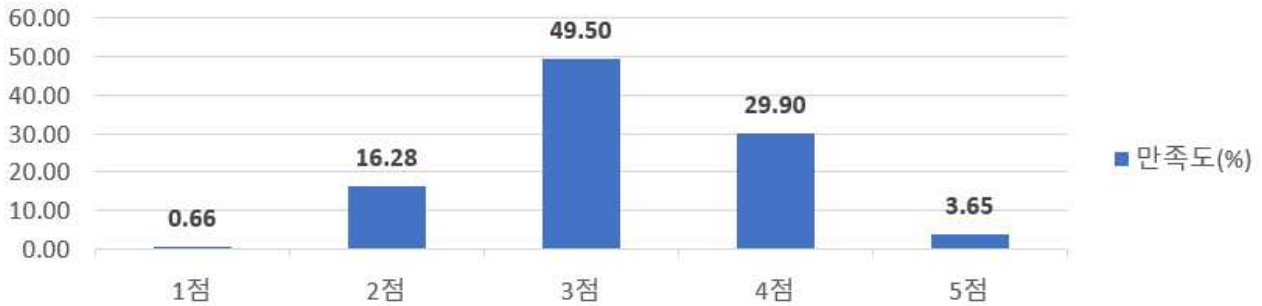
○ 군산시민(학부모)이 생각하는 군산시 인구 유입을 위해 개선되어야 하는 정주여건 분야는 교육환경 19.60%, 주거환경 12.96%, 의료기관 10.96%로 조사됨



[그림 4-50] 군산시 인구 유입을 위해 개선되어야 하는 정주여건(학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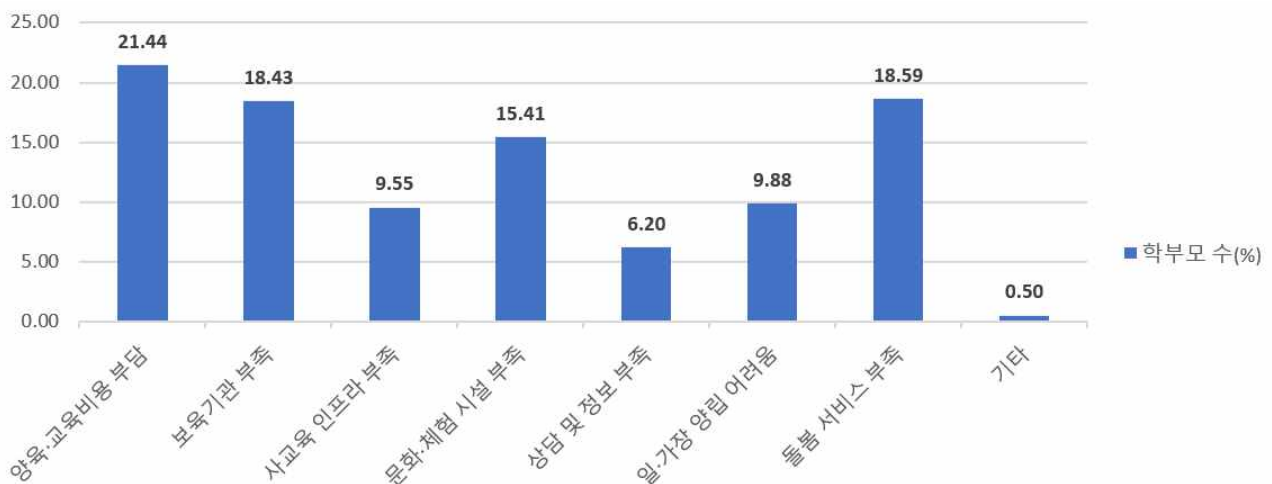
■ 학부모 및 자녀 양육(고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 군산시민(학부모)이 생각하는 자녀 양육에 대한 군산시 만족도는 5점 만점 중 약 3.19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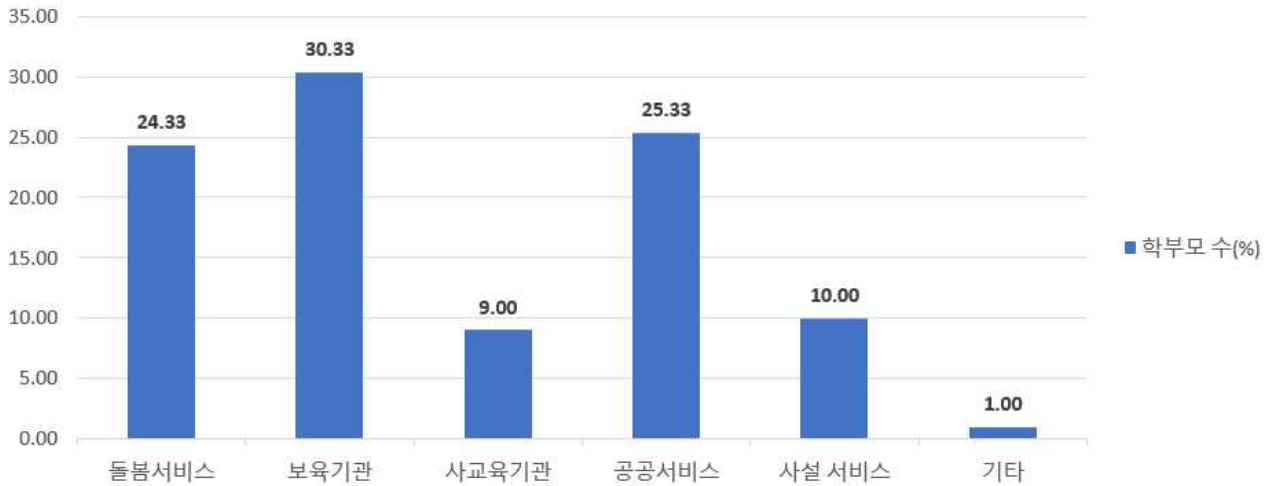
[그림 4-51] 자녀 양육에 대한 군산시 만족도 점수(학부모)

○ 군산시민(학부모)이 자녀 양육 시 힘든 점으로 양육·교육비용 부담 21.44%, 돌봄서비스 부족 18.59%, 보육기관 부족 18.43%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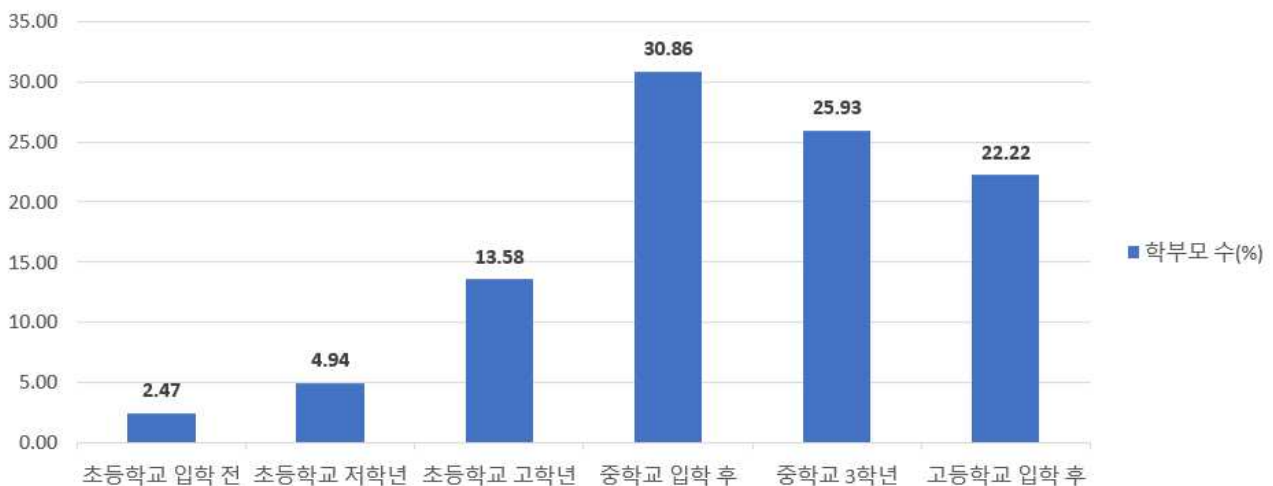
[그림 4-52] 자녀 양육시 힘든 점(학부모)

- 군산시민(학부모)이 미취학 자녀 양육을 위한 필요 서비스는 보육기관 30.33%, 공공서비스 25.33%, 돌봄서비스 24.33%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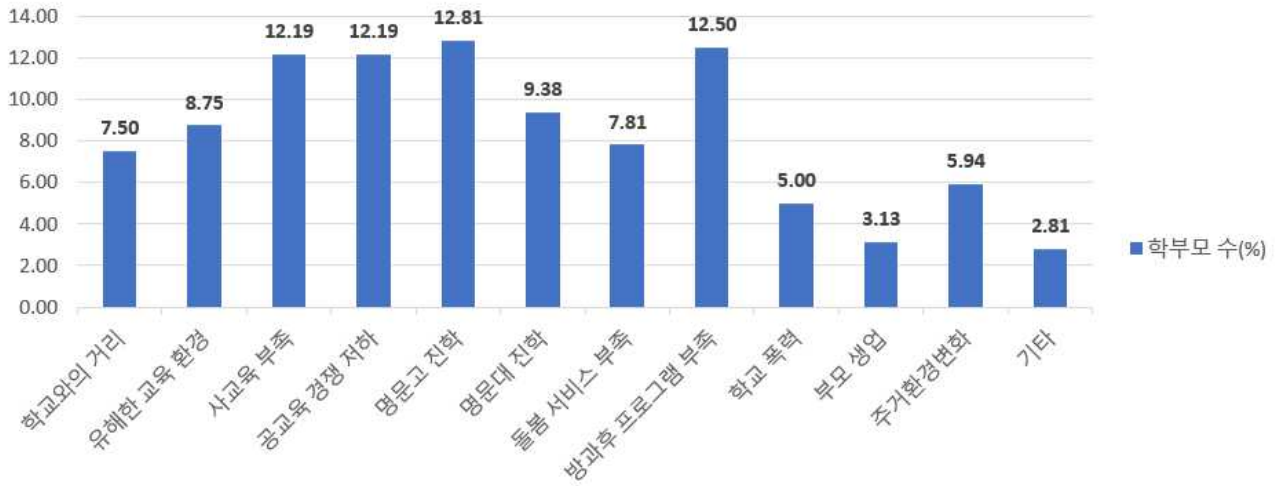
[그림 4-53] 미취학 자녀 양육을 위한 필요 서비스(학부모)

- 군산시민(학부모)이 자녀 입학(진학) 시기에 맞춰 타지역으로 이주할 의향은 군산시민(학부모) 중 약 26.26%이며, 타지역으로 이주 의향 시기는 중학교 입학 이후 30.86%, 중학교 3학년 25.93%, 고등학교 입학 이후 22.22%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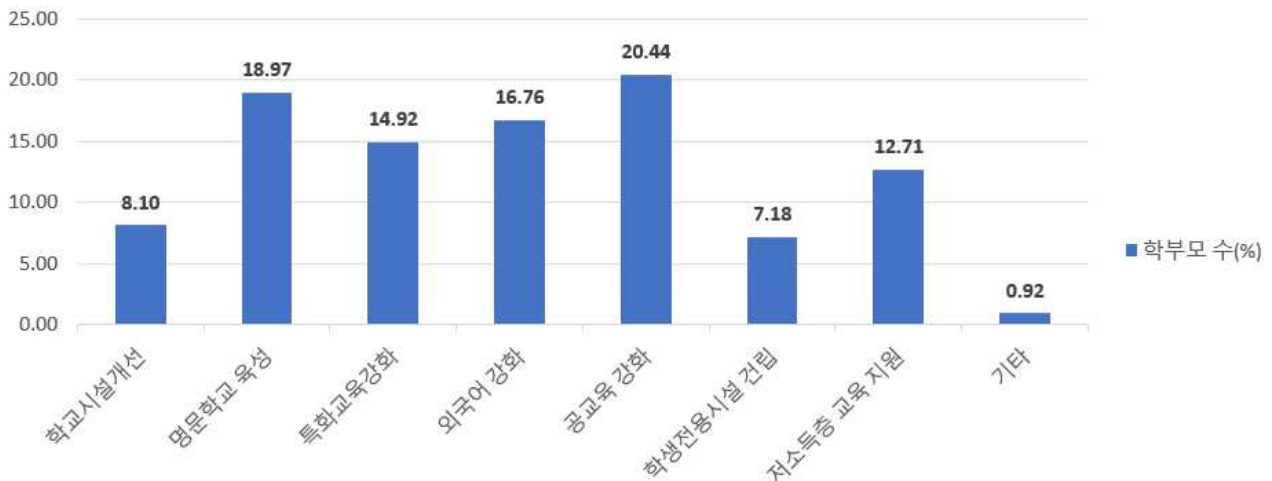
[그림 4-54] 타지역으로 이주 의향 시기(학부모)

○ 군산시민(학부모)이 자녀 문제로 인한 이주의 주요 이유는 명문고 진학 12.81%, 방과후 프로그램 부족 12.50%, 사교육 부족 / 공교육 경쟁 저하 12.19%로 조사됨



[그림 4-55] 자녀 문제로 인한 이주의 주요 이유(학부모)

○ 군산시민(학부모)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공교육 강화 20.44%, 명문학교 육성 18.97%, 외국어 강화 16.76%로 조사됨



[그림 4-56]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부분(학부모)

4.3 중·장년 인식조사

■ 응답자 일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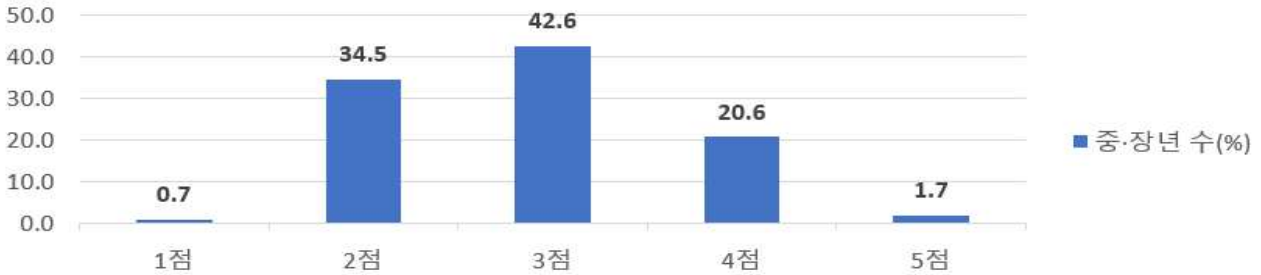
- 군산시민(중·장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인구정책 관련 인식조사의 범위는 만 48세~63세로 300명(남자 163명, 여자 1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함

[표 4-7] 군산시민(중·장년) 응답자 일반사항

문항 구분	인식조사 세부 내용
성별	총 300명[남자 163명(53.33%), 여자 137명(45.67%)]
연령	40대(12.33%) / 50대(50.33%) / 60대(37.33%)
거주지역	경암동 / 구암동 / 나운1동 / 나운2동 / 나운3동 / 미성동 / 삼학동 / 소룡동 / 수송동 / 신평동 / 월명동 / 조촌동 / 중앙동 / 흥남동
가구의 연간 소득	① 1,000만원(0.66%) ② 1,000~2,000만원 미만(0.66%) ③ 2,000~3,000만원 미만(5.66%) ④ 3,000~4,000만원 미만(13.66%) ⑤ 4,000~5,000만원 미만(32.33%) ⑥ 5,000만원 이상(47.00%)
최종학력	① 초등학교졸업(0%) ② 중학교졸업(1.67%) ③ 고등학교졸업(32.88%) ④ 2년제 대학졸업(22.14%) ⑤ 4년제 대학교 졸업(42.28%) ⑥ 석사졸업(1.00%) ⑦ 박사졸업 0명(0%)
혼인상태	① 미혼(4.74%) ② 기혼(95.25%) ③ 혼인 예정(0%)
가구원 수	① 1명(3.08%) ② 2명(15.75%) ③ 3명(30.47%) ④ 4명(39.04%) ⑤ 5명 이상(11.64%)
직업	① 사무/기술직(13%) ② 기능/작업직(4.33%) ③ 자유/전문직(8.33%) ④ 자영업(20.66%) ⑤ 경영/관리직(9.66%) ⑥ 판매/영업서비스직(8.00%) ⑦ 농/임/축산업(2.33%) ⑧ 전업주부(26.00%) ⑨ 학생(0%) ⑩ 무직(7.66%)
직장 형태	① 일반회사(법인, 개인)(47.72%) ② 정부투자/출연기관(1.36%) ③ 국공립 및 사립학교(0.90%) ④ 정부기관(공무원/군인 포함)(2.27%) ⑤ 기타 105명(가게 1명, 장사 1명, 주부 1명, 기타 102명)(47.72%)
장애 여부	① 장애 없음(99.67%) ②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0명 ③ 장애정도가 경미한 장애인(0.33%) ④ 비등록 장애인 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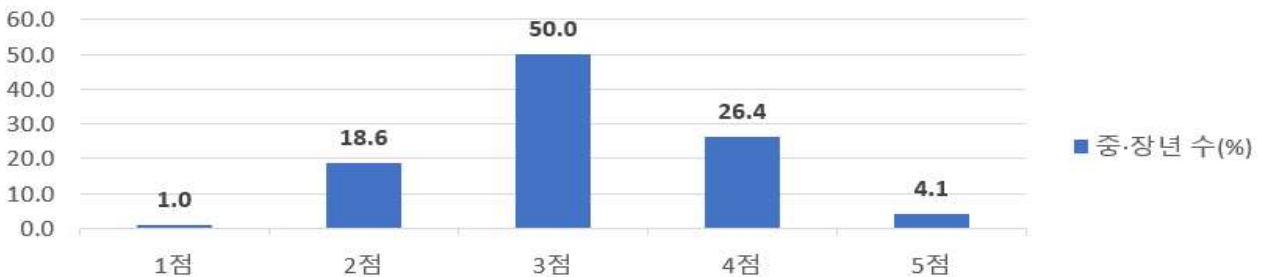
■ 군산시 인구 전망

- 향후 5년 동안 군산시 인구 증가 가능성은 5점에 가까워질수록 매우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군산시민(중·장년)이 생각하는 점수는 5점 만점 중 약 2.88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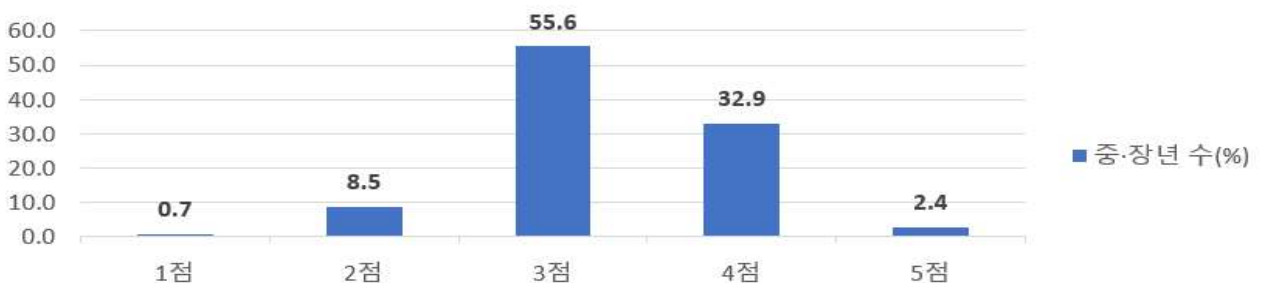
[그림 4-57] 향후 5년 동안 군산시 인구 증가 가능성(중·장년)

- 군산시 인구 증가 희망은 5점에 가까워질수록 매우 그렇다는 것을 의미하며, 군산시민(중·장년)이 생각하는 점수는 5점 만점 중 약 3.13점임



[그림 4-58] 군산시 인구 증가 희망 점수(중·장년)

- 향후 5년 동안 군산시의 삶의 질 예상은 5점에 가까워질수록 매우 좋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군산시민(중·장년)이 생각하는 점수는 5점 만점 중 약 3.27점임



[그림 4-59] 향후 5년 동안 군산시의 삶의 질 예상 점수(중·장년)

■ 군산시 전입 및 전출

○ 군산시에 전입한 청년들의 거주기간은 1년 이하 6.00%, 1~2년 17.00%, 2~3년 14.00%, 3~4년 3.33%, 4년~5년 37.3%, 5년 이상은 22.3%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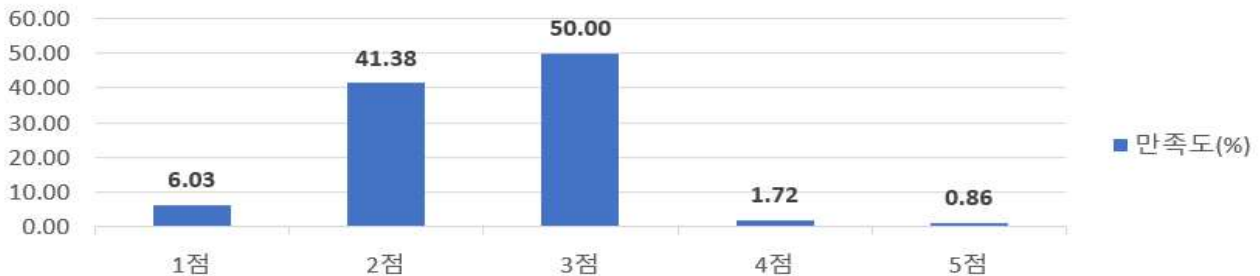
- 군산시 전입 사유는 일자리 37.82%, 양육 및 보육환경 23.83%, 거주환경 12.43%로 조사됨

[표 4-8] 군산시 전입 및 전출 응답 사항(중·장년)

문항 구분	인식조사 세부 내용
군산시 거주기간	1년 이하(6.00%) 1년~2년(17.00%) 2년~3년(14.00%) 3년~4년(3.33%) 4년~5년(37.3%) 5년 이상(22.3%)
군산시 전입 사유 (중복 응답 가능)	① 일자리(37.82%) ② 양육 및 보육환경(23.83%) ③ 교육 환경(1.55%) ④ 주거환경(6.73%) ⑤ 거주환경(12.43%) ⑥ 문화·체육·여가 인프라(1.03%) ⑦ 의료·복지 환경(1.55%) ⑧ 교통 환경(0.51%) ⑨ 사업환경(9.32%) ⑩ 기타(2.59%) 결혼(0.51%) 고향(0.51%) 부모님 모시러(0.51%) 기타(1.03%)
향후 전출 여부 (2년 이내)	① 있다(2.34%) ② 없다(93.64%) ③ 모르겠다(4.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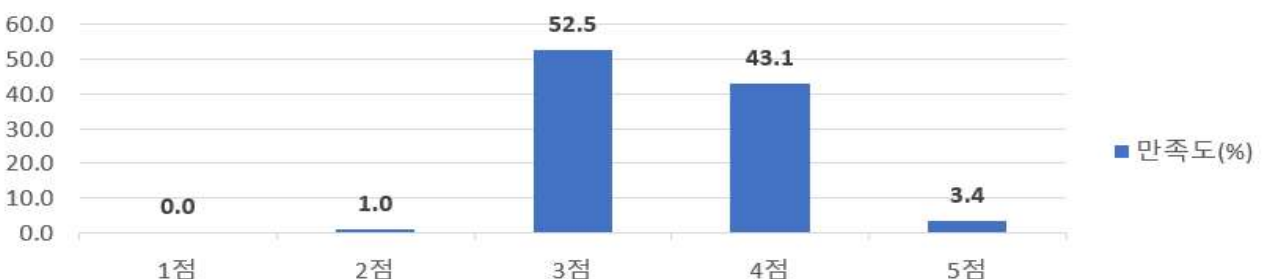
■ 주거 및 정주여건

○ 군산시민(중·장년)이 생각하는 이전 거주지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 중 약 2.50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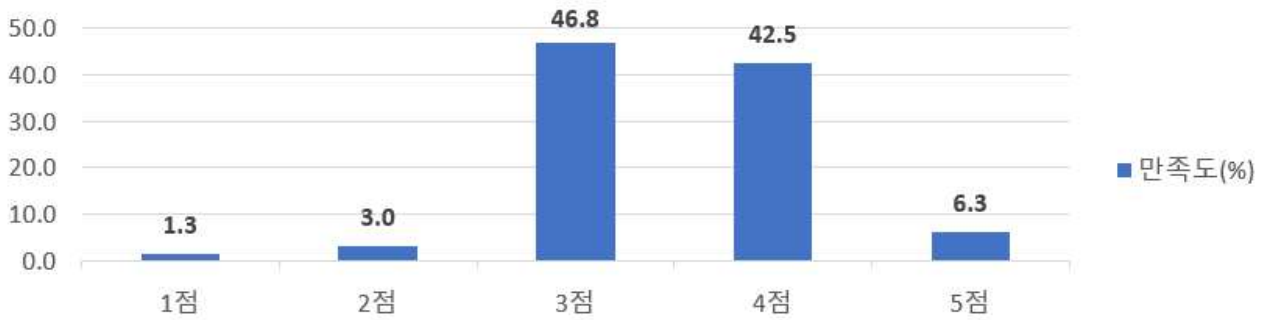
[그림 4-60] 이전 거주지에 대한 만족도 점수(중·장년)

○ 군산시민(중·장년)이 생각하는 군산시 거주 만족도 점수는 5점 만점 중 약 3.48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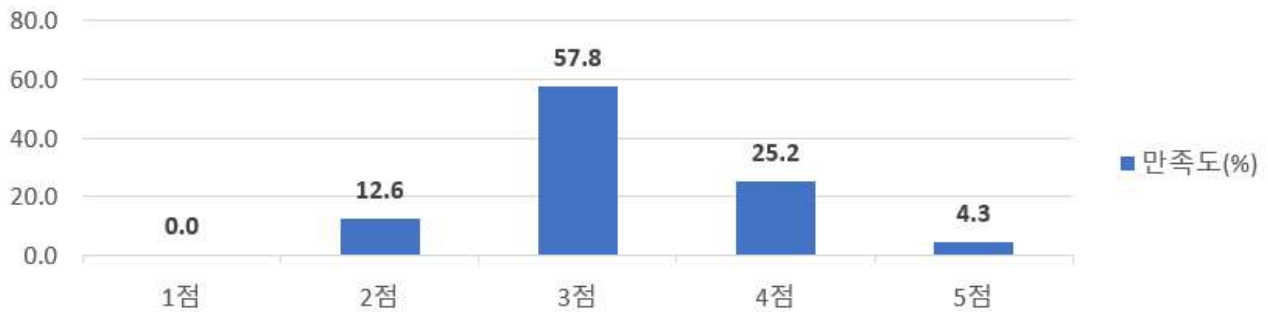
[그림 4-61] 군산시 거주 만족도 점수(중·장년)

○ 군산시민(중·장년)이 생각하는 군산시의 공공기관 만족도 점수는 5점 만점 중 약 3.49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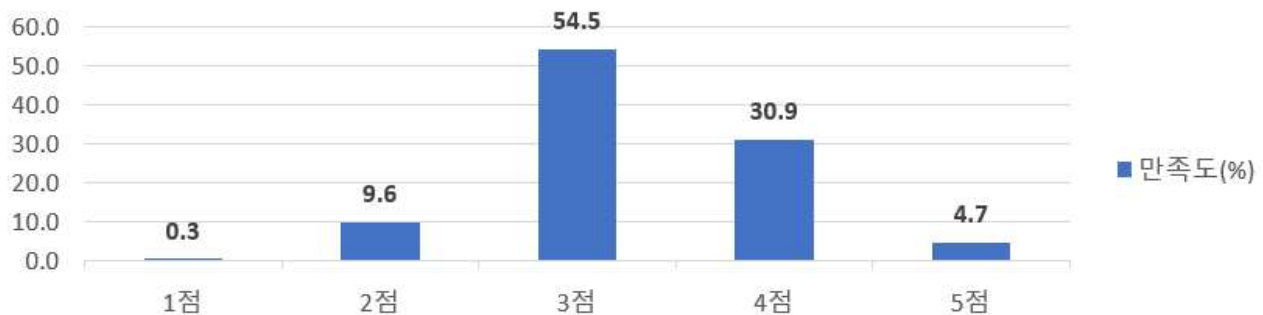
[그림 4-62] 군산시 공공기관 만족도 점수(중·장년)

○ 군산시민(중·장년)이 생각하는 군산시의 의료기관 만족도 점수는 5점 만점 중 약 3.21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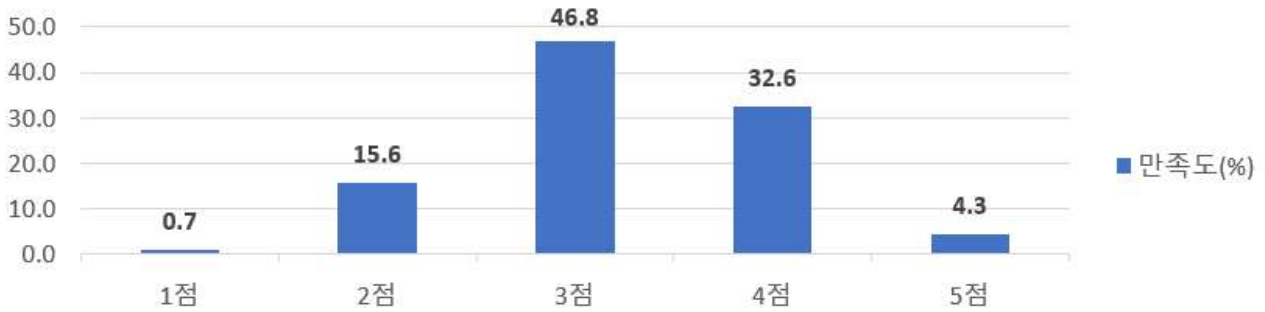
[그림 4-63] 군산시 의료기관 만족도 점수(중·장년)

○ 군산시민(중·장년)이 생각하는 군산시의 소비시설 만족도 점수는 5점 만점 중 약 3.29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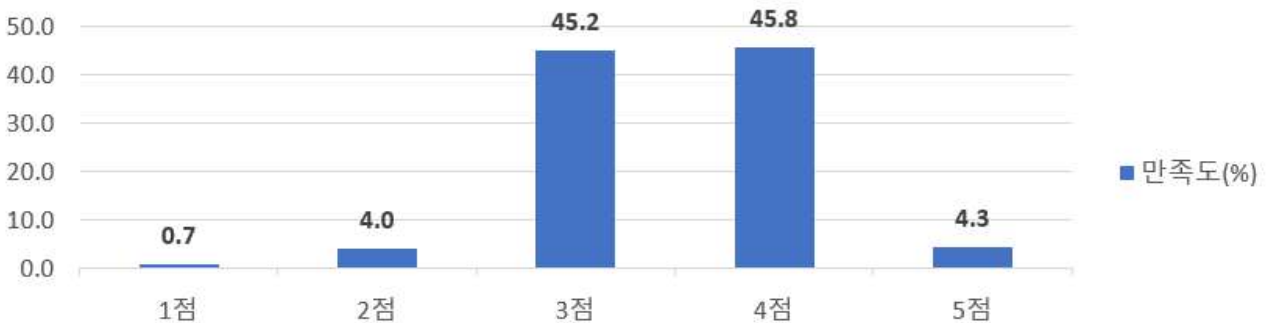
[그림 4-64] 군산시 소비시설 만족도 점수(중·장년)

○ 군산시민(중·장년)이 생각하는 군산시의 문화시설 만족도 점수는 5점 만점 중 약 3.24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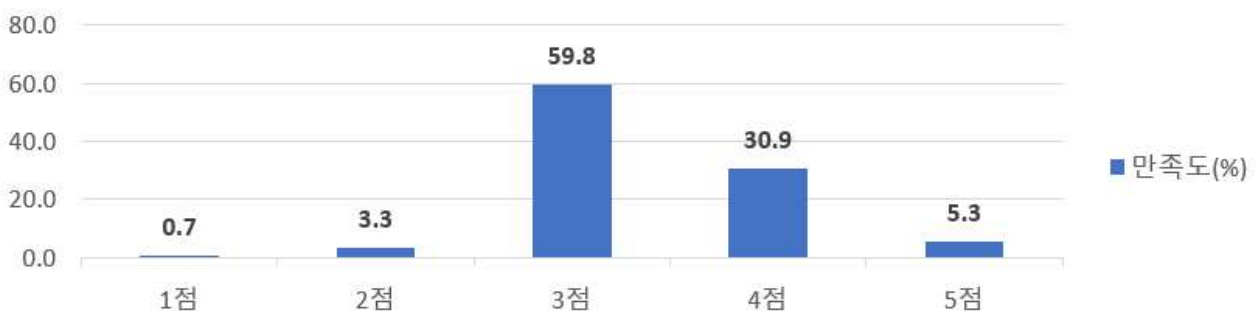
[그림 4-65] 군산시 문화시설 만족도 점수(중·장년)

○ 군산시민(중·장년)이 생각하는 군산시의 근린편의시설 만족도 점수는 5점 만점 중 약 3.49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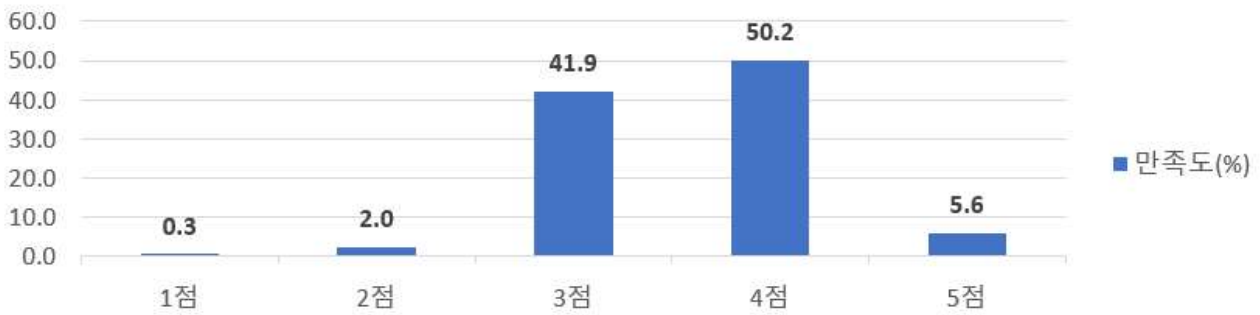
[그림 4-66] 군산시 근린편의시설 만족도 점수(중·장년)

○ 군산시민(중·장년)이 생각하는 군산시의 기타시설 만족도 점수는 5점 만점 중 약 3.36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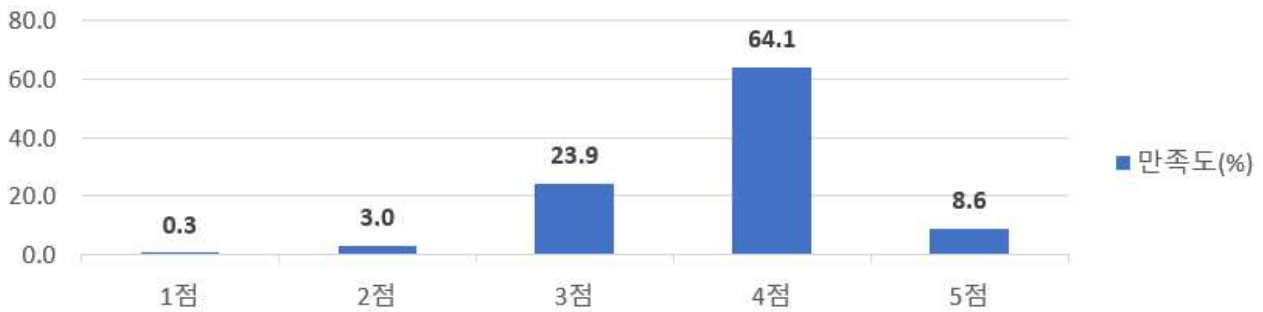
[그림 4-67] 군산시 기타시설 만족도 점수(중·장년)

○ 군산시민(중·장년)이 생각하는 군산시의 안전환경 만족도 점수는 5점 만점 중 약 3.58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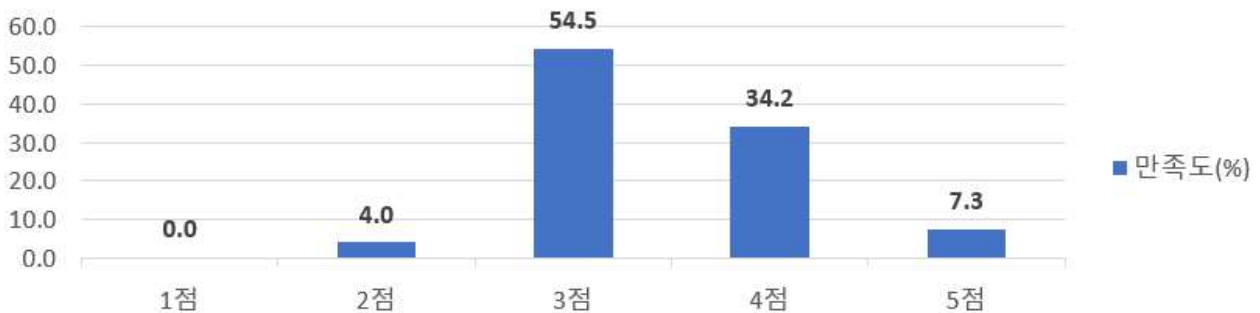
[그림 4-68] 군산시 안전환경 만족도 점수(중·장년)

○ 군산시민(중·장년)이 생각하는 군산시의 자연환경 만족도 점수는 5점 만점 중 약 3.77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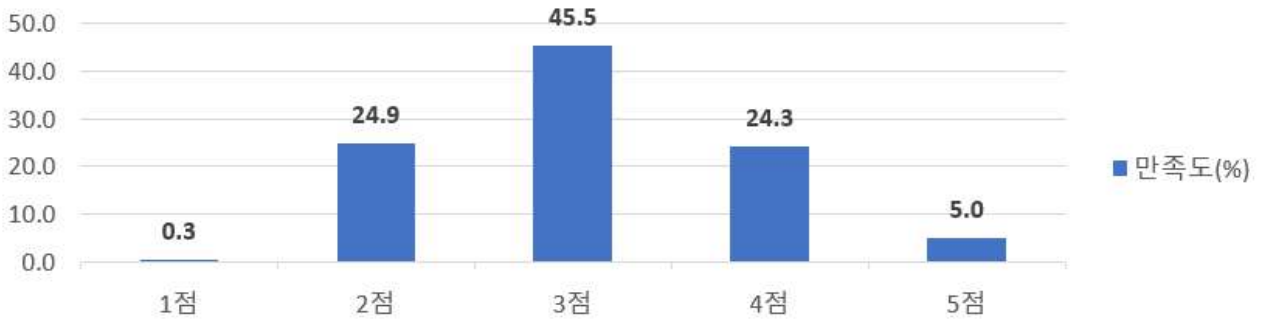
[그림 4-69] 군산시 자연환경 만족도 점수(중·장년)

○ 군산시민(중·장년)이 생각하는 군산시의 교통환경 만족도 점수는 5점 만점 중 약 3.44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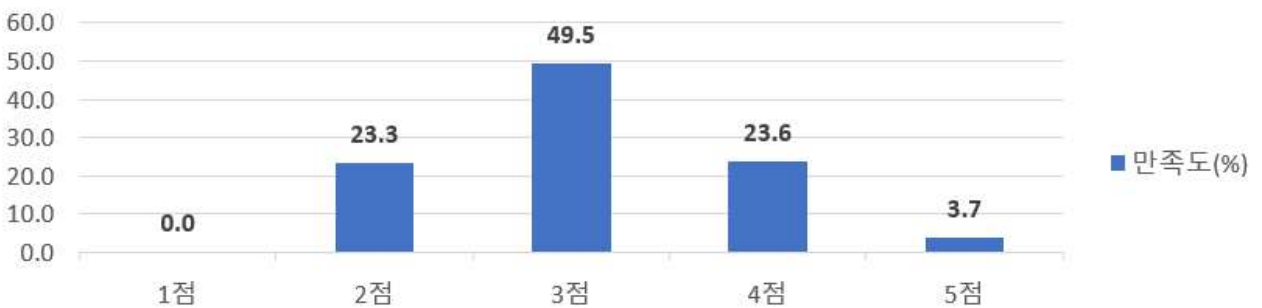
[그림 4-70] 군산시 교통환경 만족도 점수(중·장년)

○ 군산시민(중·장년)이 생각하는 군산시의 보육환경 만족도 점수는 5점 만점 중 약 3.08점임



[그림 4-71] 군산시 보육환경 만족도 점수(중·장년)

○ 군산시민(중·장년)이 생각하는 군산시의 교육환경 만족도 점수는 5점 만점 중 약 3.07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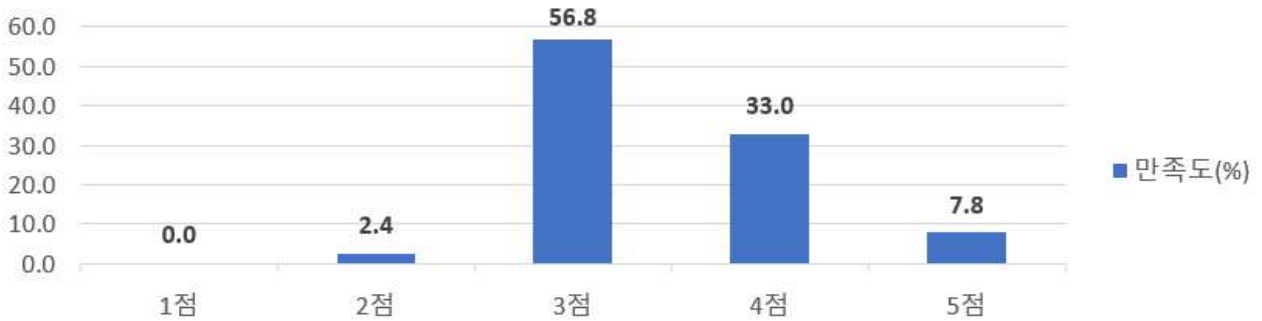
[그림 4-72] 군산시 교육환경 만족도 점수(중·장년)

○ 군산시민(중·장년)이 생각하는 군산시의 주거환경 만족도 점수는 5점 만점 중 약 3.46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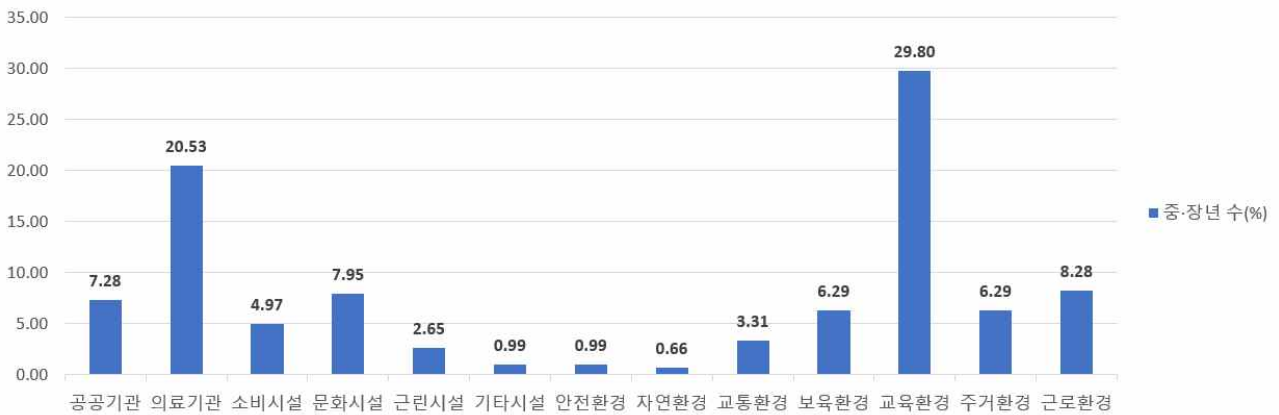
[그림 4-73] 군산시 주거환경 만족도 점수(중·장년)

○ 군산시민(중·장년)이 생각하는 군산시의 근로환경 만족도 점수는 5점 만점 중 약 3.46점임



[그림 4-74] 군산시 근로환경 만족도 점수(중·장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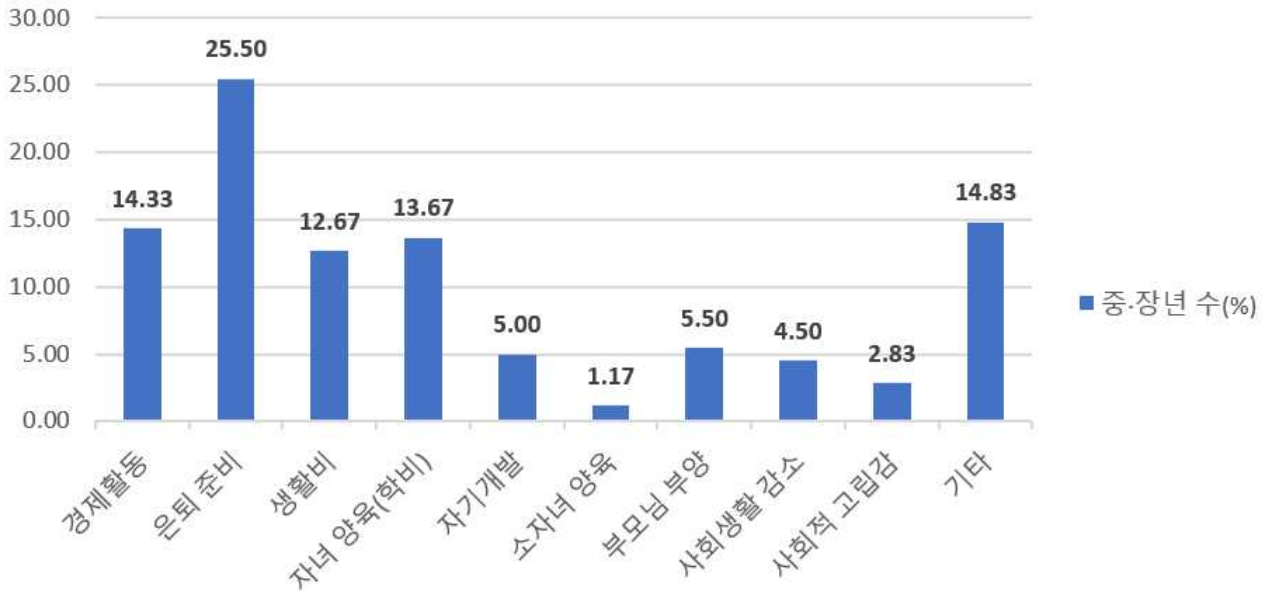
○ 군산시민(중·장년)이 생각하는 군산시 인구 유입을 위해 개선되어야 하는 정주여건 분야는 교육환경 29.80%, 의료기관 20.53%, 근로환경 8.28%로 조사됨



[그림 4-75] 군산시 인구 유입을 위해 개선되어야 하는 정주여건(중·장년)

■ 중·장년(만48세~63세)

- 군산시민(중·장년)이 현재 생활에 있어 가장 큰 걱정거리는 은퇴 준비 25.50%, 기타 14.83%, 경제활동 14.33%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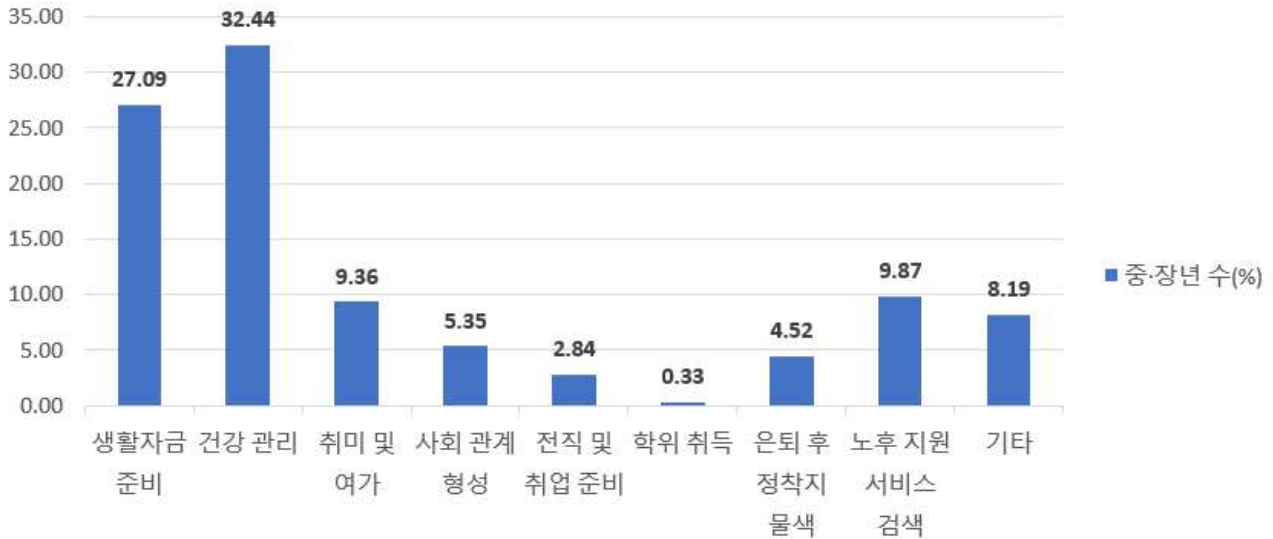
[그림 4-76] 현재 생활에 있어 가장 큰 걱정거리(중·장년)

- 군산시민(중·장년)이 은퇴 이후 삶에 대한 준비는 보통 37.21%, 어느 정도 준비함 35.22%, 별로 준비 안함 23.26%로 조사됨



[그림 4-77] 은퇴 이후 삶에 대한 준비(중·장년)

○ 군산시민(중·장년)이 은퇴 이후를 위해 하고 있는 준비는 건강 관리 32.44%, 생활자금 준비 27.09%, 노후 지원 서비스 검색 9.87%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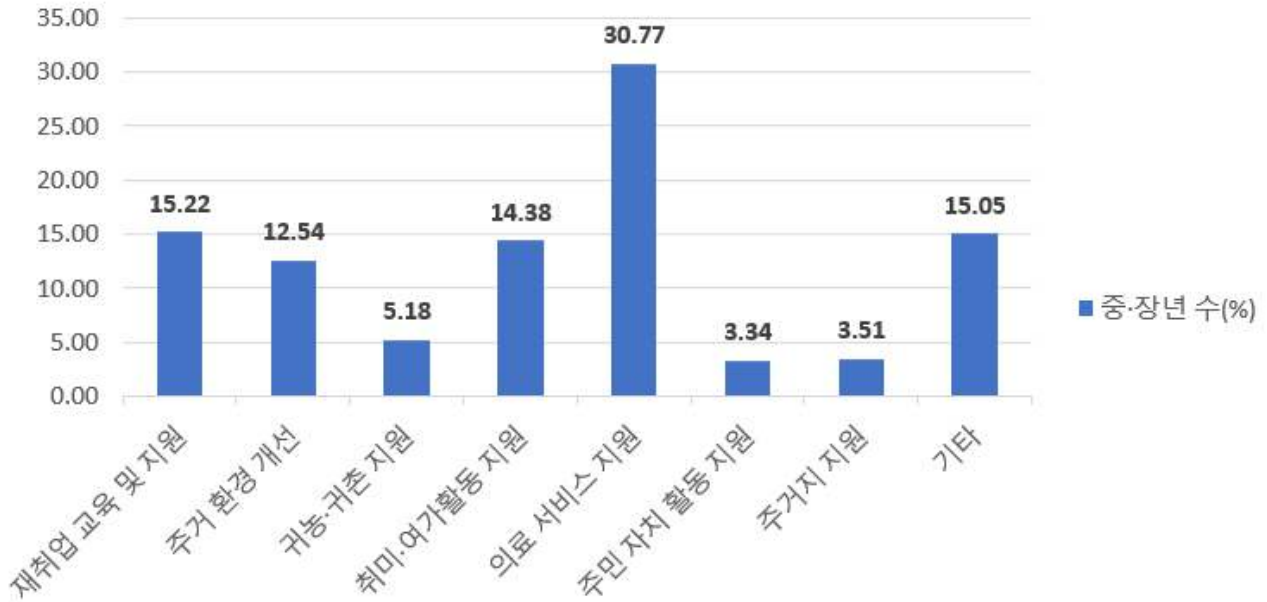
[그림 4-78] 은퇴 이후를 위해 하고 있는 준비(중·장년)

○ 군산시민(중·장년)이 은퇴 이후 정착지로 군산시에 대한 생각은 보통 56.33%, 긍정적 33.00%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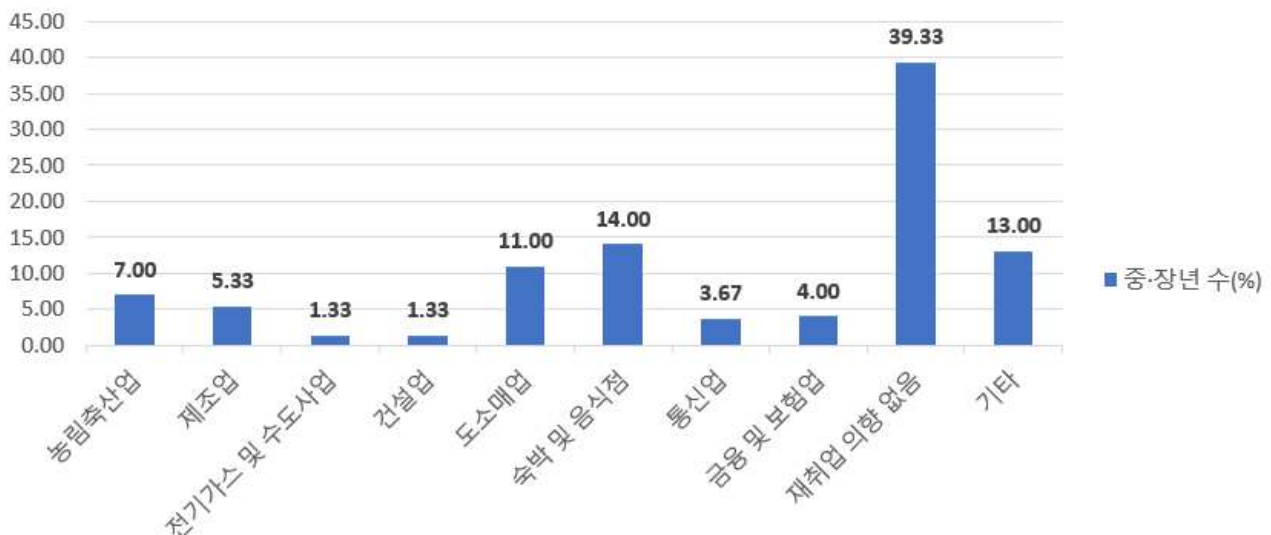
[그림 4-79] 은퇴 이후 정착지로 군산시에 대한 생각(중·장년)

- 군산시민(중·장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중·장년층 및 은퇴자를 위한 군산시 정책은 의료 서비스 지원 30.77%, 재취업 교육 및 지원 15.22%, 기타 15.05%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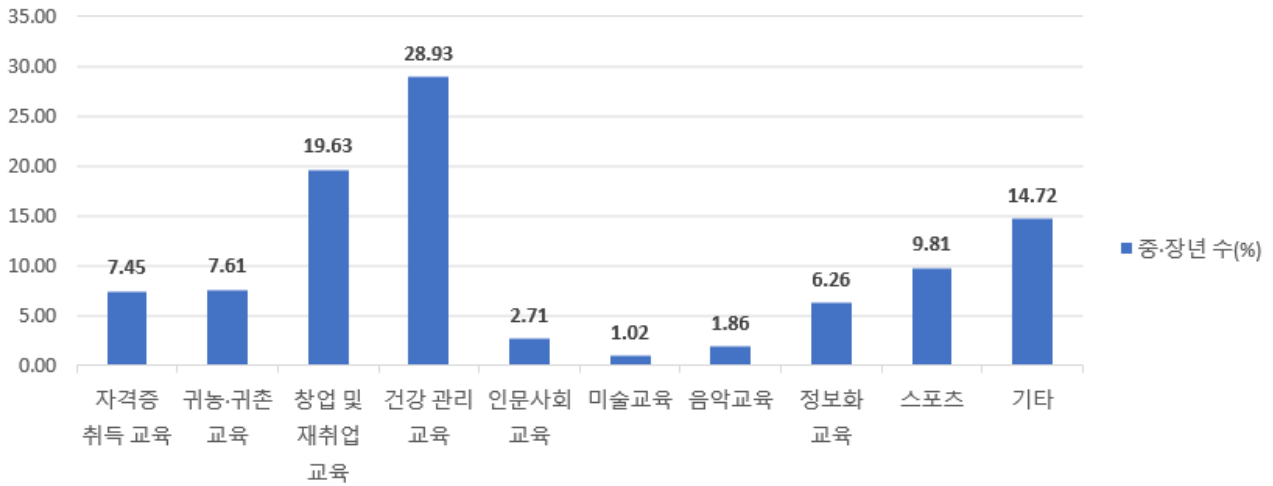
[그림 4-80] 중·장년층 및 은퇴자를 위한 군산시 정책(중·장년)

- 군산시민(중·장년)이 은퇴 이후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선호하는 산업 분야는 재취업 의향 없음 39.33%, 숙박 및 음식점 14.00%, 기타 13.00%, 도소매업 11.00%로 조사됨



[그림 4-81] 은퇴 이후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선호하는 산업 분야(중·장년)

- 군산시민(중·장년)이 군산시에서 중·장년층 대상 평생교육을 진행할 경우 희망하는 교육은 건강 관리 교육 28.93%, 창업 및 재취업 교육 19.63%, 기타 14.72%로 조사됨



[그림 4-82] 군산시에서 중·장년층 대상 평생교육을 진행할 경우 희망하는 교육(중·장년)

☑ 군산시민 인식조사 시사점

- 군산시민이 생각하는 인구전망은 5점 만점 중에 약 2.91점이며, 이는 3점(보통)보다 낮아 인구 증가에 대한 기대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청년(이전 거주지 3.43점, 군산시 3.45점), 학부모(이전 거주지 3.71점, 군산시 3.62점), 중·장년(이전 거주지 2.5점, 군산시 3.48점)으로 유일하게 학부모만이 이전 거주지보다 군산시에 대한 만족도 점수가 낮음
 - 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군산시의 거주 만족도를 상승시켜야 하며, 인구관련 정책을 개선함으로써 군산시민의 인구 전망을 상승시킬 필요가 있음
- 군산시민은 교육환경, 의료기관, 주거환경 관련 정책 개선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
 - 청년은 교육환경 14.92%, 주거환경 12.29%, 근로환경 10.63% / 학부모는 교육환경 19.60%, 주거환경 12.96%, 의료기관 10.96% / 중·장년은 교육환경 29.80%, 의료기관 20.53%, 근로환경 8.28%로 조사됨
 - 모든 연령층은 정책 개선 1위로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해당 부분 의견을 적극 반영한 인구정책 수립 필요
- 청년은 일자리, 주택 공급 정책 관련 정책 개선을 요구함
 - 기업 부족 및 낮은 급여로 인해 주택 공급과 낮은 출산이 지속됨에 있음에 따라 기업 유치 및 주택 공급 관련 정책 개선 필요
- 학부모는 보육 및 양육, 자녀의 교육 관련 정책 개선을 요구함
 - 특히, 인식조사에 따라 명문학교 육성 및 공교육 강화에 대한 정책 개선 필요
- 중·장년은 은퇴자를 위한 재취업 교육과 의료 서비스 관련 정책 개선을 요구함
 - 재취업의 의사가 있는 은퇴자들을 위한 교육 정책과 여가활동 및 의료서비스 지원 정책 개선 필요
- 인구정책은 군산시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기회 창출(경제·교육분야)이 병행되어야 하며, 맞춤형 유입 전략을 요구함. 군산시민이 생각하는 정주 매력도 제고를 위해 인프라 질적향상과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전략 수립 필요

제2절 군산시 공무원 인구정책 인식조사

1) 조사 배경 및 목적

- 군산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인구정책에 관련한 부서 실무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수렴하고 종합하여 군산시에 부합하는 추진전략의 방향을 설정하고자 함
- 또한 군산시에서 추진하는 인구정책과 관련한 시행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연구 시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조사 설계 및 구성 문항

- 군산시 공무원의 인식조사는 인구정책 관련 중요도와 부문별 세부 분야 정책 중요도 조사를 실시함
 - 군산시 공무원에게는 결혼·임신·출산, 보육·돌봄·교육, 청년, 중·장년, 노년, 기타 등에서 추진하는 인구정책 관련 중요도를 조사함

[표 4-9] 군산시 공무원 인식조사 설계

구분	세부 설계 내용
조사 대상	• 군산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조사 방법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조사
조사 도구	• 반구조화된 표준설문지
조사 시점	• '25년 7월 1일~7월 31일 (약 1개월 진행)
조사 수	• 389명

[표 4-10] 군산시 인구정책 인식조사 세부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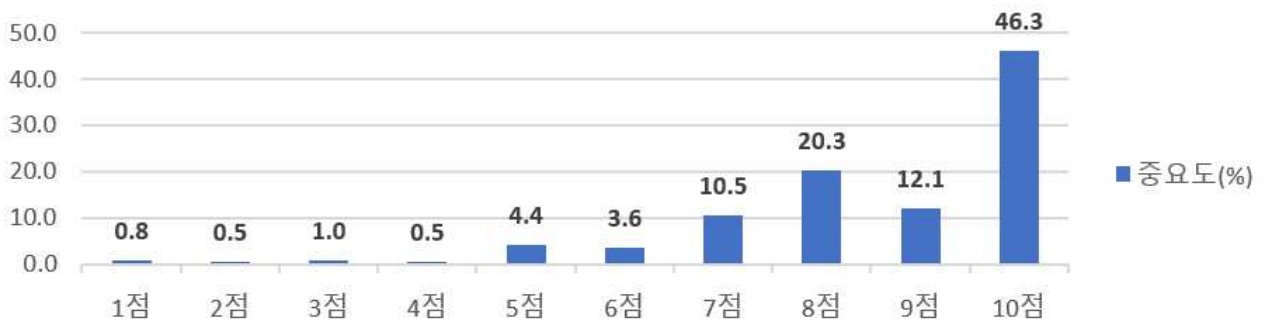
구분	인식조사 세부 내용
기본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소속 • 과거소속 • 근무연수
인구정책 관련 부문별 중요도 수요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임신·출산 • 보육·돌봄·교육 • 청년 • 중·장년 • 노년
부문별 세부 분야 정책 중요도 수요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임신·출산 결혼 지원 / 임대주택 지원 / 주택 마련 지원 / 출산 지원금 / 신혼부부 전입장려 육아용품 지원 / 건강검진·난임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 산후조리 지원 / 경력단절 예방 • 보육·돌봄·교육 긴급돌봄 강화 / 공공 돌봄시설 확대 / 육아 공동체 / 저소득층 지원 / 다자녀 가구 지원 / 아동 수당 지원 / 맞벌이 부부 지원 / 어린이 놀이시설 확충 / 아동·청소년 건강지원 / 공교육 지원강화 / 지역인재 육성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청년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 청년 일자리 확대 / 청년 취업 교육 강화 / 주거 지원 / 청년 수당 / 청년 활동가 육성 / 문화·예술 분야 지원 / 청년 창업 지원 / 맞춤형 교육 서비스 / 취미·여가 인프라 구축 / 근무여건 개선 / 귀농·귀촌 지원 • 중·장년 신중년 지원센터 / 사회적 경제 연계 / 창업 지원 / 중장년 여가활동 인프라 / 사회 공헌 활동 지원 / 평생교육 운영 / 귀농·귀촌 지원 / 은퇴자 네트워크 지원 • 노년 건강 관리 지원 / 공공일자리 확대 / 평생교육 운영 / 여가·취미활동 지원 / 저소득층 지원 / 노인시설 확대 • 기타(거버넌스, 정주여건, 생활인구 등) 인구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 정주 여건 개선 / 생활인구 확대 / 이민자 지원 / 다문화 가정 지원 / 다양한 가족제도 인정

3) 인식조사 결과

■ 인구정책 관련 부문별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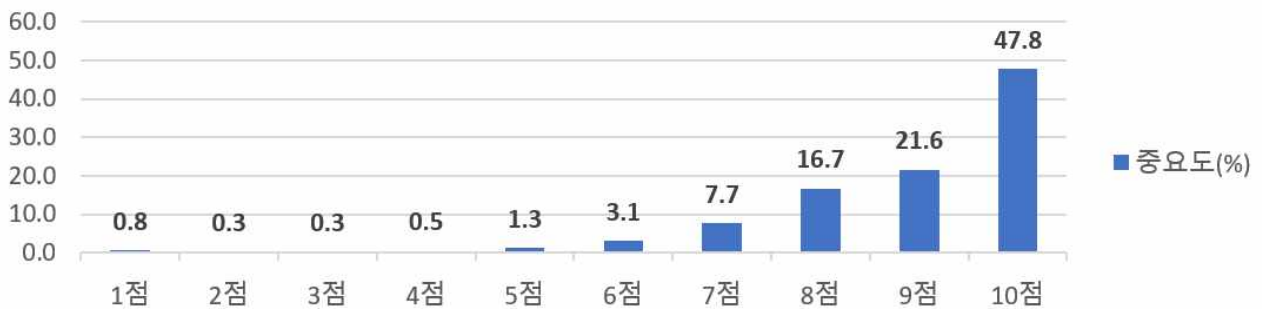
○ 군산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인구정책 관련 중요도 조사는 10점에 가까워질수록 중요한 것을 의미함

○ 군산시 공무원이 생각하는 결혼·임신·출산 관련 정책 중요도는 10점 만점 중 약 8.58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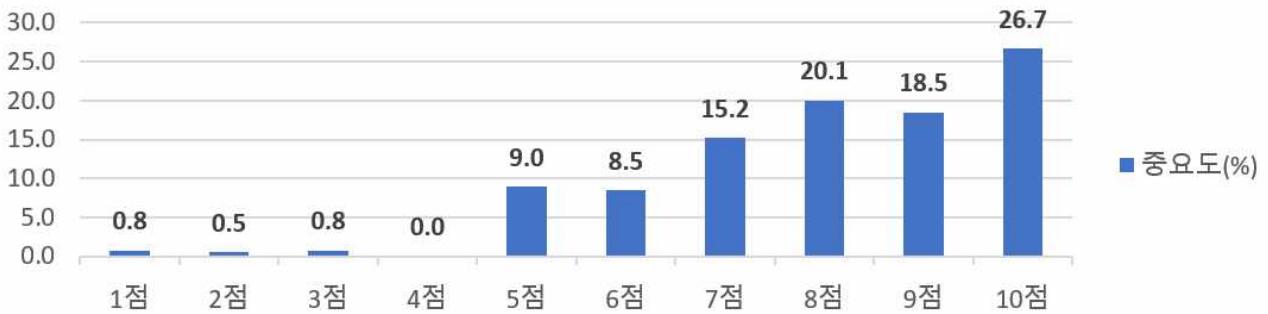
[그림 4-83] 결혼·임신·출산 관련 정책 중요도(공무원)

○ 군산시 공무원이 생각하는 보육·돌봄·교육 관련 정책 중요도는 10점 만점 중 약 8.89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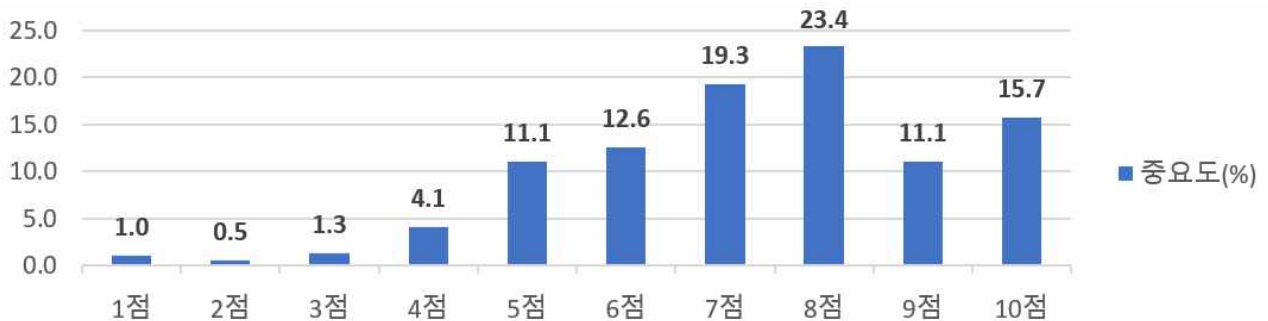
[그림 4-84] 보육·돌봄·교육 관련 정책 중요도(공무원)

○ 군산시 공무원이 생각하는 청년 관련 정책 중요도는 10점 만점 중 약 8.00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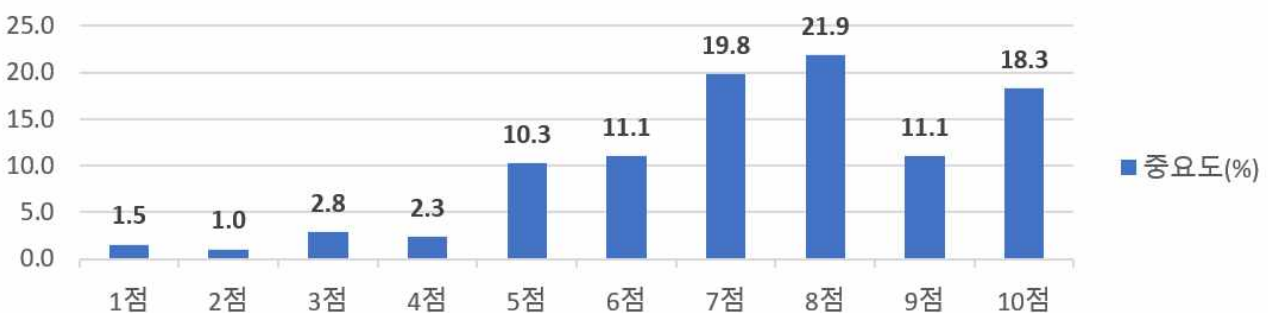
[그림 4-85] 청년 관련 정책 중요도(공무원)

○ 군산시 공무원이 생각하는 중·장년 관련 정책 중요도는 10점 만점 중 약 7.31점임



[그림 4-86] 중·장년 관련 정책 중요도(공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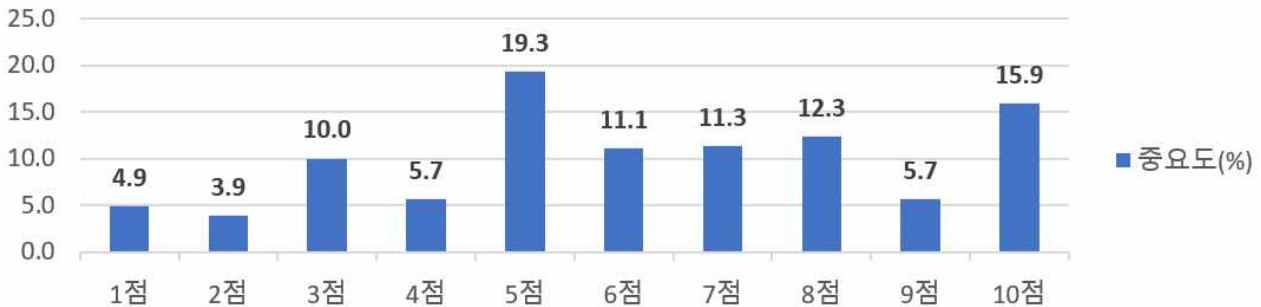
○ 군산시 공무원이 생각하는 노년 관련 정책 중요도는 10점 만점 중 약 7.34점임



[그림 4-87] 노년 관련 정책 중요도(공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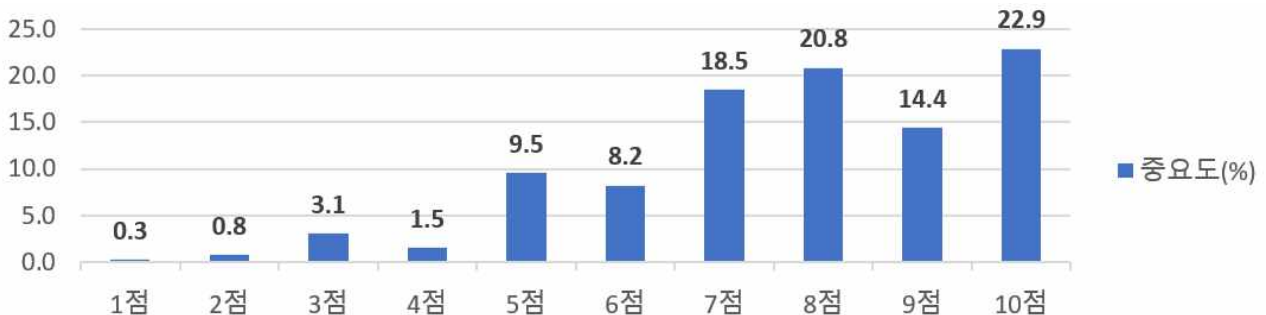
■ 결혼·임신·출산 관련 정책 중요도

○ 군산시 공무원이 생각하는 결혼 지원(작은 결혼식 등) 관련 정책 중요도는 10점 만점 중 약 6.16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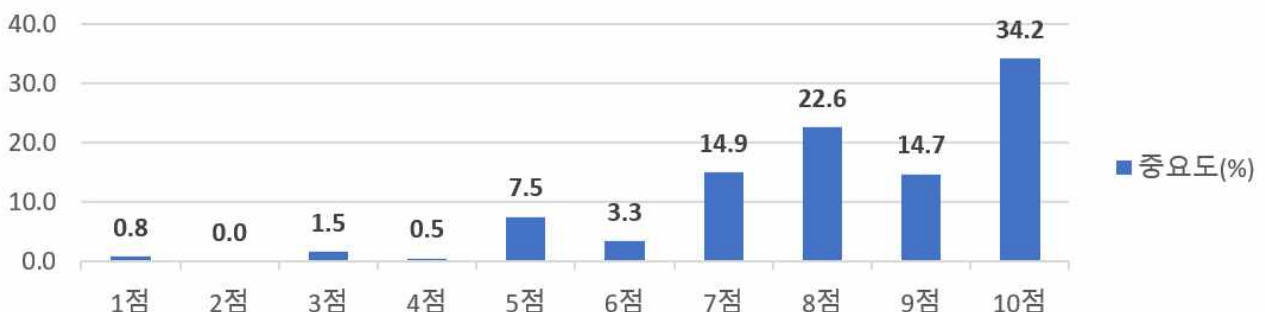
[그림 4-88] 결혼 지원(작은 결혼식 등) 관련 정책 중요도(공무원)

○ 군산시 공무원이 생각하는 임대주택 지원 관련 정책 중요도는 10점 만점 중 약 7.68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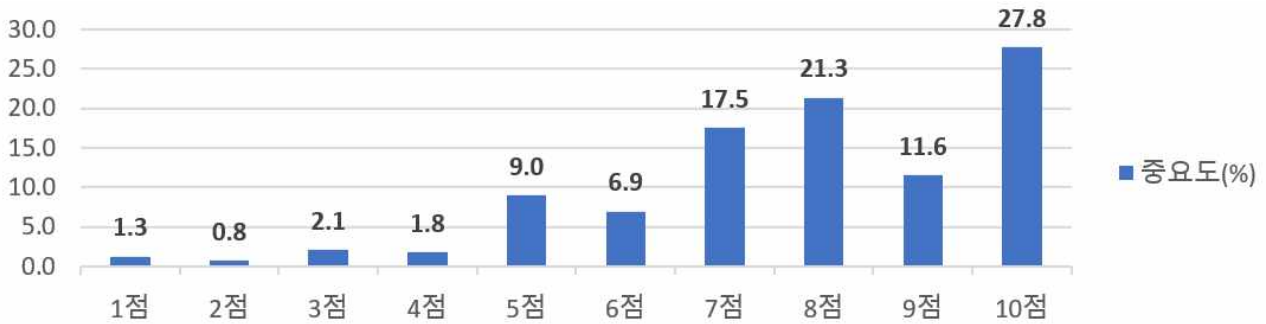
[그림 4-89] 임대주택 지원 관련 정책 중요도(공무원)

○ 군산시 공무원이 생각하는 주택 마련 지원 관련 정책 중요도는 10점 만점 중 약 8.23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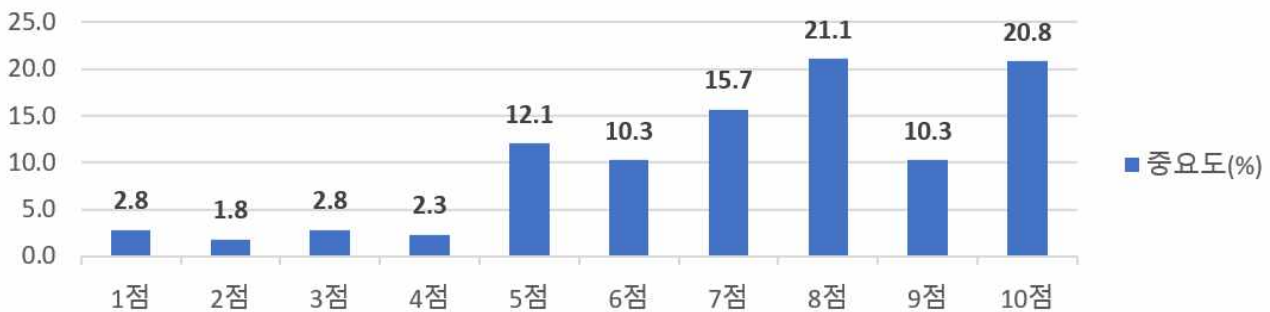
[그림 4-90] 주택 마련 지원 관련 정책 중요도(공무원)

○ 군산시 공무원이 생각하는 출산 지원금(기금조성 및 지원) 관련 정책 중요도는 10점 만점 중 약 7.77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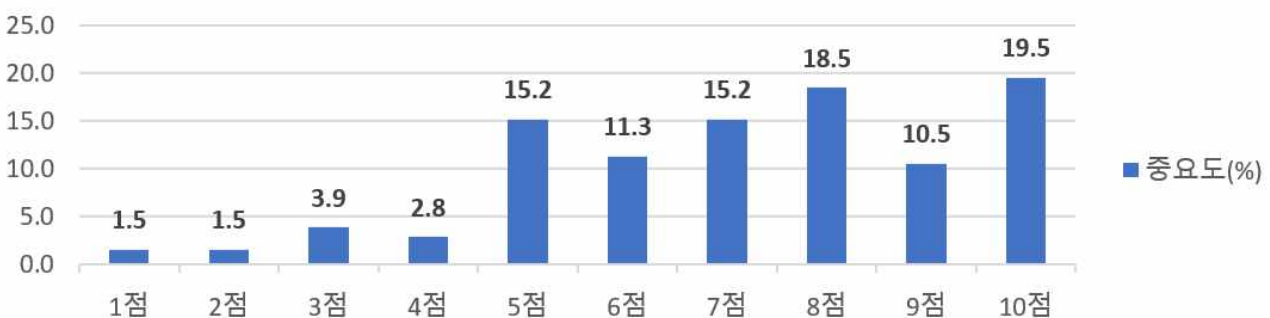
[그림 4-91] 출산 지원금(기금조성 및 지원) 관련 정책 중요도(공무원)

○ 군산시 공무원이 생각하는 신혼부부 전입장려(지원금 지원 등) 관련 정책 중요도는 10점 만점 중 약 7.25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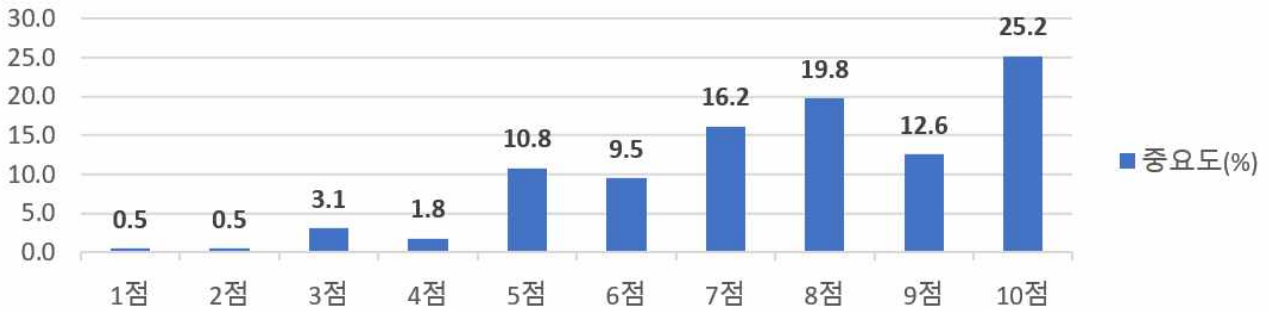
[그림 4-92] 신혼부부 전입장려(지원금 지원 등) 관련 정책 중요도(공무원)

○ 군산시 공무원이 생각하는 육아용품 지원 관련 정책 중요도는 10점 만점 중 약 7.15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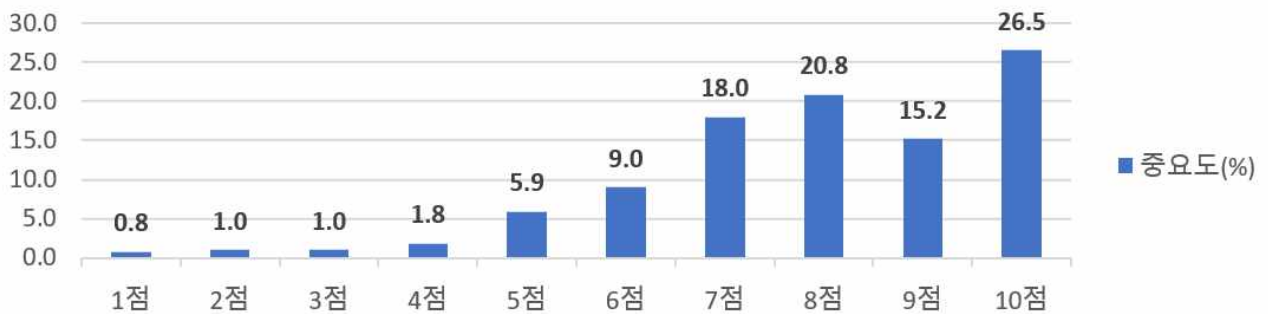
[그림 4-93] 육아용품 지원 관련 정책 중요도(공무원)

○ 군산시 공무원이 생각하는 건강검진·난임 지원[신혼(예비)부부] 관련 정책 중요도는 10점 만점 중 약 7.66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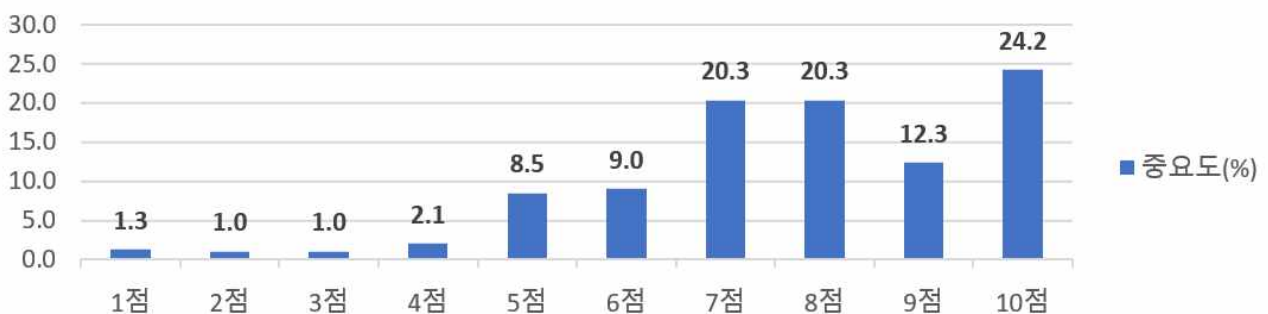
[그림 4-94] 건강검진·난임 지원[신혼(예비)부부] 관련 정책 중요도(공무원)

○ 군산시 공무원이 생각하는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관련 정책 중요도는 10점 만점 중 약 7.90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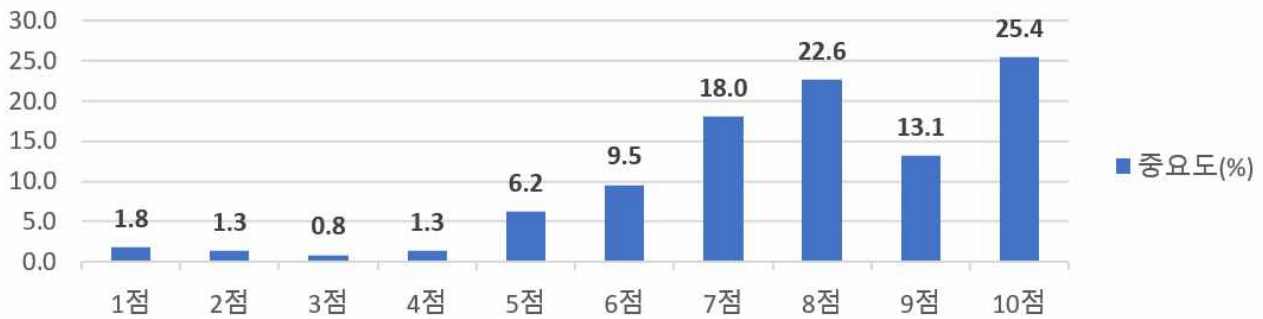
[그림 4-95]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관련 정책 중요도(공무원)

○ 군산시 공무원이 생각하는 산후조리 지원 관련 정책 중요도는 10점 만점 중 약 7.68점임



[그림 4-96] 산후조리 지원 관련 정책 중요도(공무원)

○ 군산시 공무원이 생각하는 경력단절 예방 관련 정책 중요도는 10점 만점 중 약 7.79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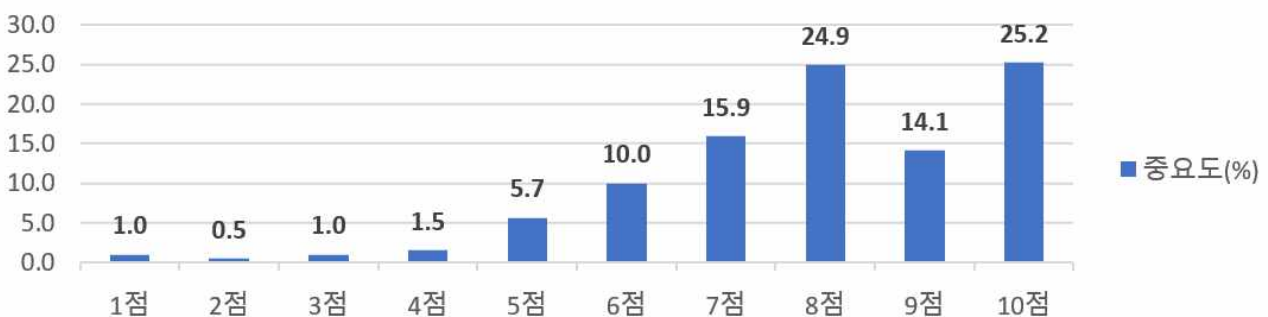
[그림 4-97] 경력단절 예방 관련 정책 중요도(공무원)

○ 군산시 공무원이 생각하는 결혼·임신·출산관련 정책에 필요한 기타의견은 다음과 같음

- 돌봄 공백 지원, 주택 구입 금액지원, 이사비 지원, 아동수당 확대, 소득에 따른 지원대상 폐지, 지원이 너무 많음, 기업 유치(양질 일자리 늘리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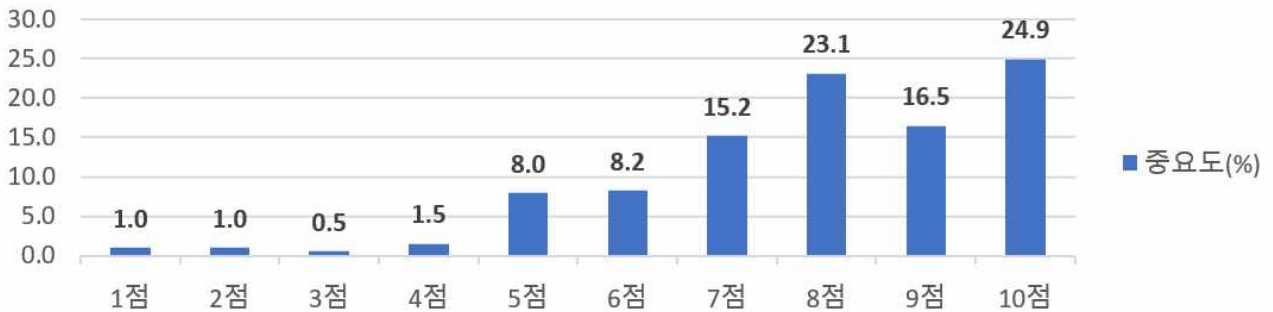
■ 보육·돌봄·교육관련 정책 중요도

○ 군산시 공무원이 생각하는 긴급돌봄 강화 관련 정책 중요도는 10점 만점 중 약 7.89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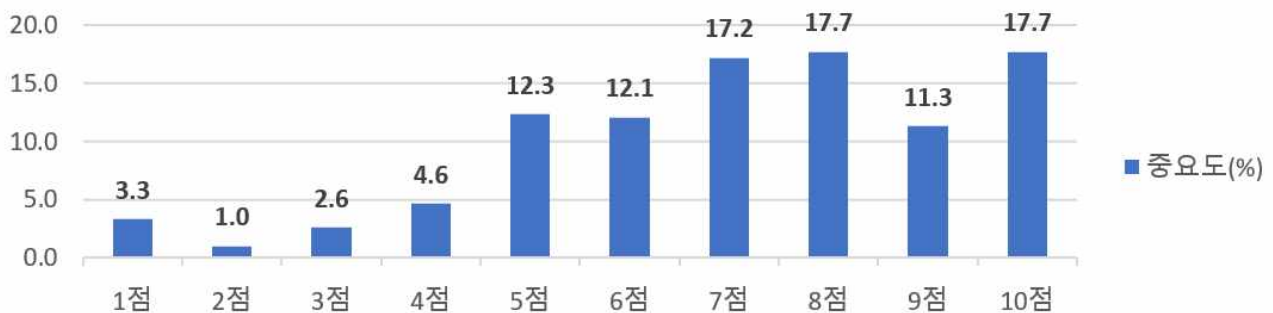
[그림 4-98] 긴급돌봄 강화 관련 정책 중요도(공무원)

○ 군산시 공무원이 생각하는 공공 돌봄시설 확대(지역아동센터 등) 관련 정책 중요도는 10점 만점 중 약 7.88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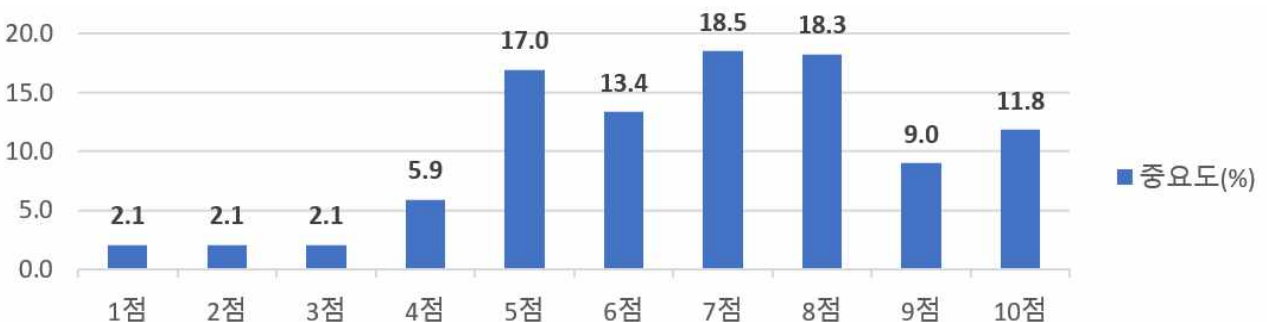
[그림 4-99] 공공 돌봄시설 확대(지역아동센터 등) 관련 정책 중요도 (공무원)

○ 군산시 공무원이 생각하는 육아 공동체(마을 공동육아 등) 관련 정책 중요도는 10점 만점 중 약 7.07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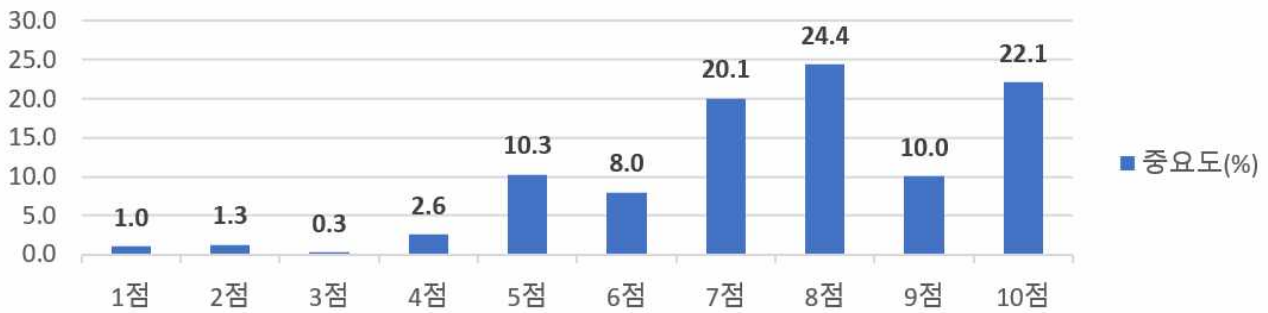
[그림 4-100] 육아 공동체(마을 공동육아 등) 관련 정책 중요도 (공무원)

○ 군산시 공무원이 생각하는 저소득층 지원 관련 정책 중요도는 10점 만점 중 약 6.75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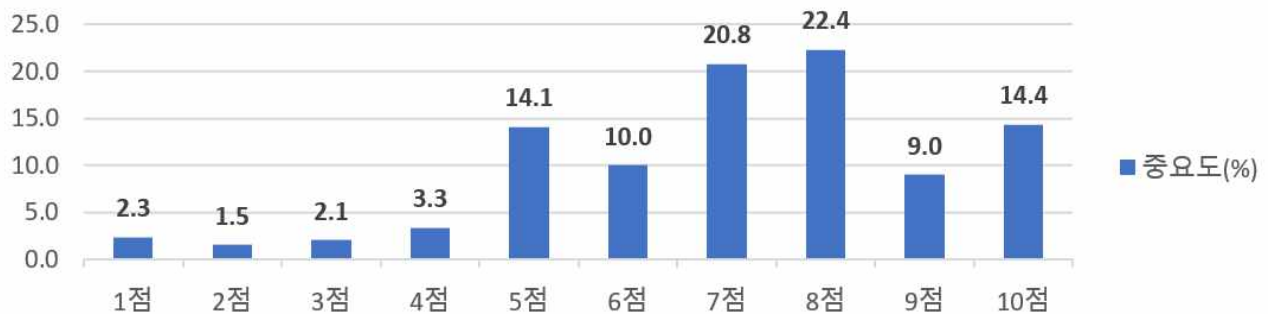
[그림 4-101] 저소득층 지원 관련 정책 중요도 (공무원)

○ 군산시 공무원이 생각하는 다자녀 가구 지원 관련 정책 중요도는 10점 만점 중 약 7.60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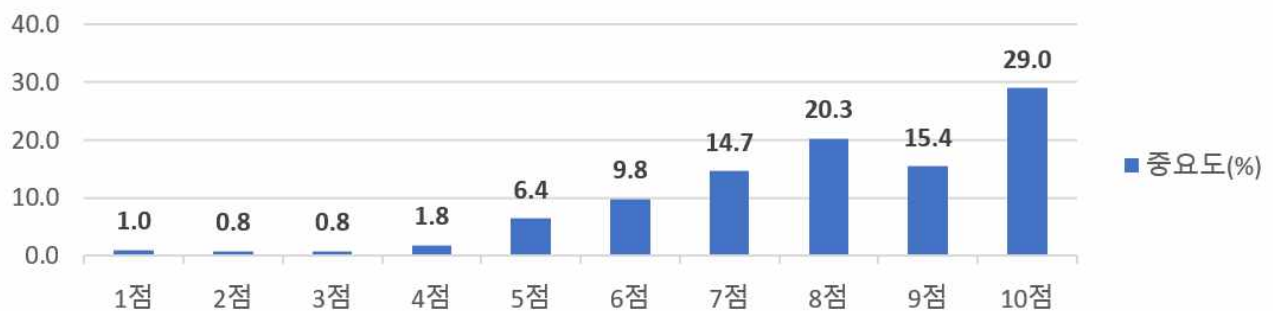
[그림 4-102] 다자녀 가구 지원 관련 정책 중요도 (공무원)

○ 군산시 공무원이 생각하는 아동 수당 지원 관련 정책 중요도는 10점 만점 중 약 7.05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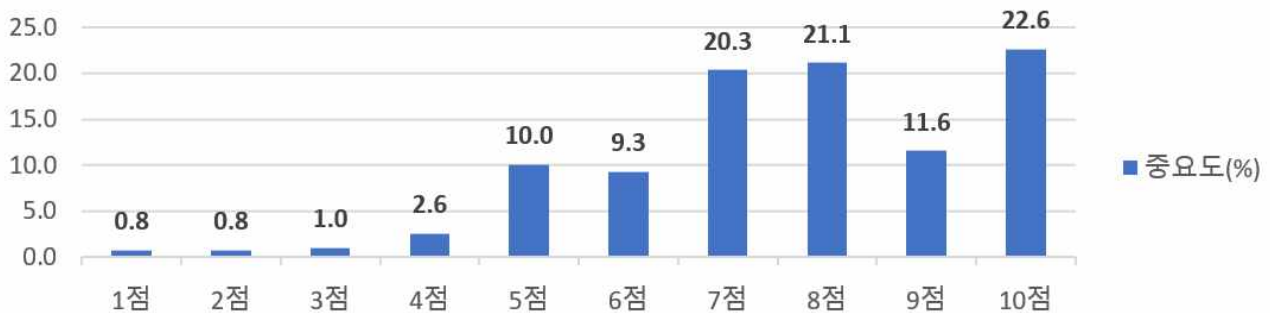
[그림 4-103] 아동 수당 지원 관련 정책 중요도 (공무원)

○ 군산시 공무원이 생각하는 맞벌이 부부 지원 관련 정책 중요도는 10점 만점 중 약 7.97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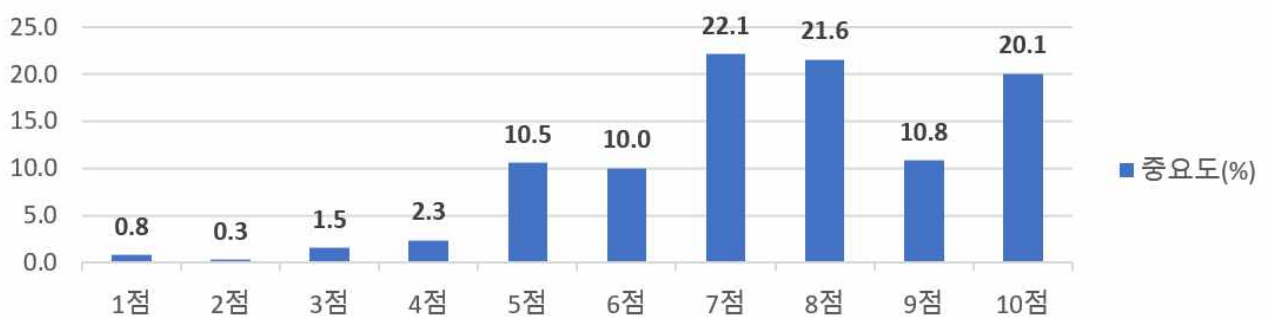
[그림 4-104] 맞벌이 부부 지원 관련 정책 중요도 (공무원)

○ 군산시 공무원이 생각하는 어린이 놀이시설 확충(실내, 실외) 관련 정책 중요도는 10점 만점 중 약 7.62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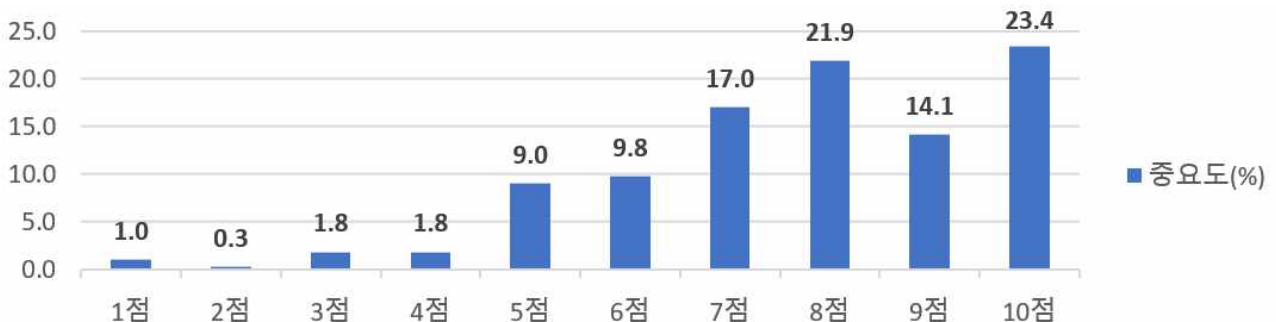
[그림 4-105] 어린이 놀이시설 확충(실내, 실외) 관련 정책 중요도 (공무원)

○ 군산시 공무원이 생각하는 아동·청소년 건강지원 관련 정책 중요도는 10점 만점 중 약 7.53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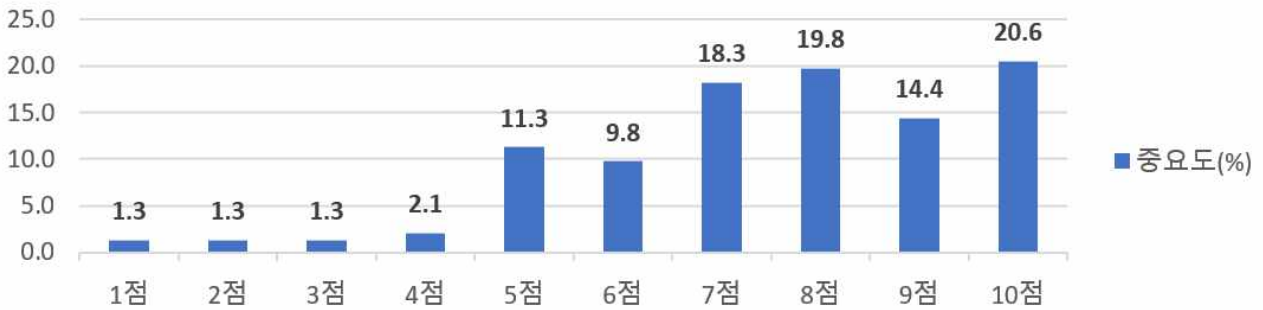
[그림 4-106] 아동·청소년 건강지원 관련 정책 중요도 (공무원)

○ 군산시 공무원이 생각하는 공교육 지원강화 관련 정책 중요도는 10점 만점 중 약 7.72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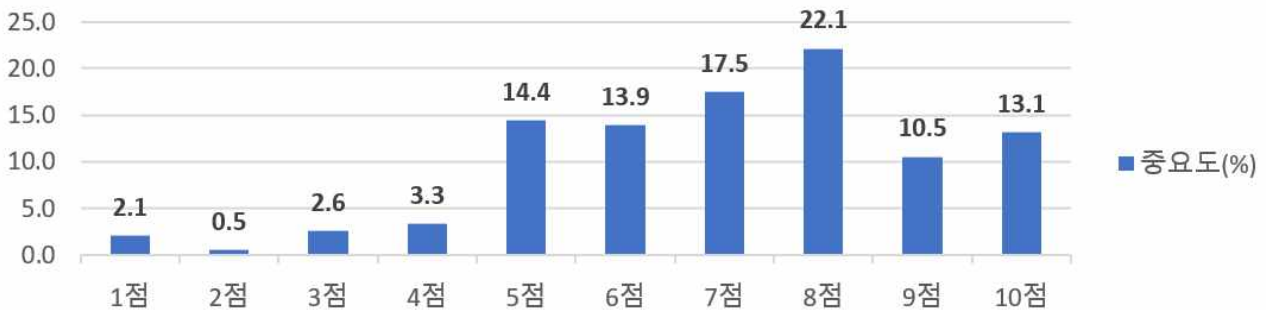
[그림 4-107] 공교육 지원강화 관련 정책 중요도 (공무원)

○ 군산시 공무원이 생각하는 지역인재 육성 관련 정책 중요도는 10점 만점 중 약 7.52점임



[그림 4-108] 지역인재 육성 관련 정책 중요도 (공무원)

○ 군산시 공무원이 생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정책 중요도는 10점 만점 중 약 7.04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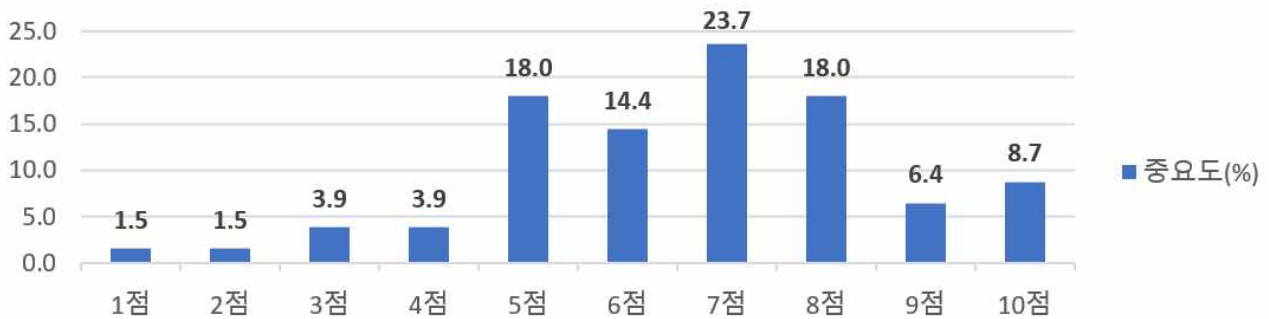
[그림 4-109]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정책 중요도 (공무원)

○ 군산시 공무원이 생각하는 보육·돌봄·교육 관련 정책에 필요한 기타의견은 다음과 같음

- 사교육지원(빈부격차, 교육불균형), 보육 음식 지원, 돌봄교육보다는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조성 필요, 학원비 절감, 공공유치원 확대, 소득에 따른 지원 대상 폐지, 초·중·고 다자녀 입학생 대상 입학축하금, 대기업·공공기관 유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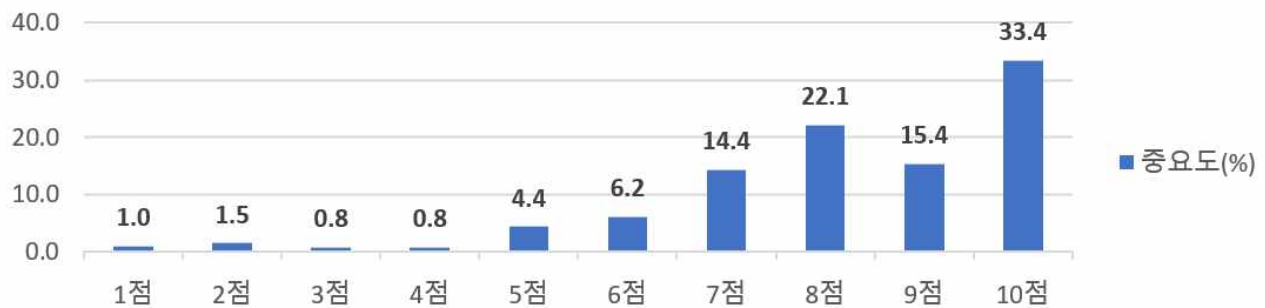
■ 청년 관련 정책 중요도

○ 군산시 공무원이 생각하는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관련 정책 중요도는 10점 만점 중 약 6.62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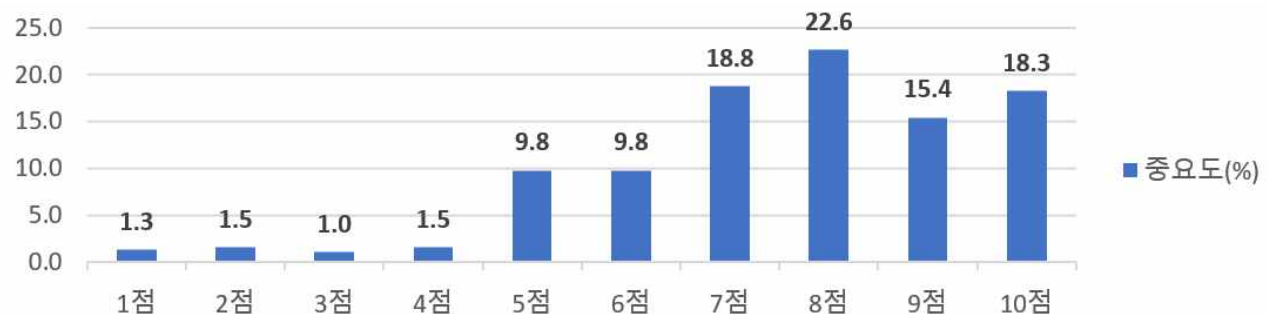
[그림 4-110]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관련 정책 중요도 (공무원)

○ 군산시 공무원이 생각하는 청년 일자리 확대 관련 정책 중요도는 10점 만점 중 약 8.19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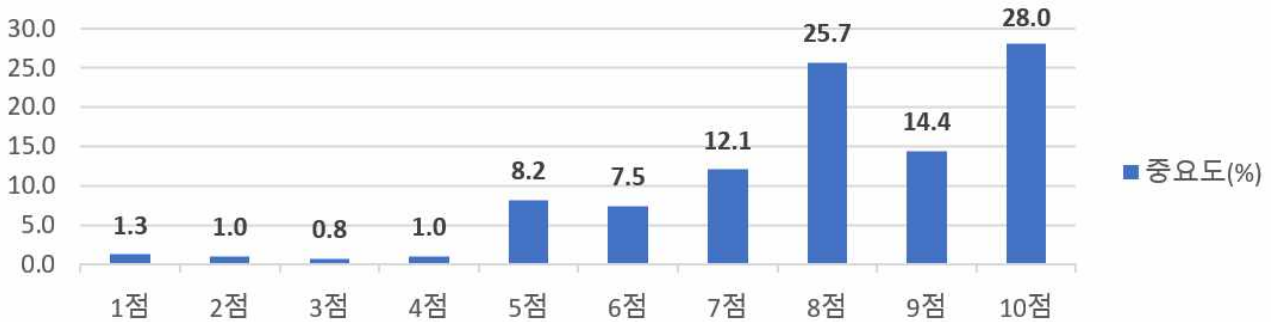
[그림 4-111] 청년 일자리 확대 관련 정책 중요도 (공무원)

○ 군산시 공무원이 생각하는 청년 취업 교육 강화 관련 정책 중요도는 10점 만점 중 약 7.54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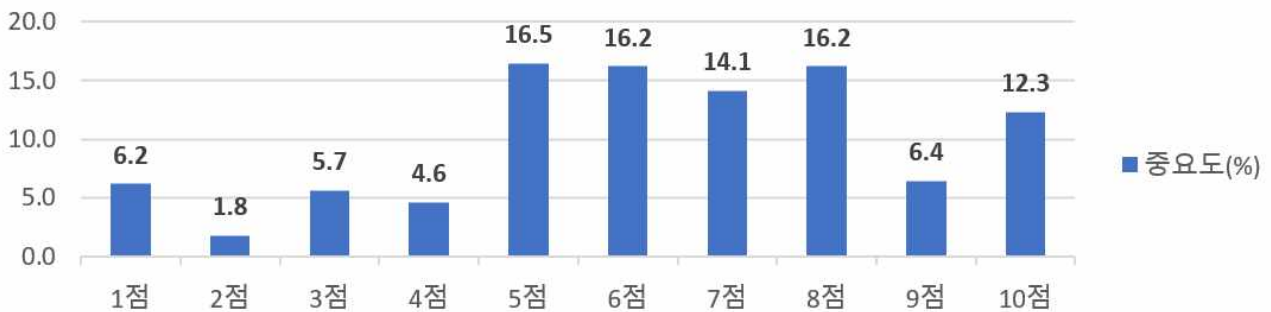
[그림 4-112] 청년 취업 교육 강화 관련 정책 중요도 (공무원)

- 군산시 공무원이 생각하는 주거 지원(주택자금, 임대주택 등) 관련 정책 중요도는 10점 만점 중 약 7.95점임



[그림 4-113] 주거 지원(주택자금, 임대주택 등) 관련 정책 중요도 (공무원)

- 군산시 공무원이 생각하는 청년 수당 관련 정책 중요도는 10점 만점 중 약 6.34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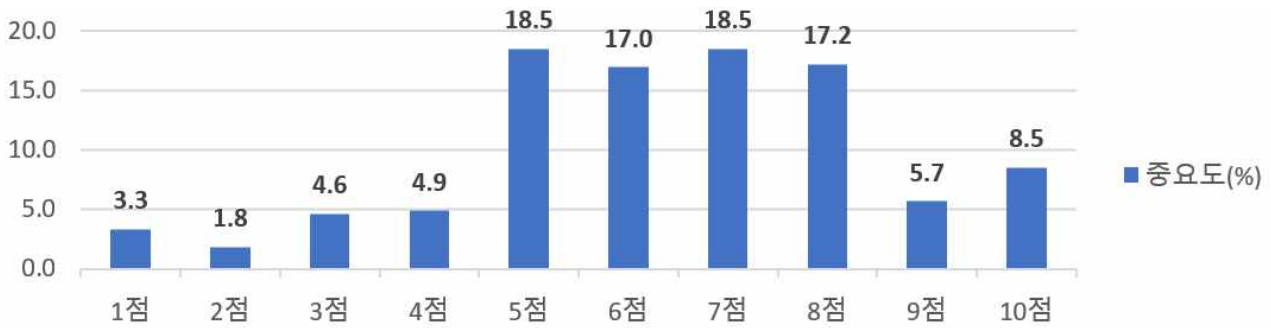
[그림 4-114] 청년 수당 관련 정책 중요도 (공무원)

- 군산시 공무원이 생각하는 청년 활동가 육성 관련 정책 중요도는 10점 만점 중 약 6.27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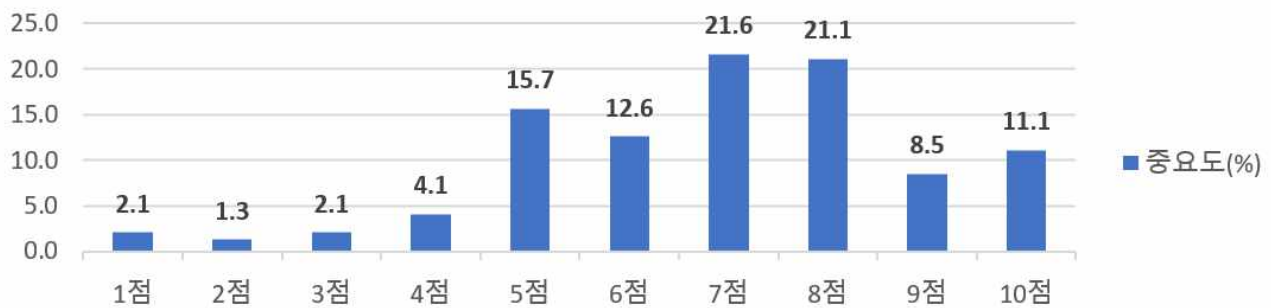
[그림 4-115] 청년 활동가 육성 관련 정책 중요도 (공무원)

○ 군산시 공무원이 생각하는 문화·예술 분야 지원 관련 정책 중요도는 10점 만점 중 약 6.37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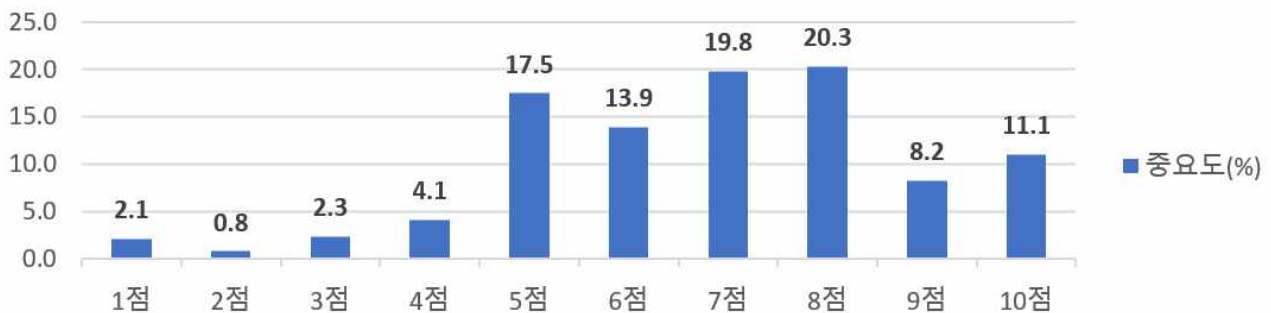
[그림 4-116] 문화·예술 분야 지원 관련 정책 중요도 (공무원)

○ 군산시 공무원이 생각하는 청년 창업 지원 관련 정책 중요도는 10점 만점 중 약 6.87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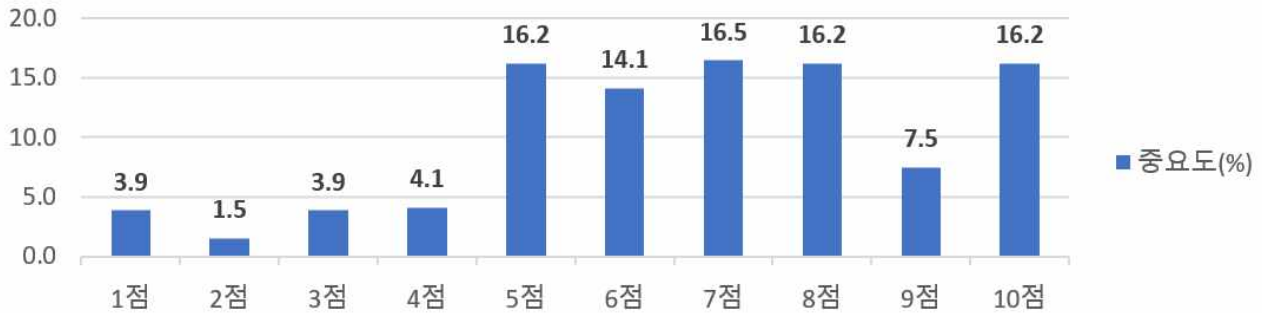
[그림 4-117] 청년 창업 지원 관련 정책 중요도 (공무원)

○ 군산시 공무원이 생각하는 맞춤형 교육 서비스 관련 정책 중요도는 10점 만점 중 약 6.83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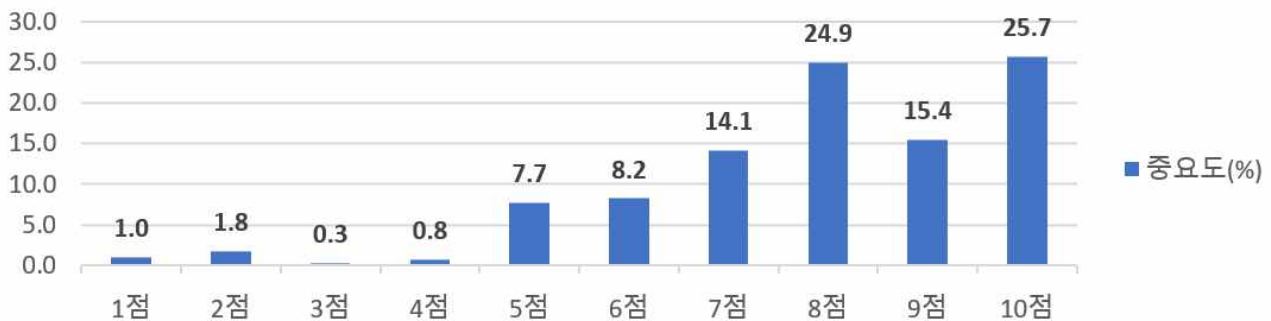
[그림 4-118] 맞춤형 교육 서비스 관련 정책 중요도 (공무원)

- 군산시 공무원이 생각하는 취미·여가 인프라 구축(자기개발 지원) 관련 정책 중요도는 10점 만점 중 약 6.74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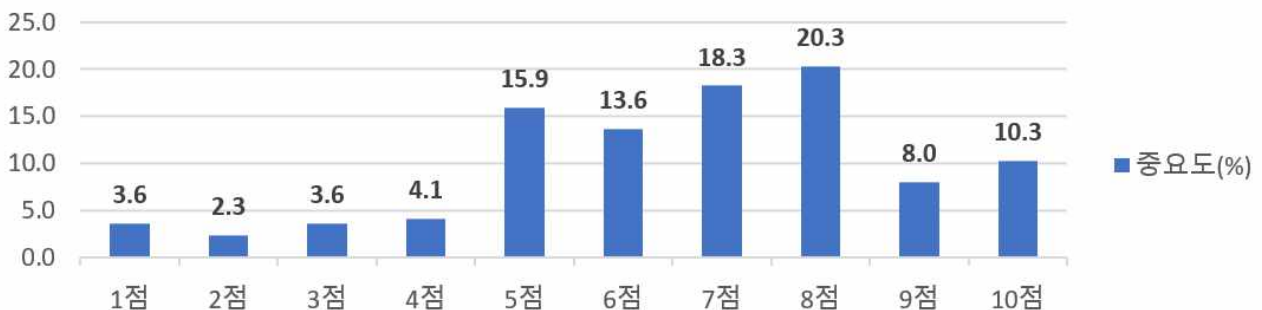
[그림 4-119] 취미·여가 인프라 구축(자기개발 지원) 관련 정책 중요도 (공무원)

- 군산시 공무원이 생각하는 근무 여건 개선(직장 문화 등) 관련 정책 중요도는 10점 만점 중 약 7.90점임



[그림 4-120] 근무 여건 개선(직장 문화 등) 관련 정책 중요도 (공무원)

- 군산시 공무원이 생각하는 귀농·귀촌 지원 관련 정책 중요도는 10점 만점 중 약 6.61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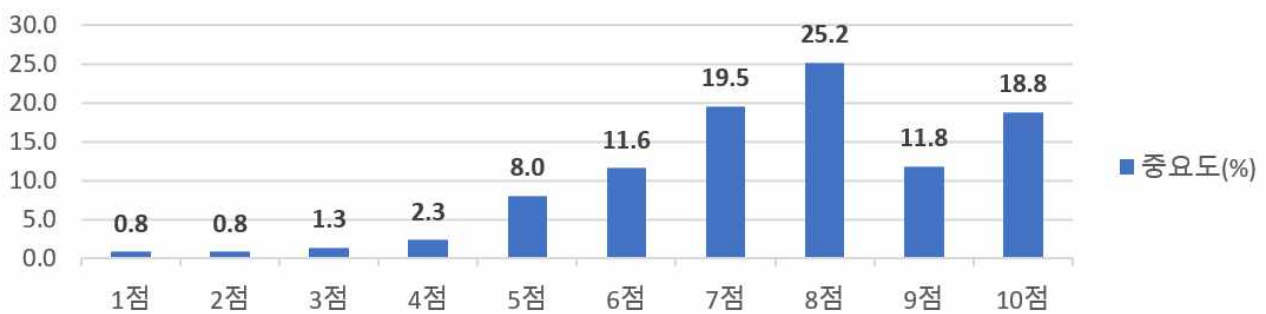
[그림 4-121] 귀농·귀촌 지원 관련 정책 중요도 (공무원)

○ 군산시 공무원이 생각하는 청년 관련 정책에 필요한 기타의견은 다음과 같음

- 취미·여가 활동 지원(동호회 등), 청년채용기업 인센티브 확대, 대기업·공공기관 유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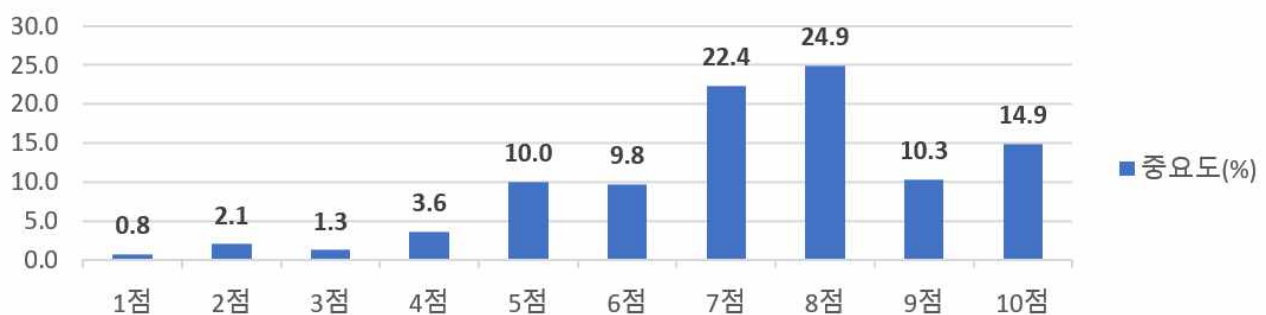
■ 중·장년 관련 정책 중요도

○ 군산시 공무원이 생각하는 신중년 지원센터(교육, 일자리 지원) 관련 정책 중요도는 10점 만점 중 약 7.57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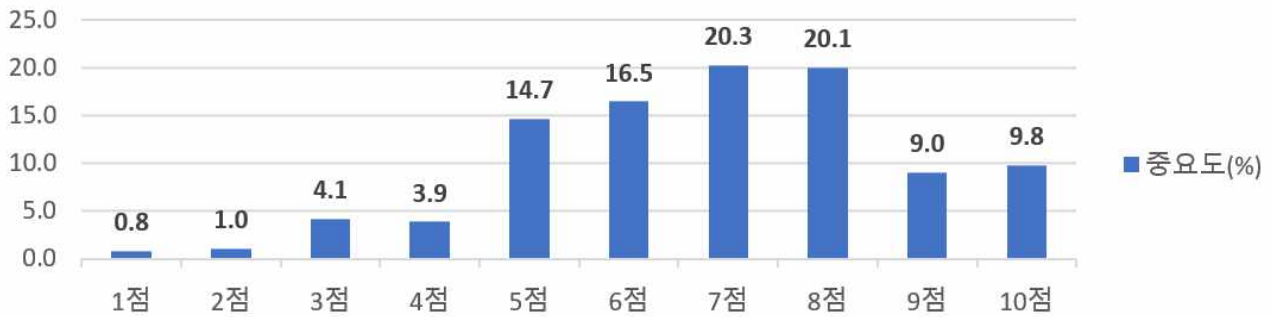
[그림 4-122] 신중년 지원센터(교육, 일자리 지원) 관련 정책 중요도 (공무원)

○ 군산시 공무원이 생각하는 사회적 경제 연계 관련 정책 중요도는 10점 만점 중 약 7.29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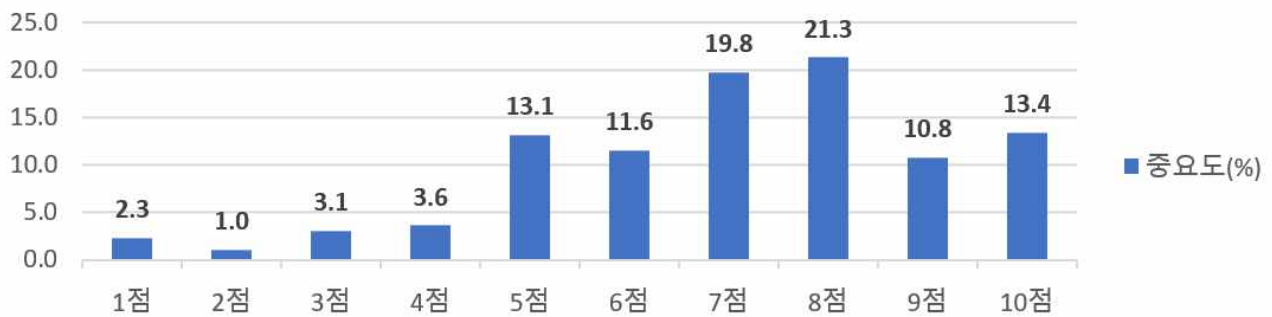
[그림 4-123] 사회적 경제 연계 관련 정책 중요도 (공무원)

○ 군산시 공무원이 생각하는 창업 지원 관련 정책 중요도는 10점 만점 중 약 6.83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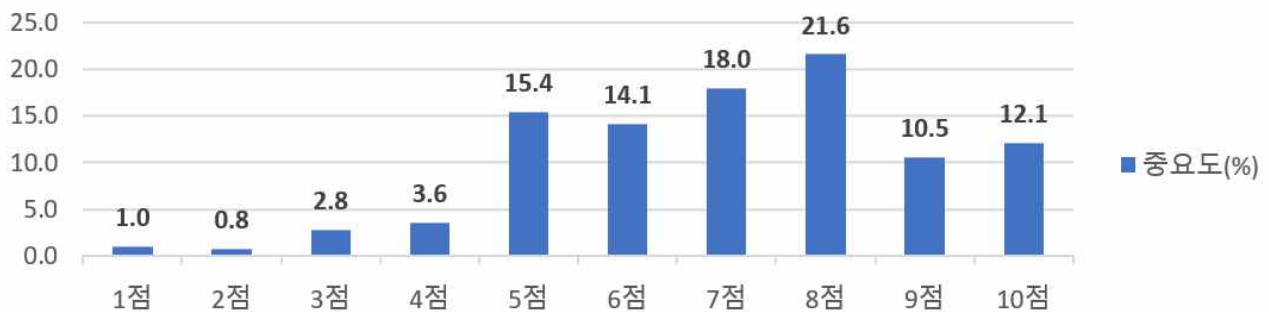
[그림 4-124] 창업 지원 관련 정책 중요도 (공무원)

○ 군산시 공무원이 생각하는 중·장년 여가활동 인프라 관련 정책 중요도는 10점 만점 중 약 7.03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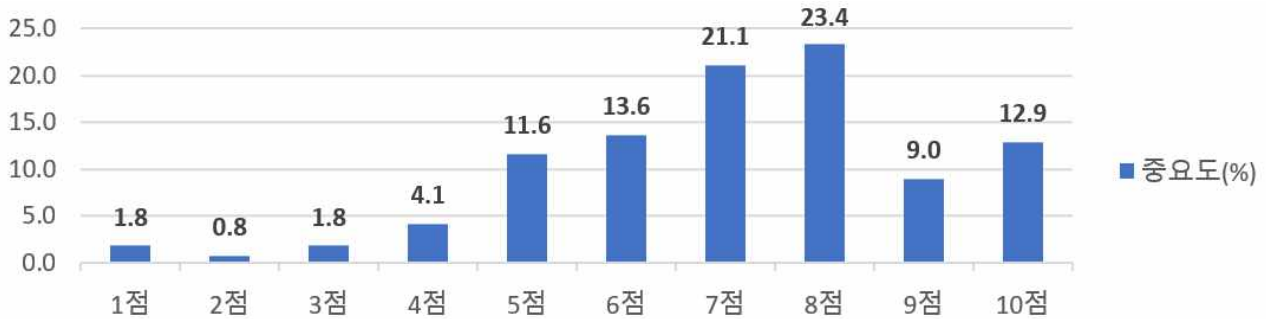
[그림 4-125] 중·장년 여가활동 인프라 관련 정책 중요도 (공무원)

○ 군산시 공무원이 생각하는 사회 공헌 활동 지원(재능기부, 봉사활동 등) 관련 정책 중요도는 10점 만점 중 약 7.01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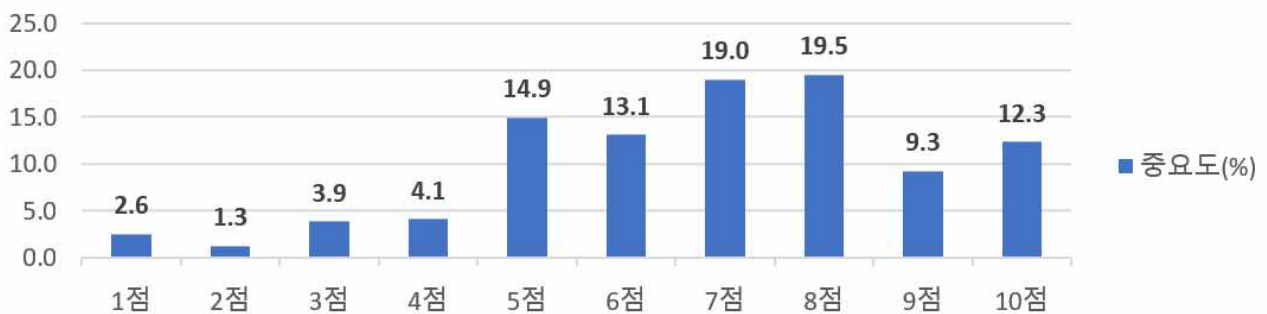
[그림 4-126] 사회 공헌 활동 지원(재능기부, 봉사활동 등) 관련 정책 중요도 (공무원)

○ 군산시 공무원이 생각하는 평생교육 운영 관련 정책 중요도는 10점 만점 중 약 7.08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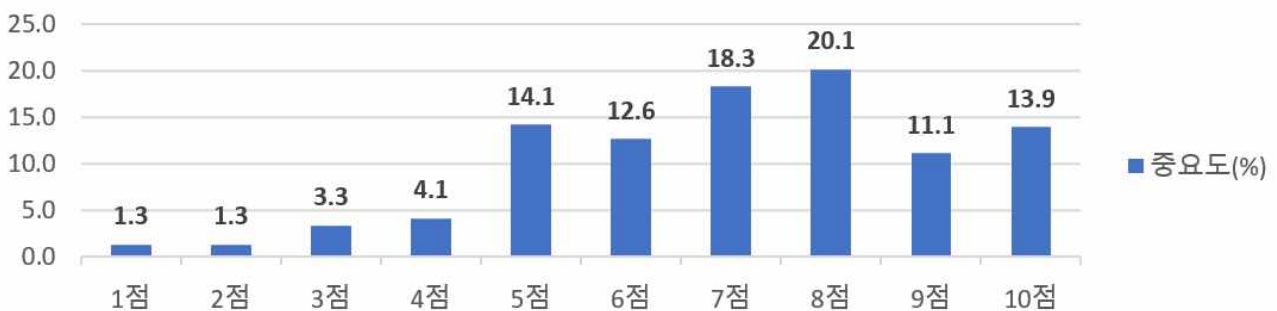
[그림 4-127] 평생교육 운영 관련 정책 중요도 (공무원)

○ 군산시 공무원이 생각하는 귀농·귀촌 지원 관련 정책 중요도는 10점 만점 중 약 6.82점임



[그림 4-128] 귀농·귀촌 지원 관련 정책 중요도 (공무원)

○ 군산시 공무원이 생각하는 은퇴자 네트워크 지원(커뮤니티) 관련 정책 중요도는 10점 만점 중 약 7.03점임



[그림 4-129] 은퇴자 네트워크 지원(커뮤니티) 관련 정책 중요도 (공무원)

○ 군산시 공무원이 생각하는 중·장년 관련 정책에 필요한 기타의견은 다음과 같음

- 중·장년 취미활동 지원을 통한 외부 지역민 방문 유도, 귀농 귀어를 넘는 관련 창업 지원, 대기업·공공기관 유치, 중·장년 건강관리프로그램 개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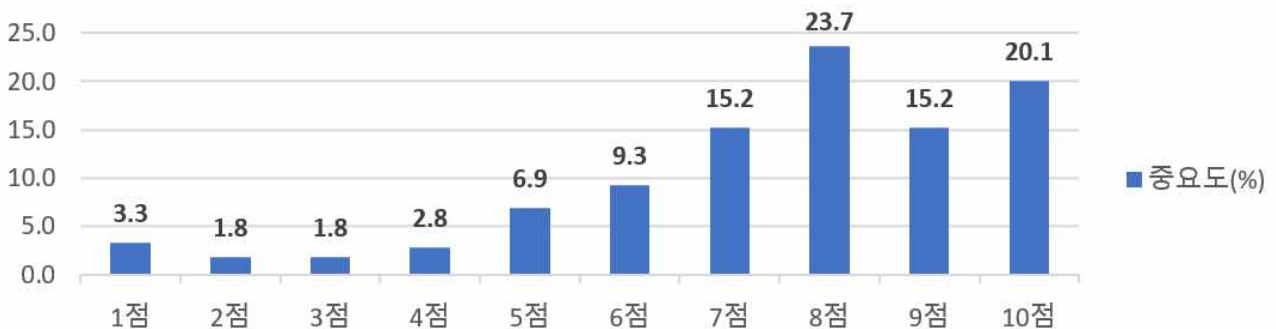
■ 노년 정책 중요도

○ 군산시 공무원이 생각하는 건강 관리 지원 관련 정책 중요도는 10점 만점 중 약 8.21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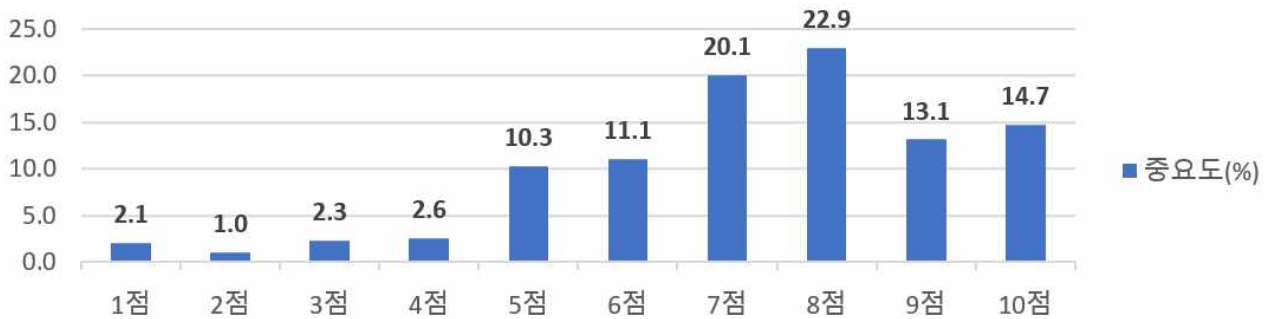
[그림 4-130] 건강 관리 지원 관련 정책 중요도 (공무원)

○ 군산시 공무원이 생각하는 공공일자리 확대 관련 정책 중요도는 10점 만점 중 약 7.46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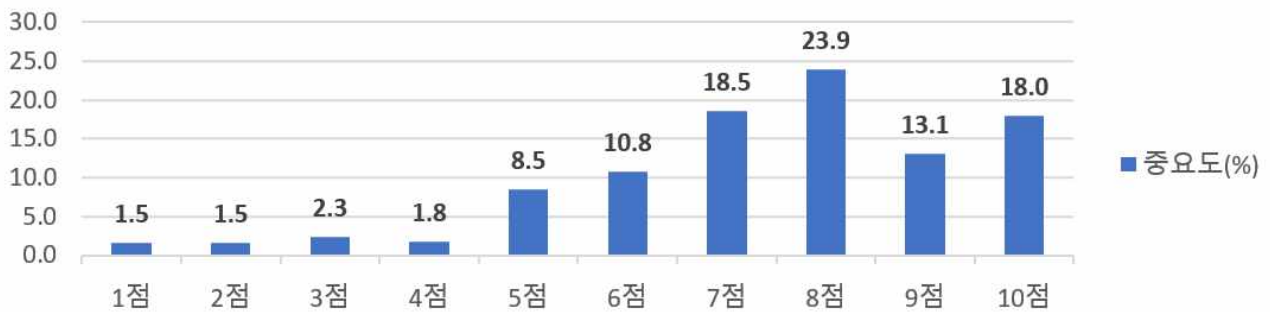
[그림 4-131] 공공일자리 확대 관련 정책 중요도 (공무원)

○ 군산시 공무원이 생각하는 평생교육 운영 관련 정책 중요도는 10점 만점 중 약 7.26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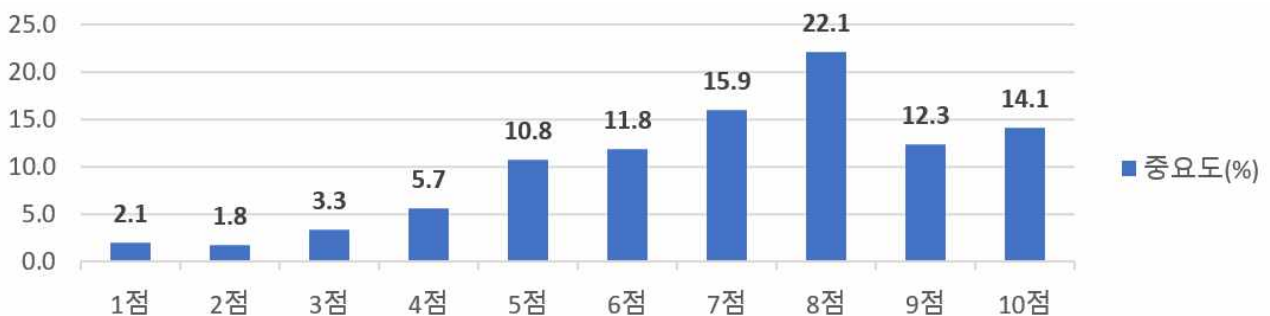
[그림 4-132] 평생교육 운영 관련 정책 중요도 (공무원)

○ 군산시 공무원이 생각하는 여가·취미활동 지원 관련 정책 중요도는 10점 만점 중 약 7.44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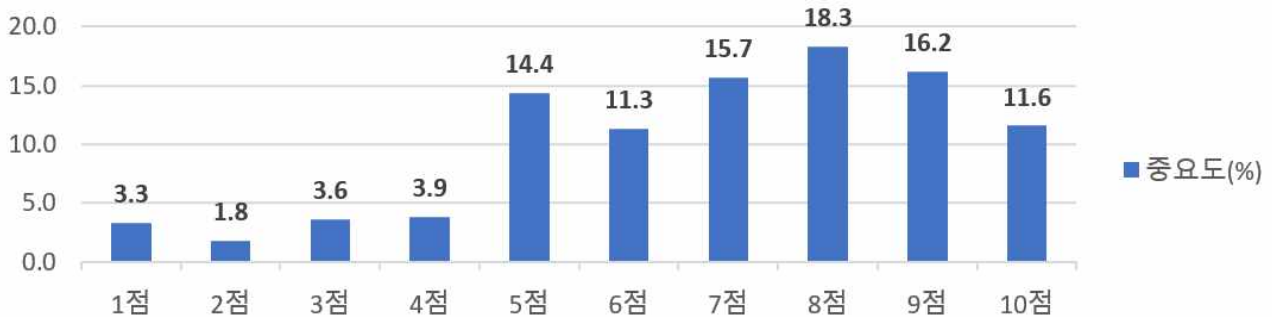
[그림 4-133] 여가·취미활동 지원 관련 정책 중요도 (공무원)

○ 군산시 공무원이 생각하는 저소득층 지원 관련 정책 중요도는 10점 만점 중 약 7.04점임



[그림 4-134] 저소득층 지원 관련 정책 중요도 (공무원)

- 군산시 공무원이 생각하는 노인시설 확대(경로당, 센터 등) 관련 정책 중요도는 10점 만점 중 약 6.90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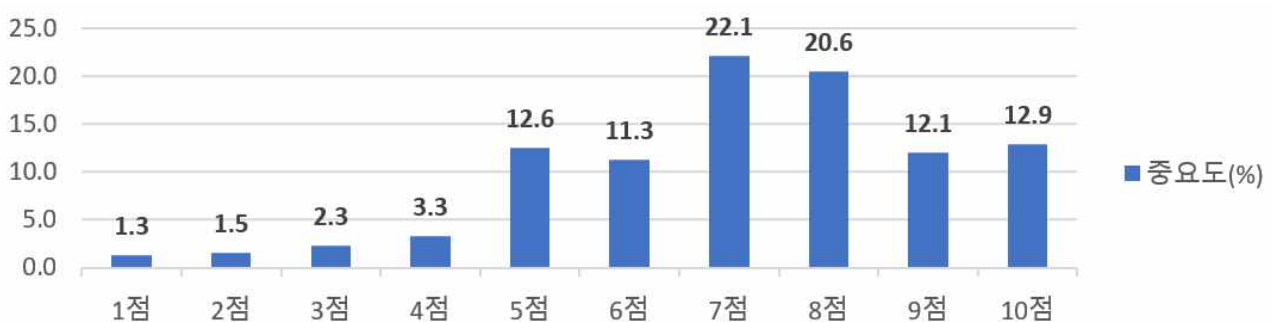


[그림 4-135] 노인시설 확대(경로당, 센터 등) 정책 중요도 (공무원)

- 군산시 공무원이 생각하는 노년 관련 정책에 필요한 기타의견은 다음과 같음
- 활동반경이 좁으니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및 확대, 대기업·공공기관 유치, 치매개선 예방지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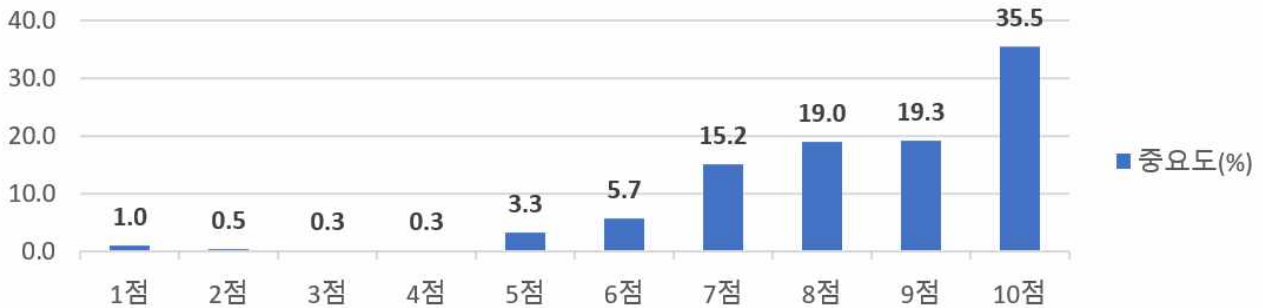
■ 기타(거버넌스, 정주여건, 생활인구 등) 정책 중요도

- 군산시 공무원이 생각하는 인구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관련 정책 중요도는 10점 만점 중 약 7.12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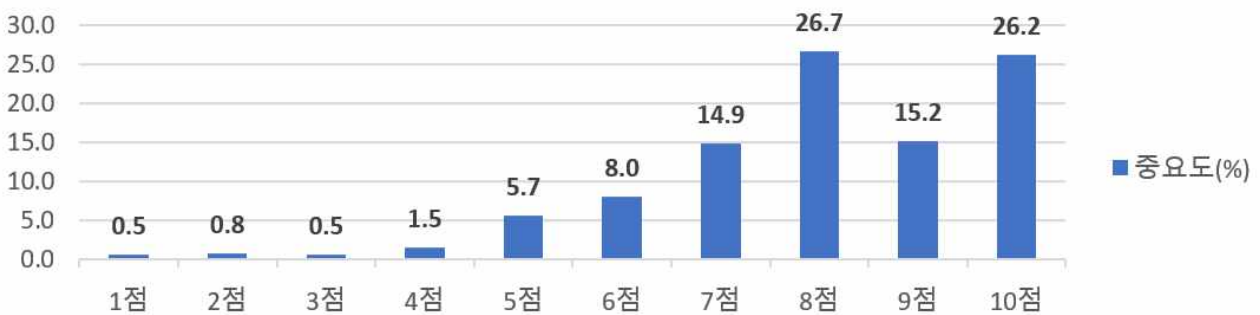
[그림 4-136] 인구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관련 정책 중요도 (공무원)

○ 군산시 공무원이 생각하는 정주 여건 개선(의료, 문화, 편의, 교통 등) 관련 정책 중요도는 10점 만점 중 약 8.41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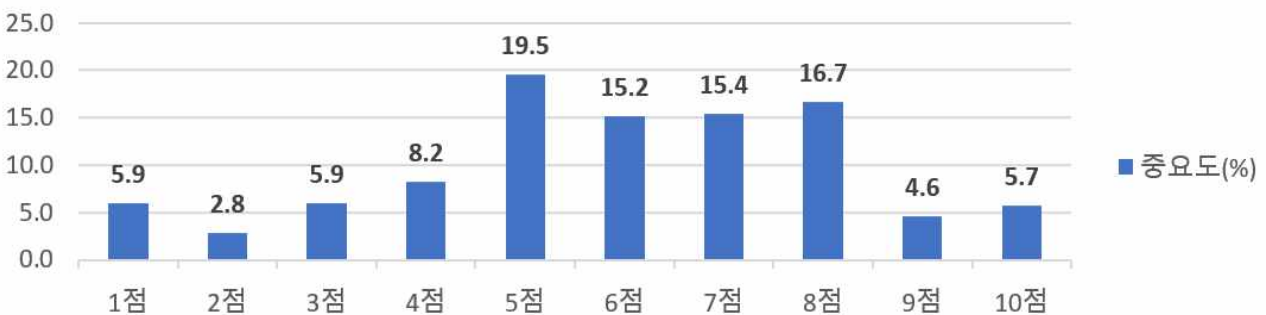
[그림 4-137] 정주 여건 개선(의료, 문화, 편의, 교통 등) 관련 정책 중요도 (공무원)

○ 군산시 공무원이 생각하는 생활인구 확대 관련 정책 중요도는 10점 만점 중 약 8.02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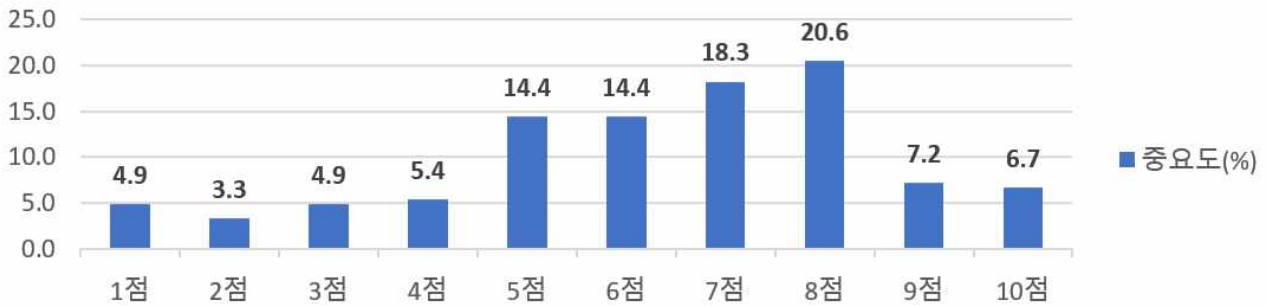
[그림 4-138] 생활인구 확대 관련 정책 중요도 (공무원)

○ 군산시 공무원이 생각하는 이민자 지원 관련 정책 중요도는 10점 만점 중 약 5.90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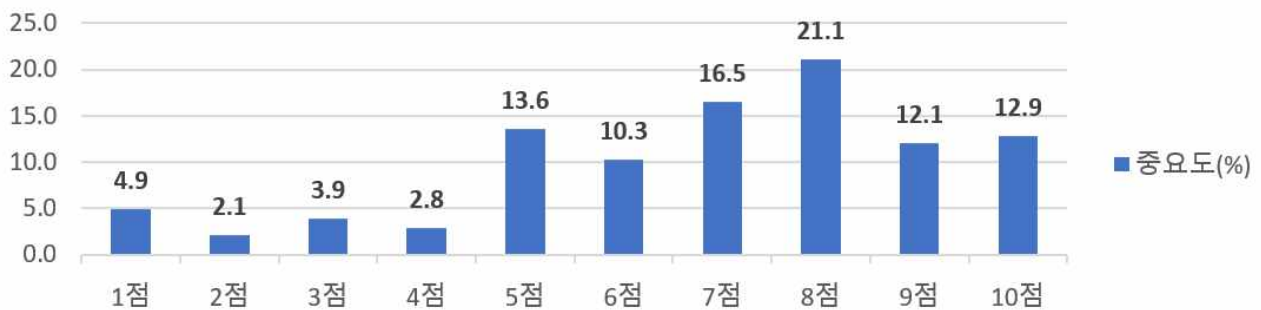
[그림 4-139] 이민자 지원 관련 정책 중요도 (공무원)

○ 군산시 공무원이 생각하는 다문화 가정 지원 관련 정책 중요도는 10점 만점 중 약 6.30점임



[그림 4-140] 다문화 가정 지원 관련 정책 중요도 (공무원)

○ 군산시 공무원이 생각하는 다양한 가족제도 인정 관련 정책 중요도는 10점 만점 중 약 6.82점임



[그림 4-141] 다양한 가족제도 인정 관련 정책 중요도 (공무원)

○ 군산시 공무원이 생각하는 기타(거버넌스, 정주여건, 생활인구 등)관련 정책에 필요한 기타의견은 다음과 같음

- 네트워크 플랫폼 형성, 국적취득자 축하금, SRT 군산 연결, 대기업·공공기관 유치 등

☑ 공무원 인식조사 시사점

- 군산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보육·돌봄·교육 관련 정책 8.89점, 결혼·임신·출산 관련 정책 8.85점 순으로 중요한 인구정책이라 판단함
 - 청년 점수는 8점으로 중·장년 7.31점, 노년 7.34점보다 높았으며, 이러한 인식은 청년과 생산인구에 대한 인구정책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함
 - 보육·돌봄·교육에서는 맞벌이 부부 지원 7.97점, 긴급 돌봄 강화 관련 정책 7.89점 순으로 중요하게 판단함
 - 결혼·임신·출산에서는 주택 마련 지원 정책 8.23점, 산모·신생아 관리 관련 정책 7.90점 순으로 중요하게 판단함
 - 청년 정책은 일자리 확대 관련 정책 8.19점, 주거 지원 관련 정책 7.95점 순으로 중요하게 판단함
 - 중·장년 정책은 신중년 지원센터 관련 정책 7.57점, 사회적 경제 연계 관련 정책 7.29점 순으로 중요하게 판단함
 - 노년 정책은 건강 관리 지원 8.21점, 공공일자리 확대 관련 정책 7.46점 순으로 중요하게 판단함
 - 기타 정책 부분에서는 정주 여건 개선 8.41점, 생활인구 확대 관련 정책 8.02점 순으로 중요하게 판단함
- 군산시 공무원의 인식조사는 정주 여건 개선과 주택 지원 정책, 일자리 확대, 신혼부부 지원 관련 등 정책이 인구정책에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은 생산인구가 수월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인구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함
 - 보육·돌봄·교육 관련 정책과 결혼·임신·출산 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주택 마련 지원, 일자리 확대 지원, 맞벌이 부부 지원 등 관련 정책 개선 필요
 - 또한, 생산인구가 군산시에 정착할 수 있는 정주 여건 개선과 일자리 확대 관련 정책 개선 필요

제3절 군산시 인구정책 원탁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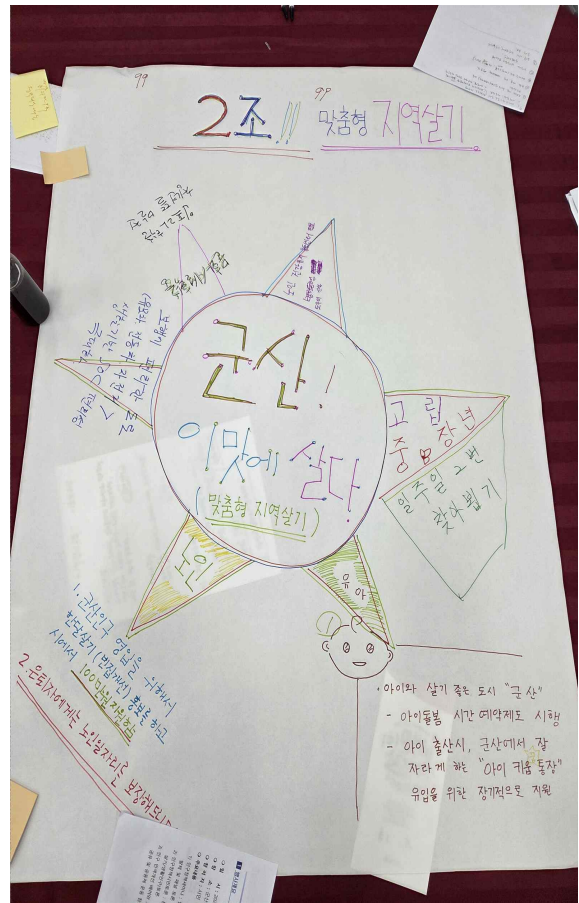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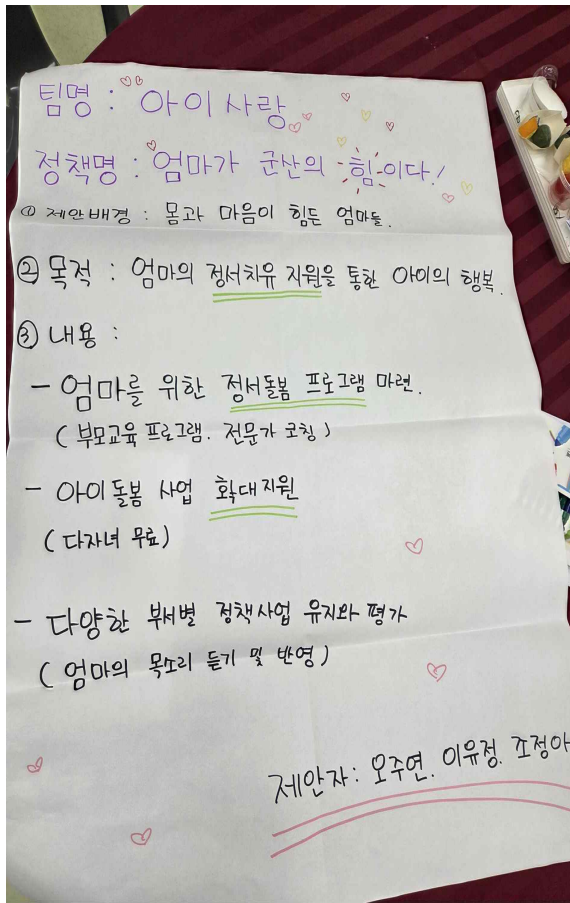
■ 행사 개요 및 목적

- 행사명
 - 시민과 함께하는 인구 이야기, 우리들의 군산
- 행사일시
 - 2025년 7월 11일 금요일 13:30~17:00
- 행사장소
 - 군산시청 민방위 상황실
- 주최/주관
 - 군산시 / 오말(OMAR)
- 추진 배경
 - 군산시 인구 감소, 청년 유출, 고령화 등 인구 구조 위기에 대응
 - 시민 주도 인식 개선 및 정책 참여 기반 조성을 위한 전략적 행사 기획
- 추진목적
 - 인구 문제의 시민 인식 제고 및 정책 공감대 형성
 - 군산시 인구정책 홍보 및 시민 참여 유도
 - 공동체 가치 확산 및 지역 중저 여건 개선
 - 정책 수립 전 시민 의견을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장 마련
- 참석자
 - 초청 인사, 패널, 퍼실리테이터, 시민참여자 등 약 100여 명

○ 주요 프로그램

- 인구정책 세미나
 - 전문가 발제(이상림 박사 - 인구변화와 군산의 인구대응 미래 전략)
 - 패널토론 및 시민 질의응답
- 인구정책 시민 토론
 - 아이키움 / 청년키움 / 지역살기 / 생활인구 4가지 실행과제별 정책 발굴 및 우수정책 선정
- 인구 인식개선 공동체 운동
 - '우리들의 군산' 배려와 포용의 시민 공동체 실천 영상 공유





[그림 4-142] 군산시민 인구정책 원탁토론회

☑ 인구정책 세미나

○ 명사초청 강연 (발제)

- 강연자 : 이상림 박사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
- 주제 : 인구변화와 군산의 인구대응 미래 전략
- 주요내용
 - 인구감소가 불가피한 구조적 현실임을 전제로 획일적인 인구 유입보다는 청년 유출 최소화, 정주성 확보, 도시 기능 유지 등 실질적 대응을 강조
 - 삶의 질 개선을 축으로 한 장기적·통합적 전략 제시
 - 지역중심의 자원 재배치와 시민참여 확대를 인구 쇠퇴 대응의 핵심 전략으로 강조

○ 패널토론

- 좌장 : 최연성 단장 (군산시 정책자문단)
- 패널 참석자 : 김지숙 회장 (전북특별자치도 학부모협의회), 이국용 교수 (군산대학교), 박미선 이사장 (꽃일다청년 공예협동조합), 박종길 기획행정국장 (군산시)
- 이국용 교수(군산대학교)
 - 청년이 떠나고, 여성이 돌아오지 않으며, 출산율이 떨어지는 현상은 지방의 삶에 대한 '가능성 부족'을 보여주는 신호
 - 새만금을 단순 산업단지 개발에서 벗어나, 청년·여성·가족이 살 수 있는 생활권으로 개발 필요
 - 저출산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산업과 청년을 아우르는 폭넓은 관점에서의 인구정책 필요
- 김지숙 회장(전북특별자치도 학부모 협의회)
 -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만드는 것이 중요함
 - 지방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어려움(교육 인프라 및 보육·돌봄 서비스 부족)
 -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환경 및 정서적·사회적 돌봄 문화 조성 필요
- 박종길 기획행정국장(군산시)
 - 군산에서 자라고, 군산에서 성장하는 전략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신 내용에 깊이 공감
 - 군산시는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인구정책을 설계하고, 시민이 서로의 삶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높여가고자 함

- 새정부의 기조와 맞게 우리시의 인구정책을 같이 실행해 나가겠음
- 박미선 이사장(꽃일다청년 공예협동조합)
 - 청년유출의 심각성에 깊이 공감되며, 청년들이 도시를 떠나는 이유는 단순히 '더 큰 도시를 선호'해서가 아니라, 일자리·주거·문화 등 삶의 토대가 부족하기 때문
 - 지역 기반의 로컬크리에이터, 1인 창업 지원 등 유연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면, 군산은 청년 창업의 거점 도시가 될 수 있음
 - 청년이 군산에서 '살아도 괜찮다'는 확신을 주는 정책 설계가 핵심
- 최연성 단장(군산시 정책 자문단)
 - 오늘 토론을 통해 군산의 인구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짚어볼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음
 - 특히 군산시의 외국인주민 비율이 5%를 넘어서, 외국인은 단지 '체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
 - 군산시민 모두가 머물고 싶은 이유, 애착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
- 이상림 박사(인구정책센터 책임연구원)
 - 청년 정책이 종종 '현금 지급 중심'으로 설계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단지적인 유인책일 뿐이며 청년이 실제로 지역에 정착하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 위한 기반이 되기에 부족함
 - 청년이 정체성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의미있는 관계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구조로 설계가 필요하며, 지역을 떠났던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유턴 정책 필요
 - 외국인 관련, E-9(비전문취업)에서 E-7(전문인력) 비자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브로커 개입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출입국 및 비자 행정 전문성을 갖춘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함
 - 다음 세대가 지역에 애착을 갖고 지속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정주 여건 조성은 중장기적인 인구정책의 핵심 과제로 부각됨

☑ 인구정책 시민 토론

○ 인구정책 시민 토론 - 왓자지컬 인구토론회

- 진행자 : 김춘학 대표 (다이룸협동조합)
- 주제 : 아이키움, 청년키움, 지역살기, 생활인구
- 운영 방식 : 주제별 2팀(총 8팀) 구성 / 퍼실리테이션 및 군산시 담당자 배치

• 제안내용

[표 4-11] 인구정책 시민토론회 제안내용

분야	제안내용	비고
아이키움 1조	아이 안심 통합 돌봄서비스 시니어 일자리 활용을 통해 등하원 돌봄, 야간돌봄, 병원 동행서비스를 통해 아이의 하루를 시작부터 끝까지 돌봄	
아이키움 2조	엄마가 군산의 힘이다 엄마를 위한 정서 돌봄프로그램 마련(부모교육, 전문가 코칭) 아이돌봄사업 확대지원(다자녀 무료 등)	우수 제안팀
청년키움 1조	청년 맞춤형 인턴십 청년식 직업체험 및 기업핵심 인력 멘토링(중장년과 청년매칭) 네트워킹 및 정보 교류	우수 제안팀
청년키움 2조	군산형 청년 주거 가산점 제도 LH 공공임대 주택 평가점수에 청년 가산점 3점 부여를 통해 주거가 불안정한 청년에게 안정적인 주거 기회 확대	
생활인구 1조	살기좋은 도시 건설로 인구증가 도모 새만금 개발을 통한 행정관청, 학교 유치 및 시 관련 교육현장 도입,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훈련·양성 미성년자 아르바이트 지원(기관 및 사업체 연계) 맞춤형 외국인 정착지원 패키지 구축(한국어+노동법+기술훈련)	
생활인구 2조	MZ 트렌드 강화 정책 청년들 타겟 군산시 트렌드한 문화 → 팝업스토어 콜라보 유치 필름카메라 제공 : 초원사진관 활용(레트로 & 사진)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SNS, 팸플릿 홍보콘텐츠 강화	
지역살기 1조	군산! 치유의 도시 만들기 : 지역 공동체 회복 돌봄 Care(경로당 24시간 운영) 농어촌 빈집 활용 Culture(공예품 전시장 겸 공예카페 운영) 마을정원 Cure(작은 정원 조성을 통해 공동체 정원 가꾸기 등)	
지역살기 2조	군산! 이맛에 살다 아동 : 아이돌봄 시간 예약제 시행, 아이 출산시 아이키움통장 지원 중장년 : 정서적 고립 예방을 위한 일주일에 2번 찾아 뵙기 노인 : 한달살기(빈집개선) 및 금액 지원, 노인 병원동행 등 생활기반 SOC 편리성 극대화(유모차, 전동차, 자전거 도로 조성) 문화시설 확충(청년들 확대, 인프라 확충)	최우수 제안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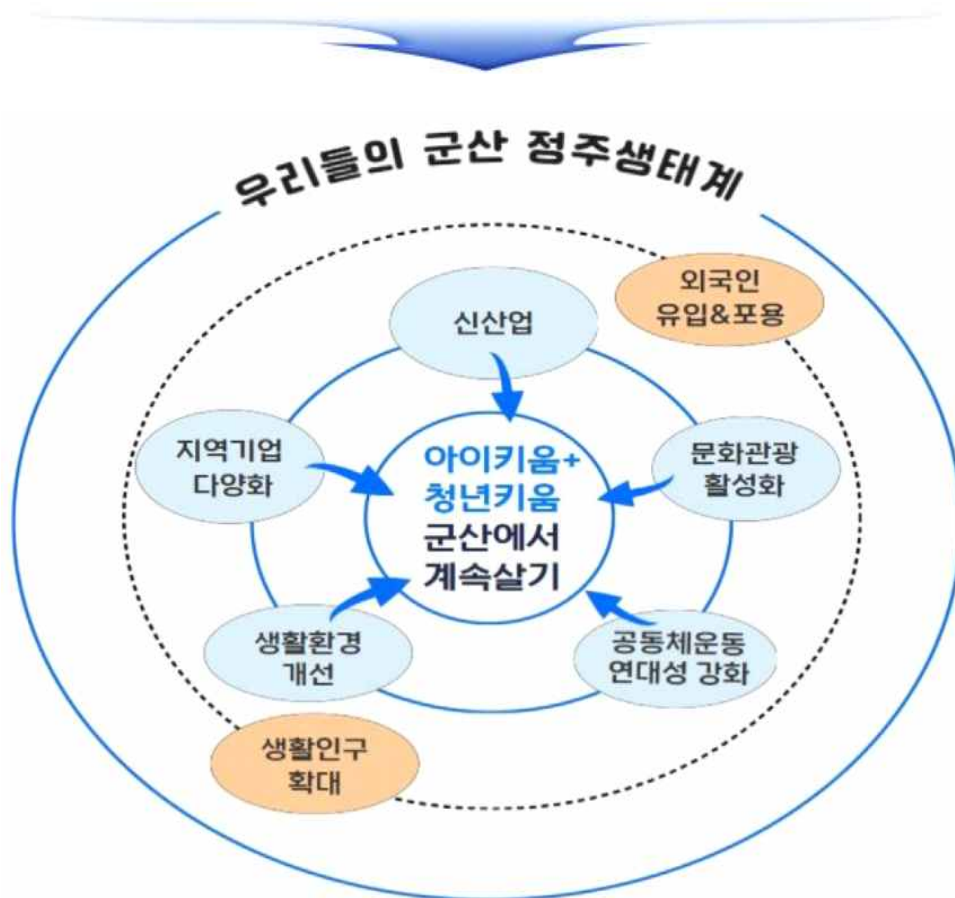
☑ 인구 인식개선 공동체 운동

○ 인구 인식개선 공동체 운동 영상 제작 및 상영

- 목적 : 배려와 포용의 시민공동체운동 영상 공유 및 공동체 운동 참여 실천
- 촬영일시 : 2025. 6. 6.(금) ~ 2025. 6. 13.(금)
- 촬영장소 : 군산시청 1층 로비, 군산 가족센터, 군산의료원, 군산 공설시장, 군산 노인종합복지관, 군산 금강노인복지관, 청년뜰
- 참여인원 : 약 100명 (군산시민, 단체 및 기관 등)
- 내용 구성
 - 군산시 인구정책에 대한 응원 메시지
 - 다양한 연령과 직업군 시민들의 릴레이 인터뷰
 - 함께 만드는 군산의 미래 메시지를 담은 시민 캠페인 형태



[그림 4-143] 인구 인식개선 공동체 운동 시민 캠페인



[그림 4-144] 군산시 인구정책 추진방향 및 개선방향

☑ 군산시 원탁토론회 시사점

○ 인구 위기의 구조적 진단

- 한국사회의 매우 빠른 고령화 진행
 - 가까운 미래, 최고수준의 고령사회 진입 전망
-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 증가 추세 → 결혼·출산감소 연결성(위험)
- 군산시 산업위기 속에서도 인구 25만명 유지
 - 최근 청년유출과 출생아 수 급감추세
- 청년유출 → 출생아 감소 → 학생수 감소 → 지역 교육 위기
 - 구조적 악순환 연결고리 강화추세
- ‘인구 감소’ 자체 보다 ‘지역유지력의 약화’가 더욱 중대한 위기

☑ 군산시 원탁토론회 시사점

○ 출산·보육 기반

- 군산시민과 공무원 수요조사에서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분야(보육·돌봄·교육 8.89점)
- 초기 육아 부담 경감 등 자연감소 대응 핵심 전략이 요구됨

○ 청년 정착 생태계

- 청년 유출감소(‘24년 큰 폭 완화)는 긍정적 신호로 정주여건 형성을 위해 일자리·주거·문화 결합 생태계 구축 필요
- 지역대학·산업·창업 인프라 연계를 통해 청년의 장기적 정주기반 강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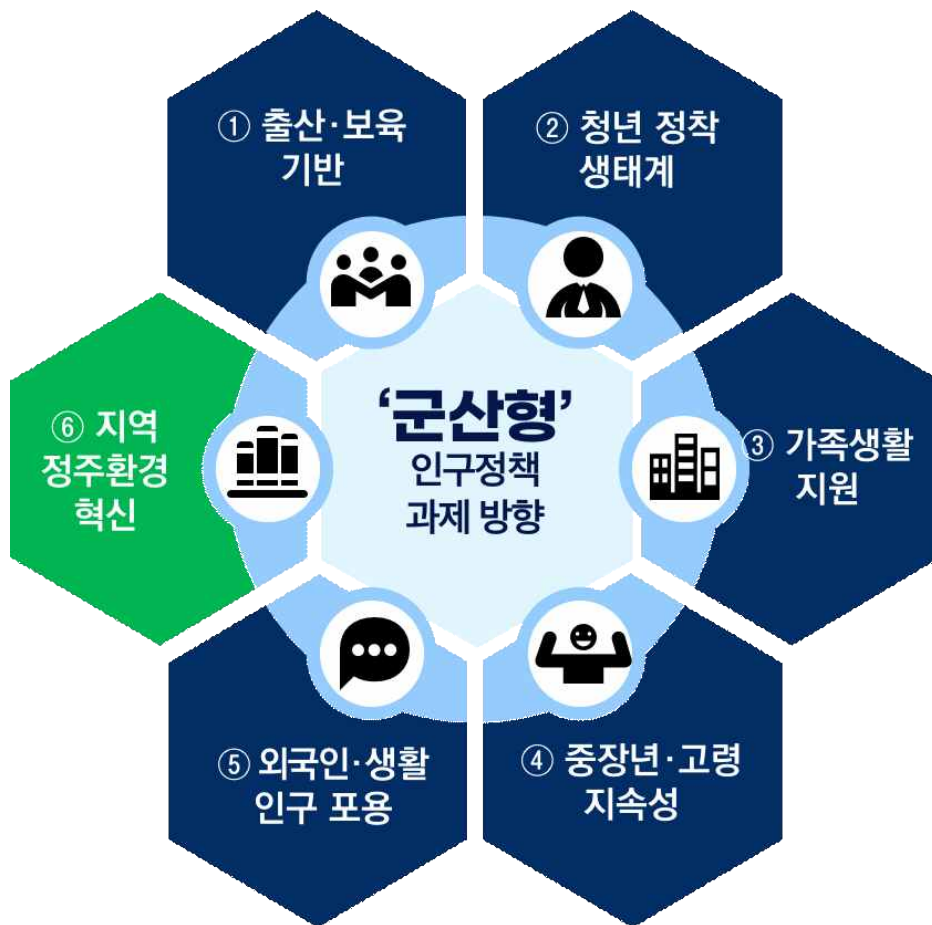
○ 가족생활 지원

- 학부모 생활환경·교육환경 개선 요구
- 교통·주택·돌봄 등 생애주기 맞춤형 가족지원체계 강화 필요

○ 중장년·고령 지속성

- 재취업·건강, 의료·돌봄 등 정책 개선 연구
-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돌봄·건강·일자리 결합형 정책체계 필요

- 외국인·생활인구 포용
 -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생활인구 증가 추세로 지역사회 통합 체계 마련 필요
 - 정주지원·주거·복지·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상생 인구전략 필요
- 지역정주환경 혁신
 - 군산시민의 정주여건 개선 요구(주거 21.3%, 교통 10.5%)
 - 의료·교육·교통·문화 인프라 질적 향상에 따른 인구 유지·유입 필요



[그림 4-145] 군산시 인구정책 과제 방향

☑ 군산시 인구정책 및 사업 관련 전문가 의견

-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이상림 박사
 - 군산 인구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 영역들을 아우르는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사업의 구성이 복지사업에 국한되는 기존 양상 반복
 - 군산의 인구 위기요소와 기회요소를 뚜렷히 부각시키고, 그에 따라 각 사업들의 필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군산대학교 이국용 교수
 - 인구정책관점에서 SWOT 분석을 수행하고, 이에 기초한 인구정책 대응을 위한 전략적 방향 도출 필요
 - 지역인구감소의 주된 원인 중의 하나로 경제상황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해 보이며, 외국인에 대한 사업관련 내용 필요
- 전북연구원 이종섭 연구위원
 -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관광정책 추가하는 검토 방안이 필요해 보임
 - 최근 인구정책은 정주인구 증가와 함께 생활인구증가도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관광인프라 개선 등 새로운 정책 과제로 제시되면 좋을 것 같음
- 국토연구원 김명한 전문연구원
 - 군산시 인구정책에 대한 자료 검토를 통해 각 인구정책의 방향성을 정리하여 제시해줄 필요가 있음(출생, 고령자, 청년 유입 중심에 대한 방향성 검토 필요)
 - 분야별 전략과제가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정리된 총괄표 제시 필요
- 국토연구원 안소현 부연구위원
 - 지역여건분석, 의견조사에서 나온 낮은 청년고용률, 교육환경, 의료기관, 주거환경 등 사업(전략과제)로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지역 산업수요와 연결되어야 성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인구정책은 지역산업구조 변화와 연동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원도 부연구위원
 - 인구 반등이 어려운 현실에서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악화시키는 지원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 필요
 - 하드웨어 사업보다 지역혁신 수준 향상을 고려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사업을 기업-대학과 연계하여 함께 마련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함

■ 군산시 S.W.O.T 분석

○ 내부환경분석 - 강점(Strengths) 및 약점(Weaknesses) 요인

- 대규모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제조업, 물류, 기계·금속산업이 지역 경제의 중심을 이루고 있음
 - 군산국가산업단지는 가장 오래된 단지로, 비교적 안정된 고용률을 보이며 약 4,500여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고 수출 실적은 21억 달러로 전체 산업단지 중 상위 수준에 해당
-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광역교통체계 형성
 - 군산시는 장항선 복선전철화 사업(2026년 완료 예정)과 새만금항·새만금공항 인입철도 사업을 통해 철도 접근성 향상을 추진 중임
 - 대야역은 향후 새만금 연계 교통망의 핵심 환승거점으로 지정되어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 환승 기능 확대 예상
- 등록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음
 - 군산 외국인 주민 약 13,374명, 군산시 전체 인구의 5%
- 반면, 생산연령인구(15~64세)의 절대규모가 감소하는 중임
 - 생산연령인구인 15세부터 64세까지의 비중 또한 2016년 73.4%에서 2023년 70.6%로 점진적인 감소 추세를 보임
 - 고령인구인 65세 이상은 2016년 13.0%에서 2023년 18.6%로 큰 폭으로 증가하여 고령화가 빠르게 심화되고 있음
- 산업과 농촌지역 생활권 간 정주 여건 격차 존재
 - 군산시는 도농복합도시로, 도심·산업·농촌 권역 간 공간적 기능이 구분되어 생활권 간 정주 여건 격차 존재
- 지역경제 구조의 제한성과 청년 고용환경 부족
 - 30-49세 연령층은 77.7%의 고용률을 기록해 지역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청년층(15-29세)은 37.2%로 고용률이 낮아 청년 일자리 창출이 과제로 지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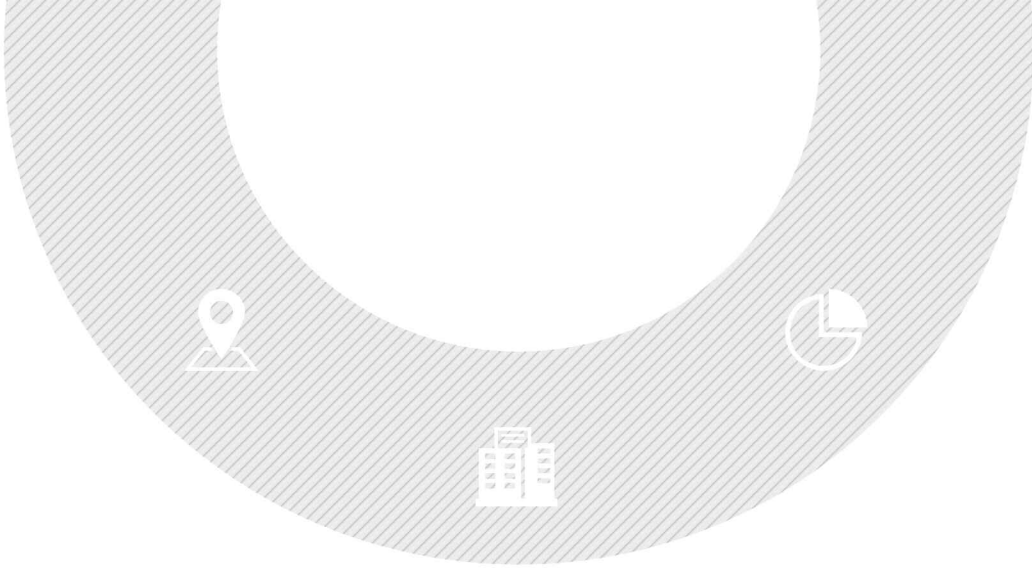
○ 외부환경분석 - 기회(Opportunities) 및 위협(Threats) 요인

- 중앙정부·전북특별자치도의 인구·청년·주거 정책과의 높은 정합성
- 정책 거버넌스·성과관리 체계 도입 가능성 확대
- 외국인 주민 증가로 인한 노동력·지역활력 확충 기회
- 수도권 중심 구조 심화로 인한 청년 유출 지속

- 출생아 감소의 가속화로 인한 장기 인구재생산 기반 붕괴
 - 0세부터 19세까지의 유소년 인구는 뚜렷하게 축소되었으며, 특히 0~9세 인구 급감은 저출산의 영향이 구조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로 해석됨
-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부양비 증가 및 재정 압박 증가
 -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이 감소하고, 부양인구(특히 고령층) 비중이 증가하여 사회적·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큼
- 전략 방향 도출
 - S-O 전략
 - 중앙정부·전북특별자치도 정책 정합성을 활용한 청년 정착 생태계 구성 가능
 - 관광과 산업 개선에 초점을 맞춰 도시 발전뿐만 아니라 인구측면에서 성장가능성을 볼 수 있음
 - 대규모 산업단지외 산·학·연 연계로 취업 및 창업 지원을 통해 군산시 청년을 지원할 수 있음
 - S-T 전략
 - 지역 대학·산업·문화 인프라와 연계한 청년 정착 생태계 구축을 통해 장기적인 유입이 가능함
 - 대규모 산업단지 개선을 통해 신중년대상 일자리 및 고령자 친화 산업 육성 확대가 가능함
 - 외국인주민 증가에 따른 다문화 통합형 노동력 유지전략 필요
 - W-O 전략
 - 외국인 주민 증가를 활용하여 정착지원센터, 다국어 생활안내 등 커뮤니티 활성화 정책 도입 필요
 - 중앙정부·전북특별자치도 청년정책을 활용하여 청년 장기 정착률을 높이는 주거·자산형성·일자리 정책 보완
 - 상위계획·외국인증가·생활인구 확대 기회를 활용한 정주여건 및 고용여건 개선
 - W-T 전략
 - 임신·출산·보육 지원 확대와 보육환경 개선을 통해 인구 자연감소에 대응이 가능함
 - 일자리 창출, 창업 인프라 강화, 주거 안정 정책을 함께 추진하여 청년층 유출을 방지할 수 있음
 - 인구 고령화·자연감소 심화에 대한 생애주기 맞춤형 인구대응 체계 필요

[표 4-12] 군산시 S.W.O.T 분석

	강점(Strengths)	약점(Weaknesses)
<p style="text-align: center;">S.W.O.T 분석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제조업, 물류, 기계·금속산업이 지역 경제의 중심을 이루고 있음 •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광역교통체계 형성 • 교육·복지·돌봄 영역의 정책 기반 구축 • 등록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연령인구(15~64세)의 절대 규모 감소 • 교육·의료·주거 영역의 정주여건 취약 • 지역경제 구조의 제한성과 청년 고용환경 부족 • 읍면지역의 급격한 인구 감소 및 공간 불균형 확대
<p style="text-align: center;">기회(Opportuniti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전북특별자치도의 인구·청년·주거 정책과의 높은 정합성 • 정책 거버넌스·성과관리 체계 도입 가능성 확대 • 외국인 주민 증가로 인한 노동력·지역 활력 확충 기회 	<p>S-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전북특별자치도 정책 정합성을 활용한 청년 정착 생태계 구성 가능 • 관광과 산업 개선에 초점을 맞춰 도시 발전뿐만 아니라 인구축면에서 성장 가능 • 대규모 산업단지과 산학연 연계를 통해 취업 및 창업 지원을 통한 청년 지원 가능 	<p>W-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주민 증가를 활용하여 정착지원센터, 다국어 생활안내 등 커뮤니티 활성화 정책 도입 필요 • 중앙정부·전북특별자치도 청년정책을 활용하여 청년 장기정착률을 높이는 주거·자산형성·일자리 정책 보완 • 상위계획·외국인 증가·생활인구 확대 기회를 활용한 정주여건 및 고용여건 개선
<p style="text-align: center;">위협(Threat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중심 구조 심화로 인한 청년 유출의 구조적 지속 • 출생아 감소의 가속화로 인한 장기 인구재생산 기반 붕괴 •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부양비 증가 및 재정 압박 증가 • 읍면 소멸 및 도시 기능 쇠퇴의 연쇄적 악순환 위험 	<p>S-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대학·산업·문화 인프라와 연계한 청년 정착 생태계 구축을 통해 장기적인 유입 가능 • 대규모 산업단지 개선을 통해 신중년대상 일자리 및 고령자 친화 산업 육성 확대 가능 • 외국인주민 증가에 따른 다문화 통합형 노동력 유지전략 필요 	<p>W-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출산·보육 지원 확대와 보육환경 개선을 통해 인구 자연감소 대응 가능 • 일자리 창출, 창업 인프라 강화, 주거 안정 정책을 함께 추진하여 청년층 유출을 방지할 수 있음 • 인구 고령화·자연감소 심화에 대한 생애주기 맞춤형 인구대응 체계 필요



CHAPTER

05

군산시 인구정책 추진방향

제1절 군산시 인구정책 비전체계

제2절 군산시 인구정책 사업

제3절 재정투입계획

제5장 군산시 인구정책 추진방향

제1절 군산시민 인구정책 비전체계

■ 군산시 정합성·연계성 분석

☑ 중앙정부 인구정책 기초

- 아동수당 확대, 산후조리 공공지원, 자녀 수에 따른 세제 혜택 등의 공약 등 단기적 출산율 제고보다 가정형성과 자녀양육을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기반 마련에 중점
- 어르신 이동권보장과 고령자 친화주택 등 고령층에 대한 단순 보호 넘어 독립성과 사회참여 지원 (고령사회 정책의 질적 전환)
- 일·가정 양립 등의 제도변화에 대하여 돌봄의 책임을 가족 내 개인이 아닌 사회가 함께 분담하는 구조로 전환함을 강조(노동문화 개선과 기업 환경 변화 도모)
- 청년의 자산형성과 주거안정이 결혼과 출산에 선행됨을 강조, 인구정책이 출산장려 중심에서 청년 삶의 기반 전반적 지원으로 재편 강조
- 군산아이 꿈씨앗프로젝트,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군산형 가사서비스, 정책 제도 전반 기본소득 개념 도입, 정책과제의 맥락연계성 높음(지속유지 필요성 큼)

☑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초

- 군산시는 도내에서 산업교통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춰진 도시, 최근 대기업 철수 및 산업구조 침체로 인한 청년층 유출 심화
 - 20~30대 청년층 유출과 고령화의 동시진행으로 자연감소와 사회감소가 동시 발생
- 전북 인구정책 종합계획은 군산의 특성과 연계성이 높고, 중점과제들의 정합성 및 맥락 동일성이 높으므로 정책 적용가능성이 큼

- 산학연 연계 통한 지역대학 취업역량 강화, 창업지원 강화 등 군산대와 지역 대학의 연계 및 일자리 강화로 가능
-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임대료 지원,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플랫폼 조성 적용 가능
- 출산양육 관련 인프라 확충, 지역 기반 돌봄서비스확대, 다자녀 가정 혜택 강화, 미혼부모 및 한부모 지원 확충
- 신중년 및 고령층 대상 일자리-돌봄-건강 인프라 확충
- 군산 해양관광자원, 근대문화유산, 산업단지 활용 체류인구 유입기반 마련 가능, 귀농귀촌형 농촌마을, 체험형 향토산업 콘텐츠 개발, 원도심 빈집 활용, 커뮤니티 활용

■ 인구계획 정합성·연계성 분석

-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육아 및 교육기반 강화, 키움 품앗이 공동체를 지원함으로써 젊은 세대 정착 유도,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하고 있음
 - 저출산 대응형 인구정책과제와 연계성 높음 지속 유지 강화
- 맞춤형 교육, 돌봄 정책 강화: 영유아~초중고 맞춤형 교육 및 돌봄 정책지원이 아동 양육부담 경감과 연계되며, 청년층의 인구 유출 억제에 기여(중점과제 지속 유지)
- 돌봄, 장애인, 어르신 복지 안전망 구축: 돌봄 청년, 장애인, 어르신 등 전 계층 포괄적 복지체계 구축(인구구조 고령화 대응 및 인구유지 기반 확보 정책 방향으로 확대추가)
-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통한 삶의 질 향상: 군산전북대병원 유치 및 어린이병원 등 수준 높은 의료환경 조성
 - 정주 매력 높여 외부 인구 유입과 지역 내 인구정착 유도, 중점과제와의 연계
-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및 청년 로컬크리에이터육성: 청년 창업지원 및 지역경제 기반 강화로 청년 일자리 창출, 기존 인구의 안정화
 - 인구 유지에 긍정적, 생활인구 중점과제 연계, 가족키움지역경제 기반 강화 연계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정주환경 구축: 철길숲, 해양관광 등 생태환경 인프라 구축
 - 도시환경 조성, 관광휴양위케이션 생활인구 유입과 연계

■ 인구정책 체계 설계

- 비전, 목표, 중점전략과제(Hub) 및 연계집중과제(Spoke) 설계
- 중점전략과제(Hub) 및 연계집중과제(Spoke) : 중점전략과제[(Hub) 아이키움, 청년정책] 및 연계집중과제[(Spoke) 생활인구, 세대공존, 정주환경]
- 분야별 전략 및 세부목표 설정 : 중앙정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정 체계와 맥락 연계성 제고 설계
- 분야별 중점 전략과제 : 인구정책 시행계획, 아동정책, 청년정책, 외국인정책, 주요업무계획 등과 연계된 사업에 대하여 기존 강점과제 유지 / 상위계획 및 연관계획 시사점에 따라 군산시 기존 강점과제 분야에 따른 분류 재배치 (계획 체계 정합성 제고)

■ 분야별 목표

☑ 중점전략과제(Hub)

- (아이키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 출산·육아·돌봄·교육 중심, 저출생 대응 및 출산율 제고 전략적 지원
- (청년정책) 청년이 삶을 설계하는 도시
 - 일자리·취·창업·역량강화·정주중심, '소득창출-정주안정-지역정책' 견고화

☑ 연계집중과제(Spoke)

- (생활인구) 찾고 살고싶은 포용 도시
 - 관광, 워케이션, 외국인 체류 등 생활인구 유입 전략 지원
- (세대공존) 세대공존 생활 정주 도시
 - 은퇴세대와 청년세대가 함께 공존하는 정주모델 구축
- (정주환경) 새로움이 좋아지는 일터 군산, 새로움을 삶속으로 고향 군산
 - 일자리-돌봄-문화를 갖춘 <기본 삶> 지원 기반 강화

■ 중점전략과제(Hub)

☑ 아이키움

○ 시사점 도출 및 정책방향

- 군산인구 실태(정책형성 희망)
 - 출산·양육비용 부담, 돌봄 인프라 부족으로 출산·양육 기피 심화
 - 교육·의료 접근성 개선 요구가 높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필요
- 시사점 도출
 - 보육·돌봄·교육 전반의 부담 완화를 위한 공공지원 확대 필요
 - 임신·출산·양육을 하나의 연속된 정책 체계로 재설계 필요
- 군산시 정책방향
 - 출산·육아·보육·교육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 체계 구축 필요
 - 임신부 지원, 돌봄서비스 확대 등 비용 부담 완화 중심 정책 추진 필요

○ 추진방향

-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 출산·육아·돌봄·교육 중심, 저출생 대응 및 출산율 제고 전략적 지원

○ 중점 전략 과제

- 추가 고려 정책 방향 : 중고등학생, 대학교 입학까지의 교육환경 강화 및 세대 이탈방지
 - 임신부 교통비·운동비 지원 패키지
 - 군산청년 1인 소상공인 및 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
 -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추가 지원
 - 군산아이 꿈씨앗 키움사업
 - 우리아이 꿈탐험 지원사업
 - 3자녀 이상 가구 패밀리카 지원
 - 군산형 가사서비스 지원

☑ 청년정착

○ 시사점 도출 및 정책방향

- 군산인구 실태(정책형성 희망)
 - 청년층 일자리 부족·주거 불안정으로 외부 유출 지속
 - 지역 내 기업정보·문화 인프라 부족으로 정착 기반 취약
- 시사점 도출
 - 청년 일자리·주거 안정성과 지역 내 삶의 기반(문화교류)의 동시 강화 필요
 - ‘일·삶·정착’이 연결되는 지역형 청년 정책 체계 구축 필요
- 군산시 정책방향
 -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 주거 안정 지원 강화
 - 청년문화공간·창업·취업 연계로 지역 내 청년 정착 생태계 조성 필요

○ 추진방향

- 청년이 삶을 설계하는 도시
- 일자리·취·창업·역량강화·정주중심, “소득창출-정주안정-지역정착” 견고화

○ 중점 전략 과제

- 추가 고려 정책 방향 : 청년 직업체험, 기업정보 플랫폼 강화, 급여체계 안정화, 청년문화인프라 확충
 - 청년 주택 월세 및 상가임차료 지원
 - 군산청년 스프레드 지원
 - 신혼부부 주택/전세(구입) 자금 대출이자 지원

■ 연계집중과제(Spoke)

☑ 생활인구

○ 시사점 도출 및 정책방향

- 군산인구 실태(정책형성 희망)
 - 관광·체험형 콘텐츠 및 지역생활 인프라 개선 필요
 - 산업단지·서비스업 인력 부족이 지속되며, 외국인 증가에 따른 지역 적응 이슈 발생
- 시사점 도출
 - 관광·휴양·위케이션을 통한 방문·체류인구 확대 전략 중요
 - 외국인 정착지원·교류프로그램 확대로 지역사회 수용성 제고 필요
- 군산시 정책방향
 - 관광·위케이션·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생활인구를 형성해 전입 인구 전환 유도 필요
 - 외국인 정착지원, 지역 적응 교육·문화 교류 확대 필요

○ 추진방향

- 찾고 살고 싶은 포용도시
- 관광, 위케이션, 외국인 체류 등 생활인구 유입 전략 지원

○ 중점 전략 과제

- 추가 고려 정책 방향 : 생활인구 체류기간 확대, 지역내 소비 증진(소비-교통-음식-관광지 연계)
 - 군산형 공공위케이션
 - 군산 외국인주민 정주생활 커뮤니티 구축
 -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 세대공존

○ 시사점 도출 및 정책방향

- 군산인구 실태(정책형성 희망)
 - 주거·의료·교육·근로환경의 질적 편차로 생활 만족도 낮음

- 중·장년 재취업, 고령층 돌봄건강 서비스 수요 증가
- 시사점 도출
 - 고령화 대비 돌봄·의료·평생 교육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확대 필요
 - 세대 간 공존을 위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와 생활안전망 필요
- 군산시 정책방향
 - 중·장년 재취업·경력설계, 고령친화 서비스 확충
 - 안전한 주거환경·교육·의료 인프라 질적 향상
- 추진 방향
 - 세대공존 생활 정주 도시
 - 은퇴세대와 청년 세대가 함께 공존하는 정주모델 구축
- 중점 전략 과제
 - 추가 고려 정책 방향 : 중장년 및 은퇴자 건강관리, 웰니스 정책(생활인구 및 재취업 일자리 연계)
 - 공공형 은퇴자마을 조성
 - 중·장년 근로자 경력진단 및 설계 지원
 - 고령친화산업 복합단지 조성
- ☑ 정주환경
- 시사점 도출 및 정책방향
 - 군산인구 실태(정책형성 희망)
 - 주거·교육·의료·교통 등 생활인프라의 질적 격차가 커 정주만족도가 낮은 편
 - 생활권별 인프라 접근성 차이가 커 지역내에서도 정주 여건의 불균형 확대
 - 시사점 도출
 - 인구·유입·유지 모두 어려우며, 생활 인프라의 질적 향상 필요
 - 삶의 질을 결정하는 도시 경쟁력 확보 필요

- 군산시 정책방향
 - 주거·교육·의료·교통의 전반적 체질 개선과 군산만의 정주매력 요소 발굴 필요
 - 관계인구·체류인구를 정주로 연결하는 정책이 요구됨
- 추진방향
 - 세대가 머무르는 품질기반 도시
 - 일자리-돌봄-문화를 갖춘 <기본 삶> 지원 기반 강화
- 중점 전략 과제
 - 추가 고려 정책 방향 : 생활권 기반 정주지원 강화, 지역 이동 편의성 혁신, 주거 안전·품질 고도화
 - 일자리
 - 청년 일자리 상생내일채움공제
 - 청년 지역정착 및 활력수당 지원
 - 창업희망키움
 - 돌봄
 - 공공심아어린이병원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SOS틈새돌봄센터 운영
 - 정주여건
 -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
 - 독서문화공간(공공도서관) 확충
 - 국립대지역 연계 복합센터 건립
 - 노인복합문화시설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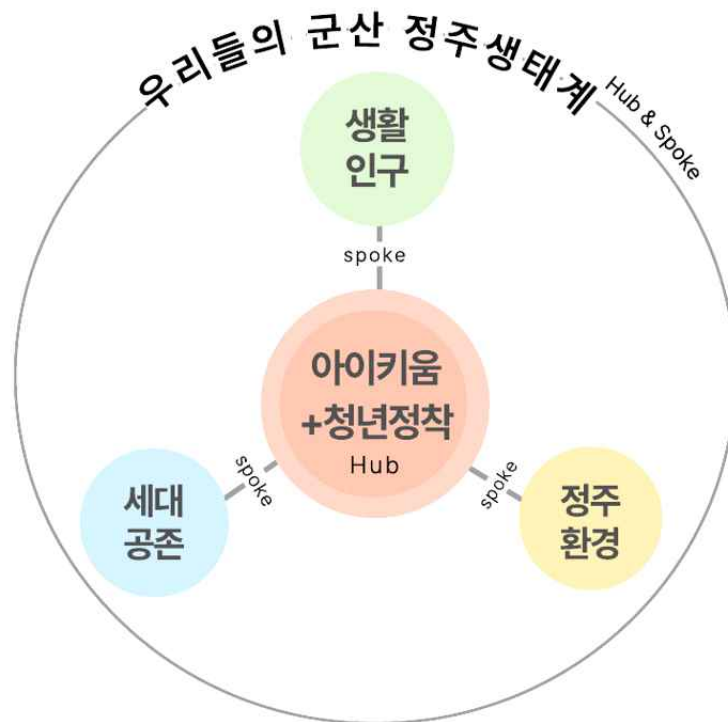
○ 비전 및 목표

비전

아이와 청년이 머무는 도시, 함께 키우는 우리들의 군산

목표

지속가능한 전 생애 기본살을 보장하는 정주 생태계 구축



○ 중점전략과제(Hub)

아이키움

-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 출산·육아·돌봄·교육 중심, 저출생 대응 및 출산율 제고 전략적 지원

청년정착

- 청년이 삶을 설계하는 도시
- 일자리·취·창업·역량강화·정주중심, "소득창출-정주안정-지역정착" 견고화

○ 연계집중과제(Spoke)

생활인구

- 찾고 살고 싶은 포용 도시
- 관광, 워케이션, 외국인 체류 등 생활인구 유입 전략 지원

세대공존

- 세대공존 생활 정주 도시
- 은퇴세대와 청년세대가 함께 공존하는 정주모델 구축

정주환경

- 세대가 머무는 품질기반 도시
- 일자리·돌봄·문화를 갖춘 <기본 살> 자원 기반 강화

[그림 5-1]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제2절 군산시 인구정책 사업

1) 분야별 사업 목록

☑ 중점전략과제(Hub)

- (아이키움) 총 7개 사업이 있으며, 임신·출산·육아 단계별 맞춤 지원을 통해 군산시 가정의 경제·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성장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청년정책) 사업은 총 3개이며, 청년의 주거·창업·결혼 초기 부담을 완화하여 정착과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5-1] 군산시 인구정책 분야별 사업 목록

연번	사업명	추진주체		계속 사업 구분		
		자체	국·도 지원	계속	보완	신규
1. 아이키움(7개 사업)						
1-1	• 임신부 교통비·운동비 지원 패키지	●				●
1-2	• 군산청년 1인 소상공인 및 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		●			●
1-3	•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추가 지원		●			●
1-4	• 군산아이 꿈씨앗 키움사업	●				●
1-5	• 우리아이 꿈탐험 지원사업	●				●
1-6	• 3자녀 이상 가구 패밀리카 지원		●			●
1-7	• 군산형 가사서비스 지원	●				●
2. 청년정책(3개 사업)						
2-1	• 청년 주택 월세 및 상가임차료 지원		●			●
2-2	• 군산 청년 스토메 지원사업		●			●
2-3	• 청년 / 신혼부부 전세(구입) 자금 대출이자 지원	●				●

[표 5-2] 중점전략과제 중장기로드맵

분야	중점전략과제	단기('26-'30)	중기('31-'35)	장기('36-'40)
아이키움	• 임산부 교통비·운동비 지원 패키지	_____		
	• 군산청년 1인 소상공인 및 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	_____		
	•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추가 지원	_____		
	• 군산아이 꿈씨앗 키움사업	_____		
	• 우리아이 꿈탐험 지원사업	_____		
	• 3자녀 이상 가구 패밀리카 지원	_____		
	• 군산형 가사서비스 지원	_____		
청년정착	• 청년 주택 월세 및 상가임차료 지원	_____	_____	
	• 군산 청년 스토메 지원사업	_____	_____	
	• 청년 / 신혼부부 전세(구입) 자금 대출이자 지원	_____		

☑ 연계집중과제(Spoke)

- (생활인구) 총 3개 사업을 도출했으며, 인구가 군산에 안정적으로 정주하고 지역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세대공존) 세대공존 분야의 사업은 총 3개로 중·장년과 고령층의 안정적 노후 생활과 경제활동 지속을 지원하는 고령친화 정주·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정주환경) 총 10개의 사업으로 전 생애주기별 일자리·돌봄·정주 기반을 강화하여 청년부터 노년까지 지속가능한 지역 활력과 생활품질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5-3] 군산시 인구정책 분야별 핵심사업 목록

연번	사업명	추진주체		계속 사업 구분		
		자체	국·도 지원	계속	보완	신규
3. 생활인구(3개 사업)						
3-1	• 군산형 공공워케이션		●			●
3-2	• 군산 외국인주민 정주생활 커뮤니티 구축	●				●
3-3	•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				●
4. 세대공존(3개 사업)						
4-1	• 공공형 은퇴자마을 조성		●			●
4-2	• 중·장년 근로자 경력진단 및 설계 지원	●				●
4-3	• 고령친화산업 복합단지 조성		●			●
5. 정주환경(10개 사업)						
5-1	• 청년일자리 상생내일채움공제		●			●
5-2	• 청년 지역 정착 및 활력수당 지원	●				●
5-3	• 창업희망키움	●				●
5-4	• 공공심야어린이병원	●				●
5-5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
5-6	• SOS틈새돌봄센터 운영		●			●
5-7	• 찾아가는 동네문화센터	●		●		
5-8	• 독서문화공간(공공도서관) 확충		●	●		
5-9	• 국립대지역 연계 복합센터 건립		●	●		
5-10	• 노인복합문화시설 조성		●	●		

[표 5-4] 연계집중과제 중장기로드맵

분야	중점전략과제	단기('26-'30)	중기('31-'35)	장기('36-'40)
생활인구	• 군산형 공공위케이션	_____	_____	_____
	• 군산 외국인주민 정주생활 커뮤니티 구축	_____	_____	_____
	•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_____	_____	_____
세대공존	• 공공형 은퇴자마을 조성	_____	_____	_____
	• 중·장년 근로자 경력진단 및 설계 지원	_____	_____	_____
	• 고령친화산업 복합단지 조성	_____	_____	_____
정주환경	• 청년일자리 상생내일채움공제	_____	_____	_____
	• 청년 지역정착 및 활력수당 지원	_____	_____	_____
	• 창업희망키움	_____	_____	_____
	• 공공심야어린이병원	_____	_____	_____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_____	_____	_____
	• SOS틈새돌봄센터 운영	_____	_____	_____
	• 찾아가는 동네문화센터	_____	_____	_____
	• 독서문화공간(공공도서관) 확충	_____	_____	_____
	• 국립대지역 연계 복합센터 건립	_____	_____	_____
	• 노인복합문화시설 조성	_____	_____	_____

2) 중점전략과제(Hub)

■ 아이키움 중점 전략과제

1-1	임산부 교통비·운동비 지원 패키지	단기	중장기	담당과
		○	-	인구대응 담당관

☑ 배경 및 목적

- 군산시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교통비와 운동비를 지원하는 바우처를 발급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군산인구 실태조사_청년(임산과 출산을 위해 중요한 부분 1위_출산 준비 지원)]

☑ 사업대상

- 군산시에 거주하는 임산부(유효기간 1년 카드발급)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6년~'30년
 - 보건소에서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발급시, 대중교통을 지원하는 카드를 동시에 발급(유효기간은 발급일 기준 1년으로 확정)
 - 해당 카드는 한달 최대 30천원을 지원하여 출퇴근 교통비 및 운동비('시민 참여단과 찾아가는 현장대화' 의견) 지원
- 산출근거 : 1,000명 × 30천원(한달) × 12회

☑ 연도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합계
임산부 지원 패키지	360	360	360	360	360	1,800

☑ 기대효과

- 임산부를 금전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군산시의 대중교통 활성화 및 임산부 건강 증진

1-2	군산청년 1인 소상공인 및 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	단기	중장기	담당과
		○	-	인구대응 담당관

☑ 배경 및 목적

- 1인 소상공인 및 농어업인 출산 시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수입 감소에 대한 경제적 비용 완화(군산인구 실태조사_청년(임산과 출산을 위해 중요한 부분 1위_출산 준비 지원))

☑ 사업대상

- 관내 청년(18~39세) 1인 소상공인 및 농어업인 / 35명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6년~'30년
 - 군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며, 자녀를 출생 신고한 사람으로 전북특별자치도내 6개월 이상 사업장을 둔 1인 소상공인 및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출산급여 지원
 - 도내 청년 1인 소상공인 및 농어업인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시 출산급여 지원(본인 90만원, 배우자 80만원)
- 산출근거: 35명(도 전체 300명) / 연 31.5백만원(도비 9.5, 시비 22)

☑ 연도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합계
1인 소상공인 농업인 지원	31.5	31.5	31.5	31.5	31.5	157.5

☑ 기대효과

- 임신 및 출산기 경영 공백 완화와 양육 지원을 통한 안정적 경제활동 보장

1-3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추가 지원	단기	중장기	담당과
		○	-	여성가족 청소년과

☑ 배경 및 목적

- 남성이 아이의 육아를 위해 휴직함으로써 육아 휴직, 출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성 경력 단절 현상을 저감하고, 경제적 부담이 적은 육아 환경 조성[군산인구 실태조사_공무원(출산 지원금 점수 10점 만점 중 7.77점) 및 전문가 자문 의견]

☑ 추진근거

- '전북형 저출생 정책'_양육은 행복하게_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 사업대상

- '전북형 저출생 정책'의 지원대상에 포함된 남성 근로자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6년~'30년
 - 육아휴직, 출산 등으로 발생하는 여성 경력 단절 현상을 저감하기 위해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
 - 군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양육하는 가정의 남성을 대상으로 장려금 지원
 - 전북형 저출생 정책사업에 따라 도에서 지원받아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에게 장려금을 지원하여 군산 정주 여건 마련

☑ 연도별 추진계획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합계
남성	20명	20명	20명	20명	20명	100명

☑ 소요예산

-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에게 3개월간 도비 지원(도 최대 40명 지원)
 - 연 54백만원(도 16.2, 시 37.8) 담당과 협의완료

(단위 : 백만원)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합계
국비	-	-	-	-	-	-
도비	16.2	16.2	16.2	16.2	16.2	81
시비	37.8	37.8	37.8	37.8	37.8	189

☑ 기대효과

- 군산시 내 경력단절 여성을 저감하고, 남자에게 휴직을 부여함으로써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참고자료

- 전북특별자치도 저출생대응 정책

일·생활균형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남성 근로자 육아휴직 장려금

사업기간 2025년 3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남성 근로자

- ①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100인 미만 중소기업 남성 휴직자
- ②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경우
- ③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을 둔 경우
- ④ 「고용노동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인 경우

※ 제외대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2 및 제95조3에 따른 유야휴직급여 특례대상자
(특례 적용 기간 외 지원 가능)

지원내용 월 300,000원 * 최대 3개월 지원

1-4	군산아이 꿈씨앗 키움사업	단기	중장기	담당과
		-	○	인구대응 담당관

☑ 배경 및 목적

- 미래 비용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 완화로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긍정적 사고 전환 및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 아이들의 청년기 든든한 자립 자산을 마련하여 지역 경제의 선순환 효과 기대[학부모(양육시 힘든점 1위_양육, 교육비용) 및 군산인구 실태조사_공무원(출산 지원금 점수 10점 만점 중 7.77점)]

☑ 추진근거

- '국정운영 5개년 계획'_[국정82] 생애주기별 금융 자산·소득 형성(금융위)_우리아이자립펀드 신설

☑ 사업대상

-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 아동 '26년 이후 출생자 / (지원유지) 대상자 및 부 또는 모 한 명 이상 군산시 주소 유지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6년~'30년
 - 군산거주 아동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직접 적립하는 방식으로 아동발달지원계좌에 비해 보다 광범위한 가정에게 혜택 제공
 - 국정과제 추진에 따라 군산거주 영유아의 생애주기별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
 - 지원 공백기 시기에 중간 지급을 통해 단순 만기형 적립이 아닌, 실질적인 지출 시점에 자금을 지원하여 가계부담 경감 효과
 - 아동 연령이 16세까지 적립이며, 17~18세 만기 분할 지급(최소 거주 기간은 10년, 6세 이전에 전입하는 경우만 가능)

☑ 연도별 추진계획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합계
아이	1,100명	1,100명	1,100명	1,100명	1,100명	5,500명

☑ 소요예산

- 매월 5만원씩 1,100명에게 만16세까지 지원
 - 출생아 수(추계) 1,000명, 전입아동 100여명(추정)
 - 매년 50천원 × 1,100명 × 12개월 = 660백만원씩 증가

(단위 : 백만원)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합계
국비	-	-	-	-	-	-
도비	-	-	-	-	-	-
시비	660	1,320	1,980	2,640	3,300	9,900

☑ 사업예시

- 대전광역시 영유아 가정을 위한 통장 출시_꿈씨패밀리 하나통장

☑ 기대효과

- 자녀를 양육(보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절감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참고자료

- 이재명정부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82 생애주기별 금융 자산·소득 형성 (금융위)

□ 과제목표

- 영·유아기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을 보다 강화
-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교육, 재무상담 확대 등 전 국민의 금융역량 제고

□ 주요내용

- (우리아이저축펀드 신설) 아동이 성인(만 18세)이 되기 전 목돈(예: 약 6,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 지원

- 대전 영유아 '꿈씨패밀리 하나통장'

'꿈씨패밀리 하나통장'의 적금통장은 가입은 이날부터 시작됐으며, 입출금통장 가입은 내달 2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이 통장은 영유아 가정을 위한 맞춤형 금융상품으로, 입출금통장과 적금통장 두 가지로 구성됐다. 각각 최대 연 2.5%, 8%의 금리를 제공한다.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을 받고 있는 0-2세 자녀의 부모는 수당 지급 통장과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 지역 내 하나은행 지점에서 통장을 개설하면 된다. 자녀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신규 가입할 경우 하나머니 2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혜택도 받을 수 있다.

1-5	우리아이 꿈탐험 지원사업 (초등학교 예체능 교육비 지원)	단기	중장기	담당과
		○	-	교육지원과

☑ 배경 및 목적

- 관내 초등학생의 비인지적 능력을 계발하여 균형 있는 두뇌 발달을 지원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제공을 통해 아이 성장 도모[학부모(양육시 힘든점 1위_양육, 교육비용)]

☑ 사업대상

- 관내 초등학교 1학년(또는 동일 연령)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6년~'30년
 - 초등학교 1학년생에게 예체능 교육비로 사용할 수 있는 월 10만원 바우처 제공
 - 연도별('26~'30) 1학년 학생 수 × 100천원 × 12회(월 1회) / 바우처에 매월 1회 비용 지급
- 산출근거 : 연도별('26~'30) 1학년 학생 수 지원

☑ 연도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합계
꿈탐험 지원사업	1,716	1,603	1,444	1,432	1,224	7,419

☑ 기대효과

- 관내 초등학생의 다양한 예체능 활동으로 흥미와 적성을 탐색하는 기회 부여

1-6	3자녀 이상 가구 패밀리카 지원	단기	중장기	담당과
		○	-	인구대응 담당관

☑ 배경 및 목적

- 3자녀 이상 가구의 차량 관련 구입 및 유지비용 부담 저감[학부모(양육시 힘든점 1위_양육, 교육비용)]

☑ 사업대상

- 관내 1년 이상 거주,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양육 가구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6년~'30년
 - 패밀리카(6~11인승)의 차량 구매 시, 신규구매 비용의 일부를 지원
 - 패밀리카_예시) 기아 쏘렌토, 카니발, EV9, 현대싼타페, 팰리세이드, 아이오닉 9 등
 - 지원금 수령 후, 즉시 매도 방지를 위해 2년 이상 유지 조건
- 산출근거 : 30가구(도 전체 200가구) / 연 150백만원(도비 60, 시비 90)

☑ 연도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합계
1인 소상공인 농업인 지원	150	150	150	150	150	750

☑ 기대효과

-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유지비용 부담 저감

1-7

군산형 가사서비스 지원

단기	중장기	담당과
○	-	인구대응 담당관

☑ 배경 및 목적

-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맞벌이·다자녀 가정 등에 가사서비스를 지원하여 가사노동의 부담 완화로 가사 휴식, 가족 시간 마련 등 일·가정 양립 지원[학부모(양육시 힘든점 1위_양육, 교육비용)]

☑ 사업대상

- 중위소득 120% 이하 맞벌이, 다자녀 가정 등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6년~'30년
 - 가정방문을 통한 가사서비스 지원(1회 4시간, 월 2회)
 - 방, 거실, 주방 청소, 설거지, 쓰레기 배출, 세탁 등 지원
- 산출근거 : 60,000원 × 600세대 × 10회(월 2회 × 5개월)

☑ 연도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합계
가사서비스 지원	360	360	360	360	360	1,800

☑ 기대효과

- 출산, 양육, 여성경제활동, 지역인구 정착 등을 위해 가사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맞춤형 정주여건 형성

■ 청년정착 중점 전략과제

2-1	청년주택 월세 및 상가임차료 지원	단기	중장기	담당과
		-	○	인구대응 담당관

☑ 배경 및 목적

- 군산시 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하는 청년의 월세 및 상가임차료를 지원하여 군산시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 개선[(군산인구 실태조사_청년(가장 필요한 주거정책_3위 주거비용 지원) 및 군산 인구 실태조사_공무원(주거지원 점수 10점 만점 중 7.95점)]

☑ 추진근거

- '국정운영 5개년 계획'_[국정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국조실)_청년 주거 안정 강화
- '전북형 저출생 정책'_취업·결혼은 가볍게_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사업대상

- 기존 '청년지원 주거사업'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청년층 / 만 39세 이하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6년~'30년 / 매월 10만원 지원(최대 1년)
 - 군산시민과 동시에 생활인구로 정착한 사회초년생의 정주여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월세 지원(최소 6개월 근무)
 - 현재 추진 중인 '청년지원 주거사업'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월세 및 임차료지원(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해당 월의 월세 및 임차료를 지불한 영수증(이체내역 등)을 첨부하여 시청에 제출하는 경우, 매월 최대 10만원 지원

☑ 연도별 추진계획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합계
청년	2,000명	2,000명	2,000명	2,000명	2,000명	10,000명

☑ 소요예산

- 사회초년생 1명당 국비 및 지자체 비용으로 지원
 - '26년 국정과제 수립 이후, '27년부터 국비 추가 예산 편성
 - 국비 5만원, 시비 5만원 지원
 - '26년 월 5만원, '27년 월 10만원 지원

(단위 : 백만원)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합계
국비	-	1,200	1,200	1,200	1,200	4,800
도비	-	-	-	-	-	-
시비	1,200	1,200	1,200	1,200	1,200	6,000

☑ 기대효과

- 군산 내에 있는 사회초년생의 전출을 방지하고, 군산시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지원하여 군산시의 근무여건 개선 가능

참고자료

○ 이재명정부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국조실 등)

□ 과제목표

- 일자리, 주거, 자산, 교육, 복지 등 청년 삶 전반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
- 국가 정책과정에서 청년 당사자성 강화 및 지속가능한 청년정책 지원체계 구축

□ 주요내용

- (청년 주거 안정 강화) 청년 선호 지역에 특화공공임대, 기숙사형 청년주택, 기숙사 등 공급 확대 및 청년 월세 지원 등 청년 주거비 지원 강화

○ 전북특별자치도 저출생대응 정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홈 | 분야별 정보 | 저출생 대응 정책 | 청년 취업기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목적 : 물가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실질적 지원 필요
- 사업기간 : '25년 ~
- 사업대상 : 19~34세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주요내용 : 월 최대 200천원 임차료 지원 (최대 24개월)

2-2

군산 청년 스프메 지원사업

단기	중장기	담당과
-	o	인구대응담당관

☑ 배경 및 목적

- 결혼 준비 비용 부담으로 인해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례 등 군산거주 예비 청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저감하기 위함[군산인구 실태조사_청년(임산과 출산을 위해 중요한 부분 2위_미혼 청년 결혼 지원)]

☑ 추진근거

- '전북형 저출생 정책'_취업·결혼은 가볍게_전북청년 스프메 지원사업

☑ 사업대상

- 군산시에 거주하는 청년 예비 신혼부부 150쌍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6년~'30년
 - 군산시에 거주하는 청년 예비 신혼 부부의 결혼비용(스프메)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도+시 지차제비용 지원)
 - 결혼 준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튜디오 촬영 비용, 웨딩드레스 렌탈 비용, 메이크업 비용 등 총 100만원 지원
 - 군산지역의 스튜디오, 드레스샵, 메이크업샵과 협약을 체결하여, 군산시에서 직접 결제하는 방식
 - 지원 대상자가 실제 결혼 준비를 했는지, 실제 결혼을 하였는지 유무 등을 확인 후, 지원

☑ 연도별 추진계획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합계
부부	150쌍	150쌍	150쌍	150쌍	150쌍	750쌍

☑ 소요예산

- 예비 청년 부부당 최대 백만원을 지원
 - '26년 부부당 도비 30만원 지원, 시비 70만원 지원
 - 150쌍 x (도 30만원 + 시 70만원) = 연 15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합계
국비	-	-	-	-	-	-
도비	45	45	45	45	45	225
시비	105	105	105	105	105	525

☑ 기대효과

- 군산거주 예비 청년 부부에 결혼비용을 추가적으로 지원하여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

참고자료

- 전북특별자치도 저출생대응 정책

전북청년 결혼비용(스드메) 지원사업

🏠 홈 | 분야별 정보 | 저출생 대응 정책 | 결혼 신혼부부 | 전북청년 결혼비용(스드메) 지원사업

- 목적 : 미혼 청년 결혼비용 지원을 통한 혼인을 제고
- 사업기간 : '26~
- 사업대상 : 도내 청년 예비 신혼부부
- 사업량 : 1,000쌍
- 주요내용 : 결혼식을 위한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비용 지원(최대 100만원)
- 담당부서 : 인구청년정책과 280-3884

2-3

청년/신혼부부 전세(구입) 자금 대출이자 지원

단기	중장기	담당과
○	-	주택행정과

☑ 배경 및 목적

- 신혼부부에게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된 정주여건 마련 [군산인구 실태조사_청년(임산과 출산을 위해 중요한 부분 2위_미혼 청년 결혼 지원)]

☑ 사업대상

- 군산시 소재 주택에 살고 있는 신혼부부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6년~'30년
 -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 및 부부 모두 해당주택 주민등록을 가진 신혼 부부에게 대출이자 지원
 - 공고일 기준 전국 기준 1주택(주택구입) 및 무주택(전세) 신혼부부에게 지원
 - 부부합산 중위소득 180% 이하('25년 2인 가구 연 8,494만원)
- 산출근거 : 260가구(매매 140가구 / 전세 120가구), 매매 420백만원 / 전세 360백만원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합계
대출이자 지원	780	780	780	780	780	3,900

☑ 기대효과

- 신혼부부에게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군산시에 자리잡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한 인구 유입 가능

3) 연계집중과제(Spoke)

■ 생활인구 중점 전략과제

3-1	군산형 공공워케이션	단기	중장기	담당과
		-	○	기획예산과

☑ 배경 및 목적

- 경직된 조직문화 탈피와 유연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여 MZ세대 공무원의 공직사회 이탈 방지 및 공무원 조직문화 혁신에 기여[군산시 SWOT 분석_중앙정부·전북특별자치도 정책 적합성을 활용한 청년 정착 생태계 구성(강점-기회)]

☑ 추진근거

- '국정운영 5개년 계획'_[국정49] '5극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_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 사업대상

- 공공 워케이션 센터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7년~'31년 / 계획기간 동안을 포함하여 중장기적인 개편
 - 군산 고군산도의 생태자원과 연계한 힐링 워크플레이스를 조성하고, 지역균형발전 및 군산 지역경제 활성화
 - 공무원 맞춤형 워케이션으로 업무와 힐링을 동시에 제공
 - 고군산군도 워케이션 센터 건립, 업무 중심 워케이션 프로그램, 힐링&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지역 문화·관광체험 프로그램, 공공기관 협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공

☑ 연도별 추진계획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합계
워케이션 센터	-	-	-	-	-	1개소	1개소

☑ 소요예산

- 워케이션 센터 건립 비용(352억), 프로그램 운영 비용(25억)

(단위 : 억 원)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합계
국비	350						350
도비	-	-	-	-	-	-	-
시비	-	-	-	-	-	-	-

☑ 기대효과

- MZ세대 공무원의 조직 만족도 증가와 현장 중심 행정 경험 강화를 목적으로 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참고자료

- 이재명정부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49 '5극3특' 과 중소도시 균형성장 (행안부·국토부)

□ 과제목표

- 5극 초광역권 출범 지원, 3개 특별자치도에 대한 맞춤형 특례 부여
- 사람·기업이 모이는 혁신거점 조성, 마을 및 중소도시 집약거점 육성

□ 주요내용

- (특별자치도 성장 지원) 5극 수준의 3특(제주·전북·강원) 육성을 위해 특별법 개정 및 특화성장지역 조성·지원*,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
 - * 지역특성에 맞는 전략산업 육성, SOC 인프라 구축 등
-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전략산업 선정·지원 등 혁신거점 제도기반 마련
 - 권역별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국가산단 조성 및 기존산단 개선
 - 도심융합특구·기업형혁신도시·캠퍼스혁신파크 등 기업·대학·연구기능 융복합
 - 외투 유치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연구개발특구를 창업거점으로 활용

3-2

군산 외국인주민 정주생활 커뮤니티 구축

단기	중장기	담당과
○	-	인구대응담당관

☑ 배경 및 목적

- 군산시 거주 외국인 주민수가 군산시 총인구 대비 5%에 달하면서, 외국인 대상 지원체계 분산 및 거점 시설을 설치하고,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활력을 회복하기 위함(원탁토론회 및 전문가 자문 의견)

☑ 사업대상

- 외국인주민 정주생활 커뮤니티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7년~'29년(약 3년)
- 사업내용
 - [도시재생사업(인정사업)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외국인 주민 집중 주거지역과 동시에 노후공간인 소룡동 유류 공공부지를 재활용하여 지역민과 외국인이 함께 이용가능한 공유 복지공간으로 지역 활력과 공동체 회복 도모
 - 복지 지원, 교육문화, 공간 운영,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복지권 보장 및 사회통합 기반 확보로 지역 정착 지원 강화

☑ 연도별 추진계획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합계
군산 외국인주민 커뮤니티	-	-	-	-	-	1개소

☑ 기대효과

- 구도심의 공공기능 회복을 결합한 복합 공공 프로젝트로 외국인 주민 생활안정과 지역공동체 상생 도모

3-3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단기	중장기	담당과
○	-	아동정책과

☑ 배경 및 목적

- 외국인 아동에게 차별없는 교육기회 부여로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 및 외국인 주민들의 생활편의 도모[학부모(양육시 힘든점 1위_양육, 교육비용)]

☑ 사업대상

- 관내 외국인 아동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6년~'30년
- 사업내용
 - 군산시에 90일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자녀 중 군산시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영유아(0~5세) 지원
 - 외국인 가정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 지원
 - 영유아 연령에 따른 보육료 50% 및 차액 보육료 지원

☑ 연도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합계
외국인 아동 보육료	318	318	318	318	318	1,590

☑ 기대효과

- 관내 외국인과 가정을 지원하여 군산시에 정주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정착생활 기여

■ 세대공존 중점 전략과제

4-1

공공형 은퇴자마을 조성

단기	중장기	담당과
○	-	인구대응담당관

☑ 배경 및 목적

-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고령자에게 주거시설과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일상생활의 편의 제공[군산인구 실태조사_중장년(가장 큰 걱정거리_1위 은퇴준비)]

☑ 추진근거

- '국정운영 5개년 계획'_[국정63]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국토부)_고령친화주택 공급

☑ 사업대상

- 공공형 은퇴자 마을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6년~'30년
 - 전북대병원이 노인질환 특성화 병원으로 건립될 예정으로 고령인구 및 은퇴자 마을의 의료접근성 향상 기대
 - 군산시는 소멸위험지역으로 지방소멸 대응 차원에서 은퇴자마을(도시)조성 파급효과의 극대화 가능
 - 독립된 주거와 의료·돌봄·여가 서비스가 결합한 고령자 친화적 주거단지 조성
 - 은퇴자마을주택, 의료·돌봄, 문화문화 체육시설, 소득시설 등 은퇴자 마을 주거단지(국가시범지구 조성)

☑ 소요예산

(단위 : 억 원)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합계
합계	-	-	600	1,250	650	2,500
국비	-	-	100	100	200	400
도비	-	-	-	50	-	50
시비	-	-	-	100	100	200
기타	-	-	500	1,000	350	1,850

(단위 : 억 원)

구분	'26	'27	'28	'29	'30	합계
합계	-	-	600	1,250	650	2500
지구 조성	-	-	300	100	100	500
은퇴자마을주택	-	-	300	900	300	1,500
의료·돌봄시설	-	-	-	150	150	300
여기문화체육시설	-	-	-	50	50	100
소득·판매 시설	-	-	-	50	50	100

☑ 기대효과

- 지역사회 정주민구 증가에 따른 지역 활력 도모와 지역 의료 및 복지서비스 관련 일자리 창출에 기여

참고자료

- 이재명정부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표 49] 군산시 「공공형 은퇴자 마을」 국가시범지구 조성사업 추진 로드맵

내 용	사업주체	예산(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이후
은퇴자마을지구 지정 및 조성	NH, (전북개발 공사)	500	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토지매입 및 착공	공사, (준공)	준공	
			>>>					
은퇴자마을주택	NH, 민간	1,500			기본계획 및 운영계획	착공	준공	입주
					>>>			
의료·돌봄시설	군산시, 민간(병원)	300			기본방향 수립	운영기관 협의	시설 조성	운영
					>>>			
시니어친화형 기반시설 (여기문화·체육시설)	군산시	100				계획 수립	시설 조성	운영
						>>>		
소득·판매시설	군산시, 민간	100				계획 수립	시설 조성	운영
						>>>		

4-2

중·장년 근로자 경력진단 및 설계 지원

단기	중장기	담당과
○	-	미정

☑ 배경 및 목적

- 군산시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스스로 경력개발을 계획하기 위한 컨설팅 진행 프로그램으로 근로자 개인의 경력진단 및 경력설계를 목표로 하기 위함[군산인구 실태조사_중장년(가장 큰 걱정거리_1위 은퇴준비) 및 전문가 자문 의견]

☑ 사업대상

- 군산시에 거주하는 1,000인 미만 기업의 40세 이상 근로자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6년~'30년
- 사업내용
 - 근로자 개인의 경력 진단 및 경력 설계를 기본으로 경력관리를 위한 지원방안 및 경력개발을 위한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 퇴직예정자 재취업지원서비스와 상담·교육 등을 포함한 사업으로 군산시에 거주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500명 x 300천원 / 일자리 지원센터와 신중년 취업지원 사업의 연계 가능

☑ 연도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합계
중장년 근로자 진단 및 설계지원	150	150	150	150	150	750

☑ 기대효과

- 중·장년 근로자의 경력관리 및 재취업을 컨설팅하여 군산에 거주할 수 있는 여건 마련

4-3

고령친화산업 복합단지 조성

단기	중장기	담당과
-	o	미정

☑ 배경 및 목적

- 고령인구 증가로 고령친화 제품 및 서비스 시장 확대와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서 전략적 육성지원 필요[군산인구 실태조사_중장년(가장 큰 걱정거리_1위 은퇴준비) 및 전문가 자문 의견]

☑ 사업대상

- 고령친화산업 복합단지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6년~'33년
 - 고령친화제품의 기술개발과 기업지원 및 인력양성 중심의 산업인프라 구축
 - R&D, 평가인증, 기업육성지원, 산학연계인력양상을 기반으로 고령친화산업(기술원, 인증원, 기업지원단, 인재개발원, 진흥재단) 구축 예정

☑ 소요예산

(단위 : 억 원)

구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32년	합계
국비	-	3	-	20	1,361	972	1,030.5	2,138	5,524.5
도비	2.5	-	-	-	450	-	-	-	452.5

☑ 기대효과

-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유발하며, 관련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적 파급효과 창출

■ 정주환경 중점 전략과제

5-1	청년일자리 상생내일채움공제	단기	중장기	담당과
		○	-	일자리경제과

☑ 배경 및 목적

- 지역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과 고용안정 유도로 타 지역으로의 인력 유출 방지 및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군산시 SWOT 분석_중앙정부·전북특별자치도 정책 적합성을 활용한 청년정책 생태계 구성(강점 - 기회)]

☑ 사업대상

- 근로자[군산시 거주 청년(만 18~39세)], 중소기업(사업신청일 기준 공장등록이 완료된 군산시 소재 기업)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6년~'30년
 - 근로자[1인당 매월 10만원 3년 적립(총 360만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1인당 매월 8만원 2년 적립(총 192만원)]
 - 중소기업[1인당 매월 8만원 3년 적립(총 288만원)]
 - 군산시[1인당 매월 8만원 2년, 16만원 1년 적립(총 384만원)]
 - 3년 만기후, 근로자 1인 원금 1,224만원 및 복리 이자 수령

☑ 연도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합계
상생내일채움공제		367.2		-	-	367.2

☑ 소요예산

- 지역 청년의 자산형성과 고용안정을 동시에 촉진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와 인력 유출 방지에 기여

5-2

청년 지역정착 및 활력수당 지원

단기	중장기	담당과
○	-	인구대응담당관

☑ 배경 및 목적

-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활동비를 지원하여 청년의 취업 의욕 고취 및 사회진입 촉진하고,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위해 저소득층 청년들의 소득 격차 해소[군산시 SWOT 분석_중앙정부 전북특별자치도 정책 적합성을 활용한 청년정착 생태계 구성(강점 - 기회)]

☑ 사업대상

- 지역정착 지원 미취업자 청년(만 18~39세 / 중위소득 150% 이하) 및 활력수당 지원 군산시 거주 청년(중위 소득 180% 이하)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6년~'30년
 - 지역정착 지원 : 금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 총 300만원(생애 1회)
 - 구직역량 강화교육 프로그램 병행 지원, 취·창업 후 3개월 근속 시 취·창업 성공금 50만원 지원
 - 활력수당 지원 : 복지포인트로 월 30만원 씩 최대 12개월 지원하여 지역 정착을 위한 경제적 지원
 - 포인트 연계 카드로 선 결제 후, 포인트 차감 신청

☑ 연도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합계
청년활력 수당	882	882	882	882	882	4,410
청년 지역정착	1,666.8	1,666.8	1,666.8	1,666.8	1,666.8	8,334

☑ 소요예산

- 미취업 청년에게 일자리를 마련하고, 청년 지역정착을 지원하여 군산시에 정주할 수 있는 환경 제공

5-3	창업 희망키움	단기	중장기	담당과
		○	-	기업지원과

☑ 배경 및 목적

- 유망 초기창업자에게 자금, 보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기술 혁신 및 성장을 뒷받침하고, 지역 내 창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학부모(결혼하는데 있어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 1위_일자리 및 소득)]

☑ 사업대상

- 군산시 거주 청년 예비창업자(만18~39세 / 5년 미만 기창업자)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6년~'30년
 - 군산시 청년·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 멘토링, 아이디어 검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
 - 지역대학·기업·창업지원기관과 연계해 실전형 창업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화 자금·공간·네트워킹을 통합 제공
 - 지역 정착형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청년의 군산 내 정주와 지역 산업 활성화 촉진

☑ 연도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합계
청년 지역정착	165.9	165.9	165.9	165.9	165.9	829.5

☑ 소요예산

- 유망 초기창업자와 5년 미만 기창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군산시에 자리잡을 수 있는 환경 조성

5-4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단기	중장기	담당과
○	-	보건행정과

☑ 배경 및 목적

-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을 통해 소아 환자에게 외래진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공백 장지 및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군산인구 실태조사_시민 전체(2위 의료기관 부족) 및 전문가 자문 의견]

☑ 사업대상

- 공공심야어린이병원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6년~'30년
 - 심야시간에 발생하는 소아 환자에게 진료 및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 프로그램 운영
 - 관내 소아청소년과 병·의원 16개소 중 1개소를 선정하여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운영비 지원
- 운영시간 : 평일 18~23시, 주말 및 공휴일 9시 ~18시 진료

☑ 연도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합계
공공심야어린이 병원 운영	435	435	435	435	435	2,175

☑ 소요예산

- 야간 진료 공백을 해소해 영유아 건강 안전망을 강화하고, 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여 군산의 정주 매력 상승

5-5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단기	중장기	담당과
○	-	여성가족청소년과

☑ 배경 및 목적

- 양육공백 가정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으로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학부모(양육시 힘든점 1위_양육, 교육비용)]

☑ 사업대상

- 군산시 거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양육공백 가정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6년~'30년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본인부담금 지원(정부지원 외 추가지원)
 - 소득기준별 본인부담금 차등지원 : 가형~다형 60%, 라형 30%, 마형 20% 지원
 - 본인부담금 선납 후, 모바일 군산사랑상품권(정책수당)으로 환급

☑ 연도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합계
양육공백 가정지원	704	704	704	704	704	3,520

☑ 소요예산

- 육아 부담을 경감해 맞벌이·청년가족의 정주 안정성과 출산·양육 친화성을 높임

5-6

SOS틈새돌봄센터 운영

단기	중장기	담당과
○	-	아동정책과

☑ 배경 및 목적

-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여 영유아·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고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함[학부모(양육시 힘든점 1위_양육, 교육비용)]

☑ 사업대상

- 예상치 못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영유아·아동 가정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6년~'30년
 - SOS틈새돌봄센터를 운영하여 단시간·긴급 돌봄을 즉시 제공하고, 야간·주말 중심 탄력 운영체계 마련
 - 전문 돌봄 인력을 배치하여 안전관리·식사·귀가 연계 등 기본 돌봄서비스를 지원
 - 기존 돌봄체계(아이돌봄·지역아동센터 등)와 연계해 센터 간 공백 없는 돌봄 전달체계 형성
 - 평일 18:00~22:00(4시간), 주말·공휴일 09:00~18:00(9시간)
 - 140백만원(도비 44, 시비 96)

☑ 연도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합계
SOS 틈새돌봄 지원	140	140	140	140	140	700

☑ 소요예산

- 돌봄 공백 상황에 즉각 대응해 영유아·아동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부모의 일·가정 양립과 정주 안정성을 높임

5-7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

단기	중장기	담당과
○	-	교육지원과

☑ 배경 및 목적

- 평생학습과 소상공인의 협업을 통한 우리 동네 상관을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평생학습 참여로 시민 주도적 학습 환경 조성[군산인구 실태조사_공무원(정주 여건 개선 점수 10점 만점 중 양육시 힘든점 8.41점)]

☑ 사업대상

- 군산시민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6년~'30년
 - 군산시민들을 대상으로 연중(연 3기, 기수별 10주), 정규(일반) 및 특화(가족, 직장) 강좌
 - 5인 이상 구성 후 강좌를 개설하여 인문교양 및 문화예술 학급 환경 조성
- 산출근거 : 1,200강좌 기준 1,378백만원(시비) / 450강좌 기준 약 2,500명

☑ 연도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합계
동네문화카페	1,378	1,378	1,378	1,378	1,378	6,890

☑ 소요예산

- 지역 공동체 참여와 문화 접근성을 높여 주민의 정주 만족도와 지역 연결감 강화

5-8

독서문화공간(공공도서관) 확충

단기	중장기	담당과
○	-	도서관관리과

☑ 배경 및 목적

- 군산시민 모두가 이용하기 편리한 독서문화공간 도서관을 조성하여 시민 독서를 활성화하고 도서관 명소로서 관광 자원화[군산인구 실태조사_공무원(정주 여건 개선 점수 10점 만점 중 8.41점)]

☑ 사업대상

- 공공도서관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6년~'30년
 - 도서·학습·문화활동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하여 시민 독서 활성화
 - 아동·청소년·청년·고령층 등 생애주기별 프로그램(독서모임, 문화교실)을 제공하여 지역의 교육문화 기반 강화
 - 디지털자료실·다목적 스튜디오 등 미래형 콘텐츠를 도입해 정주 매력도를 높임
 - 공공도서관 1개소 조성(도비 6,552, 시비 10,878)

☑ 연도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합계
공공도서관 조성	'27년까지 총 17,430백만원	-	-	-	-	17,430

☑ 소요예산

- 지역의 교육문화 접근성을 높여 가족·청년층의 정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지식·여가 기반의 인구유입 효과 강화

5-9	국립대지역 연계 복합센터 건립	단기	중장기	담당과
		○	-	교육지원과

☑ 배경 및 목적

- 지역주민이 이용가능한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시설, 늘봄센터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대학과 지역사회를 연계한 복합시설 건립[군산인구 실태조사_공무원(정주 여건 개선 점수 10점 만점 중 8.41점)]

☑ 사업대상

- 복합센터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6년~'28년
 - 군산대와 연계하여 수영장, 체육시설, 늘봄센터 기능을 통합한 복합센터 조성
 - 지역사회에 개방된 문화·커뮤니티 공간을 포함해 청년·가족의 정주 매력도를 높이고 지역 혁신 생태계 강화
 - 복합센터 1개소 조성(국비 90%, 시비 10%, 315억원)

☑ 연도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합계
복합센터 건립	'25년부터 총 31,500백만원			-	-	31,500

☑ 소요예산

- 대학·산업·지역자원을 연계한 교육·취업·문화 플랫폼을 구축해 청년 유입과 지역 혁신 역량을 동시에 높이는 효과

5-10

노인복합문화시설 조성

단기	중장기	담당과
○	-	도시재생과

☑ 배경 및 목적

- 고령자 건강 · 문화 · 복지시설 등을 확충하여 삶의 질 향상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군산인구 실태조사_공무원(정주 여건 개선 점수 10점 만점 중 8.41점)]

☑ 사업대상

- 노인복합문화시설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6년
 - 건강관리, 문화, 복지 기능을 통합한 노인 친화 복합공간을 조성하여 일상적인 사회참여와 활동 기회 제공
 - 의료복지기관과 연계한 상담운동건강 프로그램 및 지역 커뮤니티 모임 공간을 운영해 고령층의 고립 예방
 -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을 도입해 지역 공동체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노후 정주 환경 확립
 - 복합센터 1개소 조성(국비 50억, 도비 8.3억, 시비 50.3억 원)

☑ 연도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합계
노인복합문화시설 조성	5,420	-	-	-	-	5,420

☑ 소요예산

- 고령층의 여가 · 돌봄 · 건강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세대 공존 기반의 안정적 정주환경 강화

제3절 자원 투입계획 및 조달 방안

■ 군산시 인구정책 자원 투입계획

○ 군산시 인구정책에 대한 재정투입계획은 7년간 총 412,436.7백만원으로 계획하였으며, 전략별 재정투입계획현황은 세대공존이 256,724.5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2.2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함

- 정주환경 81,575.7백만원(19.78%), 생활인구 36,590백만원(8.87%), 아이키움 22,096.5백만원(5.36%), 청년정착 15,450백만원(3.75%)

[표 5-5] 전략별 재정투입계획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연차별 예산							전체
	'26	'27	'28	'29	'30	'31	'32	
1. 아이키움								22,096.5
1-1 임산부 교통비·운동비 지원 패키지	360	360	360	360	360	-	-	1,800
1-2 군산청년 1인 소상공인 및 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	31.5	31.5	31.5	31.5	31.5	-	-	157.5
1-3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추가 지원	54	54	54	54	54	-	-	270
1-4 군산아이 꿈씨앗 키움사업	660	1,320	1,980	2,640	3,300	-	-	9,900
1-5 우리아이 꿈탐험 지원사업	1,716	1,603	1,444	1,432	1,224	-	-	7,419
1-6 3자녀 이상 가구 패밀리카 지원	150	150	150	150	150	-	-	750
1-7 군산형 가사서비스 지원	360	360	360	360	360	-	-	1,800
2. 청년정착								15,450
2-1 청년 주택 월세 및 상가임차료 지원	1,200	2,400	2,400	2,400	2,400	-	-	10,800
2-2 군산 청년 스프레드 지원사업	150	150	150	150	150	-	-	750
2-3 청년 / 신혼부부 전세(구입) 자금 대출이자 지원	780	780	780	780	780	-	-	3,900

세부사업명		연차별 예산							전체
		'26	'27	'28	'29	'30	'31	'32	
3. 생활인구									36,590
3-1	군산형 공공위케이션						35,000	-	35,000
3-2	군산 외국인주민 정주생활 커뮤니티 구축	-	-	-	-	-	-	-	-
3-3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318	318	318	318	318	-	-	1,590
4. 세대공존									256,724.5
4-1	공공형 은퇴자마을 조성	-	-	60,000	125,000	65,000	-	-	250,000
4-2	중·장년 근로자 경력진단 및 설계 지원	150	150	150	150	150	-	-	750
4-3	고령친화산업 복합단지 조성	3	-	20	1,811	972	1,030.5	2,138	5,974.5
5. 정주환경									81,575.7
5-1	청년일자리 상생내일채움공제			367.2	-	-	-	-	367.2
5-2	청년 지역정착 및 활력수당 지원	2,548.8	2,548.8	2,548.8	2,548.8	2,548.8	-	-	12,744
5-3	창업희망키움	165.9	165.9	165.9	165.9	165.9	-	-	829.5
5-4	공공심야어린이병원	435	435	435	435	435	-	-	2,175
5-5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704	704	704	704	704	-	-	3,520
5-6	SOS틈새돌봄센터 운영	140	140	140	140	140	-	-	700
5-7	찾아가는 동네문화센터	1,378	1,378	1,378	1,378	1,378	-	-	6,890
5-8	독서문화공간(공공도서관) 확충		17,430	-	-	-	-	-	17,430
5-9	국립대지역 연계 복합센터 건립			31,500	-	-	-	-	31,500
5-10	노인복합문화시설 조성	5,420	-	-	-	-	-	-	5,420
전체									412,436.7

■ 재원 조달 방안

- 중기지방재정계획 상 2025년부터 2032년까지 총 재정 규모는 16조 4,483억원으로 예상되며, 연평균 증가율은 1.0%로 전망됨
- 연평균 증감률(1.0%)에 따라 인구정책 기본계획의 계획범위인 2030년 20,953억 원, 2031년 21,162억 원, 2032년 21,374억 원의 재정 투입 규모를 추정할 수 있음¹⁹⁾
- 상기 인구정책 기본계획 추진을 위해 7년('26년~'32년) 동안 필요한 예산은 414,436.7백만원으로 세대공존 256,724.5백만원, 정주환경 81,575.7백만원, 생활인구 36,590백만원, 아이키움 22,096.5백만원, 청년정착 15,450백만원이므로, 중기재정계획상 인구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 여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할 수 있음

[표 5-6] 군산시 중기재정계획

(단위 : 억원, %)

구분	중기재정계획									비중	연평균 증감률
	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추정치)	2031년 (추정치)	2032년 (추정치)		
세출(계)	164,483	19,918	20,051	19,920	20,357	20,746	20,953	21,162	21,374	100.0	1.00
정책사업	139,063	16,375	16,937	16,778	17,159	17,502	17,799	18,102	18,409	86.1	1.70
경상지출	25,422	3,543	3,114	3,142	3,198	3,245	3,154	3,060	2,965	13.9	-1.30

자료 : 군산시, 군산시 홈페이지 '지방재정공시', 2025

☑ 군산시 예산 규모(2025년 본예산 기준)

- 군산시의 2025년 예산 규모는 총 1조 8,196억이며, 이는 일반회계 14,735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1,663억 원, 기타 특별회계 149억 원, 기금 1,649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5-7] 군산시 2025년 회계별 예산 규모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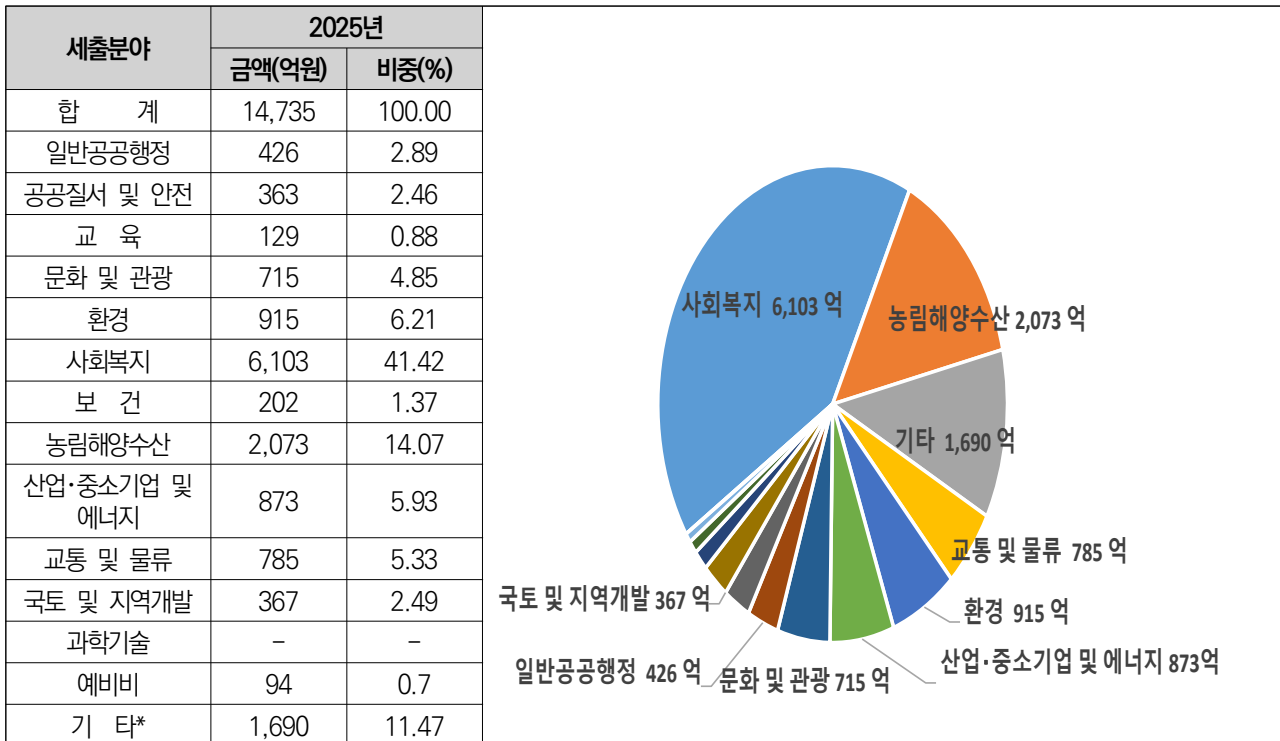
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8,196	14,735	1,663	149	1,649

자료 : 군산시, 군산시 홈페이지 '지방재정공시', 2025

19) 2029년 예산액에 1.0% 증가분을 더한 값

- 2025년 세출예산 규모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41.42%)에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다음으로 농림해양수산(14.07%), 기타(11.47%), 환경 분야(6.21%) 등의 순임

[표 5-8] 군산시 분야별 세출현황(일반회계)



* 기타 : 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 인구정책 기본계획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7년간 교육 분야 18,909백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59,320백만원, 사회복지 분야 265,760백만원, 보건 분야 2,175백만원, 농림해양수산 157.5백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7,171.2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46,200백만원, 기타 12,744백만원임
- 군산시 인구정책 예산 투입계획과 중기재정계획 예산(추정치)을 '26년~32년 예산 비교를 해본 결과, 인구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

[표 5-9] 군산시 인구정책 예산 투입계획과 중기재정계획 예산 비교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6년~'32년 소요예산	'26년~'32년 중기재정계획 예산 (추정치)
1. 교육		18,909	80,154.6
1-4	군산아이 꿈씨앗 키움사업	9,900	
1-5	우리아이 꿈담힘 지원사업	7,419	
3-3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1,590	
2. 문화 및 관광		59,320	515,767.7
3-1	군산형 공공위케이션	35,000	
5-7	찾아가는 동네문화센터	6,890	
5-8	독서문화공간(공공도서관) 확충	17,430	
3. 사회복지		265,760	4,402,420.5
1-1	임산부 교통비·운동비 지원 패키지	1,800	
1-3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추가 지원	270	
1-6	3자녀 이상 가구 패밀리카 지원	750	
1-7	군산형 가사서비스 지원	1,800	
2-2	군산 청년 스프레드 지원사업	750	
4-1	공공형 은퇴자마을 조성	250,000	
4-2	중·장년 근로자 경력진단 및 설계 지원	750	
5-5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3,520	
5-6	SOS틈새돌봄센터 운영	700	
5-10	노인복합문화시설 조성	5,420	
4. 보건		2,175	145,713.4
5-4	공공심야어린이병원	2,175	
5. 농림해양수산		157.5	1,495,365.8
1-2	군산청년 1인 소상공인 및 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	157.5	
6.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7,171.2	629,741.6
4-3	고령친화산업 복합단지 조성	5,974.5	
5-1	청년일자리 상생내일채움공제	367.2	
5-3	창업희망키움	829.5	
7. 국토 및 지역개발		46,200	264,736.7
2-1	청년 주택 월세 및 상가임차료 지원	10,800	
2-3	청년 / 신혼부부 전세(구입) 자금 대출이자 지원	3,900	
5-9	국립대지역 연계 복합센터 건립	31,500	
8. 기타		12,744	1,219,087.4
3-2	군산 외국인주민 정주생활 커뮤니티 구축	-	
5-2	청년 지역 정착 및 활력수당 지원	12,744	
전체		412,436.7	8,752,987.9

- 세부사업별 공공재원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의 일부 사업에서 공모사업을 유치하여 재원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표 5-10] 국고보조 사업

구분	주요내용	예상사업
지역일자리창출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청년실업 위기 극복과 청년의 지역 정착 유도를 통한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청년 일자리 창출 ① 지역정착지원형 : 일자리+정주여건 지원을 통한 청년의 정착 유도 ②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 창업지원 또는 고용친화적 생태계 조성 ③ 민간취업연계형 : 일 경험+직무경험을 통한 민간 취·창업 연계 ④ 지역포스트코로나대응형 : 포스트코로나 대응 신산업 분야 일자리 제공 - 사업예산 : 21,528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 청년 주택 월세 및 상가임차료 지원 • (5-2) 청년 지역정착 및 활력수당 지원 • (5-3) 창업희망키움
중장년인턴제 (고용노동부)	(중장년 인턴제) 주된 업무에서 퇴직한 중·장년층에게 다양한 직무의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구직의욕 고취 및 직무능력 향상을 통한 취업가능성을 제고 - 직무교육을 포함하는 인턴형 중심으로 운영 - 1~3개월 간 직무교육과 직무수행을 연계하여 제공 - 사업예산 : 3,64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2) 중·장년 근로자 경력진단 및 설계 지원
노인요양시설 확충 (보건복지부)	치매특별등급 신설(국정과제, '14.7월), 장기요양 등급자 기준 완화 및 '17년까지 대상자 확대(노인인구대비 7%까지) 등 수요 증가 대응을 위해 요양시설 등 부족한 지역의 시설 인프라 확충 - 사업예산 : 28,649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10) 노인복합문화시설 조성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여성가족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통합서비스 운영기관) 및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역의 다양한 가족 대상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①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②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③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④ 사회복무요원 배치지원 ⑤ 가족전문상담 전화운영 ⑥ 다문화가족 사회통합기반 구축을 목표로 함 - 사업예산 : 145,197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2) 군산 외국인주민 정주생활 커뮤니티 구축 • (3-3)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아이돌봄지원 (여성가족부)	맞벌이 가정 등의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목적으로 아이돌보미가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1:1로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는 서비스로 ① 영아종일제, ② 시간제 ③ 한부모·장애아 부모'가'형 지원 ④ 청소년 부모 '가'형 지원, ⑤ 아이돌보미 양성·관리 ⑥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⑦ 광역지원센터 운영 ⑧ 중앙지원센터 운영 ⑨ 아이돌봄 사업관리로 구성됨 - 사업예산 : 513,428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5)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자료 : 한국정책역량개발원, 국고보조사업편람, 2025

- 세부사업별 도비 재원은 보건의료과, 인구청년정책과, 여성가족과, 주택건축과, 사회복지정책과 등의 일부 사업에서 공모사업을 유치하여 재원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표 5-11] 전북특별자치도 사업

사업명	주요내용	담당부서	예상사업
출산취약지 임신부 교통비 확대지원	목적 :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의 임신부에게 임신에서 출산까지 맞춤형 이송비 지원 확대로 안전한 출산도모 내용 : 산전진찰 및 분만이송 교통비 지원 교통비 1인당 최대 70만원(산전진찰 1회 4만원 총 15회, 분만 10만원)	보건의료과	• (1-1) 임신부 교통비·운영비 지원 패키지
청년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	목적 :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출산으로 인한 불가피한 휴업, 소득감소 보전 내용 :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출산급여 지원(본인 90만원, 배우자 80만원)	인구청년정책과	• (1-2) 군산청년 1인 소상공인 및 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목적 : 남성 육아 참여 분위기 확산 및 양육 부담 완화로 출산 장려 붐업 내용 : 최대 3개월간 육아휴직 장려금 월 30만 지원	여성가족과	• (1-3)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추가 지원
청년월세한시 특별지원	목적 : 물가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실질적 지원 필요 내용 : 월 최대 200천원 임차료 지원 (최대 24개월)	인구청년정책과	• (2-1) 청년 주택 월세 및 상가임차료 지원
전북청년 결혼비용 (스드메) 지원사업	목적 : 미혼 청년 결혼비용 지원을 통한 혼인율 제고 내용 : 결혼식을 위한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비용 지원(최대 100만원) 지원	인구청년정책과	• (2-2) 군산 청년 스토메 지원사업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목적 : 민간주택 전세대출 이자 최대 1.5백만원 지원 내용 : 민간주택 입주시 보증금(전세자금) 대출이자 최대 150만원 지원	주택건축과	• (2-3) 청년 / 신혼부부 전세(구입) 자금 대출이자 지원
소아환자 야간휴일 진료체계 구축	목적 : 평일 야간 및 휴일 소아경증환자에게 외래진료를 통한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 내용 : 야간진료관리료 수가 추가 및 소아진료 활성화 지역(19세 이하 인구 3만 명 미만인 시군) 운영비 지원	보건의료과	• (5-4) 공공심야어린이 병원
SOS 돌봄체계 구축 (24시간제 보육 시범기관)	목적 : 주중 야간 또는 주말 및 공휴일에 교대 근무, 병원 진료 등의 사유로 양육자에게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돌봄 빈틈 및 양육 부담감 해소 내용 : 24시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이용료, 인건비, 운영비 지원	사회복지정책과	• (5-6) SOS틈새돌봄센터 운영
SOS 돌봄체계 구축 (지역거점형 틈새돌봄기관)	목적 : 틈새·일시 돌봄체계 구축 및 맞춤형(장애, 다문화 등) 프로그램 확충 내용 : 지역별 특성 및 돌봄수요를 반영한 연장돌봄 실시	여성가족과	

자료 :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 2025.12

부 록

제1절 인구정책 사업 관련 기타 의견

제2절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설문지(군산시민)

제3절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설문지(공무원)

제4절 군산시 인구정책 원탁토론회 조별 의견

부 록

제1절 사업 관련 기타 의견

☑ 사업 관련 기타 의견 부분 전문가 의견

-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이상림 박사
 - 공공산후조리원은 전북 인근 지자체와 공동 이용재정부담 등을 활용해 인구유입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여성청년취업지원센터와 24시간 노인복지센터는 대상 설정의 적절성 주거화 위험 등 정책부작용을 검증하고, 운영체계를 세분화하여 실효성 확보 필요
- 군산대학교 이국용 교수
 - 출산·양육 및 청년정책은 공공산후조리원·취업지원센터·청년 쉼어하우스 등 일부 신규사업에 정책효과가 있으며, 사업대상 재설계·자부담원칙 지역상품권 지급 등을 통해 효율성 제고가 요구됨
 - 고령 정책과 생활 SOC 사업은 실효성·부작용·재정 지속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관광·다자녀 우대 등 지역 활성화형 정책 중심으로 재구성 필요
- 전북연구원 이종섭 연구위원
 - 공공산후조리원은 저출산 대응 효과가 높고, 군산에 적합한 출산·양육 인프라로 인구정책의 공공성과 지속성 강화 가능
 - 노인복지센터는 고령사회 대응 차원에 필요하며, 기존 시설 활용 및 국토교통부 고령자복지주택 및 실버스테이 유치에 효율적 대안이라 판단
- 국토연구원 김명한 전문연구원
 - 24시간 어린이병원·공공산후조리원·임산부 행복식탁은 출산·양육 기반 강화와 청년·가족의 정주결정에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 추진가능성 우선검토 필요
 - 여성청년취업지원센터는 대상 범위가 협소하지만, 사업 목적과 대상 재설계로 이후에 추진 필요
- 국토연구원 안소현 부연구위원
 - 달빛병원·공공산후조리원·1인 가구 주거복지 등은 정주여건과 인구유입 효과가 높으며, 국비 매칭을 통해 재정 부담

최소화 필요-임산부 할인 등 단기 체감형 사업은 예산 대비 효과성이 제한적이므로, 근본적 정주환경 개선 중심의 인구정책 자원 재배분이 요구됨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원도 부연구위원
 - 지속가능한 인구·경제 구조 전환을 위해서는 대학-기업 연계, 글로벌 트레이닝 등 기업협력형 장기 전략으로 전환필요
 - 심야 어린이병원, 청년 서포터즈, 1인 가구 주거복지센터 등 재정 범위 내 실현 가능한 핵심사업을 선별적으로 추진 필요

☑ 정책과제별 전략과제

- 본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통해 추진하려고 했으나, 인력 및 재정 확보의 어려움, 담당과 선정, 사업카드 통합 등으로 인해 추진하지 못한 사업들은 다음과 같음
 - 총 37개 사업_아이키움 7개 사업, 청년정착 6개 사업, 생활인구 9개 사업, 세대공존 5개 사업, 정주환경 10개 사업

[부록 표-1] 군산시 인구정책 분야별 사업 목록

연번	사업명	추진불가 사유
1. 아이키움(7개 사업)		
1-1	• 연중무휴 24시간 어린이병원 운영지원	• 인력 및 재정 확보 어려움
1-2	• 군산시가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	• 건립보다는 있는 시설을 활용한 운영
1-3	• 임신부 행복식탁운영	• 통합 / 임신부 지원패키지
1-4	• 임신부 응원 미용업소 운영	• 통합 / 임신부 지원패키지
1-5	• 맞벌이부부 휴가 지원	• 장기검토 / 부서협의 필요
1-6	• 맞벌이부부 보육료 추가 지원	• 유사 사업 추진 중
1-7	• 다태아(쌍둥이 이상) 든든보험 지원 사업	• 해당 사업 구상 중
2. 청년정착(6개 사업)		
2-1	• 군산시 대학 및 기업 연계 지원	• 지원자 부족 및 실효성 부족
2-2	• 청년 더드림 적금이자 지원사업	• 유사 사업 추진 중
2-3	• 농어촌 빈집활용 청년 워케이션 센터	• 기추진 /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2-4	• 청년 쉼어하우스 운영	• 기추진 / 근로 청소년 임대 아파트
2-5	• 군산시 청년 서포터즈	• 기추진 / 현 24명
2-6	• 청년연구자 역량 강화 프로젝트	• 보고회 이후, 신규 제안

연번	사업명	추진불가 사유
3. 생활인구(9개 사업)		
3-1	• 군산공항 운행노선 개편	• 장기검토 / 부서협의 필요
3-2	• 공영주차장 조성 및 확장	• 기추진 / 단계적 추진 중
3-3	• 군산시 에너지 글로벌 연구단 운영	• 구현하기 어려움
3-4	• 외국인 맞춤형 K-스마트 농업 아카데미 운영	• 인력 및 예산 확보 어려움
3-5	• 글로벌 해양·조선 인력 트레이닝 운영	• 기추진 / 조선업 양성 지원사업
3-6	• 외국인 주거비용 지원	• 담당과 미정
3-7	• 청.바.지.군(청춘은 바로 지금 군산에서)	• 담당과 미정
3-8	• 결혼이주여성 지역 정착을 위한 지원	• 유사 사업 추진 중
3-9	• 고군산군도 한 달 여행하기	• 보고회 이후, 신규 제안
4. 세대공존(5개 사업)		
4-1	• 24시간 노인복지센터 운영	• 숙박 공간 부족
4-2	• 노인을 보필하는 가구 생활비 지원	• 기존복지제도와의 중복
4-3	• 찾아가는 키오스크 체험 교실	• 디지털역량 교육 운영예정('26)
4-4	• 은퇴자 멘토링 지원사업(청년, 외국인)	• 해당 사업 구상 중
4-5	• 기업 승계 지원 사업	• 보고회 이후, 신규 제안
5. 정주환경(10개 사업)		
5-1	• 1인 가구 맞춤형 복지센터 운영	• 지속적 협조 의존 문제
5-2	• 인구정책 성과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 해당 사업 구상 중
5-3	• 군산전북대병원 기숙사 건립	• 예산 확보 어려움
5-4	• 군산시 영어마을 조성	• 예산 확보 어려움
5-5	• 다자녀 가구 군산시 운영이용시설 이용 우대	• 기추진 / 현재 진행중
5-6	• 공공기관 근로자 기숙사 조성	• 보고회 이후, 신규 제안
5-7	• 차 없는 근로자를 위한 수요대응 교통	• 보고회 이후, 신규 제안
5-8	• 어린이 놀이터 복합문화 공간 조성	• 보고회 이후, 신규 제안
5-9	• 공공형 실내스포츠 놀이시설 조성	• 보고회 이후, 신규 제안
5-10	• 군산 1인 커뮤니티 키친 교실	• 보고회 이후, 신규 제안

0-0	연중무휴 24시간 어린이병원 운영지원	단기	중장기	담당과
		-	-	-

☑ 배경 및 목적 (추진불가 / 인력 및 재정 확보 어려움)

- 연중무휴 24시간 어린이병원 운영을 통해 평일 새벽 및 주말 저녁 이후에 발생하는 어린이 환자에 대한 빠른 대처로 군산어린이의 안전 확보[군산인구 실태조사_시민 전체(2위 의료기관 부족) 및 전문가 자문 의견]

☑ 추진근거

-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국정84]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복지부)_소아·응급의료체계 강화
- ‘전북형 저출생 정책’_양육은 행복하게_소아환자 야간휴일 진료체계 구축

☑ 사업대상

- 공공심야어린이병원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6년~'30년
 - 현존하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평일 새벽이나 주말 저녁 이후에 발생하는 위급 상황의 어린이 진료가 어려움
 - 복지부에서 추진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함으로써 치료 가능 사망률을 완화할 수 있는 소아환자 진료협력체계 구축
 - 추가적인 의사 및 간호사를 배정하여 진료 시간의 범위를 24시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기존 운영하던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운영시간 확대를 통해 복지부에 요청하여 달빛어린이병원 운영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음

☑ 연도별 추진계획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합계
병원	-	1개소	-	-	-	1개소

☑ 소요예산

- 기존 운영하던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운영비용(시비, 435백만원)과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으로 인한 지원비용(국비, 연 300백만원) 편성

(단위 : 백만원)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합계
국비	-	300	300	300	300	1,200
도비	-	-	-	-	-	-
시비	435	435	435	435	435	2,175

☑ 기대효과

- 운영시간을 확대하여 의사 및 간호사의 추가 배정을 통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며, 군산거주 어린이의 안전확보 가능

참고자료

- 이재명정부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84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복지부)

□ 주요내용

- (소아·응급의료체계 강화) 환자 중증도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중별 기능 명확화 및 역할에 따른 차등 보상, 응급환자 신속 이송·수용·전원체계 확립
- 진료권 중심의 중증·응급질환 24시간 전문의 대응체계 및 야간·휴일 소아환자 진료협력체계* 구축

* 달빛어린이병원 등 확충을 통해 (경북)달빛어린이병원, (충청)소아긴급센터, (충청)소아응급센터 협력

- 복지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비 지원_’24년부터 시행

대책 발표 이후 복지부는 소아의료를 담당하는 일선 현장으로부터 진료기관 보상 강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해왔고, 그 성과로 지난해 9월에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과 관련한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이 후속조치 계획에는 달빛어린이병원에 운영비로 국비 1억원을 포함해 평균 2억원을 지원하고, 주당 운영시간에 따른 수가를 기존 야간진료관리료 수가 대비 1.2~2배 차등 인상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부터 달빛어린이병원에 운영비를 지원한다. 각 병원에 지원되는 운영비는 주중·주말 야간진료 시간에 따라 3000만원부터 3억6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소아 환자가 3만명 미만인 지역은 20% 가산이 반영돼 지원금이 최대 4억3200만원까지 늘어난다.

0-0	군산시가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	단기	중장기	담당과
		-	-	-

☑ 배경 및 목적 (추진불가 / 건립보다는 있는 시설을 활용한 운영)

- 군산시 내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이 부족함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여 산후조리원의 부족 현상과 더불어 사립 조리원 비용이 부담되는 부부의 경제적 부담 저감[군산인구 실태조사_시민 전체(2위 의료기관 부족) 및 전문가 자문 의견]

☑ 추진근거

- '국정운영 5개년 계획'_[국정87] 아이키우기좋은 출산·육아 환경 조성(복지부)_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_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의 경비 지원
- '전북형 저출생 정책'_출생은 건강하게_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및 운영

☑ 사업대상

- 공공산후조리원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6년~'30년
 - 군산시 내에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은 2개소로 매년 출생하는 신생아 수에 비해 부족한 상황
 - 현재 산후조리원 이용은 예약조차 어려우며, 가격 또한 비싸지고 있는 상황으로 군산시 신생아를 군산내에서 케어할 필요가 있음
- 1안
 - 임신부에 대한 지원 확대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필요
- 2안
 - 공공산후조리원의 신규 건립이 아닌 기존 공공·의료·유휴시설을 활용한 운영 방식 검토 필요

☑ 연도별 추진계획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합계
조리원	-	-	1개소	-	-	1개소

☑ 소요예산

-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고 이후, 도비와 시비 및 운영비로 조리원 유지관리

- 현재 '25년 기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비용 1개 시설당 100억 예상
 - 타 지자체 : 남원시 약 132억 원, 속초시 약 78억 원, 정읍시 약 70억 원

(단위 : 백만원)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합계
국비	2,500	2,500	-	-	-	5,000
도비	2,500	2,500	1,100	1,100	1,100	8,300
시비	-	-	300	300	300	900

☑ 기대효과

- 군산내 산후조리원의 부족 현상 해결과 더불어 산후조리 및 출산을 위해 타지역으로 진출하는 인구를 방지할 수 있음

참고자료

- 이재명정부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87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육아 환경 조성 (복지부)

□ 주요내용

- (난임·임산부·영유아 지원)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및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 가임력 검사비 연중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등) ① 도지사는 산모와 신생아에게 양질의 건강관리서비스 및 산후조리를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남원시 공공산후조리원 예산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공공산후조리원은 남원의료원 인근 3700㎡ 부지에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2410㎡ 규모로 건립된다.

공정률 72%를 넘어서며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문제는 운영비 확보다. 연간 운영비 14억여 원 중 전북도가 부담하기로 한 4억2000만원(30%)을 제외한 나머지 10억여 원이 아직까지 확보되지 않았다.

남원시는 총 공사비 132억원 중 97억원을 부담했다. 하지만 자체 재원으로 매년 10억여 원의

0-0	임산부 행복식탁운영	단기	중장기	담당과
		-	-	-

☑ 배경 및 목적 (통합 / 임산부 지원 패키지)

- 군산시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식품접객업소와 연계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전략과제 1-3. 임산부 교통바우처 지원 패키지로 통합, 전문가 자문의견]

☑ 사업대상

- 군산시에 거주하는 임산부(임신 중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6년~'30년
- 사업내용
 -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임산부 신분증을 제시하면, 군산시의 일부 식품접객업소 이용시 식품접객업소 일부 할인(10%~5% 이내 할인)
 - 식사 비용, 포장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 1,000명 x 30천원(1회) x 12회 / 바우처를 통한 매월 1회 지급

☑ 추진목표

(단위: 백만원)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합계
임산부 행복식탁운영	360	360	360	360	360	1,800

☑ 기대효과

- 임산부를 금전적으로 지원하여 출산 이후, 군산시에 정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가능

0-0

임산부 응원 미용업소 운영

단기	중장기	담당과
-	-	-

☑ 배경 및 목적 (통합 / 임산부 지원 패키지)

- 군산시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미용업소와 연계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전략과제 1-3. 임산부 교통비·운동비 지원 패키지로 통합, 전문가 자문의견]

☑ 사업대상

- 군산시에 거주하는 임산부(임신 중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6년~'30년
- 사업내용
 -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임산부 신분증을 제시하면, 군산시의 일부 미용업소 이용시 일부 할인(20%~10% 이내 할인)
 - 커트, 펌, 염색, 피부관리 등 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 1,000명 x 30천원(1회) x 12회 / 바우처에 매월 1회 비용 지급

☑ 추진목표

(단위: 백만원)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합계
임산부 응원 미용업소 운영	360	360	360	360	360	1,800

☑ 기대효과

- 예비임산부를 금전적으로 지원하여 출산 이후, 군산시에 정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가능

0-0	맞벌이부부 휴가 지원	단기	중장기	담당과
		-	-	-

☑ 배경 및 목적 (장기검토 / 부서 협의 필요)

- 군산시에서 근무하는 맞벌이 부부의 휴가를 추가적으로 지원하여 보육환경 개선[군산인구 실태조사_공무원(10점 만점 중 7.97점)]

☑ 사업대상

- 군산시내 기업에서 근무하는 맞벌이부부(군산시민)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6년~'30년 / 계획기간동안 자녀(만 5세 이하) 당 1회(부부 각 1회), 연차3일 휴가 지원
- 사업내용
 - 군산시내 기업에서 근무하는 재직증명서(부부 둘 다)를 시청에 제출하면, 부부의 휴가 추가지원
 - 군산 시청은 부부의 휴가를 추가적으로 지원해주는 업체에 (1명당 최대 50만원) 금전적인 보상
 - 2,000기업 x 500천원 x 1회 / 기업 여건 반영 필요

☑ 추진목표

(단위: 백만원)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합계
맞벌이부부 휴가 지원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 기대효과

- 맞벌이 부부에게 휴가를 추가적으로 지원하여 육아환경 개선하고, 군산 기업을 금전적 보상함으로써 정주여건 개선 가능

0-0

맞벌이부부 보육료 추가 지원

단기	중장기	담당과
-	-	-

☑ 배경 및 목적 (추진불가 / 유사 사업 추진 중)

- 군산시에서 근무하는 맞벌이 부부의 보육료를 추가적으로 지원하여 금전적인 부분 완화[보육료 지원은 정부지원도 추진 중(0~5세), 맞벌이 부부만 지원하기에는 형평성 문제 야기]

☑ 사업대상

- 군산시내 기업에서 근무하는 맞벌이부부(군산시민)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6년~'30년 / 계획기간동안 자녀가 만5세 이하일 경우 / 관내 1년 이상 부부 모두
- 사업내용
 - 군산시내 기업에서 근무하는 재직증명서(부부 둘 다)를 시청에 제출하면, 부부의 보육료 추가지원
 - 매년 1회 30만원씩 지원하여 보육료의 금전적인 부분을 완화시키고, 군산시의 정주여건 환경 개선
 - 1,000가정 x 300천원 x 1회

☑ 추진목표

(단위: 백만원)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합계
맞벌이부부 보육료 추가 지원	300	300	300	300	300	1,500

☑ 기대효과

- 군산시에서 근무하는 맞벌이 부부를 금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보육환경 개선을 통해 군산시의 정주여건 마련

0-0	다태아(쌍둥이 이상) 든든보험 지원 사업	단기	중장기	담당과
		-	-	-

☑ 배경 및 목적 (해당사업 구상중)

- 다태아 출생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일반 신생아에 비해 건강상 위험은 높으나 태아보험 가입 거절, 보험료 인상 등 민간보험 진입장벽이 높아 지원해주는 사업[군산인구 실태조사_청년(결혼의 부담 이유 2위_출산·양육·부담) 및 전문가 자문 의견]

☑ 사업대상

-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다태아('26년 이후 출생) 가정 / 다태아 비율 대략 6%(약 60명)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6년~'30년
- 사업내용
 - 다태아의 응급실 내원비, 질병·상해 등 입원비, 수술비, 암진단비 등을 보장하기 위함(보험사 협의 후, 필요 항목 추가 조정)
 - 출생일로부터 2년간 보험 자동가입(전출시 자동 해지)

☑ 추진목표

(단위: 백만원)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합계
다태아 보험 지원사업	10	10	10	10	10	50

☑ 기대효과

- 다태아 출생가정에 대한 의료비 부담 경감과 저출생 극복 및 가족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시민 체감도 향상

0-0

군산시 대학 및 기업 연계 지원

단기	중장기	담당과
-	-	-

☑ **배경 및 목적 (추진불가 / 지원자 및 실효성 부족)**

- 군산시에서 지역대학과 기업을 동시에 지원하여 대학교 졸업 후, 군산내 기업에 취업까지 진행함으로써 군산시 청년의 전출을 방지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음[군산인구 실태조사_청년(가장 큰 걱정거리_2위 취업) 및 전문가 자문 의견]

☑ **추진근거**

- '국정운영 5개년 계획'_[국정53] '5극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_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 **사업대상**

- 군산시 대학을 다니는 대학생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6년~'30년
 - 군산시 대학을 다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과, 기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연계 지원 프로그램 진행
 - 해당 프로그램을 수료한 대학생은 연계한 기업에 취업하여 군산시에서의 전출을 방지 할 수 있음
 - 또한, 군산시 대학으로 진학한 전입 학생들을 군산에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음

☑ **연도별 추진계획**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합계
대학생	300명	500명	500명	500명	500명	2,300명

☑ **소요예산**

- 대학생 1명당 기업에 최대 백만원을 지원하고, 국정과제 수립 이후, 추가적인 국비를 편성하여 예산 편성
 - '26년 국정과제 수립 이후, '27년부터 국비 추가 예산 편성
 - 경기도, 충남 프로그램 예산(건당 수천~수 억원 지원 중)

(단위 : 백만원)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합계
국비	-	200	200	200	200	800
도비	-	-	-	-	-	-
시비	300	300	300	300	300	1,500

☑ 기대효과

- 군산 내에 있는 대학생의 졸업 후, 전출을 방지하고, 군산 대학을 진학한 학생들에게 군산에서의 정주할 수 있는 환경 마련 가능

참고자료

- 이재명정부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49 '5극3특' 과 중소도시 균형성장 (행안부·국토부)

□ 과제목표

- 5극 초광역권 출범 지원, 3개 특별자치도에 대한 맞춤형 특례 부여
- 사람·기업이 모이는 혁신거점 조성, 마을 및 중소도시 집약거점 육성

□ 주요내용

- (특별자치도 성장 지원) 5극 수준의 3특(제주·전북·강원) 육성을 위해 특별법 개정 및 특화성장지역 조성·지원*,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
 - * 지역특성에 맞는 전략산업 육성, SOC 인프라 구축 등
-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전략산업 선정·지원 등 혁신거점 제도기반 마련
 - 권역별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국가산단 조성 및 기존산단 개선
 - 도심융합특구·기업형혁신도시·캠퍼스혁신파크 등 기업·대학·연구기능 융복합
 - 외투 유치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연구개발특구를 창업거점으로 활용

0-0

청년 더드림 적금이자 지원사업

단기	중장기	담당과
-	-	-

☑ 배경 및 목적 (추진불가 / 유사 사업 추진 중)

- 결혼자금 마련 등 안정적인 생활 기반 조성이 필요한 청년의 정기적금 우대 금리 지원과 동시에 개설 추가 비용 지원[군산인구 실태조사_청년(가장 큰 걱정거리_3위 생활비 마련), 관내 유사사업(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청년내일 저축계좌 추진 중)]

☑ 추진근거

- '전북형 저출생 정책'_취업·결혼은 가볍게_전북청년 다달이 더드림 적금이자 지원사업

☑ 사업대상

- 군산시에 있는 거주하는 청년 18~39세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6년~'30년
 - 군산거주 청년의 적금이자 통장 개설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활 기반 조성(도+시 지차제비용 지원)
 - 시중은행 적금이자 대비 우대 금리 상품을 개설하여 구좌당 15만원 추가지원(도 10만원+시 5만원)

☑ 연도별 추진계획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합계
청년	10,000명	10,000명	10,000명	10,000명	10,000명	50,000명

☑ 소요예산

- 도에서 청년 1인당 최대 10만원을 지원하고, 군산시에서 시비를 편성하여 최대 5만원 추가 지원
 - '26년부터 청년 1인당 도비 10만원 지원, 시비 5만원 지원
 - 10,000명 x (도 10만원 + 시 5만원) = 연 15억원

(단위 : 백만원)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합계
국비	-	-	-	-	-	-
도비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시비	500	500	500	500	500	2,500

☑ 기대효과

- 군산거주 예비 청년 부부에 결혼비용을 추가적으로 지원하여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

참고자료

- 전북특별자치도 저출생대응 정책

전북청년 달달이 더드림 적금이자 지원사업

[홈](#) | [분야별 정보](#) | [저출생 대응 정책](#) | [결혼 신혼부부](#) | [전북청년 달달이 더드림 적금이자 지원사업](#)



- 목적 : 결혼자금 마련 등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이 필요한 청년의 정기적금 우대금리 지원(기본금리 + 2% 추가 지원)
- 사업기간 : '25년 ~
- 사업대상 : 도내 거주 청년(18~39세)
- 주요내용 : 시중은행 적금이자 대비 우대금리 상품 개발, 구좌당 10만원 추가지원, 적용금리 6.2% (기본 4.2%, 청년우대 추가 2%)
- 담당부서 : 인구청년정책과 280-3212

0-0

농어촌 빈집활용 청년 워케이션 센터

단기	중장기	담당과
-	-	-

☑ **배경 및 목적 (기추진 /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 군산시에 있는 농어촌 빈집을 활용하여 청년이 사용할 수 있는 워케이션 센터 운영을 통해 군산거주 청년의 경제력을 확보와 동시에 타 도시 청년의 유동인구 형성[전문가 자문 의견]

☑ **추진근거**

- '국정운영 5개년 계획'_[70]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_농촌 재생 지원

☑ **사업대상**

- 사업대상 : 워케이션센터 / 청년 18~39세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6년~'30년
 - 군산시의 농어촌 빈집 재생과 동시에 인프라 확대를 통해 청년만이 사용할 수 있는 워케이션센터 설립
 - 국정과제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아, 청년만이 사용하는 인프라 형성
 - 해당 센터는 청년만 사용함으로써, 센터운영과 동시에 청년에게 필요한 물품을 지원(군산 거주)

☑ **연도별 추진계획**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합계
센터	-	-	1개소	-	-	1개소

☑ **소요예산**

- 리모델링 / 추가 건축 비용 등 약 50억원 예상
 - ex) 부산 워케이션 설립비용 60억원
 - 지원 물품 1만원 x 2,000명 = 시비 연 20백만원
 - 운영비용 시비 연 100백만원 지원

(단위 : 백만원)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합계
국비	2,500	2,500	-	-	-	5,000
도비	-	-	-	-	-	-
시비	-	-	120	120	120	360

☑ 기대효과

- 농어촌 빈집 감소와 동시에 청년의 경제력 확보가 가능하고, 타 도시로부터의 청년 유동인구 확보

참고자료

- 이재명정부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 70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농식품부)**
 - 과제목표**
 - 주거, 일자리, 생활서비스, 기본소득으로 농촌 정주여건 개선 및 생활인구 확대
 - 농어촌 에너지 자립, 햇빛소득마을 도입 등 농어촌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확산
 - 주요내용**
 - (농촌 재생 지원) 농촌공간계획에 따른 농촌특화지구 육성(시군별 1개소)으로 농촌공간을 기능별(정주·산업·경관 등)로 재배치하고 빈집 재생 및 인프라 확대
 - 농어촌 빈집 7.8만호를 창업·관광 공간 등으로 정비 및 재생
 - 재생거점마을(시군별 1개소) 조성, 산촌체류형 쉼터 도입,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18개소) 확대 등 생활인프라 조성 및 귀농·귀촌 지원 예산 복원

부산시는 예산 60억원을 들여 부산형 워케이션 사업을 내년까지 추진한다. 부산 동구 아스티호텔의 727㎡(약 220평) 공간이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아스티호텔 거점 센터는 다음달 열릴 예정이다. 이외에도 인구 소멸지역으로 지정된 원도심권 일대의 다양한 숙박시설을 위성 공간으로 삼아 영역을 확대한다.

0-0

청년 쉐어하우스 운영

단기	중장기	담당과
-	-	-

☑ 배경 및 목적 (기추진 / 근로 청소년 임대 아파트)

- 군산내 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시내 및 산업단지 근처에 청년 쉐어하우스를 운영하여 사회적 부담 절감[관내 유사사업(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군산 STAY 청년창업 주거 지원사업, 군산시 근로 청소년 임대아파트) 추진 중]

☑ 사업대상

- 군산내 기업에 근무하는 만 39세 미만 청년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6년~'30년 / 인당 최대 2년 거주
 - 군산시민 및 전입을 통해 온 청년들의 직장생활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청년 쉐어하우스 운영
 - 군산 시내 및 산업단지 주변에 아파트 혹은 빌라의 일부를 군산시가 전세 및 월세로 임대하여 관리(인당 최대 2년 거주)
 - 800천원 x 50채 x 12개월 x 2년

☑ 연도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합계
청년 쉐어하우스 운영	480	960	960	960	960	4,320

☑ 기대효과

- 군산 청년과 전입 온 청년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군산시에 자리잡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인구 유입 가능

0-0	군산시 청년 서포터즈	단기	중장기	담당과
		-	-	-

☑ 배경 및 목적 (기추진 / 현 인원 24명)

- 블로그 등을 통해 군산시의 청년 관련 정보를 전파하고, 군산시를 홍보해주는 서포터즈 모집(관내 블로그기자단 운영 24명(글 19명, 이미지 2명, 영상 3명))

☑ 사업대상

- 블로그(네이버, 인스타그램 등)를 운영중인 관내 만 39세 미만 청년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6년~'30년 / 연 500만원
- 사업내용
 - 블로그(네이버, 인스타그램 등)를 통해 요약된 정보를 얻는 MZ세대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중
 - 군산시의 인구정책, 청년정책 등 청년 관련 정보를 요약하고 재미있게 홍보해 줄 서포터즈를 모집하여 운영
 - 블로그 글 게시 1건당 원고료를 지급하는 형식(건당 5만원) / 원고료 100건 기준

☑ 연도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합계
군산시 청년 서포터즈	5	5	5	5	5	25

☑ 기대효과

- 블로그 글을 통해 인터넷으로 청년 관련 정보 및 군산시 정보를 홍보하여 청년의 정책 관심도 상승 효과 기대

0-0

청년연구자 역량 강화 프로젝트

단기	중장기	담당과
-	-	-

☑ 배경 및 목적

- 지역 기반 연구·일자리 부족으로 유출되는 청년연구자의 역량을 강화해 군산 내 정착과 전문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함[군산인구 실태조사_청년(가장 큰 걱정거리_2위 취업) 및 전문가 자문 의견]

☑ 사업대상

- 관내 거주중인 만 39세 미만 청년연구자(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근무자)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6년~'30년
- 사업내용
 - 군산 지역 대학, 연구기관, 기업과 연계하여 청년연구자의 연구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프로그램
 - 연구기획·데이터 분석·현장 실증 등 실무 중심 교육과 공동연구 과제를 지원해 지역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연구 성과 창출 목표
 - 연구 결과를 지역 일자리, 기술사업화, 창업으로 연계하여 청년연구자의 군산 정착과 지식기반 인구 확충 도모

☑ 연도별 추진계획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합계
청년연구자 지원	-	-	-	-	-	-

☑ 기대효과

- 전문 청년인력의 지역 유출을 줄이고, 연구·산업 연계를 통해 군산의 지식기반 인구 확충

0-0	군산공항 운행노선 개편	단기	중장기	담당과
		-	-	-

☑ 배경 및 목적 (장기검토 / 부서협의 필요)

- 군산공항의 운행노선을 개편하여 군산시민뿐만 아니라 전라도 인근 지역의 유동인구를 형성하여 군산시 활성화[군산시 SWOT 분석_광역교통체계(강점)]

☑ 추진근거

- '국정운영 5개년 계획'_[국정57] 교통혁신인프라 확충_중장거리(국토부) LCC 운항 확대

☑ 사업대상

- 군산공항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6년~'30년 / 계획기간 동안을 포함하여 장기적인 개편
 - 군산공항은 현재 제주(국내선)만 운행되고 있으며, 매일 같은 시간대 3편의 항공사(진에어)만 운행 중
 - 운행노선을 개편하고, 항공사 영입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해외노선을 확보하여 활성화 필요
 -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라 확대되는 LCC 운항 노선과 신공항 노선 등을 연결하는 운행노선 확보 필요
 - 계획기간을 포함하여 장기적인 개편을 통해 군산공항을 활성화하여 유동인구 유입 필요

☑ 연도별 추진계획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합계
군산공항	-	-	-	-	1개소	1개소

☑ 소요예산

- 신공항 수립 및 중장거리 LCC 운항 노선 확보 등 경과에 따라 군산공항의 예산 편성 필요

(단위 : 백만원)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합계
국비	-	-	-	-	-	-
도비	-	-	-	-	-	-
시비	-	-	-	-	-	-

☑ 기대효과

- 노선개편으로 공항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인근지역에서 공항을 이용하는 유동인구를 군산시로 모으는 효과 가능

참고자료

- 이재명정부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57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 (국토부)

□ 과제목표

- 철도·도로·항공 등 전국에 균형 잡힌 교통 인프라 확충

□ 주요내용

- (지방 항공관문 확대) 신공항* 사업 추진, 중장거리 LCC 운항 확대
* 가덕도, 대구경북, 제주제2, 새만금, 울릉, 흑산, 백령, 서산공항 등

□ 기대효과

- 수도권은 더 빠르게^{1시간}, 전국은 더 가깝게^{2시간} 연결
- 농·어촌 등 교통물류 사각지대 해소로 전 국민 교통복지 실현

0-0	공영주차장 조성 및 확장	단기	중장기	담당과
		-	-	-

배경 및 목적 (기추진 / 단계적 추진 중)

-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이성당 등 월명동 문화거리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개선하여 문화거리 활성화 추진

사업대상

- 월명동 주차장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6년~'30년
- 사업내용
 - 월명동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인근 초등학교, 행정복지센터까지 주차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월명동 공영주차장을 주차 타워 건설 및 확장을 통해 주차공간 확보

연도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합계
공영주차장 조성 및 확장	1,850	1,850	-	-	-	3,700

기대효과

- 월명동의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문화거리에 유입되는 인원 확보

0-0

군산시 에너지 글로벌 연구단 운영

단기	중장기	담당과
-	-	-

배경 및 목적 (추진불가 / 구현하기 어려움)

- 군산시에서 생성되는 에너지를 연구하는 글로벌 연구단을 운영하여 연구인력 양성과 에너지 활용 계획 수립

사업대상

- 군산시 등록외국인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6년~'30년
 - 군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에너지 연구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연구단 운영
 - 군산시에서 생성하는 에너지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글로벌 연구원 양성
 - 사업비 인센티브제 운영(ex) 사업비의 0.5%

연도별 추진계획

(단위 : 외국인 수)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합계
에너지 글로벌 연구단 운영	50명	50명	50명	50명	50명	250명

기대효과

- 군산시에서 생성되는 에너지를 활용하고, 외국인 연구진을 형성하여 정주 여건과 동시에 에너지분야 발전 가능

0-0	외국인 맞춤형 K-스마트 농업 아카데미 운영	단기	중장기	담당과
		-	-	-

배경 및 목적 (추진불가 / 인력 및 예산 확보 어려움)

- 군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생계유지를 위한 농업기술 전수와 동시에 군산시의 농업 활성화를 위함

사업대상

- 군산시 등록외국인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6년~'30년
 - 군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농업기술 등 관심이 있는 외국인에게 K-스마트(스마트 팜, 드론 농업 등) 농업 아카데미 운영
 - 해당 아카데미를 수료한 외국인에게는 일정기간 일부의 땅을 제공하여 농업을 유치하는 환경 조성
 - 1평(120천원) x 300평 x 10인 x 5년

연도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합계
스마트 농업 아카데미 운영	360	360	360	360	360	1,800

기대효과

- 농업기술을 배우고 싶은 외국인에게 교육지원뿐만 아니라 농업을 활성화할 수 있음

0-0

글로벌 해양·조선 인력 트레이닝 운영

단기	중장기	담당과
-	-	-

배경 및 목적 (기추진 / 조선업 양성 지원사업)

- 해양과 조선에 필요한 외국인을 트레이닝하여 글로벌 인력 양성 및 군산 조선소 활성화[조선업 양성 지원사업 추진 중]

사업대상

- 군산시 등록외국인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6년~'30년
 - 군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해양과 조선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인력 트레이닝 운영
 - 해당 트레이닝을 수료한 외국인에게는 군산 조선소에서 근무하는 여건 형성
 - 훈련비자를 취업비자까지 연계하는 방향으로 군산시의 정주환경 보장(50기업 x 1,000천원 x 5년)

연도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합계
인력 트레이닝 운영	50	50	50	50	50	250

기대효과

- 군산 조선소를 활성화하고, 외국인들의 군산시 정주 환경을 보장할 수 있음

0-0

외국인 주거비용 지원

단기	중장기	담당과
-	-	-

☑ 배경 및 목적 (추진불가 / 담당과 미정)

- 군산시에 정착하여 주거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경제적 비용 완화를 위하여 주거비용 지원(원탁토론회 시민 및 전문가 자문 의견)

☑ 사업대상

- 군산시 등록외국인으로써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6년~'30년 / 최초 1번 지원, 50만원
 - 군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거주환경 지원
 - 주거비용 지원은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정주여건 개선과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
 - 1회 x 500천원 x 500명 x 5년 / '외국인 주민의 체류 지원사업'과 연계

☑ 연도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합계
외국인 주거비용 지원	250	250	250	250	250	1,250

☑ 기대효과

- 외국인들에게 경제적 비용을 보장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군산시의 정주여건 개선

0-0

청.바.지.군.(청춘은 바로 지금 군산에서)

단기

중장기

담당과

-

-

-

☑ 배경 및 목적

- 군산시에서의 삶 · 직업 · 커뮤니티를 체험하는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군산의 생활환경 · 일자리 · 주거여건 · 공동체 문화를 경험하게 하여 생활인구 확장[군산시 SWOT 분석_관광 개선에 초점을 맞춘 생활인구 확장(강점-기회)]

☑ 사업대상

- 군산 전입을 고려하는 청년(20~39세)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6년~'30년
 - [GO 군산 섬해진미-무도녀편]을 확장한 투어 프로그램을 단순 관광이 아닌 군산의 정주 매력도 제고를 위한 투어
 - 분기별로 1회 운영하여 계절을 반영한 1박 2일 프로그램 운영[어촌 체험, 고군산군도 투어, 시간여행 투어, 바비큐 파티 등]
 - 군산 전입 정보(주거, 전입 혜택 등), 청년정책(정책 가이드북 등) 등 정보 제공을 통해 생활인구 확장
- 산출근거 : 군산 투어 연 4회(분기별 1회)

☑ 연도별 추진계획

(단위 : 회수)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합계
군산 투어	4회	4회	4회	4회	4회	20회

☑ 기대효과

- 군산의 정주 매력도 제고 및 외부 청년층의 지역 관심 증대와 반복 방문 및 관계 인구 확대를 통한 잠재적 전입 가능성 증가

0-0	결혼이주여성 지역 정착을 위한 지원	단기	중장기	담당과
		-	-	-

☑ 배경 및 목적 (유사 사업 추진 중)

- 결혼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적응을 지원하여 가족 단위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의 안정적 인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함(원탁토론회 시민 및 전문가 자문 의견)

☑ 사업대상

- 군산시에 등록되지 않은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6년~'30년
 - 결혼이주여성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언어·생활·취업·양육을 통합 지원하는 사업
 - 한국어 교육, 직업훈련, 지역 커뮤니티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자립 기반 강화
 - 자녀 돌봄·교육 서비스와 연계하여 가족 단위의 장기 거주를 유도하고, 지역의 포용적 인구 구조 형성

☑ 연도별 추진계획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합계
이주여성 지원	-	-	-	-	-	-

☑ 기대효과

-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참여를 촉진해 가족 단위 인구의 장기 거주를 강화

0-0

고군산군도 한 달 여행하기

단기	중장기	담당과
-	-	-

☑ 배경 및 목적

- 단기 체류를 통해 군산의 생활·자연·문화환경을 경험하게 하여 관계인구 확대와 중장기 정주 전환을 유도하기 위함[군산시 SWOT 분석_관광 개선에 초점을 맞춘 생활인구 확장(강점-기회)]

☑ 사업대상

- 주민등록상 군산시 및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지 않은 자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6년~'30년
 - 고군산군도에서 일정 기간 실제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체류형 관계인구 프로그램
 - 숙박, 생활공간, 지역 체험을 제공하고 주민 교류·로컬 활동 참여를 통해 군산의 일상과 정주 가능성 체감 목표
 - 체험 이후 관계인구 등록, 재방문 프로그램, 이주·정착 정보 제공을 통해 중·장기 정주 전환 유도

☑ 연도별 추진계획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합계
여행비 지원	-	-	-	-	-	-

☑ 기대효과

- 체류형 경험을 통해 관계인구를 확대하고 군산으로의 중·장기 정주 전환 가능성을 높임

0-0	24시간 노인복지센터 운영	단기	중장기	담당과
		-	-	-

☑ 배경 및 목적 (추진불가 / 숙박 공간 부족)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지원 강화의 연계 사업으로 일과 이후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을 위해 24시간 운영하는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여 노인분들의 복지 지원[전문가 자문 의견]

☑ 추진근거

- ‘국정운영 5개년 계획’_[국정91] 인구 가족 구조변화 대응 및 은퇴세대 맞춤형 지원(복지부)_어르신 지원 강화

☑ 사업대상

- 군산시 노인복지센터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6년~’30년
 - ’26년에 준공하는 나운3동 도시재생 인정사업(노인복합문화시설) 연계 사업으로 노인복합문화시설의 운영시간을 24시간으로 개편하여 노인분들의 복지를 지원하는 사업
 - 국정과제에 따라 식사 주기를 추가적으로 편성하고, 치매 어르신 등 재산관리지원서비스 도입
 - 운영비를 추가지원하여 시간개편으로 인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락한 노후생활 보장

☑ 연도별 추진계획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합계
복지센터	-	1개소	-	-	-	1개소

☑ 소요예산

- 준공 이후, ’27년부터 24시간 노인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

(단위 : 백만원)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합계
국비	5,420	500	500	500	500	2,000
도비		300	300	300	300	1,200
시비		200	200	200	200	800

☑ 기대효과

- 운영시간을 확대하여 복지사를 추가 배정하여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며, 군산거주 노인의 복지를 한층 강화

참고자료

- 이재명정부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91 인구가족구조변화 대응 및 은퇴세대 맞춤형 지원 (복지부)

□ 과제목표

- 분야별 어르신 지원 강화 및 고령인구 증가로 창출되는 신시장 활성화
- ▲인구정책 거버넌스 강화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대응 정책 ▲양질의 돌봄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 인구가족구조 변화에 대응

□ 주요내용

- (어르신 지원 강화) 일자리, 식사·건강, 재무관리 등 맞춤형 종합 지원 확대
 - (일자리) 노인일자리 지속 확대 제공, 매년 적정 단가 인상 등 질적 개선 추진
 - (식사·건강) ▲경로당 식사 주 3.5회→5회 확대 및 양곡비·부식비 지원 ▲노쇠예방 건강프로그램 보급
 - (재산관리) 치매 어르신 등 대상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도입

0-0

노인을 보필하는 가구 생활비 지원

단기	중장기	담당과
-	-	-

☑ 배경 및 목적 (추진불가 / 기존복지제도와의 중복)

- 노인을 보필하는 가구에 생활 비용을 지원하여 군산시에서 노인을 보필할 수 있는 여건 조성[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연금, 기초생계급여, 노인돌봄서비스 등 유사 목적의 제도가 운영 중]

☑ 사업대상

- 노인을 보필하는 가구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6년~'30년
 - 노인을 보필하는 가구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
 - 군산시민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을 보필하는 가구에 매월 10만원의 지역화폐 지급
 - 500가구 x 100천원 x 12개월

☑ 연도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합계
노인을 보필하는 가구 생활비 지원	600	600	600	600	600	3,000

☑ 기대효과

- 군산시에서 노인을 보필하는 청년 및 생산가능 인구들의 타 도시 전출을 방지하고, 지역화폐 활성화

0-0

찾아가는 키오스크 체험 교실

단기	중장기	담당과
-	-	-

☑ 배경 및 목적 (기추진 / 디지털역량 교육 예정 '26)

- 군산시에서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키오스크, QR코드 등 체험을 통해 현대 기술 교육[‘26년 추진 예정중인 AI 디지털 배움터(생활 SOC연계 AI 역량강화교육 사업에 포함된 사항)]

☑ 사업대상

- 군산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6년~'30년
- 사업내용
 - 다중이용시설(노인복합시설, 경로당 등) 순회하며 키오스크 및 QR코드, 무인민원발급기 등 사용이 용이하도록 교육
 - 체험교육 후 교육 중 어려운 점이나 개선사항 등을 통한 의견 수렴
 - 격주마다 수행하는 ‘찾아가는 인구정책’의 일환 / 1회 25명 x 월 2회 x 12개월

☑ 연도별 추진계획

(단위 : 노인 수)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합계
찾아가는 키오스크 체험교실	600	600	600	600	600	3,000

☑ 기대효과

- 군산시에 활성화 될 스마트 기술들을 노인분들이 교육 및 체험하여 현대기술력 습득

0-0	은퇴자 멘토링 지원사업(청년, 외국인)	단기	중장기	담당과
		-	-	-

☑ 배경 및 목적

- 사회 활동에서 은퇴하신 분들과 청년, 외국인을 교육하는 지원사업으로 군산시에 대한 정보나 기업정보 등 군산시에 거주하며 필요한 정보 및 교육을 지원하기 위함(원탁토론회 및 전문가 자문 의견)

☑ 사업대상

- 군산시에 거주하는 은퇴자(만 50세 이상) / 청년 및 외국인(만 39세 미만)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6년~'30년 / 1회당 20만원 / 청년당 최대 5회
- 사업내용
 - 군산시에서 사회 활동을 하다가 은퇴하신 분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하여 청년과 외국인을 교육하는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군산시에 대한 정보, 군산내 기업정보, 취업에 필요한 정보, 미래 계획 설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 제공
 - 500명 x 200천원 x 5회

☑ 연도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합계
은퇴자 멘토링 지원사업	500	500	500	500	500	2,500

☑ 기대효과

- 은퇴자에게 일자리를 마련하고, 청년 및 외국인에게 군산시에 정주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진출 방지 가능

0-0

가업 승계 지원 사업

단기	중장기	담당과
-	-	-

☑ 배경 및 목적

- 지역 중소기업의 고령화와 폐업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유지를 통해 지역 경제와 인구 유출을 동시에 방지하기 위함[군산시 SWOT 분석_일자리 창출 및 창업 인프라 강화(약점-위협)]

☑ 사업대상

- 관내 소상공인 중 가업 승계를 희망하는 예비 창업 청년(관내 거주 만18세~만39세 청년)
 - 관내 사업지 및 거주지를 둔 소상공인 중 10년 이상 운영중인 기업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6년~'30년
 - 가업의 안정적 승계를 통해 지역 일자리를 유지함과 동시에 청년인구 유출 악순환을 끊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고령화로 폐업 위기에 놓인 지역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승계 지원 사업
 - 시설 지원금 지급과 가업 승계·확장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에게 경영 컨설팅 지원
 - 시설 지원금(최대 10백만원, 1회) 및 경영컨설팅 지원

☑ 연도별 추진계획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합계
가업 승계 지원	-	-	-	-	-	-

☑ 기대효과

- 지역 중소기업의 지속 운영을 통해 일자리 유지와 지역경제 안정, 인구 유출 방지 도모

0-0	1인 가구 맞춤형 복지센터 운영	단기	중장기	담당과
		-	-	-

☑ 배경 및 목적 (추진불가 / 지속적 협조 의존 문제)

- 군산시의 인구 및 가구 구성원의 변화에 따라 형성된 1인 가구의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전문가 자문 의견]

☑ 추진근거

- '국정운영 5개년 계획'_[국정63]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국토부)_1인 가구 맞춤형 주거지원

☑ 사업대상

- 주거복지센터 및 군산거주 1인 가구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6년~'30년
 - 기존 시행하던 [1인 가구 주거안전 방문 지킴이 사업]을 포함하여 1인 가구 대상으로 업무를 지원하는 센터 설립
 - 1인 가구의 주거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 및 정보제공 목적
 - 방문 지킴이(CCTV 설치, 안심장비세트 지원 등), 생활불편 처리(형광등, 콘센트 교체 및 설치 등), 홈케어 서비스(방충망, 창호, 곰팡이 등), 클린케어 서비스(고령자, 장애가구등) 등을 운영하는 주거복지센터 운영

☑ 연도별 추진계획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합계
복지센터	-	1개소	-	-	-	1개소

☑ 소요예산

- 기존 운영하는 사업의 도비와 시비 운영비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유지관리(기존 도 5, 시비 12)
 - 설립비(국비 10억원) / 운영비 1년 약 3억 예상(인건비, 관리비)

(단위 : 백만원)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합계
국비	500	500	200	200	200	1,600
도비	-	-	50	50	50	150
시비	-	-	50	50	50	150

☑ 기대효과

- 군산 거주 1인 가구를 지원하여 두텁고 촘촘한 주거지원으로 주거안전 실현

참고자료

- 이재명정부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63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 (국토부)

□ 과제목표

- 신혼부부·고령자·1인 가구 등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 주거 취약계층·전세사기 피해자 등을 위한 두터운 주거안전망 구축

□ 주요내용

- (1인가구 맞춤형 주거지원) 1인 생활패턴 특화 임대주택 공급 확대, 맞춤형 정보제공을 위한 주거복지센터 확충

0-0	인구정책 성과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단기	중장기	담당과
		-	-	-

☑ 배경 및 목적 (사업 구상중)

- 군산시 인구정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 및 관리하여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맞춤형 대응방안 마련 필요[군산인구 실태조사_공무원(인구정책 거버넌스 10점 만점 중 7.12점)]

☑ 사업대상

- 군산시 인구정책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6년~'30년(이후 계속)
- 사업내용
 - 인구·정주·전입·출산 등 인구정책 관련 핵심 지표를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 기반 성과평가 시스템 구축
 - 전문가·담당부서가 참여하는 평가체계를 운영해 인구정책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강화
- 기본 원칙
 - 지속성 : 연차별·중장기 성과를 주기적으로 측정
 - 객관성 : 정량 지표(인구, 고용 등)와 정성 지표(만족도, 거버넌스 등)를 균형 반영
 - 참여성 : 시민, 전문가, 시청이 함께 평가에 참여
 - 환류성 : 평가결과를 차기 계획·사업에 반영
- 운영 프로세스
 - 분석·진단 : 전문기관 주관, 정량/정성 분석
 - 성과보고 : 연차별 성과지표 보고서, 인구정책위원회 공유
 - 환류·개선 : 차기 사업계획 반영 및 제도 개선
 - 확산·제도화 : 우수사례 확산, 법·조례 반영

○ 성과평가시스템 체계

- 주관 : 군산시청(인구대응담당관)
- 수행 및 참여 : 인구정책위원회 + 전문 연구기관(컨설팅, 대학 등)

[부록 표-2] 인구정책 성과평가 지표 체계(안)

대분류	세부 지표	측정 방식	평가 주기
인구·정책	인구 증감률, 순유입률, 장기거주율	주민등록 통계 분석	연 1회
일자리·창업	청년 고용률, 창업기업 수, 창업 생존율	통계청·중기부 자료, 운영기관 보고	연 1회
주거·생활	임대주택 공급량, 주거비 부담률, 생활SOC 접근성	국토부·지자체 DB, 설문조사	연 1회
문화·여가	생활인구, 문화 프로그램 참여자 수	빅데이터, 센터 보고	분기/연 1회
참여·거버넌스	인구정책 제안 반영률, 위원회 참여율	위원회 운영기록, 설문조사	반기
종합·지속가능성	시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민관협력 건수	설문조사, MOU/협약 자료	연 1회

참고자료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지속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환류 및 활용 방안

- 성과공유 : 연차별 성과보고서를 도·시군·인구단체와 공유
- 정책 개선 : 미흡 지표는 개선 권고사항 도출 -> 차년도 계획 반영
- 성과 확산 : 우수사례는 매뉴얼화하여 타 시군 확산 적용

☑ 기대효과

- 인구정책의 효율성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실질적 인구유입·정주 효과 강화

0-0	군산전북대병원 기숙사 건립	단기	중장기	담당과
		-	-	-

☑ 배경 및 목적 (추진불가 / 예산 부족)

-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군산전북대병원 사업과 연계하여 기숙사를 건립함으로써, 의료종사자들의 정주여건 마련

☑ 사업대상

- 군산전북대병원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6년~'30년
- 사업내용
 - 전북대병원은 상급종합병원급 건립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이지만, 병원에서 근무를 해야하는 의료종사자들의 정주여건 지원은 한계적인 상황
 - 의료종사자들에게 기숙사를 제공함으로써 군산시의 정주여건 마련(보건소 협의 필요)

☑ 연도별 추진계획

(단위 : 공정률)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합계
전북대병원 기숙사 건립	착공	50%	100%	-	-	-

☑ 기대효과

- 군산전북대병원 건립과 동시에 기숙사를 건립함으로써, 의료종사자들의 정주요건을 군산시로 형성할 수 있음

0-0

군산시 영어마을 조성

단기

중장기

담당과

-

-

-

☑ 배경 및 목적 (추진불가 / 재정 확보 어려움)

- 군산시 청소년들이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 외국어 능력과 국제적인 감각을 배양할 수 있는 영어마을 조성

☑ 사업대상

- 군산거주 청소년 및 어린이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6년~'30년
- 사업내용
 - 주말 및 방학을 활용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영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언어 교육뿐만 아니라, 문화교류와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하고, 영어 표현과 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음
 - 외국인 관광객과의 소통을 유도하며, 자연스럽게 글로벌 환경 조성

☑ 연도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합계
군산시 영어마을 운영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 기대효과

- 군산거주 어린이와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군산의 경제 활성화가 가능하며, 인구 유입 및 청년층 정착 가능

0-0	다자녀 가구 군산시 운영이용시설 이용 우대	단기	중장기	담당과
		-	-	-

☑ 배경 및 목적 (기추진 / 현재 진행중)

- 군산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가 운영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다양한 혜택 제공[다자녀 가구 운영이용 시설 비용 감소 기추진 중]

☑ 사업대상

- 군산시에 거주하는 2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6년~'30년 / 계획기간동안 모든 가구
- 사업내용
 - 다자녀 가구를 지원함과 동시에 군산시의 운영이용시설 및 관광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
 - 고군산군도 시티투어버스 이용 무료,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 이용 무료, 근대역사박물관 50% 할인 등 다양한 혜택 제공
 - 기존 진행중인 사업의 할인과 지원 범위 확대 필요(추가 지원 비용 : 1년 x 5백만원 x 5년)

☑ 연도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합계
다자녀 가구 시설 이용 우대	5	5	5	5	5	25

☑ 기대효과

-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군산시의 운영이용시설 활성화 가능

0-0

공공기관 근로자 기숙사 조성

단기	중장기	담당과
-	-	-

☑ 배경 및 목적

- 공공기관 종사자의 주거 부담을 완화해 군산 내 거주를 유도하고 지역 정주율을 높이기 위함
[군산시 SWOT 분석_생활인구 확대 기회를 활용한 정주여건 개선(약점-기회)]

☑ 사업대상

- 근로자 기숙사 / 사용자 : 관내 공공기관 근로자 및 가족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6년~'30년
 - 군산 소재 공공기관 근로자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공형 주거 지원 사업
 - 기숙사 또는 공동주택을 조성해 합리적인 비용의 안정적 주거 환경 제공
 - 입주자 대상 지역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연계해 단순 체류가 아닌 군산 내 정주 전환 촉진

☑ 연도별 추진계획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합계
근로자 기숙사	-	-	1개소	-	-	1개소

☑ 기대효과

- 근로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여 군산 내 거주 비율을 확대하고 생활인구의 정주화 촉진

0-0

차 없는 근로자를 위한 수요대응 교통

단기	중장기	담당과
-	-	-

☑ 배경 및 목적

- 교통 접근성 부족으로 발생하는 출퇴근 불편을 해소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지역 정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함[군산인구 실태조사_공무원(정주 여건 개선 점수 10점 만점 중 8.41점)]

☑ 사업대상

- 수요대응 교통버스 / 사용자 : 모든 사람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6년~'30년
 - 자가용이 없는 근로자의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교통 지원 사업
 - 군산시민을 대상으로 교통 수요가 많은 곳을 선정하여 시에서 운영하는 버스 제공을 통해 이동 접근성 개선
 - 장소, 시간대를 선정하여 특정시간대에만 운영하는 마을버스 형태의 순환버스
 - 교통 여건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장기 근속, 지역 정착 지원
 - 버스 제공은 사설 업체에 발주하고, 시에서는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 / 2대 운영

☑ 연도별 추진계획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합계
수요대응 교통버스	1대	1대	-	-	-	2대

☑ 기대효과

- 출퇴근 이동 불편을 해소해 근로자의 생활 만족도와 지역 정착 가능성을 높임

0-0

어린이 놀이터 복합문화 공간 조성

단기

중장기

담당과

-

-

-

☑ 배경 및 목적

- 안전하고 질 높은 놀이·문화 공간을 제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가족 단위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함[군산인구 실태조사_공무원(정주 여건 개선 점수 10점 만점 중 8.41점)]

☑ 사업대상

- 어린이 놀이터 복합문화 공간 / 사용자 : 만12세 미만의 아동과 보호자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6년~'30년
 - 놀이·문화·체험 기능을 결합한 어린이 중심의 복합 여가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
 - 실외 놀이터와 함께 독서, 창작,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아동의 발달과 가족의 여가를 동시 지원
 - 안전하고 질 높은 놀이 환경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이미지 강화

☑ 연도별 추진계획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합계
복합문화공간	-	-	-	-	1개소	1개소

☑ 기대효과

- 가족 친화적 여가·놀이 환경을 확충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이미지 강화

0-0	공공형 실내스포츠 놀이시설 조성	단기	중장기	담당과
		-	-	-

☑ 배경 및 목적

- 기후·계절 제약 없이 이용 가능한 실내 놀이·체육 인프라를 확충해 청년들의 정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함[군산인구 실태조사_공무원(정주 여건 개선 점수 10점 만점 중 8.41점)]

☑ 사업대상

- 실내스포츠 놀이시설 / 사용자 : 국내 모든 청년(만 18세~39세)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6년~'30년
 - 기후·계절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한 공공형 실내 놀이·체육시설 조성 사업으로 청년 대상 신체활동, 스포츠 체험, 놀이 프로그램 운영
 - 청년들의 실내데이트 및 여가 공간을 확충해 정주 만족도를 높이고 생활 인프라의 질 개선

☑ 연도별 추진계획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합계
놀이시설	-	-	-	-	1개소	1개소

☑ 기대효과

- 연중 이용 가능한 실내 놀이·체육 공간 제공으로 청년들의 정주 만족도 제고

0-0

군산 1인 커뮤니티 키친 교실

단기	중장기	담당과
-	-	-

☑ 배경 및 목적

-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고립과 식생활 불균형을 완화하고, 일상적 교류를 통해 정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함[전문가 자문 의견]

☑ 사업대상

- 관내에 거주하는 청년·중장년 1인 가구
 - 만 18세~39세 / 만 40세~50세/ 만 51세~63세 각각 운영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6년~'30년
 - 생활권 거점에 공유주방을 조성하고 정기적인 공동 식사·요리 프로그램을 운영
 - 요리교실, 테마 식탁, 지역 먹거리 활용 프로그램으로 자연스러운 소통 기회 제공
 - 소모임·취향 모임과 연계해 월 2회 지속적인 모임을 통해 지속적인 커뮤니티 형성 지원
 - 3개반 x 월 2회 x 12개월

☑ 연도별 추진계획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합계
프로그램 운영	72회	72회	72회	72회	72회	360회

☑ 기대효과

- 1인 가구의 고립을 예방하고 지역 내 관계망을 강화해 장기 거주와 지역 정착 촉진

제2절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설문지(군산시민)

1) 청년층(만18~39세)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설문조사	
청년층(만18~39세)	
<p>본 설문은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의 방향성을 설계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p> <p>본 설문조사는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과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의거 보호 받을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의거 조사 종료 후 파기되오니 안심하시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p>	
※ 시행기관: 군산시	※ 조사기관 : (사)지방행정발전연구원

I 응답자 일반사항

문항 구분	응답 문항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거주지역	()
가구의 연간 소득	① 1,000만원 미만 ② 1,000~2,000만원 미만 ③ 2,000~3,000만원 미만 ④ 3,000~4000만원 미만 ⑤ 4,000~5000만원 미만 ⑥ 5,000만원 이상
최종학력	① 초등학교졸업 ② 중학교졸업 ③ 고등학교졸업 ④ 2년제 대학졸업 ⑤ 4년제 대학교 졸업 ⑥ 석사졸업 ⑦ 박사졸업 ⑧ 기타
혼인상태	① 미혼 ② 기혼 ③ 혼인 예정 ④ 기타()
가구원 수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명 이상
직업	① 사무/기술직 ② 기능/작업직 ③ 자유/전문직 ④ 자영업 ⑤ 경영/관리직 ⑥ 판매/영업서비스직 ⑦ 농/임/축산업 ⑧ 전업주부 ⑨ 학생 ⑩ 무직
직장 형태	① 일반회사(법인, 개인) ② 정부투자/출연기관 ③ 국공립 및 사립학교 ④ 정부기관(공무원/군인 포함) ⑤ 기타 ()
장애 여부	① 장애 없음 ②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③ 장애정도가 경미한 장애인 ④ 비등록 장애인 ⑤ 기타 ()

IV 주거 및 정주여건

문항 구분		응답 문항				
		①	②	③	④	⑤
이전 거주지에 대한 만족 (군산시 전입 전 거주지역)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군산시 거주 만족도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거주 만족도	생활시설 (공공기관)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생활시설 (의료기관)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생활시설 (소비시설)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생활시설 (문화시설)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생활시설 (근린편의시설)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생활시설 (기타시설)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생활환경 (안전환경)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생활환경 (자연환경)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생활환경 (교통환경)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생활환경 (보육환경)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문항 구분		응답 문항				
거주 만족도	생활환경 (교육환경)	①	②	③	④	⑤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생활환경 (주거환경)	①	②	③	④	⑤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생활환경 (근로환경)	①	②	③	④	⑤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군산시 인구 유입을 위해 개선되어야 하는 정주여건 분야		①	②	③	④	⑤
		공공기관	의료기관	소비시설	문화시설	근린시설
		⑥	⑦	⑧	⑨	⑩
		기타시설	안전환경	자연환경	교통환경	보육환경
		⑪	⑫	⑬		
교육환경	주거환경	근로환경				

V 청년(만18세~39세)

문항 구분		응답 문항				
청년으로 살아가는데 군산시의 종합적 여건	①	②	③	④	⑤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현재 가장 큰 걱정거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항 두 개를 선택 해주세요)	①	②	③	④	⑤	
	자기개발 및 학업	취업	경력관리	재취업 및 이직	주택 마련	
	⑥	⑦	⑧	⑨	⑩	
	주거비 마련	생활비 마련	교육비 마련	대출금 상환	이성교재	
	⑪	⑫	⑬	⑭	⑮	
결혼	출산	자녀양육	취미여가 활동	기타		

문항 구분	응답 문항				
취업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항 두 개를 선택 해주세요)	①	②	③	④	⑤
	임금수준	추가수당 지급 여부	추가 근로 (아근)여부	주 5일제	휴가제도
	⑥	⑦	⑧	⑨	⑩
	일의 적성	일의 강도	발전 가능성	직정의 안정성	주거지와의 거리
	⑪				
	회사 규모 및 이미지				
군산시에서 취업이 힘들거나 타 지역으로 일자리를 알아보는 이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항 두 개를 선택 해주세요)	①	②	③	④	⑤
	낮은 급여	업종의 편중	기업정보 부족	업무량 과다	영세한 기업규모
	⑥	⑦	⑧	⑨	⑩
	자기개발 기회 부족	열악한 복지여건	일·가정 양립 어려움	기타	취업을 꺼리지 않음
군산시에서 창업 의사	①		②		
	있음		없음		
희망하는 창업 업종	①	②	③	④	⑤
	요식업	문화·관광	스포츠·건강	유통	전기·전자
	⑥	⑦	⑧	⑨	⑩
	사회복지·보건의료 기타	제조관련	뷰티	IT	기타

문항 구분	응답 문항				
청년층에게 가장 필요한 주거정책	① 공공 주택 공급	②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③ 주거비용 지원	④ 범죄 예방 환경	⑤ 주거 지원 서비스 제공
	⑥ 임차인 관리 상담 지원	⑦ 기타			
	① 무조건 해야함	② 가능하면 해야함	③ 해도되고 안해도됨	④ 가능하면 안해야함	⑤ 무조건 안해야함
결혼을 하는데 있어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	① 결혼비용	② 일자리 및 소득	③ 높은 주거비용	④ 출산·양육 부담	⑤ 기타
	① 가치관 변화	② 경제적 부담	③ 일자리 소득	④ 건강상 문제	⑤ 원하는 배우자 없음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	⑥ 출산·양육 부담	⑦ 특별한 이유 없음	⑧ 기타	⑨	
	① 있다		② 없다		
	① 미래 불안감	② 일자리 및 낮은 소득	③ 경력단절 우려	④ 육아 어려움	⑤ 출산 및 육아 제도 부족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항 두 개를 선택 해주세요)	⑥ 경제적 부담	⑦ 자녀를 원치 않아서	⑧ 건강 및 나이 우려	⑨ 현재도 다자녀임	⑩ 기타
	① 미혼 청년 결혼 지원	② 임산부 배려 사회인식	③ 보조 양육자 지원	④ 일·가정 양립문화	⑤ 출산 준비 지원
임신과 출산을 위해 중요한 부분	⑥ 산후 돌봄 서비스	⑦ 휴가 제도 확대	⑧ 기타		

2) 학부모(고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설문조사	
고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p>본 설문은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의 방향성을 설계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p>	
<p>본 설문조사는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과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의거 보호 받을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의거 조사 종료 후 파기되오니 안심하시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p>	
※ 시행기관: 군산시	※ 조사기관 : (사)지방행정발전연구원

I 응답자 일반사항

문항 구분	응답 문항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거주지역	()
가구의 연간 소득	① 1,000만원 미만 ② 1,000~2,000만원 미만 ③ 2,000~3,000만원 미만 ④ 3,000~4000만원 미만 ⑤ 4,000~5000만원 미만 ⑥ 5,000만원 이상
최종학력	① 초등학교졸업 ② 중학교졸업 ③ 고등학교졸업 ④ 2년제 대학졸업 ⑤ 4년제 대학교 졸업 ⑥ 석사졸업 ⑦ 박사졸업 ⑧ 기타
혼인상태	① 미혼 ② 기혼 ③ 혼인 예정 ④ 기타()
가구원 수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명 이상
직업	① 사무/기술직 ② 기능/작업직 ③ 자유/전문직 ④ 자영업 ⑤ 경영/관리직 ⑥ 판매/영업서비스직 ⑦ 농/임/축산업 ⑧ 전업주부 ⑨ 학생 ⑩ 무직
직장 형태	① 일반회사(법인, 개인) ② 정부투자/출연기관 ③ 국공립 및 사립학교 ④ 정부기관(공무원/군인 포함) ⑤ 기타 ()
장애 여부	① 장애 없음 ②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③ 장애정도가 경미한 장애인 ④ 비등록 장애인 ⑤ 기타 ()

IV 주거 및 정주여건

문항 구분		응답 문항				
		①	②	③	④	⑤
이전 거주지에 대한 만족 (군산시 전입 전 거주지역)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군산시 거주 만족도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거주 만족도	생활시설 (공공기관)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생활시설 (의료기관)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생활시설 (소비시설)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생활시설 (문화시설)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생활시설 (근린편의시설)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생활시설 (기타시설)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생활환경 (안전환경)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생활환경 (자연환경)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생활환경 (교통환경)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생활환경 (보육환경)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문항 구분		응답 문항				
거주 만족도	생활환경 (교육환경)	①	②	③	④	⑤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생활환경 (주거환경)	①	②	③	④	⑤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생활환경 (근로환경)	①	②	③	④	⑤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군산시 인구 유입을 위해 개선되어야 하는 정주여건 분야		①	②	③	④	⑤
		공공기관	의료기관	소비시설	문화시설	근린시설
		⑥	⑦	⑧	⑨	⑩
		기타시설	안전환경	자연환경	교통환경	보육환경
		⑪	⑫	⑬		
교육환경	주거환경	근로환경				

V 학부모 및 자녀 양육(고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문항 구분		응답 문항				
자녀 양육에 대한 군산시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자녀 양육 시 힘든 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항 두 개를 선택 해주세요)	①	②	③	④	⑤	
	양육·교육 비용 부담	보육기관 부족	사교육 인프라 부족	문화·체험 시설 부족	상담 및 정보 부족	
	⑥	⑦	⑧			
일·가장 양립 어려움	돌봄 서비스 부족	기타				
미취학 자녀 양육을 위한 필요 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돌봄 서비스	보육기관	사교육 기관	공공 서비스	사설 서비스	
	⑥					
기타						

문항 구분	응답 문항				
자녀 입학(진학) 시기에 맞춰 타 지역으로 이주할 의향	①		②		
	있음		없음		
타 지역으로 이주 의향 시기 (자녀 교육 및 학업 문제로 인한 이주 의향이 있을 때)	①	②	③	④	⑤
	초등학교 입학 전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입학 후	중학교 3학년
	⑥	⑦			
	고등학교 입학 후	기타			
자녀 문제로 인한 이주의 주요 이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항 두 개를 선택 해주세요)	①	②	③	④	⑤
	학교와의 거리	유해한 교육 환경	사교육 부족	공교육 경쟁 저하	명문고 진학
	⑥	⑦	⑧	⑨	⑩
	명문대 진학	돌봄 서비스 부족	방과후 프로그램 부족	학교 폭력	부모 생업
	⑪	⑫			
	주거환경 변화	기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부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항 두 개를 선택 해주세요)	①	②	③	④	⑤
	학교시설 개선	명문학교 육성	특화 교육 강화	외국어 강화	공교육 강화
	⑥	⑦	⑧		
	학생 전용시설 건립	저소득층 교육 지원	기타		

3) 중·장년(만 48세~63세)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설문조사	
중·장년(만 48세~63세)	
<p>본 설문은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의 방향성을 설계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p> <p>본 설문조사는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과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의거 보호 받을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21조(개인정보의과기)에 의거 조사 종료 후 파기되오니 안심하시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p>	
* 시행기관: 군산시	* 조사기관 : (사)지방행정발전연구원

I 응답자 일반사항

문항 구분	응답 문항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거주지역	()
가구의 연간 소득	① 1,000만원 미만 ② 1,000~2,000만원 미만 ③ 2,000~3,000만원 미만 ④ 3,000~4000만원 미만 ⑤ 4,000~5000만원 미만 ⑥ 5,000만원 이상
최종학력	① 초등학교졸업 ② 중학교졸업 ③ 고등학교졸업 ④ 2년제 대학졸업 ⑤ 4년제 대학교 졸업 ⑥ 석사졸업 ⑦ 박사졸업 ⑧ 기타
혼인상태	① 미혼 ② 기혼 ③ 혼인 예정 ④ 기타()
가구원 수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명 이상
직업	① 사무/기술직 ② 기능/직업직 ③ 자유/전문직 ④ 자영업 ⑤ 경영/관리직 ⑥ 판매/영업서비스직 ⑦ 농/임/축산업 ⑧ 전업주부 ⑨ 학생 ⑩ 무직
직장 형태	① 일반회사(법인, 개인) ② 정부투자/출연기관 ③ 국공립 및 사립학교 ④ 정부기관(공무원/군인 포함) ⑤ 기타 ()
장애 여부	① 장애 없음 ②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③ 장애정도가 경미한 장애인 ④ 비등록 장애인 ⑤ 기타 ()

IV 주거 및 정주여건

문항 구분		응답 문항				
		①	②	③	④	⑤
이전 거주지에 대한 만족 (군산시 전입 전 거주지역)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군산시 거주 만족도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거주 만족도	생활시설 (공공기관)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생활시설 (의료기관)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생활시설 (소비시설)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생활시설 (문화시설)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생활시설 (근린편의시설)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생활시설 (기타시설)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생활환경 (안전환경)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생활환경 (자연환경)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생활환경 (교통환경)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생활환경 (보육환경)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문항 구분		응답 문항				
거주 만족도	생활환경 (교육환경)	①	②	③	④	⑤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생활환경 (주거환경)	①	②	③	④	⑤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생활환경 (근로환경)	①	②	③	④	⑤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군산시 인구 유입을 위해 개선되어야 하는 정주여건 분야		①	②	③	④	⑤
		공공기관	의료기관	소비시설	문화시설	근린시설
		⑥	⑦	⑧	⑨	⑩
		기타시설	안전환경	자연환경	교통환경	보육환경
		⑪	⑫	⑬		
	교육환경	주거환경	근로환경			

Ⅶ 중·장년(만 48세~63세)

문항 구분		응답 문항				
현재 생활에 있어 가장 큰 걱정거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항 두 개를 선택 해주세요)		①	②	③	④	⑤
		경제활동	은퇴 준비	생활비	자녀 양육(학비)	자기개발
		⑥	⑦	⑧	⑨	⑩
		소자녀 양육	부모님 부양	사회생활 감소	사회적 고립감	기타
은퇴 이후 삶에 대한 준비 (은퇴자 포함)		①	②	③	④	⑤
		전혀 준비 안함	별로 준비 안함	보통	어느정도 준비함	충분히 준비함

문항 구분	응답 문항				
은퇴 이후를 위해 하고 있는 준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항 두 개를 선택 해주세요)	①	②	③	④	⑤
	생활자금 준비	건강 관리	취미 및 여가	사회 관계 형성	전직 및 취업 준비
	⑥	⑦	⑧	⑨	
	학위 취득	은퇴 후 정착지 모색	노후 지원 서비스 검색	기타	
은퇴 이후 정착지로 군산시에 대한 생각	①	②	③	④	⑤
	매우 부정적	부정적	보통	긍정적	매우 긍정적
중장년층 및 은퇴자를 위한 군산시 정책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항 두 개를 선택 해주세요)	①	②	③	④	⑤
	재취업 교육 및 지원	주거 환경 개선	귀농·귀촌 지원	취미·여가 활동 지원	의료 서비스 지원
	⑥	⑦	⑧		
	주민 자치 활동 지원	주거지 지원	기타		
은퇴 이후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선호하는 산업 분야	①	②	③	④	⑤
	농림축산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업
	⑥	⑦	⑧	⑨	⑩
	숙박 및 음식점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재취업 의향 없음	기타
군산시에서 중장년층 대상 평생교육을 진행할 경우 희망하는 교육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항 두 개를 선택 해주세요)	①	②	③	④	⑤
	자격증 취득 교육	귀농·귀촌 교육	창업 및 재취업 교육	건강 관리 교육	인문사회 교육
	⑥	⑦	⑧	⑨	⑩
	미술교육	음악교육	정보화 교육	스포츠	기타

제3절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설문지(공무원)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설문조사	
공무원	
<p>본 설문은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의 방향성을 설계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p> <p>본 설문조사는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과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의거 보호 받을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의거 조사 종료 후 파기되오니 안심하시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p>	
※ 시행기관: 군산시	※ 조사기관 : (사)지방행정발전연구원

I 기본정보

현재 소속 (과/팀 모두 기재)	과거 소속 (현 소속 전 담당 부서 기재)	근무 연수
		(년 개월)

II 인구정책 관련 부문별 중요도 수요조사

- 인구정책의 주요 분야별 중요도를 1~10까지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10에 가까울수록 중요도 높으며 중요도는 정책사업의 필요성,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문	중요도									
결혼·임신·출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보육·돌봄·교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청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중·장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노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III 부문별 세부 분야 정책 중요도 수요 조사

- 인구정책의 주요 분야별 중요도를 1~10까지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10에 가까울수록 중요도 높으며 중요도는 정책사업의 필요성,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분야 정책은 넓은 범위에서 작성되었으며, 향후 군산시 여건 및 수요에 맞는 세부정책사업 발굴의 기초자료로 활용

■ 결혼·임신·출산

분야	중요도									
결혼 지원 (작은 결혼식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임대주택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주택 마련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출산 지원금 (기금조성 및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신혼부부 전입장려 (지원금 지원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육아용품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건강검진·난임 지원 (신혼(예비)부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산후조리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경력단절 예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기타 의견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가타 의견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보육·돌봄·교육

구분	중요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긴급돌봄 강화										
공공 돌봄시설 확대 (지역아동센터 등)										
육아 공동체 (마을 공동육아 등)										
저소득층 지원										
다자녀 가구 지원										
아동 수동 지원										
맞벌이 부부 지원										
어린이 놀이시설 확충 (실내, 실외)										
아동·청소년 건강지원										
공교육 지원강화										
지역인재 육성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타 의견 ()										
기타 의견 ()										

■ 청년

구분	중요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청년 일자리 확대										
청년 취업 교육 강화										
주거 지원 (주택자금, 임대주택 등)										
청년 수당										
청년 활동가 육성										
문화·예술 분야 지원										
청년 창업 지원										
맞춤형 교육 서비스										
취미·여가 인프라 구축 (자기개발 지원)										
근무 여건 개선 (직장 문화 등)										
귀농·귀촌 지원										
기타 의견 ()										
기타 의견 ()										

■ 중·장년

구분	중요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신중년 지원센터 (교육, 일자리 지원)										
사회적 경제 연계										
창업 지원										
중장년 여가활동 인프라										
사회 공헌활동 지원 (재능기부, 봉사활동 등)										
평생교육 운영										
귀농·귀촌 지원										
은퇴자 네트워크 지원 (커뮤니티)										
기타 의견 ()										
기타 의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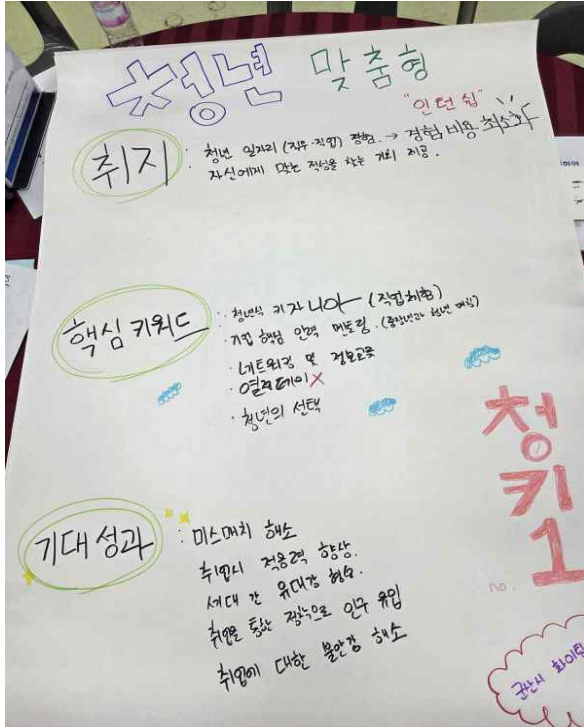
■ 노년

구분	중요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건강 관리 지원										
공공일자리 확대										
평생교육 운영										
여가·취미활동 지원										
저소득층 지원										
노인시설 확대 (경로당, 센터 등)										
기타 의견 ()										
기타 의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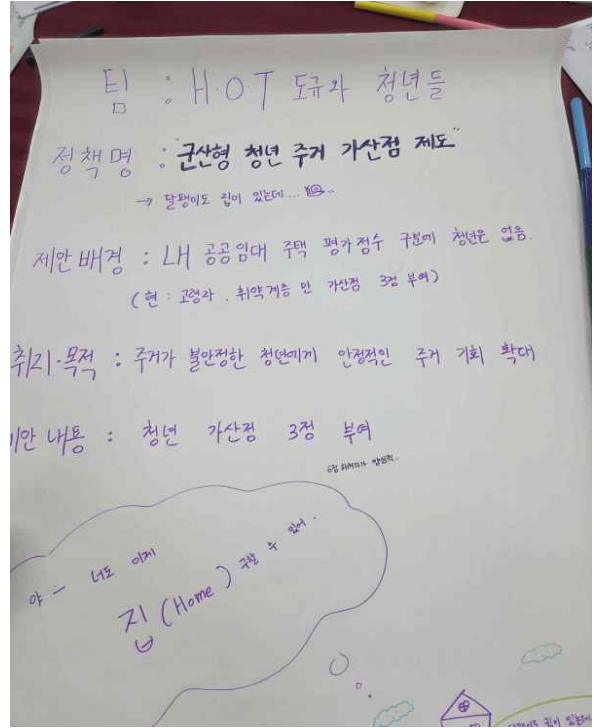
■ 기타_(거버넌스, 정주여건, 생활인구 등)

구분	중요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인구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정주 여건 개선 (의료, 문화, 편의, 교통 등)										
생활인구 확대										
이민자 지원										
다문화 가정 지원										
다양한 가족제도 인정										
기타 의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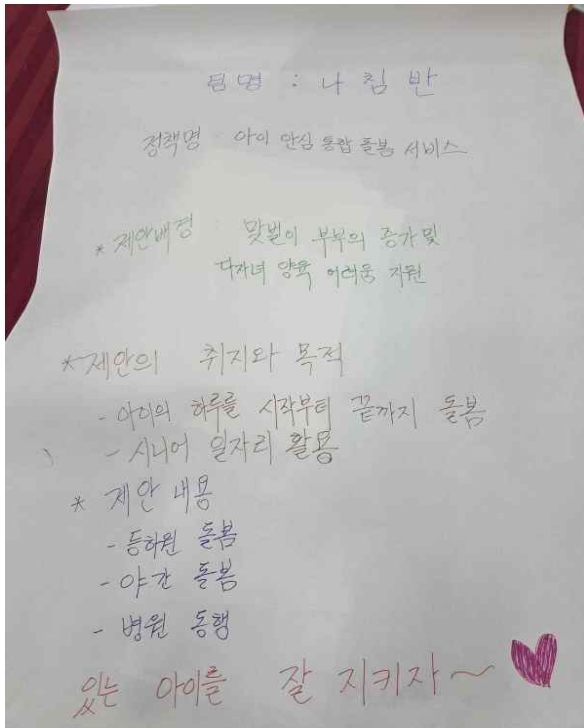
제4절 군산시 인구정책 원탁토론회 조별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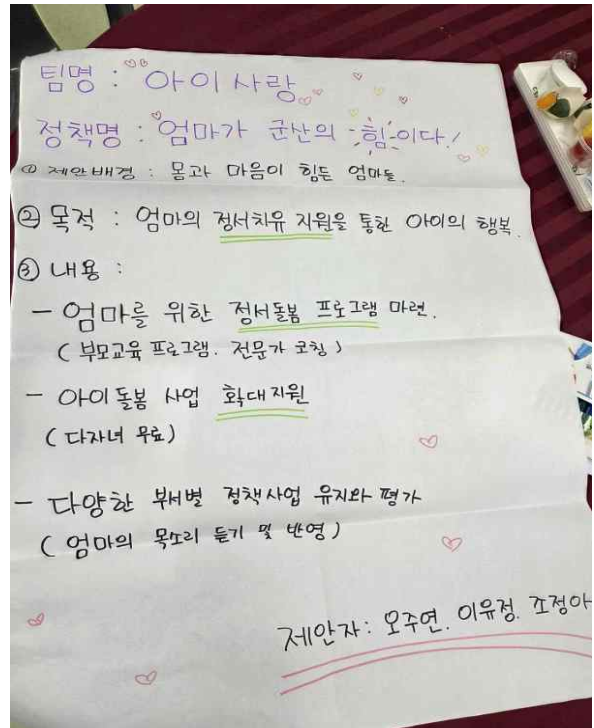
청년키움 1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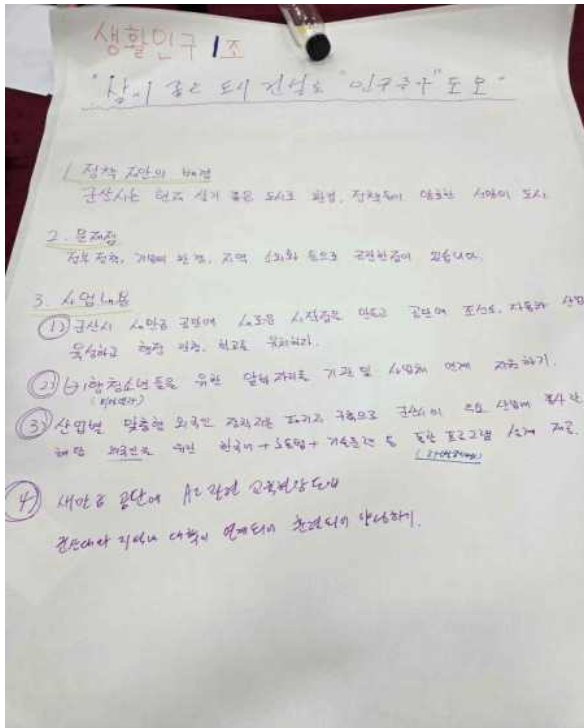
청년키움 1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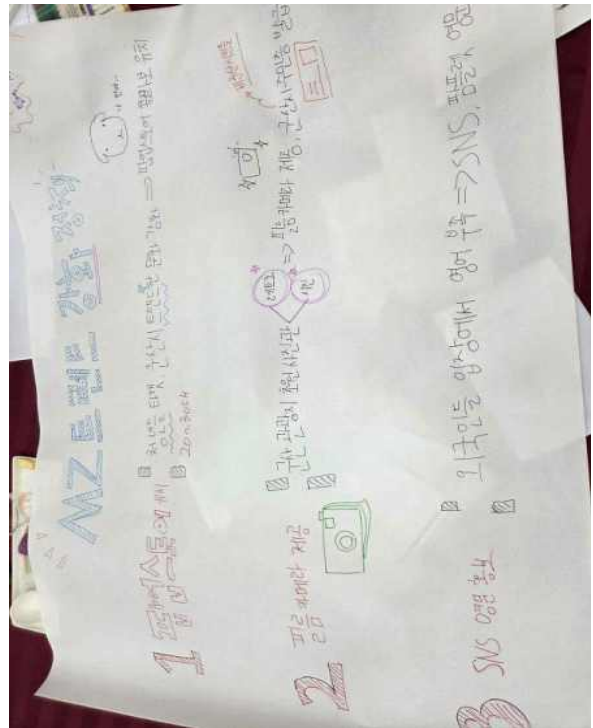
아이키움 1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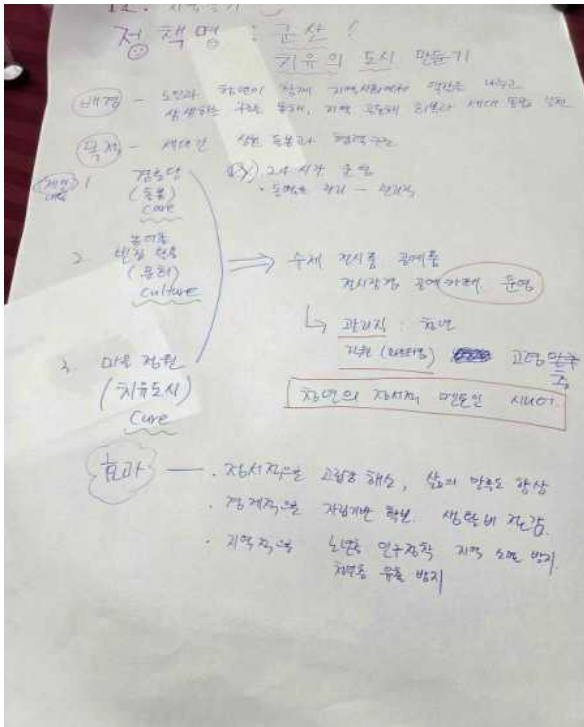
아이키움 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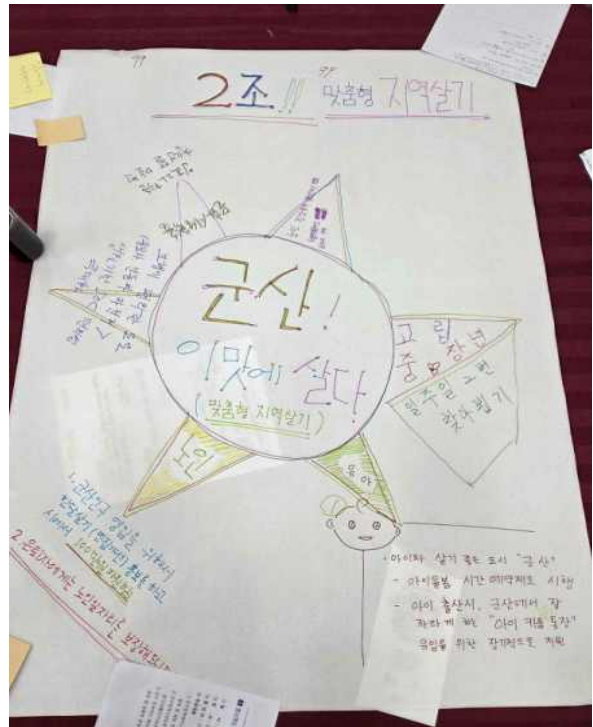
생활인구 1조



생활인구 2조



지역살기 1조



지역살기 2조